

[滿開] 현대시-해바라기의 비명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碑)스들을 세우지 말라.
화자(청년 화가 N) 죽음, 비생명, 정열이 사라진 상태 명령-단호한 의지 ⇨ 인습의 거부

• 1행 : 비생명성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표명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태양의 이미지) 삶, 생명, 정열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생명이 충만한 곳, 생동하는 삶의 모습

• 2행~3행 : 생명의 충일함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과 색채 대비) 태양을 지향하던 해바라기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쓰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활기찬 생명력 죽어서도 꿈을 간직하려는 의지 ; 꿈 = 노고지리

• 4행~5행 :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청년 화가 N을 위하여>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청년화가 N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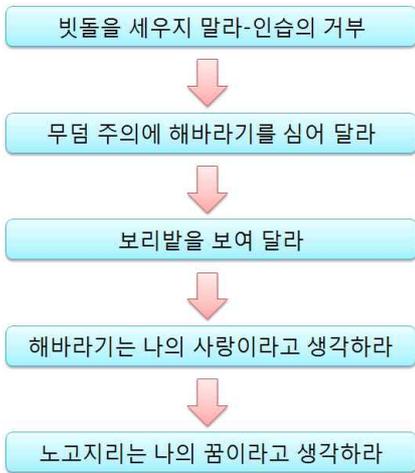
- 해제 : 이 작품은 '청년 화가 N을 위하여' 라는 부제를 붙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을 초월한 예술가의 열정과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청년 화가 N을 화자로 설정하여,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생명성을 상징하는 '차가운 비스듬' 을 거부하고 생명성을 상징하는 '노오란 해바라기' , '끝없는 보리밭' , '태양' , '노고지리' 를 지향하는 태도를 통해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또 '세우지 말라' , '심어 달라' , '보여 달라' , '생각하라' 등의 단호한 명령형의 종결 처리법을 통해 육체적 죽음의 세계를 부정하고 생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려는 화자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단호한 어조를 통해 죽음을 초월하여 진정한 예술의 세계에 도달하려는 예술가의 생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죽음을 초월한 생명에의 의지
- 구성
- 1행 : 비생명성을 거부하려는 의지의 표명
- 2행~3행 : 생명의 충일함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
- 4행~5행 :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꿈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 주제 : ① 정열적(열정적)인 삶에 대한 의지. ② 생명에 대한 ㄹ 연한 의지
- 특징
- ① 단호한 명령형
- ② 강렬한 호흡의 종결어미가 사용됨 (말라, 달라, ~하라 등의 명령형 어미)
- ③ 강렬한 색채 대비를 사용함.
- ④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를 구사함.
- 구조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해바라기' 의 의미

화자가 화가인 것을 생각할 때 시어로 쓰인 '해바라기' 는 화가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 를 연상하게 한다. '해바라기' 는 늘 해를 바라보는 식물로 정열을 상징하는데, 4행에서 '해바라기' 와 '나' 의 사랑이 동일시됨으로써 화자의 열정적인 삶이 해바라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滿開
만개

[滿開] 현대시-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①命名하기 전 ②진정한 관계를 시작하기 전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무의미한 존재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이 무의미한 존재 → 무의미한 존재였던 '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①命名하기 ②진정한 관계의 시작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명명에 의해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 옴 →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내밀한 본질과 특징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근원적 갈망 →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우리들은 모두
[너 - 나 → 우리 ⇨ 의미의 점층적 확대]

무엇이 되고 싶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로 충만한 인간 관계의 상징/몸짓 - 꽃 → 눈짓 ⇨ 의미의 점층적 확대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 →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우리'

- 김춘수, <꽃>

[나] 김춘수, <꽃>

- 해제 : 이 작품은 꽃에 대한 명명(命名) 행위를 통해 자아와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시로, 서정성보다는 주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관념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철학서처럼 난해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쉬운 시어와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연에서 '이름을 불러 주기'는 명명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누군가가 인식하기 전에는 무(無)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2연에서처럼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 주면 그는 정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기 시작한다. 3연에서는 빛깔과 향기, 곧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4연에 이르러 '우리'의 것으로 확산된다.
- 주제 : 존재의 본질 구현을 통한 진정한 만남을 소망함
- 구성
 - 01연 : 인식 이전의 무의미한 존재인 '그'
 - 02연 : 명명에 의해 존재 의미를 부여받은 '그'
 - 03연 :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나'
 - 04연 :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김춘수, 〈꽃〉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관념적, 주지적, 상징적
- 제재 : 꽃
- 주제 : 존재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 소망
- 구성
 - 01연 : 명명 이전 : '그' 는 인식되지 않은, 의미 없는 존재였음. '나' - '그' , '몸짓'
 - 02연 : 명명 이후 :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를 때 꽃은 의미있는 존재로 나와 관계를 맺음
'나' - '너(그)' -꽃
 - 03연 : 존재의 소망 : 인식의 주체인 '나' 도 대상인 '너' 에게로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함
'너(그)' - '나' -꽃
 - 04연 : 우리의 소망 : 월 모두가 진정한 관계를 맺어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함
'너' ⇄ '나' (우리)-눈짓
- 특징
 - ① 사물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배경으로 함.
예) '이름 부르기'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나' (인식의 주체), '꽃' (모든 존재) 등
 - ② 소망을 나타내는 간절한 어조를 사용함
예) ~다오, ~이 되고 싶다
 - ③ 존재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심화, 확대함
예) 인식의 주체 : '나' → '너(그)' → '우리(나와 너)'

滿開
관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옛날의 그리운 소식을 전해주듯이(그리운 소식 : 눈) / 먼 곳 : 심리적 거리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는눈,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간 // '~느노' : 에스런 어투 → 작품의 애상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01연 : 한밤에 소리 없이 훑날리는 눈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시간의 경과 : 시각적)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원관념 : 눈 [핵심 시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 02연 : 서글픈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눈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메임(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면(추억)의 공간 // 추억을 회상함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외로움 화자의 이동(처마 안쪽→뜰)

• 03연 : 애상감에 젖어 밤 뜰에 내려섬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①.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있는 듯, 환상을 보여줌. ②.환상적, 신비한 분위기. ③.공감각적(시각의 청각화), 관능적 표현)

• 04연 : 눈 내리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원관념 : 눈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노]
지나간 잘못의 뉘우침/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설렘 // [주] '후회' 와 '설렘' 의 모순 허용(역설법)

• 05연 : 눈을 보며 떠올린 싸늘한 추회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눈(차단한 : 차디찬)→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와 연결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하강적 이미지(슬픔의 깊이)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추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슬픔

• 06연 : 눈 위에 내리는 슬픔

- 김광균, <설야>

김광균, <설야>

- 감상 : 이 작품은 한밤에 눈 내리는 모습과 그 느낌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화자는 호롱불이 밝혀진 처마 끝에 서서 눈 오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 눈은 화자에게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면서 추억의 슬픔에 젖어 들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화자는 눈에 대한 느낌을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싸늘한 추회'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눈이 화자에게 다양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눈 오는 밤의 정경과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회화적 심상의 시어를 통해 서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주제 : 눈 내리는 밤에 떠올리는 서글픈 추억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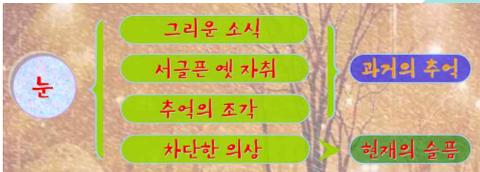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01연 : 한밤에 소리 없이 훑날리는 눈
- 02연 : 서글픈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눈
- 03연 : 애상감에 젖어 밤 뜰에 내려섬
- 04연 : 눈 내리는 소리
- 05연 : 눈을 보며 떠올린 싸늘한 추위
- 06연 : 눈 위에 내리는 슬픔

김광균, <설야>

- 성격 : 회화적, 애상적, 감각적
- 특징
 -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함.
 - 의도적으로 언어적 관습에서 벗어난 시어를 사용함.
 - 눈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투영함.
- 표현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심화되고 있다.
 - '먼—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와 같은 참신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눈' 의 비유어



滿開
만개



[滿開] 현대시-봄비

이 비 그치면

시상 유발의 매개물, 애상적 분위기 조성, 하강적 이미지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실체가 아닌 관념적 공간→전통적 이별의 공간(서러움의 극대화)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감정 이입(애상적 정서) '~것다' : 으레 그러리라고 짐작되는 것을 다짐하여 말할 때 사용 → 각운 형성, 그리움과 슬픔의 절제 효과

• 01연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올 강나루

푸르른 보리밭 길

생명력으로 가득한 공간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것다.

봄의 소생을 알리는 소재

• 02연 : 종달새가 지껄이는 맑은 하늘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시생하듯 앞다투어 피어날) 봄의 자연(대유적 표현)

처녀 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봄을 맞이한 기쁨을 만끽하는 소녀들의 모습

• 03연 : 처녀 애들이 짝하고 서 있는 꽃밭

임 앞에 타오르는

그리움의 대상

향연과 같이

(향불 연기)임의 죽음 암사-애상적 정서(완관념 : 아지랑이)

땅에서 또 아지랑이 타오르것다.

보리밭, 종달새, 처녀애, 꽃 등과 함께 '봄의 소생' 을 알리는 상층적 이미지(회자의 슬픔과 한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킴)

• 04연 : 향연같이 타오르는 아지랑이

- 이수복, <봄비>

이수복, <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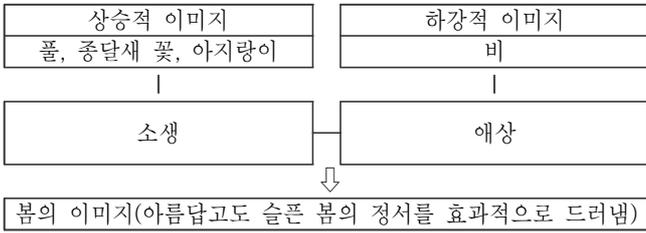
- 감상 : 이 작품은 머지않아 도래할 봄을 생각하면서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노래이다. 1연에서 화자는 맞이할 봄의 풀빛을 서러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4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 앞에 타오르는 / 향연' 으로 볼 때, 임이 부재하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지만 화자는 오히려 그런 봄을 보며 죽은 임을 더욱 그리워할 것이다. 이 작품이 봄의 생명력을 노래하면서도 전통적 애상감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주제 : 봄비 내리는 날의 애상감
- 구성
 - 01연 :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올 강나루
 - 02연 : 종달새가 지껄이는 맑은 하늘
 - 03연 : 처녀 애들이 짝하고 서 있는 꽃밭
 - 04연 : 향연같이 타오르는 아지랑이

이수복, <봄비>

- 성격 : 애상적, 관조적, 향토적
- 특징
 - ① 대립적 이미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② 각운의 사용 : '-것다' 의 담담한 말투를 반복함으로써 각운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리움과 슬픔을 절제하여 표현함으로써 관조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 ③ '봄' 에 드러나는 전통시의 특성 : 전통적인 한(恨)과 애상적 정서, 3음보의 민요조 율격, 토속어 사용으로 향토성을 드러냄, 자연 친화적 태도
- ④ 향연(香煙) : 화자의 애상적 정서의 원인을 알 수 있음(임의 죽음)
- ⑤ 서러운 풀빛 : 임의 죽음으로 인한 감정 이입

• 주요 시어 · 시구

- 이 비 그치면 : 봄의 생동감이 실재가 아니라 관념임을 나타내는 시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 : 화자가 마음으로 떠올린 관념의 공간
- 서러운 풀빛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됨.
- 보리밭길, 하늘, 종달새, 꽃밭, 처녀애들, 아지랑이 : 봄의 생명력
- 향연 : 임의 죽음을 암시, 화자가 서러움으로 느끼는 이유

滿開
한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장수산1

[별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¹⁾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²⁾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즉도 하이 다람뒤도 좇지 않고 뉘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빠를 저리우는데³⁾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⁴⁾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⁵⁾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⁶⁾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⁷⁾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⁸⁾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⁹⁾ 오오 견디란다¹⁰⁾ 차고 울연히¹¹⁾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¹²⁾

1)아람드리. 2)나무를 베서 쓰러뜨리면 산이 울릴 정도로 깊고 울창하다는 의미. 3)빠에 사무치는 적막감. 4)눈 덮인 장수산의 겨울 밤이 좋아 보 다 희다(장수산의 절경) 5)하얀 보름달이 뜬 장수산의 밤. 6)한밤중에 이 골짜기를 걸으라는 뜻인가? 7)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탈속적 태도, 무욕의 삶의 자세. 8)탈속적 태도를 분반게 하려는 것인가? 9)산의 고요함 앞에서 내면의 시름에 흔들리고 있는 화자. 10)화자의 '시름'에 대하여 장수산이 주는 가르침(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있음) 11)장수산에서 슬픔이나 꿈이나 하는 것들을 하얀 고요함 속에 묻어 버리겠다는 다짐의 표현. 12)겨울 장수산의 고요 속에 인간적인 마음(슬픔, 꿈)은 묻어 두고자 함.(시행 중결의 거부 - 호흡을 지속시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 별목정정~걸음이란다? :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적막함
- 웃절 중이~좇는다? : 웃절 중에게서 느껴지는 자족과 여유의 정신
- 시름은~흔들리우노니 : 시름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
- 오오~한밤내- : 장수산의 고요 속에 묻힌 슬픔과 꿈

- 정지용, <장수산>

※ 별목정정 : 나무를 베는 소리가 '정정' 함. '정정' 은 의성어. ※ 조희 : 종이. ※ 조찰히 : 조출히, 말쑥하고 안전하게. ※ 울연히 : 홀로 우뚝하니.

정지용, <장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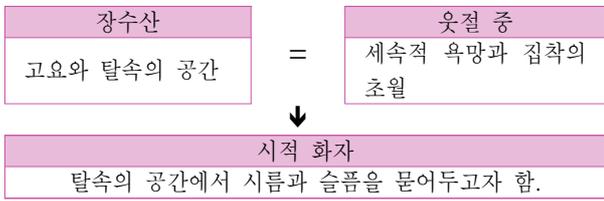
- 감상 : 이 작품은 겨울 달밤의 산속의 이미지를 통해 세속의 가치와 단절된 채, 자연과 하나가 되어 무욕(無慾)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장수산' 은 절대 고요의 공간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자족과 여유를 지니고 있는 도승뿐이다. 도승은 장수산의 신비와 고요를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장수산과 도승처럼 세속의 일을 잊은 채 절대 고요에 잠기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의식의 연속적인 흐름과 긴밀성을 드러내기 위해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았고, 일부러 '-이랬거니', '-고녀', '-이란다?', '-는다?', '-노니' 등 고어풍의 시어를 사용하여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장수산의 고요와 탈속에 대한 화자의 염원
- 구성
 - 별목정정~걸음이란다? :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적막함
 - 웃절 중이~좇는다? : 웃절 중에게서 느껴지는 자족과 여유의 정신
 - 시름은~흔들리우노니 : 시름에 흔들리는 화자의 내면
 - 오오~한밤내- : 장수산의고요 속에 묻힌 슬픔과 꿈

정지용, <장수산>

- 성격 : 감각적, 동양적, 은일적
- 제재 : 장수산의 겨울밤
- 어조 : 독백적 어조
- 특징
 - ①고요한 산중의 정경을 시각적 심상으로 형상화하고 화자의 내면 의식과 절묘하게 조화사킴
 - ②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고, 산문시의 형태를 취함
 - ③시행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생략함
 - ④의문, 영탄의 어조로 자연에서 받은 화자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① 의고형 어미를 사용하여 신비스럽고 동양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② 영탄, 의문의 어조로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경과 분위기를 형상화함.
- 작품 구조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장수산' 의 주제의 형상화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산길에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도시에서 무엇이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그들의 부질없는 되풀이일망정 바람과 풀꽃들의 내음을 맡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됨)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 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길을 따라 떠나고 싶은 욕구

• 01행~05행 : 산길에서 가슴 벅참을 느낀 까닭을 아는 나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말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라
바람과 풀꽃의 내음을 말고 싶어 떠남→각박한 도시에서 떠남

• 06행~08행 :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나는 나
 무엇이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삶의 무게에 허덕이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길을 다져 놓고 감(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법)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 09행~12행 : 산길을 만든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은 나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사소하고 부질 없는 듯한 사람들의 흔적이 되풀이되어 쌓이면 어떤 의미와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 냄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 13행~17행 : 산길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나

- 이성부, <산길에서>

이성부, <산길에서>

- 감상 : 이 작품에서 화자는 산에 오르는 체험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전에 누군가 만든 길을 따라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길은 먼저 간 사람들의 흔적이나 성과이며, 또 앞으로 지속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길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물리적 공간일 수도 있지만, 역사의 은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땅의 선인들이 꾸준히 쌓고 쌓아서 만든 길, 즉 역사로 인해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화자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이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유를 자각하게 된다.
- 주제 : 산길을 오르며 느낀 감동과 깨달음
- 구성
 - 01행~05행 : 산길에서 가슴 벅참을 느낀 까닭을 아는 나
 - 06행~08행 :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 나는 나
 - 09행~12행 : 산길을 만든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은 나
 - 13행~17행 : 산길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①화자의 내면을 비춰주는 '스크린' 의 기능 ②사색과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매개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머릿속에 흘러가는 의식들(의식의 흐름)

이 흰 바람벽에

흰색 :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삶을 환기함

희미한 심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가난한 삶의 암시 희미하게 비추는 불빛

[때 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오래동안 땀과 때에 절은, 때가 묻어 검게 된 // [] 가난한 삶의 암시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단술 비의도적, 무의식적 생각의 흐름 → '의식의 흐름' 기

법

[01~06행] 바람벽에 쓸쓸한 영성들이 비침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의도하지 않은 의식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리움의 대상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추위' 를 시간적으로 표현함) 가난한 어머니의 삶의 모습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움의 대상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아랫녘, 남쪽지방 //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開浦)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사랑하는 이의 행복한 모습 → '나' 의 슬픔, 쓸쓸함

[07~16행] 바람벽에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남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즈음에 이르러, 시간이 그리 많이 흐르지 않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주제: 글자들)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의식의 흐름 → 참고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현실과 화합할 수 없는 '높은 존재' 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열정 이상, 꿈

[17~23행] 자신의 운명에 대해 인식함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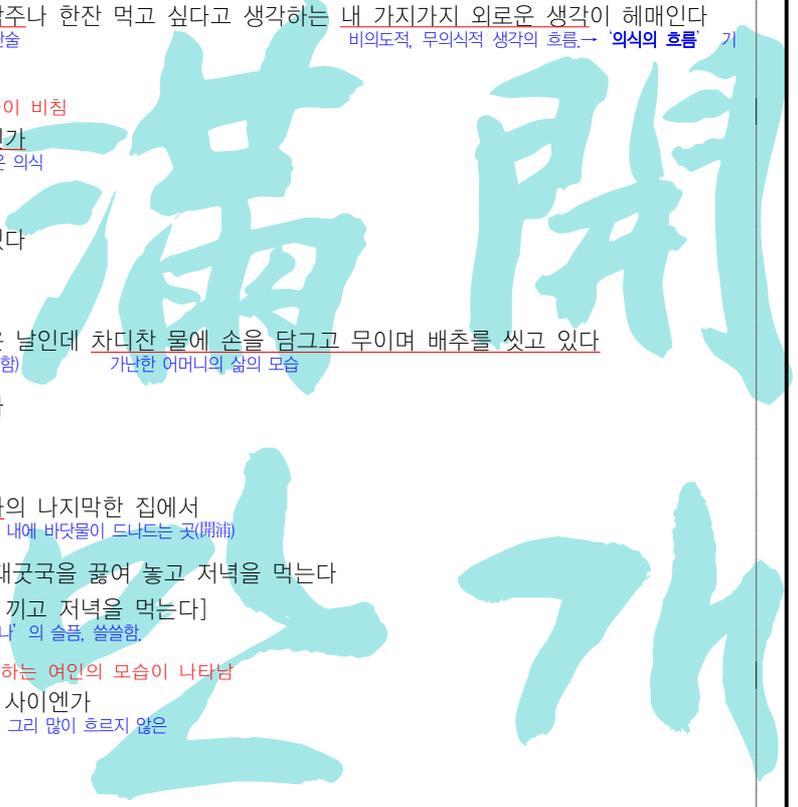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눈 흘김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초원적 존재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고매한 정신을 가진 존재’ 아니 // [] > 가난하지만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짜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박꽃 뱀새

그리고 또 [‘프랑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 고매한 존재들,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들 → 자신도 그들처럼 가난하고 외롭지만 고결한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

[24~29행] 자신의 운명을 하늘의 은총이라고 생각함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해제 : 시적 화자는 흰 바람벽에 투사된 내면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좁다란 방’ 은 자신의 처처가 좁고 누추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흰 바람벽’ 은 그렇게 누추한 살림 속에서도 내면의 정결성은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마치 극장의 영사막과도 같은 흰 바람벽에 화자의 내면에 명멸하는 여러 가지 추억과 회한의 장면들이 투사된다. 화자는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고 하여 자신의 삶이 숙명적으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희미한 십오 축 전등’, ‘지치운 불빛’, ‘때에 그을린 ‘낡은 무명 셔츠’, ‘어두운 그림자’ 등은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과 우울하고 외로운 내면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낸다. 그래서 화자는 달고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는 지극히 소박한 희망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과는 달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영사막 같은 흰 바람벽에는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이 투영된다. ‘가난한 늙은 어머니’ 와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을 그리워하고 그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담아 둔 생각들이 글자의 형상으로 바람벽에 투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는 운명적 자존 의식은 가혹한 삶 속에서 그를 지켜 주고 위로하는 동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주제 : 고단한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안과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 구성
 - 1행~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쓸쓸하고 애처로운 삶의 단면
 - 7행~16행 :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
 - 17행~23행 : 흰 바람벽에 비친 화자의 내면 인식
 - 24행~29행 :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극복 의지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표현상의 특징

화자는 오늘 저녁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영상들과 글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음.



-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흰 바람벽에 영상으로 나타날 뿐 원경과 근경의 구분이 없음.
- 현재의 상황과 화자의 내면 독백이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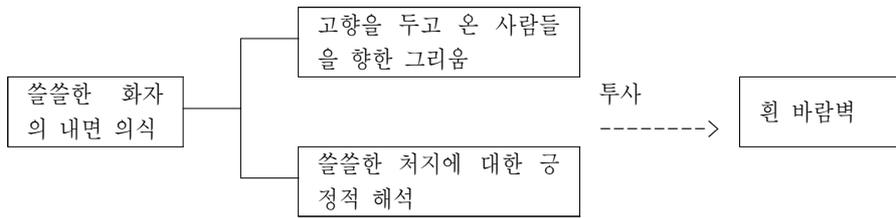
• 시어와 시구의 의미

좁다란 방, 지치운 불빛, 낡은 무명 셔츠	창작 당시의 어려운 처지를 반영함.
흰 바람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흰색의 이미지를 통해 쓸쓸함의 정서를 표출함. ‘흰 바람벽’ 역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함. • ‘바람벽’은 영화의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여 화자의 삶의 일면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여 줌.
글자들	화자의 생각들,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글자의 형상으로 바람벽에 투영된 것임.
‘프랑스 잼’과 ‘도연명’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로, 가난하지만 고결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적 지향을 드러냄.

• ‘흰 바람벽’ 의 기능

이 시에서 흰 바람벽은 제목이자 핵심 소재에 해당한다. 흰 바람벽은 영화의 하양 스크린과 닮아 있는데,

시적 화자는 이 흰 바람벽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자신의 삶의 궤적을 재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에서 흰 바람벽은 시적 화자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삶의 조각들을 연상하는 시적 장치이자, 그의 미래의 삶의 좌표와 자세를 다짐해 보는 성찰을 위한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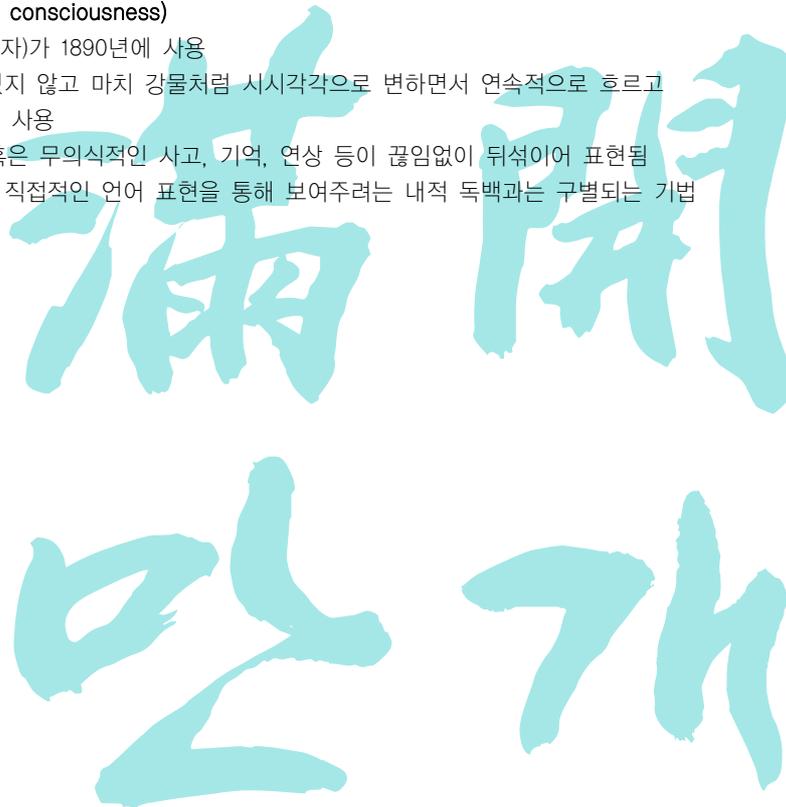


• ‘달디단 따끈한 감주’ 의 의미

화자는 좁다란 방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화자가 ‘달디단 따끈한 감주’ 를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화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 참고 :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 윌리엄 제임즈(미국 심리학자)가 1890년에 사용
- 인간의 의식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치 강물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
- 등장인물(화자)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사고, 기억, 연상 등이 끊임없이 뒤섞이어 표현됨
- 의식적으로 제어된 사고를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보여주려는 내적 독백과는 구별되는 기법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가을 떡갈나무 숲

떡갈나무숲을 걷는다. 떡갈나무잎은 떨어져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공간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떡갈나무 숲이 다른 생명들에게 주는 혜택 ①

빼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떡갈나무 숲이 다른 생명들에게 주는 혜택 ②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떡갈나무 숲이 다른 생명들에게 주는 혜택 ③

• 1연 : 생명체들을 품어 주는 떡갈나무 숲

이 숲에 그득했던 풍덩이들의 흔레,
여름 한철 가득했을 풀벌레들의 만남과 사랑

그 눈부신 날개짓소리 들릴 듯한데,
공감각청각의 시각화

텃새만 남아

산 아래 공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공밭에 뿌려 둔 곡식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있음(공감각 : 청각의 시각화)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 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 2연~3연 : 가을 떡갈나무 숲의 풍경

나는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주체와 객체의 역전적 배치(주객전도) - 하늘과 완전히 일체감을 이룸

이 떡갈나무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자연과의 교감(몰아일체)

• 4연 :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

떡갈나무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사랑과 순수의 공간

어느 산짐승이 허로 활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자연과 자연의 교감

젓꼭지처럼 까맣다.
'떡갈나무 열매'의 비유, 색채 이미지

• 5연 : 떡갈나무 숲의 포용력과 정감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정서의 직접적 표출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슬픔'의 시각적 현상화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뺏에 대 봐,
자연과 화자의 교감(동화) - '손'의 원관념 : 낙엽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6연 :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받는 위로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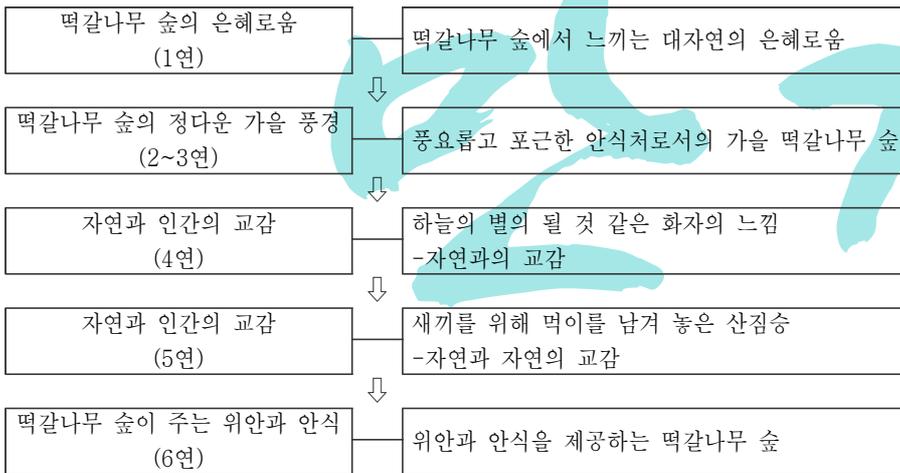
<http://blog.daum.net/hachunman>

- 해제 : 떨어진 떡갈나무 잎은 숲에 사는 너구리나 오소리, 벌레들이 안주할 수 있는 집이 되어 주며, 숲은 짝짓기 하는 풍뎡이나 자유롭게 뛰노는 노루의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숲에서 화자는 하늘이 자신을 들이마시는 것 같고, 자신이 숲을 다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뒤에 올 새끼를 위해 남긴 듯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숲의 사랑과 정감을 느끼며 화자는 숲에 깊이 동화된다. 그래서 화자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인 '가을 떡갈나무 숲' 으로부터 자신의 외로움과 쓸쓸함,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위안을 얻는다. 즉 이 시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낙원의 모습으로서의 숲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
- 구성
 - 1연 : 생명체들을 품어 주는 떡갈나무 숲
 - 2연~3연 : 가을 떡갈나무 숲의 풍경
 - 4연 :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
 - 5연 : 떡갈나무 숲의 포용력과 정감
 - 6연 : 떡갈나무 숲으로부터 받는 위로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갈래 : 서정시, 자유시
- 제재 : 가을의 떡갈나무 숲
- 주제 :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
- 특징
 - ① 명징하고 서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합일에 관하여 노래함.
 - ② 대자연의 숨결 속에 동화되는 여러 생명체와 인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 ③ 떡갈나무에 대한 의인화의 방법이 나타남.

• 작품 구조



■ 자연과의 일체감

공동체의 기본 바탕은 자연이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자연은 연대하여 함께 살아갈 친구 같은 존재였다. 동양적 자연관은 이러한 공존과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 '떡갈나무 숲' 의 가치

떡갈나무 숲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그곳은 어떤 부정적인 요소도 끼어들 틈이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 떡갈나무는 다른 존재에게 기쁘게 자신을 내어 준다. 그래서 이곳의 생명은 떡갈나무에게 위안과 포용을 얻으며 평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화자는 떡갈나무 숲을 걸으며 떡갈나무가 어떻게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는지를 본다. 떡갈나무는 그 옆으로 너구리나 오소리처럼 따뜻한 털이 되어주며, 뾰기집도 되어 주고, 벌레들의 알집도 되어 준다. 겉보기엔 보잘것없는 떡갈나무 잎이 숲에 사는 많은 동물과 곤충들이 안주할 수 있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떡갈나무 숲에서 시인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깊숙이 동화되게 된다. '하늘이 깊숙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라는 시구는 시인이 자연과 일체된 상태를 잘 보여 준다. 이 시에서 떡갈나무 숲은 인간을 비롯하여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제 몫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화해로운 장소인 것이다.(최동호)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화사

사향 박하의 뒤안길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집 뒤편으로 난 좁은 길(꽃땀을 발견한 장소)

아름다운 배암……
원시적 생명력의 상징

얼마나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뚱어리나.

• 1연 : 꽃땀의 아름답고 징그러운 양면성

꽃대님 같다.
화사의 비유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達辯)의 헛바닥이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하느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신화의 차용

소리 잃은 채 널롱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 물어뜯어라, 원통히 물어뜯어,
하느님의 표상 소리를 잃은 뱀의 원한: 벌을 내린 하늘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몸짓

• 2연 : 화사의 구체적 형상과 성격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뱀에 대한 저주와 증오

• 3연 : 화사에 대한 화자의 증오

[돌팔매를 쓰면서, 쓰면서, 사향 방초(芳草)길
뱀에 대한 공격적 행위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자식에 빠지고 싶지 않은 도덕적 행위와 뱀의 관능미에 유혹당하는 본능적 행위가 동시에 나타남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죄를 안겨 준 뱀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서 돌팔매질을 한 것이 아니라

석유 먹은 듯……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관능적인 유혹에 이끌리는 본능적인 증오에 이끌리고 있음의 뜻함(…… : 숨겨진 호흡을 시각화함)

바늘에 꼬여 두를까 부다. 꽃대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상태

• 4연~5연 : 꽃땀에 대한 화자의 공격성과 관능적인 존재인 꽃땀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머러! 배암,
관능적이고 황홀한 뱀의 육감적인 아름다움 관능적인 욕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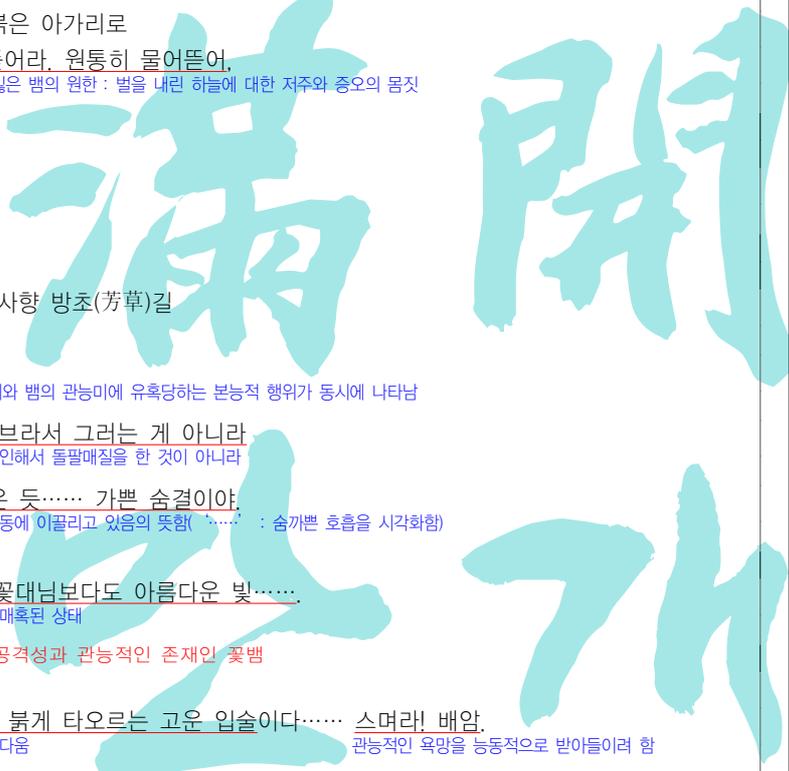
• 6연 : 소유하고 싶은 꽃땀의 아름다운 빛

우리 순네는 스물 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운 입술…… 스머러! 배암,
순박한 '순네'에게 내제된,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형상화(뱀의 매력) '순네'에게 전이됨(뱀의 관능적 아름다움과 결부시켜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강력하게 드러냄.

• 7연 : 관능과 생명력의 고조

- 서정주, 〈화사〉

※ 꽃대님: 고운 색과 무늬가 있는 천으로 만든 대님. 대님은 한복 바지의 발목을 졸라매는 끈을 말함.



서정주, <화사(花蛇)>

- 해제 : <화사>는 서정주의 첫 시집인 『화사집』의 표제작으로 ‘꽃뱀’에 대한 매혹과 혐오라는 상반된 감정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본능적 욕망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를 상징하는 저주스러운 동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욕망을 표상하고 있는 동물이다. 시 속에서 화자는 화사로 상징되는 순네의 관능적 매혹에 탐닉하기도 하고, 본능적 충동과 죄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 주제 : 인간의 원죄 의식과 원초적 생명력에 대한 갈구
- 구성
 - 1연 : 꽃뱀의 아름답고 징그러운 양면성
 - 2연 : 화사의 구체적 형상과 성격
 - 3연 : 화사에 대한 화자의 증오
 - 4연~5연 : 꽃뱀에 대한 화자의 공격성과 관능적인 존재인 꽃뱀
 - 6연 : 소유하고 싶은 꽃뱀의 아름다운 빛
 - 7연 : 관능과 생명력의 고조

서정주, <화사>

- 성격: 낭만적, 주정적
- 표현: 감각적 표현이 전면을 지배하고, 악마주의적 기법과 반복법, 점층법 등이 구사됨
- 제재: '배암'과 순네의 고운 입술

『해설과 감상』

제 1시집 <화사집>의 표제가 된 작품. 이 시는 감각적 표현의 매력과 원시적 생명력의 추구 내지 갈구라는 왕성한 시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아름답고 유혹적인 뱀의 고운 입술을 통하여 젊은 날 관능의 대상이었던 ‘우리 순네’의 입술을 연상하게 되므로 ‘배암’은 관능적 상징의 대상이 된다. 배암이 순네이기도 하고 순네가 곧 배암인 것이다. 이처럼 배암을 통한 순네에의 관능은 묘한 죄의식을 동반하고, 그러한 관능과 죄의식이 혼재된 양면성이 이 작품을 더욱 격렬한 야성으로 이끌면서 크나큰 충격을 준다. 서정주의 시는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시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중성이 ‘화사’에서는 징그러운 모습과 꽃대님 같이 아름다운 빛깔을 한 뱀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향, 박하 향기를 내뿜는 풀잎 우거진 산 뒷길에서 배암을 만났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징그러운 그 모습에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온몸에 울긋불긋 꽃무늬를 그린 배암의 몸뚱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움(美)과 징그러움(醜)의 두 모습을 한 매혹적인 배암은 원시적 생명력의 상징으로 이율배반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아름다운 꽃뱀의 빛깔을 우리 전통 의상의 일부인 꽃대님 같다고 말한 것도 알록달록한 꽃대님은 어린 시절의 향수이고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신비한 빛깔이며, 길다란 뱀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는 감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순네’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의 기능도 하고 있다. 그 배암의 뱀머리는 붉은 아가리가 푸른 하늘을 물어뜯으려는 듯이 독기를 내 품는다. 배암은 인간의 원죄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악마적 대상이다. 악마는 천사의 이면인 것처럼, 배암은 악마로서 인간의 영원한 증오의 대상인 동시에 다시 없는 강렬한 유혹의 대상이다. ‘이브를 꼬여 내던 달변의 헛바닥’이 저주스럽고 징그러운 몸뚱아리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배암은 저주와 유혹이 교차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독기를 내 뱀은 배암을 향해 돌팔매를 쏘면서 ‘석유 먹은 듯’이 숨을 가쁘거리며 그 뒤를 따른다. 그 뒤를 따르는 이유는, 저주와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배암의 강한 생명력에 대한 매혹과 동경과 갈구때문에, 숨이 끊길 듯 아찔한 숨결을 내뿜으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는 구절은 ‘대가리’에서 암시된 남근의 충동과 배암의 생명력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드러난다. 이것은 클레오파트라와 붉은 피에 의해 인간에 대한 욕망으로 옮겨져 어린 시절 관능의 대상이었던 ‘스물난 색시, 우리 순네’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스며라!’는 배암으로부터 유발된 원시적인 강렬한 생명력이 현재의 화자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감한 생략법과 감각적인 표현으로 관능과 원시적 생명력을 한껏 고조시킨 작품으로 주제는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추구’이다.



밤의 식료품 가게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어두운 공간

케케묵은 먼지 속에
부정적인 현실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죽은 뒤에도 하루하루 더 훼손되어 가는(생명력을 잃어가는)]

복어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한 상품

복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확일화된 복어(현대인)의 모습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사고능력을 잃어버린 모습, 정신적인 죽음 // (독자에게 말하는 형식)

• 1행~8행 :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복어의 모습
한 개의 허가
(복어 20 마리)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생각이 굳어버림, 사고능력을 잃어버림,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할 말을 속 시원히 못하는 사람들, 진실을 용기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복어→현대인)]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복어들의 뺨뺨한 지느러미.]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 상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상실→관찰에 의한 날카로운 묘사]

막대기 같은 생각
굳어버린(확일화된)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이상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각성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화려한 겉모습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는, 삶의 지향을 잃어버린 사람들(현대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 9행~19행 : 복어의 모습을 통한 무기력한 현대인 비판
느닷없이
반전(이상 전환)→타인을 향한 비판에서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김

복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조소하는 모습

거봐,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너도 복어지
[환청]사고력, 용기, 희망 상실, 결단 화려한 전망 없는 현대인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화자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비판 의식과 삶에 대한 반성)

• 20행~23행 : 비판의 대상이 된 화자

-최승호, <복어>

최승호, <복어>

- 해제 : 이 시는 꼬챙이에 꿰여 구멍가게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말라 가는 복어처럼, 현대인들의 삶이 한없이 작고 딱딱하게 오그라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이다. 전반부에서는 꼬챙이에 꿰여 있는 복어의 모습을 묘사하다가, 거기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그 현대인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에 대해 연민을 느끼다가 순간적으로 그 북어의 모습이 자신의 초상인 것처럼 느낀다. 곧 시적 화자를 포함한 우리 시대의 인간들은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 이고, '막대기 같은 생각' 을 하고 있으며,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 인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동원하여 추상적 주제를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 주제 :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 구성
 - 1행~8행 : 식료품 가게에 진열된 북어의 모습
 - 9행~19행 : 북어의 모습을 통한 무기력한 현대인 비판
 - 20행~23행 : 비판의 대상이 된 화자

최승호, <북어>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회 비판적, 풍자적, 상징적, 반성적, 자조적
어조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차분한 반성적 어조 •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
제재	북어
주제	① 비판 정신과 삶의 지향점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② 희망 없는 굴종의 삶에 대한 비판과 반성, 꿈을 잃은 현대인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제재를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제재에 대해 생생히 묘사하여 추상적 주제를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③ 제재의 속성을 통해 동시대의 삶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현함. ④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⑤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반전되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나타남. ⑥ 유추를 통해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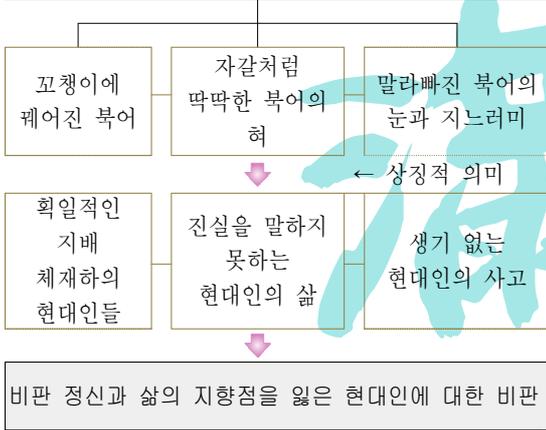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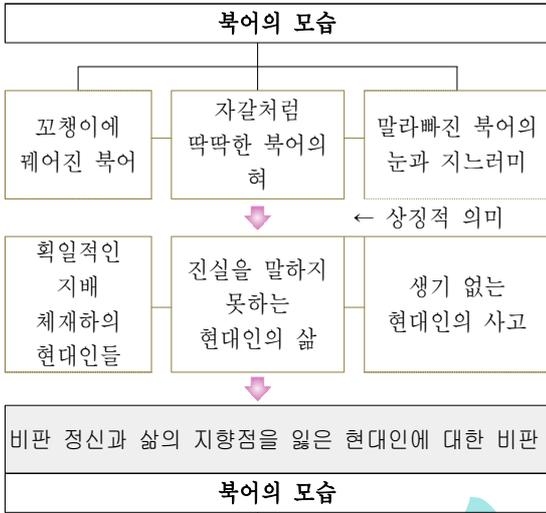
개성적 표현

시각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뻣뻣한 지느러미 •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비유적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상상적 표현	<p>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떡떡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p>

滿開(만개) : 북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복어' 의 의미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무서움의 깊이-현실의 비정함, 냉정함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순수한 꿈의 표상, 낭만적 동경을 가진 존재 // 냉혹한 현실(근대문명)

• 1연 :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나비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 나비의 순진함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나비의 연약성 냉혹한 현실에 부딪쳐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현실감각이 없는 순진한 존재-나비의 좌절, 시련

• 2연 : 물결에 날개가 절어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

삼월(三月) 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무생명성, 불모성 / 꽃 : 궁극적 추구 대상(생명)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좌절 의 공간감적 표현(시각의 축약화)

• 3연 : 바다의 무서움을 알게 된 나비

- 김기림, <바다와 나비>

김기림, <바다와 나비>

- 해제 : 이 작품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던 화자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낀 냉혹한 현실 인식을 그리고 있다. 1연에서 ‘바다’는 깊은 수심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세계이지만, ‘나비’는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 순진한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2연에서는 바다에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나비를 통해 동경하던 세상에 대한 도전의 결과를 보여 준다. 3연에서는 바다의 무서운 깊이를 알게 된 나비의 지친 모습과 냉혹한 현실 풍경이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는 바다와 나비라는 강약, 청백의 이미지 대비가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모더니즘 시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 구성
 - 1연 :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 2연 : 물결에 날개가 절어 지쳐서 돌아오는 나비
 - 3연 : 바다의 무서움을 알게 된 나비

김기림, <바다와 나비>

- 성격 : 주지적, 상징적, 감각적, 묘사적
- 제재 : 바다와 나비
- 어조 : 객관적이고 간결하며 단호한 목소리
- 특징
 - ① 흰색과 푸른색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② 냉정한 어조로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킴.
 - ③ 서글픔과 애처로움이 뒤섞인 관조적 미의식이 돋보임.
 - ④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추상적 관념을 표현함.

나비의 상징



- 수심도 모른 채 바다로 내려가다
→ 천진함, 무모함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다
→ 나약함, 연약함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다
→ 순진함, 애처로움

이상을 추구하는 순수하고 낭만적인 꿈
30년대 후반의 나약한 지식인(이미지스트)

바다의 상징



- 수심을 알 수 없다
→ 공포감, 냉혹성
- 꽃이 피지 않는다
→ 무생명성, 불모성

냉혹한 현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근대문명

바다와 청무우밭

바다



비생명성
냉혹성

대조적

청무우밭



생명성
이상 공간

• 1930년대 한국 현대시에서의 모더니즘

1930년대 현대시에서 모더니즘을 이끌어 가던 인물은 평론가인 최재서와 시인인 김광균, 장만영 등이었다. 이들은 영국의 현대 시인인 엘리엇과 파운드 등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주로 이전의 시가 지녔던 낭만적이고 음악적이며, 주정적인 시적 태도나 경향파 등의 내용 편중의 문학을 거부하고, 도시적 감성과 문명 비판의 요소를 지닌 주지적이고 기교적인 시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에서는 감정이 배제되고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한편, 전통보다는 변혁을 위주로 한 '오감도' 등 이상의 시는 서구의 초현실주의나 미래파와의 친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한모, <나비의 여행>

- 성격: 주지적, 상징적, 감각적, 현실 고발적, 동화적
- 심상: '어둠'과 '밝음', '공포'와 '사랑', '현실'과 '꿈'의 심상이 대비되어 있음
- 특징: 서사적 구조, 희곡적 화법, 감각적 표현
- 시상 전개: 서사적이면서 희곡적인 내면 구조가 횡축이라면, 나비(아가)로 상징되는 화자의 여행이 종축을 이루면서 심상의 교직(交織)을 이룸
- 제재: (전쟁이 남긴 반문명적 상황 앞에 선) 아가

[滿開] 현대시-나비의 여행(아가의 방5)

아가는 밤마다 길을 떠난다
나비, '순수'의 상징

하늘하늘 밤의 어둠을 흔들면서
'아가'가 꿈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

수면(睡眠)의 강을 건너
빛 뿌리는 기억의 들판을
회려한 추억의 세계

출렁이는 내일의 바다를 날으다가
희망이 넘치는 미래

깜깜한 절벽
전쟁 - 절망과 좌절의 요소

헤어날 수 없는 미래에 부딪치곤
혼란과 공포의 현실

까무러쳐 돌아온다
한 장 검은 표지를 열고 들어서면
어둡고 무서운 꿈의 세계로 들어서면

아비규환(阿鼻叫喚)하는 화약 냄새 소용돌이
전쟁의 참상

전쟁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전쟁터의 표면

파란 공포의 강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전쟁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좌절감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 1연 : 밤마다 악몽을 꾸는 아가

꿈에서 지금 막 돌아와
무서운 꿈에서 막 깨어나

꿈의 이슬에 촉촉이 젖은 나래를
내 팔 안에서 기진맥진 접는
아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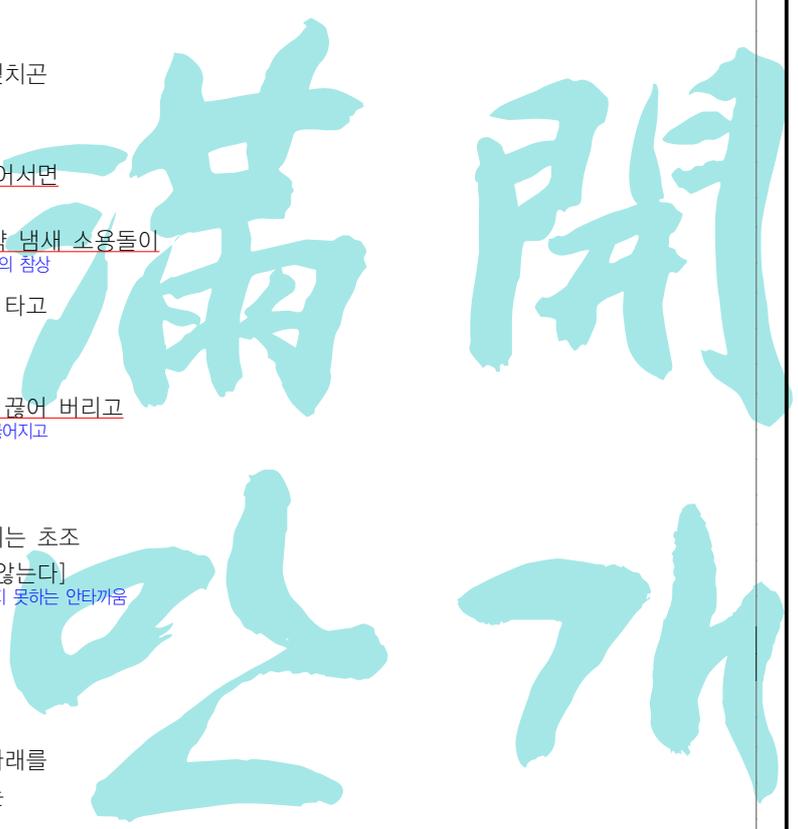
오늘은 어느 사나운 골짜기에서
공포의 현실

공포의 독수리를 만나
아가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 - ①전쟁의 공포 ②비인간적인 현대 문명

소스라쳐 돌아왔느냐

• 2연 : 악몽을 꾸 아가를 위로하는 화자

- 정한모, <나비의 여행 - 아가의 방(房)5>



[滿開] 현대시-도봉

산새도 날러와
우짚지 않고,
적막감, 고독감

구름도 떠가곤
정처 없는 존재

오지 않는다.
적막감, 고독감

인적 끊인 곳,
단절감

홀로 앓은
(서경 속)외로운 서정적 자아

가을 산의 어스름.
시간적, 공간적 배경(자아)의 고독한 모습이 투영됨 / '산' : 객관적 상관을

• 1연~3연 : 가을 산의 적막한 정경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누군가를 / 자신에 대한 의문과 외로운 자아의 정서

울림은 헛되이
빈 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그늘 길게 늘이며
자연과의 교감이 삶에 대한 관조적 자세로 전환됨

붉게 해는 넘어가고
넘어가는 해(허전함의 심상)를 보면서 삶을 관조함(자연 친화의 자세)

황혼과 함께
고통의 시간

이여 별과 밤은 오리니,
점점 어두워가는 시간적 흐름과 대비하여 자신의 심정도 점차 우울해지는 정서 변화를 암시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현실적 외로움이 자연의 분위기와 어울려 '임' 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연결됨

• 4연~8연 : 적막한 풍경 속에 있는 '나' 의 외로움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그대를 향한 그리움의 시간, 삶과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 // 성찰의 어려움에서 오는 슬픔, 채워지지 않은 그리움에서 오는 슬픔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서정적 자아의 사랑(외로움)을 채워 줄 존재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감정(그리움)의 고조와 여운을 남기는 표현

• 9연~10연 : '그대' 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 박두진, <도봉(道峯)>



박두진, <도봉(道峯)>

- 해제 : 이 시는 가을 도봉산을 배경으로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해가 막 저물려고 하는 무렵부터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까지의 시간 변화에 조용하는 시상의 전개 과정에서 묘사나 서술의 대상 역시 대체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외부 세계에서 내면 심리로 변화하고, 작품의 분위기도 조용한 사색의 분위기에서 짙은 우수를 띤 분위기로 조금씩 변화해 간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 외로운 가을 산에서 떠올린 인생의 쓸쓸함과 사랑의 괴로움
- 구성
 - 1연~3연 : 가을 산의 적막한 정경
 - 4연~8연 : 적막한 풍경 속에 있는 '나' 의 외로움
 - 9연~10연 : '그대' 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박두진, <도봉>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관조적, 사색적, 서정적
- 심상: 시각적, 청각적 심상
- 제재: 가을 산
- 어조: 독백적 어조
- 특징: ①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 ②영탄적, 독백적 어조 ③ 자연과 인간의 상호 조응적 관계 ④ 어미의 과감한 생략으로 시적 여운의 효과
- 시상 전개: ①석양 무렵부터 황혼,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② 원경(遠景)에서 근경(近景)으로 묘사됨
- 제재: 가을 산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낯은 썩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 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름의 집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터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 병신 오리를 잡는다.

- 귀향이라는 말을 ~ 서로 박치기한다. :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집의 풍경
- 허리 굽은 ~ 오리를 잡는다. : 가난하지만 따스한 가족의 모습

- 최두석, <낯은 집>

최두석, <낯은 집>

- 해제 : 이 시는 평범한 농가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따뜻한 정이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감정의 직접적 노출을 자제한 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를 구사한 점, 익살스러운 상황 제시 속에 가족의 구체적 생활상을 녹여 넣은 점 등을 통해 가난한 가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주제 : 가난한 고향 집 풍경과 따뜻한 가족애
- 구성
 - 귀향이라는 말을 ~ 서로 박치기한다. :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집의 풍경
 - 허리 굽은 ~ 오리를 잡는다. : 가난하지만 따스한 가족의 모습

최두석, <낯은 집>

- 해제 : 이 시는 담담한 어조로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하듯이 화자의 가족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작품이다. 생활의 구체적인 단면을 감정을 절제한 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익살스러운 상황을 배치하여 가난한 삶이지만 그 속에 존재하는 웃음과 잔잔한 애정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보여 주면서 가족과 고향집의 모습을 세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 특징
 - ① 산문적 진술을 사용하고 있다.
 - ② 담담한 어조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인터넷-하느님 고국은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사소한 일, 문제의 본질이 아닌 일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정부, 역사의 차용 정부의 독재와 권력의 부조리-본질적 문제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사소한 일 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자신을 '옹졸하다' 고 표현하여 자조(自嘲)함

옹졸하게 욕을 하고

• 01연 : 권력의 부패 대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실제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사소한 일 ②]

• 02연 : 사회의 부조리 대신 작은 일에만 반항하는 '나'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 '옹졸' 한 '전통' 이 오래되어 '정서' 로 물에 배어 있음을 자조함]

이들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第十四)야전 병원(野戰病院)에 있을 때
시인은 6.25 당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적 있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간호사(nurse) 시적 화자가 해야 할 일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정보원이 생각하는 사소한 일

너어스들 옆에서

• 03연 :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나' 의 옹졸한 태도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
비본질적인 일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비본질적인 일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개나 아이같은 약한 존재에게도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무기력하고 옹졸한 자신의 삶 때문에 은행잎 길조차 가시밭길 같아 마음이 불편한 자신에 대한 비판

• 04연 : 왜소한 '나' 의 옹졸한 반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실천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모습 불의에 저항하는 그 한복판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중심에서 벗어난 곳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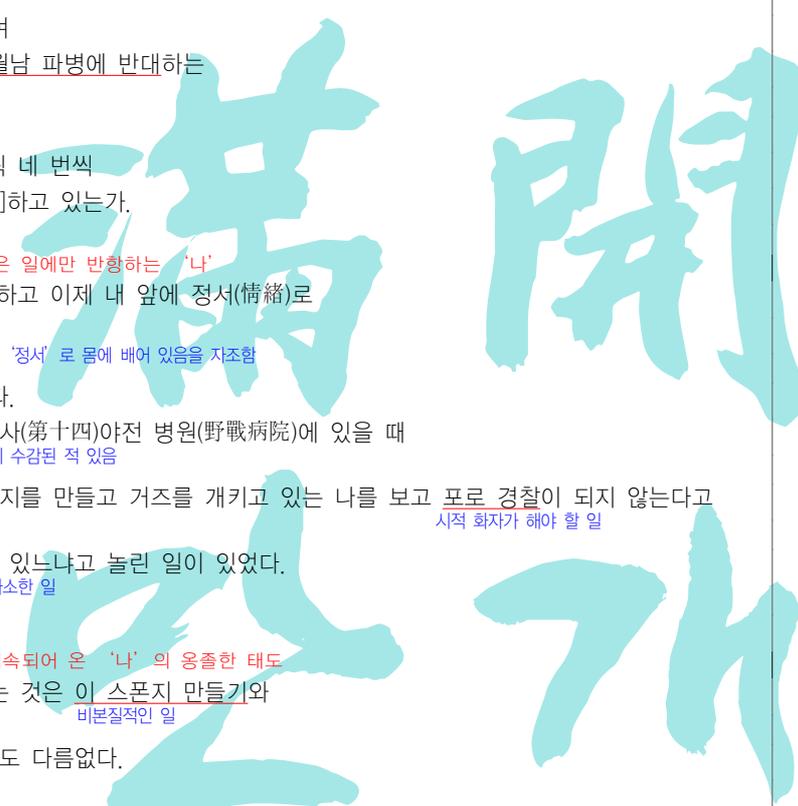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비겁한 것이라는 반성은 있으나 '조금쯤' 이라는 단어를 통해 절대적이지 못함을 표현,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었음을 의미함

• 05연 : 현실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 의 삶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힘 없는 사람, 소시민

땅 주인에게는 못 하고 이발쟁이에게
힘 있는 사람, 권력자

구청 직원에게는 못 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 하고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힘 없는 사람, 소시민

우습지 않으나 일 원 때문에
자조적 태도

• 06연 : 힘없는 이웃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비겁함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나,
정말 얼마큼 작으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오욕소행, 응졸함을 자조함 → 자괴(自愧)감

• 07연 : 왜소한 존재로서 느끼는 자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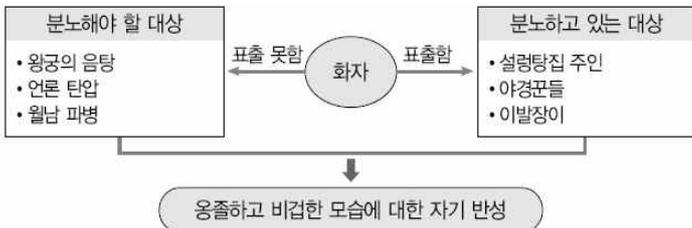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해제 : 이 시는 우리 사회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 즉 독재 정권의 부정이나 사회적 부조리에는 맞서 싸우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만 분개하는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치열하게 반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응졸함이 과거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시작된 '유구한 전통'임을 밝히면서, 힘 있는 자들에게 굴종하고 나약한 이들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고, '나는 얼마큼 작으나' 하는 물음을 자조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권력의 부정과 사회의 부조리에 순응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 구성 :
 - 01연 : 권력의 부패 대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나'
 - 02연 : 사회의 부조리 대신 작은 일에만 반항하는 '나'
 - 03연 : 포로수용소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나'의 응졸한 태도
 - 04연 : 왜소한 '나'의 응졸한 반항
 - 05연 : 현실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비켜서 있는 '나'의 삶
 - 06연 : 힘없는 이웃들에게만 반항하는 '나'의 비겁함
 - 07연 : 왜소한 존재로서 느끼는 자괴감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성격 : 현실 참여적, 반성적, 자조적
- 시적 화자 : 소시민인 '나'
- 시적 대상 : (응졸한) 나(시적 화자 자신)
- 시적 상황 : 인상의 사소한 것에만 응졸하게 화를 내는 스스로를 반성함.
- 정서 : 반성, 자조
- 특징
 - ① 대조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교훈적,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반복법, 점층법, 대응적 시어, 시대 배경과의 연관성, 화자의 태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물구나무서기



뿌리가 뽕혀 하늘로 뽕엇더라

모순, 부조리, 전도(轉倒)된 현실 -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현실 →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는 속담을 뒤집고 비틀어서 표현함 →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 1~3행 :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듣거라 세상에 원

세상에 대고 할 말이 많음(질타) // 어이 없는 현실(상황)에서 내뿜는 일종의 감탄사(한탄)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야작업을 하고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돋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 열악한 노동 현실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반어 → 가난한 노동자의 삶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역설 →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 [→ 반어와 역설을 통해 구체적 현실 상황을 뒤집고 비틀어서 노동자들의 고된 생활상을 드러냄

[대낮에 코를 버히니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다" (관용어구)의 전도된 표현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 바라 울었더라

• 4~16행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된 삶

못 살고 떠난 논바닥에

세상에 원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열게 뿌리를 내렸더라]

물구나무 서서 바라본 모습 → 고통 받는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

• 17~20행 : 피폐한 농촌 현실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삶

- 정희성, <물구나무 서기>

[나] 정희성, <물구나무 서기>

• 해제 : 이 시는 노동자와 농민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의 삶이 고통스럽게 지속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상의 여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뿌리가 뽕혀 거꾸로 서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고, 관용구를 비틀거나 구체적 현실을 반어적으로 뒤집어 진술함으로써 모순된 사회상을 냉소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 주제 : 민중의 삶이 뿌리 뽕힌 현실에 대한 비판

• 구성 :

◦ 1~3행 :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 4~16행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고된 삶

◦ 17~20행 : 피폐한 농촌 현실로 인한 농민들의 비참한 삶

정희성, <물구나무 서기>

• 해제 : 이 시는 '누이' 로 표상되는 공장 노동자와 '아버지' 로 표상되는 농민의 비극적 삶을 제재로 삼고 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땀만 받고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대지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박혀 있어야 할 뿌리가 거꾸로 서 있는 것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반어적 기법을 통해 누이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부각함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제목으로 암시되는 물구나무선 현실의 모습은 작품 후반부의 아버지의 현실과 중첩되면서 농민들의 비극적 상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작품 포인트 :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시-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4·19가 나던 해 세밑
1960년 한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던 젊은 날의 열정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훗날(40 대)의 생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이상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과 상관 없는—순수한 삶(이상과 꿈 등)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사랑, 아르바이트, 병역 문제 등의 '순수한 고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젊은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순수한, 때묻지 않은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냉정한 현실

별뿔별이 되어 떨어졌다
젊음의 순수함이 현실 속에서 좌절될 것을 암시함(별뿔별 : 하강적 이미지, 순수, 이상, 열정의 좌절, 실패)

• 11행~19행 :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 열정적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현재의 모습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사회적 지위를 얻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변화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세대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사회적 지위, 혹은, 현실에 얽매인 삶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소시민적 고민의 대상들(사랑, 아르바이트, 병역과 대비)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치열하지 않고 깊이 없는 비판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주변의 눈치를 살핌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순수와 열정을 잃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특별한 목적이나 이상 없이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滿開
의
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순수와 열정을 잃어버림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 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기성세대의 속물적 관심사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기성세대의 속물적 관심사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송동 길을 걸었다

• 20행~37행 : 18년이 흐른 뒤, 중년의 소시민이 되어 만난 현재의 모습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향 끝에 되돌아온 곳]
[>과거와 현재를 함께 체감하는 시간과 공간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세월의 변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변하지 않은 채 남아서 화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상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내면, 양심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양심의 소리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기성세대의 관심사

또 한 발짝 깊숙히 뉘으로 발을 옮겼다
너무 깊이 빠져 익숙해져 버린 소시민적 삶>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 38행~49행 : 무기력해진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서글픔.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해제 : 이 작품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4·19 세대가 그때의 이상과 꿈을 잃고 현실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4·19가 일어나던 해를 회상하는 내용과 18년이 지나 현재 중년의 나이로 만난 화자와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예전에는 추운 방에 모여 앉아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순수한 청년들이 지금은 월급과 물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처자식의 안부를 교환하는 소시민이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삶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꾸짖는 바람의 소리를 들으며 잠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곧 일상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현실의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강력히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도 쉽게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을 확인하는 소시민들에게 열띤 토론이나 순수한 열정, 혁명에 대한 열기는 제물처럼 모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에 불과한 것이다.
- 주제 :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 구성
 - 01행~19행 :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 열정적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20행~37행 : 18년이 흐른 뒤, 중년의 소시민이 되어 만난 현재의 모습
 - 38행~49행 : 무기력해진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서글픔.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특징

- ① 소박한 일상어로 시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③ 평범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소시민적 삶이란?** : ‘소시민’이란 사전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재산 따위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중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본가나 노동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향이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정치적·사회적 변화보다는 현재의 처지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을 선호한다. 또 사소한 일상이나 가족의 안위에 집착해 사회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시민적’이라는 말은, 사회나 타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 작품 또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소시민으로 변해 가는 중년의 ‘늬’ 같은 생활을 그 체제로 삼고 있다. 순수한 눈으로 세계와 자아를 대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이로 인해 느끼는 중년의 회한을 대조의 기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해화동 로터리

만개

[滿開] 현대시-겨울 나무로부터~

나무는 자기 몸으로
강인한 생명력과 굳은 의지를 지닌 존재(스스로의 몸으로 고난을 이기고 봄을 가져오는 존재)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력을 실현한다

[01~03행] 자신의 온몸으로 나무가 되는 나무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십삼 도
영하 이십 도 지상]에
[]>혹독한 추위(-1980년대 독재 정권 시절의 암담함)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추위(시련)에 굴하지 않겠다는 꾀꿉한 의지

무방비의 裸木(나무)으로 서서
겨울 나무(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 ↔ 꽃 피는 나무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외적 상황에 굴종적인 자세(각성 전) 전환(문제의 의식 자각)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냉혹한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자아 각성)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굴종적 태도에 대한 거부, 현실과의 대결 의지

영상으로 영상 오 도 영상 십삼 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지(역동적, 상승적 이미지)

[04~14행] 영하에서 영상이 될 때까지 굴하지 않고 견뎌 내는 나무의 의지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싹을 틔우기 위한 인고의 과정, 고통스러운 현실 극복의 과정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강력한 생명력의 발현(싹 : 희망)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봄, 생명력이 중만한 시기(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도래한 새 시대)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15~20행] 온몸으로 버티며 이겨 내어 입을 피우는 나무

아아, 마침내, 끝끝내
희자의 감동과 경이(나무의 꽃피움은 필연인 동시에 의지의 산물)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자율성과 주체성

꽃피는 나무이다
시련을 이겨낸 아름답고 향기로운 결과 - 나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한 목적(꽃 : 생명의 절정)

[21~23행]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나무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해제 : 이 작품은 존재의 자아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제를, 겨울과 봄 동안 진행되는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 구현한다.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라는 이 작품의 첫 구절은 그러한 주제를 선연적으로 표현한다. 나무가 성장하여 꽃을 피우려면 외부의 부정적인 환경과 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 작품은 존재의 자아 정체성이 외부에 대한 부정과 내면의 변화를 통해 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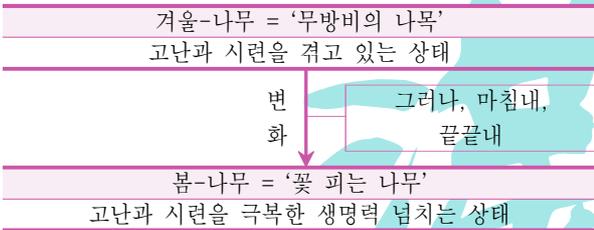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980년대의 억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향한 의지와 염원을 담고 있다고도 평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겨울'은 1980년대의 암울한 시대 현실을, '봄'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이 극복된 시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 :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
- 구성
 - 1행~3행 : 주체적인 태도를 지닌 나무
 - 4행~9행 : 부정적 현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나무
 - 10행~14행 :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나무
 - 15행~20행 :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내는 나무
 - 21행~23행 : 주체적으로 부정적 현실을 이겨 낸 나무
- 특징
 - ① 계절과 대상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② 자연 현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냄.
 - ③ 동일하고 유사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작품 구조도



• 내용 연구



◆ '나무'의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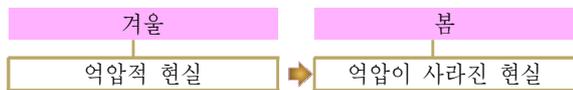
나무는 예전부터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경우가 많다. 특히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서 있는 나무는 시련을 견디는 인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홀로 땅에 뿌리를 박고 서서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고독을 상징하기도 한다.

• '천천히', '서서히', '문득', '아아', '마침내', '끝끝내'의 효과

간결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어를 반복하고 심표를 자주 사용하여 독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천천히, 서서히, 문득'은 '밀고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라는 급박한 흐름과 '으스스하도록 부르터지면 서'라는 강렬한 느낌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아아, 마침내, 끝끝내'는 '자기의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에 대한 화자의 감동과 경이를 표현하고 있다.

◆ 1980년대와 황지우의 시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와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와 같은 초기 작품 중에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의 억압적 현실을 빗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에서도 계절적 배경은 그러한 억압적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겨울나무'가 '봄 나무'가 되는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추위를 견디고 싹을 틔우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적 형상화를 통해 시인은 억압적 현실을 견디자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北漢山)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눈이 쌓인 높이(고고함)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1연 :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북한산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시선이 '북한산 → 백운대나 인수봉' 으로 이동함(고고함을 이끌어 냄)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고고함과 이미지가 통합(세속을 벗어난 고상함) (*열은 화장 - 산 봉우리에 살짝 쌓일 정도의 눈을 말함)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 : 고고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 (*수목 - 빛이 엷은 먹물)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 2, 3연 : 겨울 북한산의 모습

(신록이나 단풍,
 () : 신록, 단풍, 안개 : 산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존재(고고함과 대비)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적설 - 쌓여 있는 눈)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고고가 조그마한 유혹(장밋빛 햇살)에도 변질하고 마는, 순정한 것임을 강조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고고 - 세상 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함) ▶ 4, 5연 : 순정한 고고함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반복되는 시구(→ 강조) ▶ 6연 : 고고함을 얻기 위한 기다림

【짜임】

- ▶ 1연 :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북한산
- ▶ 2, 3연 : 겨울 북한산의 모습
- ▶ 4, 5연 : 순정(純情)한 고고함
- ▶ 6연 : 고고함을 얻기 위한 기다림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율격** : 내재율
- **성격** : 관조적, 사색적
- **표현** : ① 고고함(북한산, 봉우리)과 그렇지 않은 것(신록, 단풍, 안개, 햇살 등)을 대비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품격 있게 표현하였다.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제재** : 북한산
- **주제** : 고고한 삶의 지향

※ 이해와 감상

일상생활 속에서 시재(詩材)를 얻으며, 열띤 감정이나 감상, 또는 혼돈에 빠지지 않는 시풍(詩風)을 추구하는 시인의 경향이 잘 드러난 김종길의 대표작이다. 절제와 극기의 태도, 유가적 품격과 이미지스트로서의 시어가 조화를 이루어 균형과 절제 속에서 시상을 전개하여 ‘고고함을 지향함’이라는 주제가 잘 구현되었다. 이 시에서의 ‘고고함’은 세속을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긴장감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높이는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잘 혼하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으며 쉽게 얻을 수 없는 정신세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滿開
안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택시가-정음사

정음사(井邑詞)

前 腔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요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저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덕롤 드덕몰세라.
어긔야 어강요리

過 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긔야 내 가는 데 점그롤세라.
어긔야 어강요리

小 葉 아으 다롱디리

새
만
개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비취 주소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놓으십시오.
당신 가시는 곳에 저물까 두렵습니다.

달님이시여, 좀더 높이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소서
지금쯤 전주 시장에 가 계시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시다가
혹시 진데를 디더 흙탕물에
빠지거나 앓을까 걱정이 되웁니다.
몸이 고달프실 텐데 아무 데나 짐을 부려놓고 편안히 쉬소서
당신이 가시는 길에 날이 저물까 두렵사웁니다. - 金 東 必

달님이시여, 좀더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시장에 가 계십니까?
진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느 것이나 다 부려놓고 오십시오
나의 가는 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 朴 晷 義

저기 저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돌아 올라서 멀리멀리 비취 주십시오.
지금쯤 어느 시장에 가 계시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혹시 진 데를 디더 수령물에 빠지거나 앓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밤길을 가다가 몸이 고달프시면 아무데서나 짐짝을 부려 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이 가는 길이 어두울까 봐서요. - 鄭 炳 昱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달이여, 높이 높이 돋우시어,
멀리 멀리 비치십시오.
시장에 가 계십니까?
혹시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디에든지 놓고 계십시오(어느 사람에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나의 임(나의)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 全 光 鏞

❖요점 정리

- 작자 : 어느 행상인의 처, 미상
- 갈래 : 고대 가요, 서정시
- 연대 : 미상(백제로 추정)
- 형식 : 내용상 3장 6구, 여음을 뺀 본사설은 6행으로 2줄씩 합해보면 3장 6구(각 장에 후렴구가 있음)의 시가 형식이어서 시조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성격 : 서정적, 기원적, 망부가
 - 표현 : 직서법, 비유법을 사용
 - 주제 :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
 - 의의 : 현재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 국문으로 표기된 가장 오래된 노래. 시조 형식의 원형을 가진 노래
 - 관련 : <고려사> '악지'에는 백제 시대의 가요와 그 배경 설화가 기록되어 있고, '정읍사' '선운산가' '지리산가' '방등산가' '무등산가'의 다섯 편이 그것이다.
 - 구조

기, 1장	'달'에 남편의 안녕을 청원, 천지신명예의 기원
서, 2장	남편에 대한 야행침해(夜行侵害) 염려, 남편의 안녕 기원
결, 3장	남편의 무사 귀가를 기원, 남편의 편안함을 간구

• 출전 : 악학궤범(樂學軌範)구성 :

이 노래는 멀리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려사 악지에 의하면 행상 나간 남편이 밤에 돌아오는데 해를 입을까 두려워 하는(야행침해) 아내가 자신의 염려하는 마음을 '달'에게 빌어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있는 작품으로 여기서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라는 후렴구를 빼고 작품을 읽으면 오늘날 시조와 어느 정도 유사한 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시조의 원형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여기서 특히 '달'은 남편의 무사 안전을 도와주는 '절대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의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즌데'라는 말은 밤길 귀가길에 닥칠 지 모르는 위험이나 또는 남편이 가서는 안될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즌데'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 고어 아래아(·)는 해석과 표기의 편의상 'ㅏ'로 표기함

- 달하 : 달(月)님이시어. 여기서의 달은 모든 것을 아는 천지신명 또는, 절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민속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하'는 고려 시대까지는 존비(귀하고 천함)의 구별이 없이 쓰이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극존칭 호격 조사로 쓰임
- 노피곰 도다샤 : 높이 높이 돋우시어, 높(어근)+이(부사화 접미사)+곰(강세 접미사) * '노피'의 부사에 '곰'이 붙어서 뜻을 강조함
- 머리곰 : 멀리멀리, 멀리멀리까지 * 멀(형용사의 어간)+이(부사화 접미사)+곰(강세 접미사)
- 비취오시라 : 비치어 주십시오 * 비취고시라)비취오시라(ㄱ탈락). ~ 고시라 : 명령형 어미 : 달에게 남편의 무사함을 청원하는 아내의 걱정스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으며, 남편이 가는 길에 달빛을 환히 비춰주라고 기도한다.
-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악물에 맞추어 부르는 뜻 없는 소리로 '어기여차'와 같은 의미의 조흥구
- 저재 : 저자에, 시장에. | 모음 뒤에만 오는 처소부사격조사 '예'가 생략된 형태. 또는 '後腔全저재'의 '쑤 저재'를 붙여서 '전주시장예'로도 해석하는 이도 있음.
- 녀러신고요 : 가 계신가요. 녀(동사 어간으로 行의 의미) +러(회상시제선어미)+시(존경의 선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말 어미)+ㄴ고요(의문형 어미)

- 존 : 진, 존('졸다'의 관형사형)기본형은 '졸다' ※ 졸다)질다(전설모음화)
- 되(ㄷ+아래아+ㅣ : 의존 명사)랄 : 데(곳) 여기서 존되는 위험한 곳을 의미
- 드되올세라 : 디딜까 두렵다 ※ 드되(어간) + 요(삽입 모음)+르세라(경계의 평서형종결어미) : 남편의 안전에 대한 아내의 걱정(아행침해 : 밤에 다니다가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구절이다. '존 되' 는 밤길이 남편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이나 위험을 비유한 말로, 남편의 무사를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이는 '존 데'를 더러운 곳, 즉 남편이 가서는 안 될 곳(사창가)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어느이다 : 어느 곳에다, 어느 곳에다가, 어느(대명사)+이(처소격 조사'ㅣ'의 속철)+다(어미)
- 노코시라 : 놓으십시오. 놓(어간) + 고시라(높임의 명령형종결어미)
- 내 : 남편, 임. '내'가 곧 남편임은 부부는 일체임을 나타낸 것. * 나(대명사)+ㅣ(주격 조사)
- 가논 : 가는 * 가+나(현재시제 선어말 어미)+오(삽입 모음)+ㄴ(관형사형어미))가논
- 점그랄세라 : 저물까 두렵다. ※ 점글다(日暮)저물다)저물다)저물다 : 점글다를 '잠기다'로 해석하여 '나쁜 곳으로 빠져 들어간다'로도 봄.
- 어기야 내 가논 데 점그랄세라 : 남편이 가는 곳에 해가 저물어 집에 오기 힘들까 두려워 하는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기서 '내' 라는 단어는 나(아내)와 남편이 동일시된 표현이다.

(1) 작품 선정의 취지

이 작품은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의 가요이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최고(最古)의 노래이다. 이 노래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시적 화자의 성격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 속에 나타난 표현이나 구성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에 비추어 현대적 시각에서 시적 화자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해 봄으로써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2) 지도의 핵심

이 단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에 비추어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능동적이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모둠 학습이나 발표 학습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작품연구

이 작품은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달에 의탁하여 노래한 백제 가요이다. 정음은 전주의 속현으로 그 고을 사람 가운데 행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가 남편 간 곳을 바라보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고려사악지 에 전한다. 노래의 전문이 실린 곳은 1493년에 편찬된 '악학궤범'으로 이 노래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도 불리어져서 국문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달님이시어, 높이 높이 돋으시어
 아아, 멀리 좀 비추어 주십시오.
 저자에 가 계십니까?
 아아, 진흙탕을 디딜까 두렵구나.
 어느 곳에나(무거운 짐을 풀어)놓으십시오
 아아, 내 임이 가는 곳에 (날이) 저물까 두렵구나.

이 작품은 고려 조선조를 통하여 속악(俗樂)의 하나로 오랫동안 궁중에서 연주되었으며, 특히 조선조에 들어서서는 선달 그믐달, 궁중 나례(儺禮) 뒤에 처용무(處容舞), 봉황음(鳳凰吟), 삼진작(三眞勺), 북전(北殿) 등과 함께 연주되었다.

이 작품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부역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인 백제의 부전 가요 선운산가 와 박제상의 아내가 치술령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인 신라의 부전가요 치술령곡을 들 수 있다. 특히, 치술령곡 은 정음사와 마찬가지로 배경 설화에 망부석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티프는 김소월의 초혼(招魂)에 이 어지고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시가-한민가

君隱父也 (군은부야)
 臣隱愛賜尸母史也 (신은애사시모사야)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민언광시한아해고위사지시)
 民是愛尸知古如 (민시애시지고여)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굴리질대힐생이지소음물생)
 此盼喰惡支治良羅 (차힐식악지치량나)
 此地盼捨遺只於多是去於丁爲尸知 (차지힐사유지어동시거어정위시지)
 國惡支持以支知古如(국악지지지지고지)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후구군이신다지민은여위내시등언)
 國惡太平恨音叱如 (국악태평한음질여)

군은 아버지
 臣은 득속살 어시여
 民은 얼훈아히고 호살디
 民이 득술 알고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힐 머기 다스라
 이짜힐 ㅼ리곡 어딴갈데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아의 君(군)다이 臣(신)다이 民(민)다이 호놀든
 나라악 太平 호니잇다

임금(군)은 아버지요
 신(신)은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민)은 어린(어리석은)아이로고
 하실진댄 민이 사랑을 알리라.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잇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진댄 나라 보전할 것을 알리라.
 아아,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리라.

(김완진 해독)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로고 하실지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구물거리며 살손 물생이
 이를 먹여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지어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나이다

(양주동 해독)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요점 정리

- 작자 : 총담사
- 갈래 : 10구체 향가
- 연대 : 신라 경덕왕 24년(765년)
- 성격 : 교훈적, 유교적, 잠요적(교훈과 경계의 내용을 담은), 권계적[잘못함이 없도록 타일러 주의시킴], 일부에서는 주술적, 불교적[‘안민가’의 사상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주술, 불교, 유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술적이라는의미는 경덕왕이 전통적인 주력(呪力)관념을 가지고 치국의 방법을 노래로 짓게 하였다는 것이고, 불교적이라는 말은 경덕왕이 불교를 숭상하였고, 왕권 강화책으로서 화엄[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닦아 덕과(德果)를 장엄하게 함]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점과 작가가 승려라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작품의 내용 자체에 주목할 때 이 노래의 사상적 기반에 가까운 것은 유교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으로 봄
 - 어조 : 논리적, 직설적 어조, 진지하고 간곡하게 충간하는 어조
 - 구성 :

기	군, 신, 민의 관계(위정자의 善政) - 비유적, 애민 사상
서	민본주의를 실천하는 근본 원리 - 직설적, 민본사상
결	군, 신, 민의 바른 관계 - 다워야 함 - 직설적, 유교적 정명 사상

- 표현 : 수사법이 간결하고 소박하고, 친근한 사실을 들어 비유하여 설득력과 교훈성을 얻고 있으며, 충간하는 신하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은유법의 사용 - 군신민의 정치, 사회적 계층을 부모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기본적인 인륜 관계에 비유함.)

임금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 갈 책임이 있음
신하	어머니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함
백성	어린 아이	임금과 신하를 믿고 따라야 함

- 사상 : 민본주의 사상, 유교적 정명사상
- 주제 : 치국 안민(治國安民) 또는 국태 민안(國泰民安)의 도(道)와 그 이상(理想) - 가족과 같은 사랑의 유대 강조 /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 특징 : 현전하는 향가 중 유일한 민본적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목적성이 강한 작품임

❖내용 연구

임금(군)은 아버지요
 신하(신)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민)은 어린(어리석은)아이로고[가정법]
 하실진댄 민이 사랑[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의 핵심]을 알리라.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백성들의 말로 인용함]
 할진댄 나라 보전할 것을 알리라.
 아아,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계급별 책임 완수와 화합의 중요성 강조]
 한다면 나라가 태평[궁극적인 지향점]을 지속하느니라.

(김완진 해독)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로고 하실지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구물거리며 살손 물생이
 이를 먹여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지어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나이다

(양주동 해독)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진대
 백성이 사랑받음을 알 것입니다.
 구물거리며 사는 백성
 이를 먹여 다스리어
 이 땅을 비리고 어디에 갈 것인가 할 때
 나라 안이 다스려질 것을 알 것입니다.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君은 어비여
 臣은 屯수살 어씨여
 民은 얼훈아희고 호살디
 民이 屯술 알고다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 백성을 어린 아이로 바꾸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잘 보살펴야 백성들도 위정자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유교의 부자 자효 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가적 의미의 충이 가정 내에서의 효로부터 확장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구물스다히 살손 物生
 이홀 머기 다스라
 이싸홀 버리곡 어딴갈데 홀디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5행은 해독상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교과서의 해석을 따를 때는 '구물거리며 사는 물생'이란 모든 생물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 백성들은 이식위천(以食爲天 :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음 -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하므로 먹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은 맹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에게는 먹는 문제가 제일 절실하다. 이렇게 백성의 기본적 의식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때 백성들은 나라를 최고로 여기고, 버리지 않게 되므로 위정자들은 정치를 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말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아으 君(군)다이 臣(신)다이 民(민)다이 호놀든
 나라악 太平 호니있다

10구체 향가에서 9행, 10행은 낙구 또는 격구라 하며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된다. 이 구절의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는 논어의 '君君臣臣父父子子(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의 구절을 원용한 것으로 제각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에는 충간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명분과 실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유교적 정명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해와 감상

안민가는 다른 향가와 달리 그 내용이 유교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다른 대부분의 작품들은 주로 불교적이었다는 점에서 안민가가 유교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국태안민의 이념을 밝힌 것은 특이하다. 개인적 서정보다는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고자 한 현실실용적인 노래로, 유교 사상과 불교의 정법 사상이 복합되어 있다. 아무래도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이념보다는 유교적 충효사상이 더 타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덕왕 때에는 사회적으로는 천재지변이 잦아 농사가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는 김양상의 도전에 의해 왕권이 위협당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 이에 굶주려 유민이 된 백성들이 신라를 떠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등 민심이 동요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유교적 정치 이념이 대안으로써 자리잡아가던 시기였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택시가-청산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청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靑山(청산)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딴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띄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낙막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값대예 몰아서 奚琴(희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빗 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띠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開
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가는 새 가는 새 본다.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농기구)를 가지고 물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력저력 하여 낮은 재내 왔건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라.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나문재,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노라.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奚琴)을 켜는 것을 듣노라.

가더니 불룩한 술독에 진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냄새)이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나는 어찌하리오.

또 다른 해석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겠노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노라.

가는 새 가는 새 본다.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농기구)를 가지고 물아래로 날아가는 새 본다.

이력저력 하여 낮은 재내 왔건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어디다 던지는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는 돌인가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라.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나문재,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노라.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奚琴)을 켜는 것을 듣노라.

가다 보니 배부른 독에 진한 강술(強酒)을 빚는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 붙잡으니 낸들 어찌 하겠는가.

滿開(만개) : 풀이 황백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또 다른 해석

살으리рода 살아갈 것이로다. 청산에 가서 살으리로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가서 살아갈 것이로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날아가던 새 날아가던 새 보았느냐? 평원지대로 날아가던 새 보았느냐?
녹슨 연장(무기)을 가지고 평원 지대로 날아가던 새 보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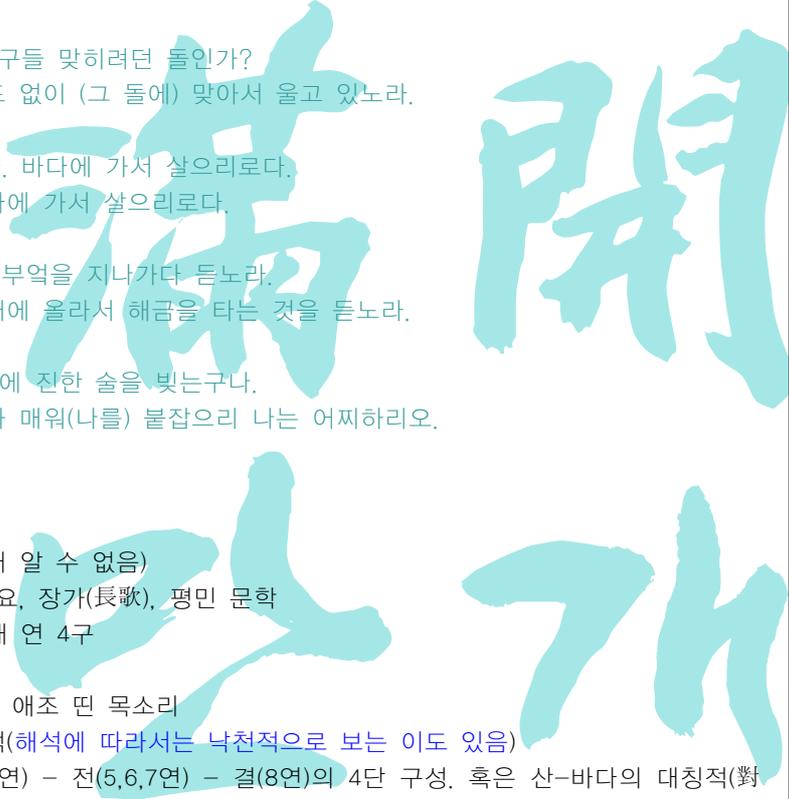
이력저력 하여 낮은 지내왔구나.
울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찌하리오.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들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살으리로다. 살아갈 것이로다. 바다에 가서 살으리로다.
나문재랑 굴조개랑 먹고 바다에 가서 살으리로다.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 듣노라.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타는 것을 듣노라.

(바다로) 가더니 불룩한 술독에 진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 냄새가 매워(나를) 붙잡으리 나는 어찌하리오.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연대 : 고려 때(확실한 연대 알 수 없음)
- 갈래 : 고려 속요, 고려 가요, 장가(長歌), 평민 문학
- 형식 : 전 8연의 분장체. 매 연 4구
- 운율 : 3·3·2조, 3음보
- 어조 : 시름과 근심에 젖은 애조 띤 목소리
- 성격 : 현실 도피적. 애상적(해석에 따라서는 낙천적으로 보는 이도 있음)
- 구성 : 기(1연) - 승(2,3,4,연) - 전(5,6,7연) - 결(8연)의 4단 구성. 혹은 산-바다의 대칭적(對稱的) 2단 구성/ 전8연(매 연은 4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는 3·3·2조로 3음보로 되어 있다.)

기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리리 알라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에서 살겠노 라,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서 살겠노 라 - (청산에의 귀의, 살고 싶은 마 음)
승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리리 알라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나 울며 지내노라 - (고독과 비애 - 시름이 많은 화자의 삶)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둔 장굴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리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를 보았느냐? 물 아 래쪽 들판으로 가던 새를 보았느냐? 이끼 묻은 연장을 가지고, 들판을 지 나던 새를 보았느냐? - (속세에 대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렁공 더렁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쁘란 쏜 엇디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미련) 이력저력하여 낮이야 지내 왔으나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 찌하리오. - (더욱 처절한 고독 / 고 독과 괴로움 속의 삶)
전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의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오니로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이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 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며 지내노라. - (생의 운명적 체념)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른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른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살겠노라.살겠노라 바다에서 살겠노 라, 나문제 굴조개랑 먹고 바다에서 살겠 노라 - (새로운 세계 동경 / 바다에 살고 싶은 마음)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슴이 짚대예 올라서 奚琴(히금)을 허거를 드로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듣는다. 외딴 부엌을 지나다다가 듣는다.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 서 해금 타는 것을 듣는다. - (생의 절박감)
결	가다니, 비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꽃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바다로) 가더니 불룩한 독에 독한 술 빛는다. 조롱박꽃 같은 누룩이 매워 나를 붙 잡으니 낸들 어찌하랴 -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 주제 : 현실에의 체념, 생의 고독과 비애, 삶의 고뇌와 비애, 실연의 애상(哀傷),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인의 슬픔, 입을 잃은 여인의 처절한 삶과 입을 향한 그리움
- 의의 : 고려 속요 중 '서경별곡'과 함께 비유성과 창작성이 뛰어나며, 문학성 또한 빼어나다.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고려인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고, 음악적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상적인 면에서는 극단적인 현실 도피 내지는 현실 부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 표현 : 'ㄹ' 음의 반복과 'ㅇ' 음의 어울림에서 빛어내는 음악성이 대비되었고, 반복법과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 배경 : 고려 때의 불안한 사회적 반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려의 척신(戚臣)의 전횡(專橫), 무신(武臣)의 횡포, 몽고군의 침입 등 내외위환(內憂外患)이 계속되어 양심적인 지성인들은 언제나 현실에서 안심 입명(安心立命)할 수가 없었다.
-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악학편고

◆내용 연구

살겠노라 살겠노라.[시적 화자를 유랑민(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서), 실연한 사람(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서), 지식인(특정한 공간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내용에서 어느 곳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지식인이 추리됨),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백성(소박한 삶의 공간을 원하는 모습에서 전쟁을 피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백성임을 추리)]

청산[시적 화자의 이상향, 현실 도피처 = 바다]에서 살겠노라.[aaba구조 / 3 살어리 3살어리 랏다2조의 3음보]

머루랑 다래[소박한 음식]를 먹고 청산에서 살겠노라. (청산에의 귀의, 현실 도피)['살어리랏다'의 경우, 시적 화자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시적 화자가 청산에 살고 싶지 않은 경우, 청산에 살고 싶다는 강력한 삶의 소망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시적 화자가 청산에 살고 있는 경우, 청산에 사는 것이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한탄의 표현이 된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후렴구, 조흥구, 여음으로 울림소리(ㄹ, ㅇ)의 사용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리듬감을 살리고 고려 민중의 낙천성을 엿볼 수 있음] - 청산에 대한 동경

우는구나[감탄형, '울어라'로 해석하면 명령형 즉, 시적 화자를 유랑민 혹은 실연한 여인의 노래로 보는 경우, '우러라'는 '우는구나'로, 좌절된 지식인의 노래로 보는 경우 '노래를 부르는구나'로 해석한다.], 우는구나 새[시적 화자의 분신 - 감정 이입의 대상, 동병상련]여, 자고 일어나서 우

는구나 새여.

너보다[체언 뒤에 붙어, 둘을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비탄의 삶)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삶과 고독의 비애

날아가던 새 날아가던 새를 보았느냐? 물(평원지대, 속세 ↔ '청산, 바다') 아래로 날아가던 새 보았느냐?[시적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는 경우, '갈던 사례(밭)'를 의미한다. 반면, 실연한 여인으로 보는 경우, '새'는 '나를 버리고 떠난 임'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좌절한 지식인의 노래로 보는 경우, '날아가는 새'로 일종의 벗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끼 묻은[녹슨 연장(혹은 무기)] 쟁기를 가지고[‘임무든 장클란’은 시적 화자를 유랑민으로 보면 ‘이끼 묻은 은장도’,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면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할 수 있다.] 평원지대로 날아가던 새 보았느냐?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이력저력 하여 낮은 지내 왔건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절망적, 고독의 시간]은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독과 몸부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절망적인 고독과 비애

어디에다 던지던 돌[시적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운명적 삶, 시적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운명적 생의 체념으로 비애의 원인이 외부에 있음)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

살겠노라 살겠노라. 바다[= '청산'과 유사 ↔ 물 아래]에 살겠노라.

나문재[해초]랑 굴조개랑 먹으며[소박한 음식] 바다에서 살겠노라. (새로운 세계 모색)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바다에 대한 동경

가다가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마당)을 지나다가 듣노라.[‘예정지’는 외딴 부엌이나 마당으로, ‘속세를 멀리 피하여 가다가 듣노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사슴이 장대 위에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혹은 산대 잡희를 하는 광대 중 사슴으로 분장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생의 절박함)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삶

가더니 불룩한 술독에 진한(살찐, 술의 농도가 짙은, 강술, 독한 술) 술[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매개체]을 빚는구나.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 냄새가 매워 (나를) 붙잡으니 나는 어찌하리오[체념적 심정]. (구원의 길)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술을 통한 고뇌 해소



[滿開] 고택시가-강촌

江村(강촌)

淸江一曲抱村流 청강일곡포촌류
 長夏江村事事幽 장하강촌사사유
 自去自來堂上燕 자거자래당상연
 相親相近水中鷗 상친상근수중구
 老妻畫紙爲碁局 노처화지위기국
 稚子敲針作釣鉤 치자고침작조구
 多病所須唯藥物 다병소수유약물
 微軀此外更何求 미구차외경하구

맑은 강의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그윽하도다.
 절로 가며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로드.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많은(술한)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이 보잘 것 없는(조그마한, 천한) 몸이 이것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江村)에 일마다 유심(幽深)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집 위에 제비요
 서로 친(親)하며 서로 가까우니 물 가운데 갈매기로드.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들도다.
 한 병(病)에 얻고져 하는 바는 오직 약물(藥物)이니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求)하리오.

❖요점 정리

- 갈래 : 한역시,
- 형식 : 칠언율시
- 연대 : 두보가 49세에 지음(상원 원년에 지음 - 760년)
- 운자 : 流, 幽, 鷗, 鉤, 求
- 성격 : 서정적, 한정적, 자조적, 세태비판적, 풍자적
- 구성 : 선경후정의 구성
- 심상 : 시각적, 원근적(배경 - 자연물의 모습을 통한 구체화 - 인간의 모습을 통한 구체화 - 화자의 삶의 자세)
- 표현 : 대조, 대구, 풍자, 상징법, 선경후정, 원근법 구성, 세태 풍자, 안분지족
- 제재 : 강촌
- 주제 : 긴 여름 강촌의 삶,知足(知足)의 삶(안분지족), 인간 생활의 세태 풍자
- 출전 : 분류두공부시 연해 초간본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내용 연구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강물과 마을,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
 긴 여름 강촌(江村)[계절적, 공간적 배경]에 일마다 유심(幽深)하도다. [(1-2행 긴 여름의 강촌 모습)]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집 위에 제비요
 서로 친(親)하며 서로 가까우니 물 가운데 갈매기로다. [(강촌의 서경 중 사물의 그윽함을 나타냄
 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물아일체, 자연 친화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새는 한가롭고 여유로
 운 화자의 심정을 표상하는 소재로 쓰임 / 대구). (3-4행 사물 속의 정감)]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바둑판)을 만들고[장기판을 만들고 '과' '낙시 바늘을 만드는 것'
 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얀 종이 위에 일부러 줄을
 쳐서 장기판을 만들고 검은 바늘을 굵이 구부려서 낙시 바늘을 만드는 것은 흑백의 대결(바둑),
 굽고 바름(낙시)의 대결이라는 면에서 서로 물고 혈뜯는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연은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데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들도다.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
 들의 욕심을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구). (5-6행 사람 사이의 정감)]
 한 병(病)[많은 병 / 오랜 전란으로 병약한 신체로 인한 화자의 어려운 처지]에 연고져 하는 바
 는 오직 약물(藥物)이니
 조그만 몸[보잘 것 없는, 천한]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求)하리오.[안분지족의 자세] (7-8행
 자족하는 생활 모습)

●늘근 겨지븐 - 낙실 맹그나다 : 강촌의 풍경 속에 사람들의 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 역시 앞
 부분과 마찬가지로 한가로운 모습이 그려져 있다. 먼저, 성도성의 완화계에 가에 띠집을 짓고
 살던 시절, 긴 여름날의 한가로운 생활을 진솔하게 묘사한 것으로, 전란 중에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외롭게 객지를 떠돌던 두보의 더없이 소중한 여유와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 및 두보의 일반적인 시 경향을 고려할 때, 겉으로는 단란한 가정을
 그리고 있지만 바둑의 흑백의 대결과 낚시의 굽고 바름의 대결로 서로 물고 혈뜯는 세태를 풍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얀 종이 위에 일부러 줄을 쳐서 장기판을 만드는 아내,
 바늘을 굵이 구부려 낚시를 만드는 아들은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 자연과는 대조적으로 인간들
 의 욕심을 풍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두보의 기존 시 태도에 대한 확대
 해석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병든 두보의 처지를 그냥 노래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해과 감상

칠언 율시로, 49세 되던 해에 성도(成都)에서 지은 작품이다. 두련, 함련, 경련에서는 여름날 강
 촌의 한가하고 정겨운 풍경이 그려져 있다. 맑은 강이 마을을 안아 흐르고, 제비와 갈매기가 날
 고, 아내는 종이에다 장기판을 그리며 아들은, 고기 잡을 낚시를 만들고 있다. 미련에서는 병을
 다스릴 약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대구(對句)가 작품의
 묘미를 더해 주고 있으며 특히,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어지럽기만 한 인간사(人間
 事)를 갈파한 경련(頸聯)은 두보의 시재(詩才)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수련, 함련, 경련의 전 6구
 는 장하강촌의 소견사이되, 함련은 사물의 그윽함이요, 경련은 인사의 그윽함이다. 그리고 미련
 은 신병에 기탁하여 기구한 자신의 처지를 읊었다.



[滿開] 고택시가-어부가

어부가



이듬에 시름업스니 漁父(어부)의 生涯(생애)이로다
 一葉扁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두고
 人世(인세)를 다 니젯거니 날가는 줄몰 안가

구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靑山(만첩청산)
 十丈紅鹿(십장홍록)이 언매나 ㄱ렛는고
 江湖(강호)애 月白(월백)호거든 더욱 無心(무심)호애라

靑荷(청하)애 바불받고 綠柳(녹유)애 고기게여
 蘆荻花叢(노적화총)애 툇 띠야 두고
 一般淸意味(일반청의미)를 어늬 부니 아랴실고

山頭(산두)애 閑雲(한운)이 起(기)호고 水中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호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애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長安(장안)을도라보니 北關(북궐)이 千里(천리)로다
 漁舟(어주)애 누어신들 니즌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시름 안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랴

이런 (인간세상) 속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놓고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도다.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띠끌(어수선한 세상사)은 얼마나 가리워졌는가
 강호에 밝은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서,
 갈대와 억새풀이 우거진 곳에 배를 대어 묶어 두니,
 이런 자연의 참된 재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피어나고(일어나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없이 다정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시름을 잊어 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지내리라.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임금님 계신 곳)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할 일이로다. 세상을 건져낼 현인이 없겠느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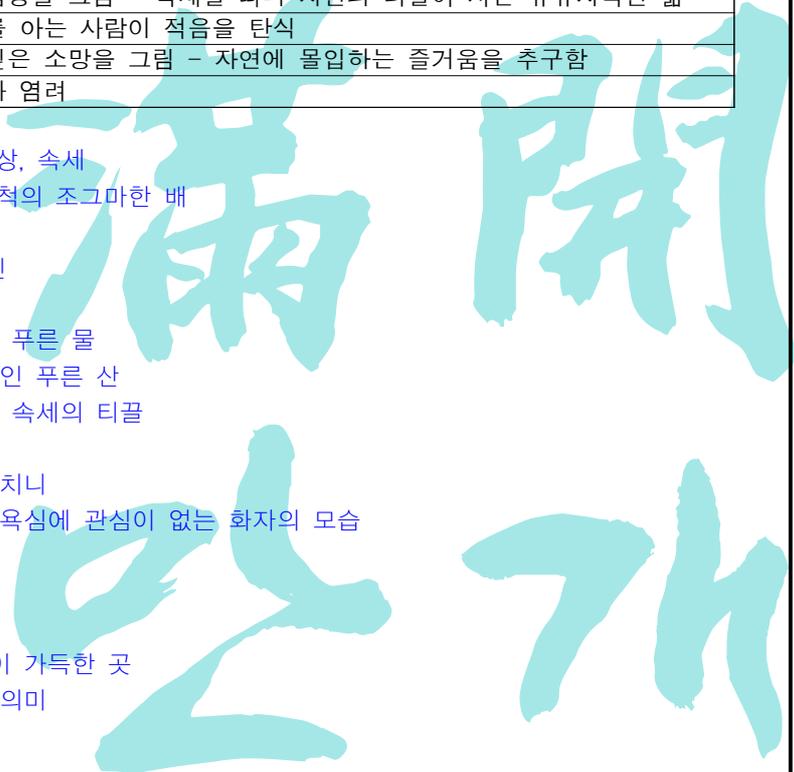
❖요점 정리

- 지은이 : 이현보
- 연대 : 조선 중종 때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강호한정가, 자연친화적
- 제재 : 어부의 생활
-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적인 생활, 자연에 은거하는 어부의 생활
-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태도
- 표현 : 한자어가 많고, 정경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임
- 의의 - 효종 2년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에 영향을 끼쳤다.
- 기타 - “어부가(漁父歌)” 는 일찍이 고려 때부터 12장으로 된 장가와 10장으로 된 단가로 전해져 왔는데, 이현보가 이를 개작(改作)하여 9장의 장가, 5장의 단가로 만들었다.

❖내용 연구

1장	자연에 묻혀 살기를 소망 - 세상사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생활
2장	자연에 몰입하는 심정을 그림 -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유자적한 삶
3장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음을 탄식
4장	한가롭게 지내고 싶은 소망을 그림 - 자연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추구함
5장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 이등에 : 인간 생활, 이 세상, 속세
- 일엽-편주(一葉片舟) : 한 척의 조그마한 배
- 만경파 : 넓은 바다
- 인세 : 인간세상의 일, 흥진
- 니젯거니 : 잊었으니
- 천심녹수 :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 만첩청산 : 겹겹이 둘러 싸인 푸른 산
- 심장홍진 :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
- 언매나 : 얼마나
- 월백하거든 : 달이 밝게 비치니
- 더욱 무심하애라 : 세속적 욕심에 관심이 없는 화자의 모습
- 청하에 : 연잎에
- 바블 : 밥을
- 녹류 : 푸른 버들까지
- 노적화총 : 갈대와 억새풀이 가득한 곳
- 일반청의미 : 자연의 참된 의미
- 산두 : 산봉우리
- 한운 : 한가로운 구름
- 백구 : 갈매기
- 무심 : 아무 욕심이 없음
- 다정하니 : 다정한 것은
- 두 거시로다 : 두 가지로다
- 너 : 한운과 백구(의인법)
- 조차 : 따라
- 노로리라 : 놀리라
- 일생에 ~ 노로리라 : 물아일체의 경지
- 장안 : 서울(한양)
- 북궐 : 궁궐
- 어주 : 고기잡이 배
- 니즌 스치 : 잊은 적이
- 이시랴 : 있으랴
- 안니라 : 아니라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만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어주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 : 다른 장과는 달리 세속에 관심을 드러내 보여 상충된 모습이 보인다.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현실 세계와 자연 친화 사이의 내적 갈등을 넘어 사대부 도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자연 속에 있으면서 현실을 지향하는 내면 의식

❖이해와 감상

어부가(漁父歌)는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으로 '어부단가'라고도 불리우며, 우리 선인들의 요산요수의 운치있는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한가한 삶에서 당시 양반 계급의 풍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아무리 자연 속에서 은둔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제5장의 초장과 중장에 "장안을 도라보니 북곶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랴"라는 말에서 작자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또한 문학 작품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작품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해와 감상1

조선 중기에 이현보(李賢輔)가 지은 시가. 단가 5장과 장가 9장으로, 《농암집 龔巖集》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그 당시에 얻은 《악장가사》의 〈어부가〉 12장과 다른 〈어부가〉 10장이 말이 많고 순서적이지 못하고 혹 중첩이 있음(語多不倫或重疊)이 옮겨 쓰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전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는 3장을 제거하여 9장으로 장가(長歌)를 지어 읊을 수 있게 하였고, 후자는 축약하여 단가(短歌) 5결(价 : 곡을 이르는 말)로 짓고 엽(葉)을 하여 창(昌)으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전반적으로 《악장가사》의 〈어부가〉 12장에서 보이는 많은 한글토를 생략하였고, '지곡총 지곡총 어쩍와 어쩍와' 를 '지곡총 지곡총 어사와' 로 축약하였다. 또한 일부 행들을 다른 시어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장들의 시행을 다시 엮기도 하였다.

제1장 제4행의 '의선어부(倚船漁父) | 일견(一肩)이 고(高)로다' 를 비롯한, 제3장의 제4행, 제4장의 제3행, 제6장의 제4행, 제7장의 제1·2·4행 등은 새로 바꾼 것들이다. 제2장의 제4행, 제4장의 제4행, 제6장의 제1·2·3행, 제7장의 제3행, 제8장의 제4행, 제9장의 제1·2·3·4행들은 《악장가사》 〈어부가〉 의 다른 장의 행들을 각각 옮겨 놓고 있다.

《악장가사》 〈어부가〉 는 다른 〈어부가〉 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개작 동기를 실현하여, 순서화와 중첩의 삭제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윤선도(尹善道)는 '소리가 서로 응하지 않고 말뜻이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대개 옛 글을 모으는 데에 얽매었던 관계로 응색해지는 결함을 면하지 못했다' (音響不相應 意不甚備 盖拘集古 故不免於有局促之缺)고 평하였다.

《참고문헌》 龔巖集, 孤山遺稿, 朝鮮詩歌史綱(趙潤濟, 을유문화사, 1937),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李佑成, 論文集 9집, 성균관대학교, 1964), 漁父歌攷(崔東元, 人文論叢 24집, 부산대학교, 1983), 漁父歌의 表象性 研究(呂基鉉,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漁父歌系 詩歌研究(宋靜淑,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해와 감상2

이 작품은 일찍이 고려 때부터 전하여 오던 것을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가 개작(改作)한 것이다. 여기 실은 작품은 어부 단가 5장(漁父短歌五章) 가운데 세 수인데, 농암의 어부가는 한자어가 많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결점을 지녔으며, 정경의 묘사도 관념적이다. 후에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에 영향을 준다.

생업을 떠나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 하는 풍류객으로서의 어부의 생활을 그린 이 작품은, 우리 선인들이 예부터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운치 있는 생활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 속에 묻혀 은일(隱逸)을 즐겼을망정 마음 속에는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니, '人世(인세)를 다 니졌더니' 와 '니즌 스치 이시랴' 라 한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것으로 애국 충정을 나타낸 것이다. 정경의 묘사나 생활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냄이 없이 '千尋綠水(천심녹수), 萬疊靑山(만첩청산)' 과 같이 상투적인 용어를 구사하여 관념적으로 어부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택시가-오륜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람이오 사람아니
 이 말슴 너디 말오 베희고야 마로렁이다

아바님 날 나히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母(부모)못 아니시면 내모미 업슬랏다
 이 덕을 갑파려흐니 하늘 7이 업스샷다

동과 항것과롤 뒤라셔 삼기신고
 벌와 가여미사 이 브들 몬져 아니
 혼 브스매 두 뵈업시 소기지나 마옵생이다

지아비 받 갈라 간 더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더 눈섭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트실가

兄(형)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여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야
 兄弟(형제)못 不和(불화)흐면 개 도티라 흐리라

늘그니는 父母(부모)궂고 얼우는 兄7트니
 궂튼더 不恭(불공)흐면 어더가 다롤고
 랄료셔 브디어시든 절 흐고야 마로렁이다

사람 사람들마다 이 말슴을 들으려무나,
 이 말슴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니,
 이 말슴을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니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이 몸이 없었으리로다.
 이 덕을 갚고자 하니 하늘같이 끝이 없습니다.

종과 상전의 구별을 누가 만들어 내었던가.
 벌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
 한 마음에 두 뜻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속이 지나 마십시오.

남편이 밥을 갈러 간 곳에 밥을 담은 광주리를 이고 가서,
 밥상을 들이되 (지아비의) 눈섭 높이까지 공손히 들어 바칩니다.
 (남편은) 진실로 고마우신 분이시니 (삼가고 조심해야 할) 손님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형님이 잡수신 젓을 나까지 먹습니다.
 아아,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개나 돼지라 할 것입니다.

늙은이는 부모님 같고, 어른은 형님 같으니,
 이와 같은데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른 것인가.
 나로서는 (노인과 어른들을) 맞이하게 되면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요점 정리

- 지은이 : 주세붕(周世鵬)
- 갈래 : 평시조, 연시조
- 성격 : 교훈적, 직설적
- 성격 : 교훈가
- 제재 : 오륜(五倫)
- 주제 : 삼강오륜(三綱五倫)
- 특징 : 삼강오륜의 유교 사상을 노래함. 교훈적인 의도를 직설적으로 표현함
- 출전 : <武陵續集(무릉속집)>

❖내용 연구

- [1] 서사
- [2] 부자유친(父子有親) : 초장에서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을 노래하고 종장에서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노래하여 훗날 정철의 '훈민가(訓民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 [3] 군신유의(君臣有義) : '종'은 '백성'을, '상전'은 '임금'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곧 군신(君臣)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것인 바 이것은 마치 벌이나 개미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 일함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신하는 임금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 [4] 부부 유별(夫婦有別) :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정성과 공경스런 마음으로 언제나 손님 대하듯 하라는 교훈성이 깃든 시조다. 중국 후한(後漢) 때 양홍(梁鴻)과 그의 처 맹광(孟光) 사이의 거안제미(舉案齊眉 : 상을 들되 눈썹과 가지런히 되게 높여 든다)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남편 섬기는 도리를 얘기하고 있다.
- [5] 형제우애(兄弟友愛) : 형제가 한 어머니 젓을 먹고, 또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장성한 말끔 서로 불화하면, 개돼지와 같으니 부디 형제간 우애하고 화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 [6] 장유유서(長幼有序) : 웃어른을 부모와 형같이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어바님 날 나후시고 어마님 날 기루시니** :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을 표현한 시구이다. 수태(受胎)를 하게 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이며, 이를 태중에서 길러 낸 것은 어머니의 은혜라는 뜻이다.

• **웃** :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 **이 덕을 갑파려후니 하늘 구이 업스샐다** : 부모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다는 뜻이다. 평생을 다 못 갚을 것이니, 부모를 공손히 섬기고 잘 모시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해와 감상

모두 6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이다. 이 시조들은 유교 사상을 노래하여 무척 유교적 이념이 강하게 드러난 교훈적이고도 도덕적인 설교가 많은 내용으로 오륜가(五倫歌)라 하는 것들이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는 서사의 성격을 갖고 있고, 둘째 수는 '부자유친(父子有親)'으로서 초장에서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을 노래하고 종장에서 부모의 은혜가 끝이 없음을 노래하여 훗날 정철의 '훈민가(訓民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셋째 수는 '군신유의(君臣有義)'로서 '종'은 '백성'을, '상전'은 '임금'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곧 군신(君臣)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것인 바 이것은 마치 벌이나 개미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 일함과 같은 것으로 보아, 신하는 임금에 대해 두 마음을 가지는 일이 없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넷째 수는 '부부유별(夫婦有別)'으로서 아내는 남편을 하늘처럼 정성과 공경스런 마음으로 언제나 손님 대하듯 하라는 교훈성이 깃든 시조다. 중국 후한(後漢) 때 양홍(梁鴻)과 그의 처 맹광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孟光) 사이의 거안제미(學案齊眉 : 상을 들되 눈썹과 가지런히 되게 높여 든다)라는 고사를 인용하여 남편 섬기는 도리를 말하고 있다. 이어 다섯째 수는 '형제우애(兄弟友愛)' 형제가 한 어머니 젖을 먹고, 또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장성한 만큼 서로 불화하면, 개나 돼지와 같으니 부디 형제간 우애하고 화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여섯째 수는 '장유유서(長幼有序)'로서 웃어른을 부모와 형 같이 공손하게 모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오륜가(五倫歌)"는 주세붕 이외에 박인로, 김상용 등이 지은 작품도 있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시가-관동별곡



(1) 서사 : 부임과 순력

부임	Ⓣ	창평	은거 생활, 천석고항
		한양	성은에 감격
		평구역	양주
		흑슈	여주
		섬강·티악	원주 감영이 있는 곳
순력		쇼양강(춘천)	연군지정, 우국지정
		동주(철원)·북관령	연군지정, 세사의 무상함
		회양	선정예의 포부

(2) 본사 :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

금강산 유람	Ⓣ	만폭동의 폭포	폭포의 장관, 비유·감각적 표현
		금강대의 선학	도선적 풍모, 셔호 넷주인
		진혈대에서의 조망	녀산 진면목, 우국과 총절
	Ⓣ	개심대에서의 조망	성현의 도를 흠모, 공자의 고사
		화룡소에서의 감회	선정예의 포부, 노룡에 비유
	Ⓣ	불정대의 12 폭포	폭포의 장관, '망여산 폭포'
		산영누	신선사상, 물아일체
관동팔경유람	Ⓣ	총석정	도교 사상, 기묘한 형상
		삼일포	사선의 추모
		의상대	일출의 장관, 우국지정
	Ⓣ	경포	정밀의 미, 미풍 양속
		죽서루	객수, 연군지정
		망양정	파도의 장관, 고래, 은산

(3) 결사 : 도선적 풍류

망양정	Ⓣ	망양정에서 월출과 꿈	도선적 풍류, 신선 사상
	Ⓣ	선우후락의 정신	선정예의 포부
		달이 비치는 모습	임금의 은총

■요점 정리

- 관동팔경 : 강원도에 동해안의 여덟 군데의 명승지로 청간정, 경포대, 삼일포, 죽서루, 낙산사, 망양정, 총석정, 월송정 또는 시중대
- 작자 : 정철(鄭澈)
- 갈래 : 가사(양반가사, 기행가사, 정경가사(마지막 구가 시조의 종장과 유사))
- 연대 : 선조13년(1580년), 작자가 45세 때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화려체,
- 사상적 배경 : 유교의 충의사상과 도교의 신선사상
- 표현상 특징 : 3·4조 4음보, 감탄법, 대구법, 생략법의 적절한 사용으로 생기가 넘침, 작자의 호탕한 기상이 드러남, 표기는 속종 때의 표기
-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295구로 이루어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볼 수도 있음
- 배경 사상 : 충의(유교) 및 애민 사상, 신선 사상(도교)
- 영향 관계 : 경기체가 안축의 관동별곡 → 가사 백광홍의 관서별곡 → 가사 송순의 면앙정가 → 정철의 관동별곡으로 이어짐
- 의의 : 서정적인 기행가사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승화시킨 가사
- 주제 :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 송강 가사에 대한 평가(김만중의 '서포만필'에서) : 관동별곡과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동방의 이소'라 하고 좌해진문장(左海眞文章)이라고 함. 이소(離騷)는 초나라 굴원의 대표적인 이별가임.
- 출전 : 송강가사 이선본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금강산과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느낀 것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일종의 기행문이면서도 기행문 이상의 감동을 준다는 데 진정한 가치가 있다. 송강 정철의 빼어난 가사 작품의 하나인 이 작품은 단순히 기행에 따른 견문과 색다른 경험 속에 연군의 정과 선유(仙遊)의 꿈을 융화시켜 보여 주는 것 이외에도, 특히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었다는 데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관동별곡'에서 갈등의 양상과 극복은 자연의 몰입,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 지향과 충의,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지만 도교적 신선 지향성은 연군의 정, 애민 사상, 우국적 감정에서 연유된 관찰사의 소임에 대한 강한 자각에 의하여 극복되고, 송강의 빼어난 경치 묘사의 특징은 생략과 비약에 의한 비약적인 전개, 역동적인 움직임의 포착에 의한 박진감 있는 경치 묘사가 특징이다.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사물만으로 전체의 상황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케 하고 과감한 생략과 압축된 표현으로 박진감을 자아낸다.

■ 심화 자료

● 관동별곡

1580년(선조 13) 정철(鄭澈)이 지은 가사. 《송강가사 松江歌辭》와 《협률대성 協律大成》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45세 되는 해 정월에 강원도관찰사의 직함을 받고 원주에 부임하여, 3월에 내금강·외금강·해금강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작품이다.

내용을 시상의 전개에 따라 나누면 4단으로 나뉜다. 1단에서는 향리에 은거하고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에 제수(除授)되어 강원도 원주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하였다.

2단에서는 만폭동(萬瀑洞)·금강대(金剛臺)·진혈대(眞歇臺)·개심대(開心臺)·화룡연(火龍淵)·십이폭포(十二瀑布) 등 내금강의 절경을 읊고 있다.

3단에서는 총석정·삼일포·의상대(義湘臺)의 일출, 경포대·죽서루(竹西樓) 및 망양정(望洋亭)에서 보는 동해의 경치 등 외금강·해금강과 동해안에서의 유람을 노래했다. 4단에서는 꿈속에서 신선과 더불어 노니는 것에 비유하여 작자의 풍류를 읊었다.

작품의 전체 행수는 이본에 따라 다르다. 성주본(星州本)은 71구 145행이며, 이선본(李選本, 關北本이라고도 함.)은 “어와 더 디워~ 알 거이고”가 더 있어 73구 146행이다. 《협률대성》에 실린 작품에는, 앞의 두 이본의 끝에 있는 “明月(명월)이 千山萬落(천산만락)의 ~ 오리라.”가 되어 79구 149행이다.

율격은 가사의 전형적인 4음 4보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음절수의 양상을 보면, 3·4조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4·4조이다. 그 밖에 2·4조, 4·3조, 3·3조, 2·3조, 3·2조, 3·5조, 5·2조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진술양식에서 작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인 신선과의 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감탄사와 생략법과 대구법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 우리말을 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자의 뛰어난 문장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시상은 이백(李白)의 〈유태산 遊太山〉·〈송왕옥산인위만환왕옥 送王屋山人魏萬還王屋〉·〈여산요기위시어허주 廬山謠寄韋侍御虛舟〉, 두보(杜甫)의 〈북정 北征〉, 소식(蘇軾)의 〈적벽부 赤壁賦〉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후인들은 이 작품을 매우 칭찬했는데, 김만중(金萬重)이 《서포만필 西浦漫筆》에서 ‘동방의 이소(離騷)’라고 찬양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주어 〈관동별곡〉을 모방하여 지어진 작품도 많이 나타났다. 조우인(曹友仁)의 〈관동속별곡 關東續別曲〉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松江歌辭(星州本·李選本), 協律大成, 西浦漫筆, 松江歌辭(朴晟義, 正音社, 1956), 韓國歌辭文學의 研究(李相寶, 螢雪出版社, 1974).(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관동별곡'의 색다른 이해 - '가면' 혹은 '진실'

이 작품은 인간의 양면적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면'은 관찰사라는 공인(公人)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의 얼굴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일종의 대사회적(對社會的)인 가면이다. 이러한 가면을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persona)'라고 한다. 반면 '진실'이란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이는 술을 마시고 취하거나 이백(李白)과 사선(四仙)을 동경하는 행동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으로 주로 움직임으로 나타나며 갈등과 욕망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면적 심적 태도를 '아니마(anima)'라고 한다. 이러한 페르소나와 아니마적 송강의 성격을 산을 유람할 때에는 페르소나적 모습이 많이 나타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 바다를 접했을 때에는 아니마적 풍취가 많이 발견된다.

● '관동별곡'의 시적 화자의 정서적 추이

이 노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에서 떠올린 이미지와 바다에서 떠올린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산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백색의 이미지이다. 백색 이미지는 '성스러움', '고결', '승화' 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고결성의 바탕은 시적 화자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위정자로서의 모습과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나 바다를 향해 가면서부터 시적 화자의 모습은 일변한다. 그 자신을 취선(醉仙)으로 표현하면서 천연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산에서 억제되고 다듬어진 위정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얼굴이, 바다에 이르러서는 인간 의식이 저 밑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두 모습은 마침내 갈등을 일으킨다. 이 점에서 이 노래는 단순한 기행 가사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깃들여 있는 두 얼굴의 표백(表白)이며, 그 갈등의 함축적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관동별곡'에서 '공간의 이동(산에서 바다로의 나아감)과 작자의 내면 변화

산에서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바다로 접어들면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면의 깊이로 향하는 전환을 보이고 있다. 산이 간직하고 있는 덕성을 본받아 실현하는 것은 작가의 의무이고 이상이며 목표였다. 그러기에 산의 경치를 노래하되 신하로서의 직분,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바다에 와서는 사회적인 의무보다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산을 보고는 곧고 변함없는 덕성을 본받고자 하고,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는 무한한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고자 했다.

● '관동별곡'에서 갈등의 양상과 극복은?

지은이는 관찰사로서의 공식적인 임무와 자연을 마냥 즐기고 싶은 신선적인 풍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신선과 만나는 꿈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우선 술을 모든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겠다는 말 속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에의 몰입, 도취를 추구하는 도교적 신선 지향과 충의, 우국, 애민 등을 지향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지만 도교적 신선 지향성은 연군의 정, 애민 사상, 우국적 감정에서 연유된 관찰사의 소임에 대한 강한 자각에 의하여 극복된다.

● '선우후락(先憂後樂)'

'이 술 가져다가 ~ 잣고야.'에서 취중에도 좋은 것을 백성과 같이 즐기고자 하는 송강의 애민 정신과 선정(善政) 포부가 느껴지는데, 이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정신이다. 송나라의 범중엄(范仲淹)이 쓴 '악양루기(岳陽樓記)'의 끝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진 이는 외물(外物)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으며, 자기 개인의 일로 슬퍼하지 않는다.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백성을 위해 걱정하고, 지방에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그 임금을 위해 걱정하게 되니, 이것은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에도 걱정이고, 물러나 있을 때에도 또한 걱정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느 때에 즐거운 것인가? 그는 반드시 천하[백성]가 걱정하는 것을 앞서 걱정하게 되며, 천하가 즐거움을 누린 뒤에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리라. 아, 이런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를 좇아 함께 갈 것인가?"

■ 내용 연구

● 江江湖호애 病병이 깎퍼 竹죽림님의 누엇더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되어 은서지에서 지내고 있었더니

[지은이가 이수의 옥사로 벼슬에서 면직되어 전남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더니라는 말로, 전남 창평은 대숲으로 유명하여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자연을 벗삼아 즐기던 것을 연상하여 지은이도 그러고 있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했으며, 작자의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 또는 은둔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수의 옥사 : 선조 11년 5월, 진도 군수 이수의 행뢰(뇌물 주는 일)사건으로 옥사(獄事)가 벌어졌는데, 송강이 이수를 두둔하다가 동인의 탄핵을 받아 면직되어 고향 창평에 돌아가 3년 동안 있었다.

▶강호 : ①강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으로 자연의 대유법

▶病병이 깎퍼 : 천석고황, 또는 연하고질을 뜻함.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연하고질(煙霞痼疾) :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性癖), 천석고황, 연하지벽
- ▶은일지사 : 은일(隱逸) ①세상을 피하여 숨음, 또는 그런 사람. 그의 작품에는 벼슬길에 대한 혐오감과 은일을 흠모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②예전에, 벼슬하지 아니하고 숨어 살던 학자. ③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던 은사(隱士)
- ▶竹岳林님 : 대나무숲, 또는 자연을 지칭하는 말로, 여기서는 송강의 은서지인 창평을 은유법으로 말함.

▶竹岳林님의 누엇더니 : 지은이가 이수(李守)의 옥사로 벼슬에서 면직되어 전남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니라는 말로, 전남 창평은 대숲으로 유명하여 중국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자연을 벗삼아 즐기던 것을 연상하여 지은이도 그러고 있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했으며, 작자의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 또는 은둔 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關東 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方面面을 맞디시니,**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하시니

- ▶關東東동八팔百백리니 : 대관령 동쪽, 곧 강원도 지방의 통칭.
- ▶方方面面 : 관찰사의 소임. '方面之任'의 준말.
- ▶맞디시니 : 맞기시니. 제수하시니 (기) 맞디다

맞디시니: **뵈(어근)+이(사동접미사)+시(주체높임선어말어미)+니(종속적 연결어미)**

●**어와 聖聖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 송강 정철 자신을 잊지 않고, 발탁하고 등용해준 성은에 감사하다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작자의 충의 정신과 그 당시 관료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 ▶ '이야'는 강세 보조사
- ▶ 가디록 : 갈수록

▶ **罔망極극하다.** : 그지없다. 다함이 없다.

●**延延秋秋門門 드리두라 慶慶會會南南門門 ぶら보며,**

경복궁의 서쪽 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임금을 뵈옵고,

☞ **드리두라와 부라보며,** 는 는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과 준비 절차가 생략법을 통하여 경쾌하게 표현되어 있고, 송강의 성격을 보는 듯하다.

▶연추문 : 경복궁의 서쪽문으로 영추문(迎秋門)이라고도 함.

▶드리두라 : 급히 들어가, 달려 들어가, 성은(聖恩)에 대한 감격이 넘친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한 감격이 행동으로 나타난 말.

▶경회 남문 : 경회루와 광화문

▶부라보며, : **드리두라와 부라보며,** 는 관찰사로 임명된 기쁨과 준비 절차가 생략법을 통하여 경쾌하게 나타나 있고, 송강의 성격을 보는 듯하다.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뵈 섰다.**

하직 인사를 올리고 경회루 남문으로 나오니, 출발을 재촉하는 듯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하직하고 : 웃어른께 작별 인사하고, '하직후고'의 '후' 생략.

▶옥절 : 임금이 신표(信標)로 주던 것으로 관원이 출발할 때에 기표(旗標)로 하여 앞에 세웠다.

▶**알뵈**: 앞에

관찰사로 임명받은 기쁜 마음을 '생략법'과 또는 '비약법'을 사용하여 경쾌하게 드러냄.

●**平평丘丘구驛역 물을 𠵼라 黑흑水水슈로 도라드니,**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평구역 : 양주(楊州) 동쪽 7리에 있던, 춘천과 원주로 갈리어 가는 길목의 역.

▶**물을 𠵼라** : 말을 갈아타고, 물(馬) / 말(言)

▶흑슈 : 여주 북쪽을 흐르는 한강 상류의 지류인 하나인 여강(驪江)의 옛이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瞻望江강은 어디메오, 雉티뚝악이 여기로다.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 '원주가 어딘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의 뜻으로, 문답법을 써서 원주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티악은 원주의 대유적 표현이다.

- ▶ 섬강 : 원주(原洲) 서남방 50리에 있는 한강 상류의 한 지류
- ▶ '-로다' : 감탄형어미로 반가움의 표현

● 昭秀陽양江강 누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이나?

☞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임금이 계신 서울로 간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으로 '소양강 - 한강 - 한양 - 임금'의 연상을 통해 연군의 정(戀君之情)을 노래하였고, 이처럼 '연상'을 통해서 연군지정을 표현한 구절은 '삼삼角각山山 第데一일峯봉이 흐마면 뇌리로다.'와 '홀'하리 漢한江江의 木木覓의 다히고져'라는 표현이 있다.

- ▶ 昭秀陽양江江 : 춘천에 있는 강. 북한강의 상류.
- ▶ 누린 : 내리는. 흐르는. '누리 漉'을 음수음을 맞추기 위해 '-누-'를 생략한 형태.

● 孤고臣신 去거國國에 白백髮발도 하도 할샤.

외로운 신하가 임금님 곁을 떠남에 근심이 많기도 하구나.

☞ 임금을 곁을 떠나는 신하의 착잡한 심회와 우국의 정(憂國之情)을 표현한 것으로, 백발은 연군, 우국, 객수(客愁)를 상징한다. 아마 음수음을 맞추기 위해 '하기도 할샤'의 '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 ▶ 孤臣(孤臣) :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 여기서는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
- ▶ 去國(去國) : 도움을 떠나는 뜻으로 원뜻은 나라를 떠남.

● 東동州州쥐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亭亭의 올라흐니,

철원에서 하룻밤을 겨우 밝히어 북관정에 오르니

☞ 부임지로 가는 첫밤을 잠 못 이루고, 전전반측(輾轉反側)하다가 겨우 날이 밝았다는에서 연군의 정과 관찰사로서의 임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 東동洲洲쥐 : 철원의 옛이름. 동주는 태봉국의 도읍지 철원의 옛 이름.
- ▶ 계오 : 겨우, 가까스로
- ▶ 새와 : 새워. (기)새오다
- ▶ 北북寬寬관亭亭 : 철원 북쪽에 있는 정자.
- ▶ 올라흐니 : 오르니. (기)오르다

● 三삼角角山山 第데一일峯봉이 흐마면 뇌리로다.

(임금님이 계신) 삼각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같구나.

- ☞ 연군의 정(戀君之情)이 담긴 구절이다.
- ▶ 三삼角角山山 :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인수봉의 세 봉우리를 이름.
- ▶ 흐마면 : 조금만 하면, 웬만하면(부사)

● 弓궁王왕 大대關關關 터희 烏오鵲작이 지지괴니,

태봉국의 궁예왕이 거처하던 대궐터에서 무심한 까막까치만이 지지귀고 있으니

- ▶ 弓宮王王 : 태봉의 임금인 궁예를 높여 이르는 말.
- ▶ 터희 : 터에, 터ㅎ(ㅎ받침체언)+의(처소 부사격 조사)
- ▶ 烏오鵲작 : 까마귀와 까치

● 干천古古 興흥亡망을 아는다, 몰우는다.

(너희들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 대궐터의 까막까치를 통해 회고의 정과 역사와 인생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고, 감정이입을 통한 의인법으로, 작자의 쓸쓸한 심정을 고조시키면서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읊고 있다.

● 淮淮陽陽 四四 邑邑이 마초아 구틀시고.

이곳의 이름이 중국 한나라의 회양이라는 지명과 마침 같구나.

- ▶ 회양 : 고려 충선왕 때부터 불러 온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그 이름이 중국 한나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때 금장유가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회양과 지명이 같다.

▶금장유 : 한 무제 때 직간신으로 이름은 암 장유는 그의 자로 무제가 그를 회양 태수로 좌천시켰으나, 정치를 잘 하여 와치회양(臥治淮陽)이란 칭찬을 받았다.

▶마초아 : 마침, 공교롭게, 동사 '마초다'에서 파생된 부사.

▶**갯돌** 시고 : 갈구나, **갯**(형용사 어간)+**돌**시고(감탄형 종결어미)

•**汲汲長塗孺유 風靡彩채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나를 통해) 금장유의 풍채를 다시 보게 되지 않겠는가?

☞ 송강 자신을 금장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선정의 포부와 목민관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함.

▶汲汲長塗孺유 風靡彩 : 선정(대유법)

▶금장유 : 한 무제 때 직간신으로 이름은 암 장유는 그의 자로 무제가 그를 회양 태수로 좌천시켰으나, 거기서도 정치를 잘 하여 제도를 간소히 하고, 덕으로 백성을 감화하여 관내가 태평을 구가하였고, 인근 백성들이 모여들고 고을이 번창해지자, 와치회양(臥治淮陽:" 누워서도 회양을 잘 다스렸다)이란 칭찬을 받았다.

•**營中동이 無무事수하고 時季節절이 三三月월인 제,**

감영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인 때,

☞ 작자 자신이 선정을 하여 도내(道內)가 태평함을 은연중 드러낸 말이다. 자화자찬(自畫自讚)

▶營中동 : 감영 안, 지금의 도청, 여기서는 회양부를 가리킴.

•**花화川천 시내길히 楓풍岳岳으로 버더 잇다.**

화천 고을 시내를 따라 난 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잇다.

☞ '三月'과 '花', '川'과 '시내'가 연쇄법(連鎖法)을 이루어 아름다운 내금강으로 향하여 떠나는 필자의 그지없는 흥겨움이 잘 나타나 있다.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므로 어울리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화천 : 회양 동쪽에 있던 고을 이름

▶풍악 : 가을 금강산의 별칭. 봄 : 금강, 여름 : 봉래, 가을 : 풍악, 겨울 : 계골

•**行행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涇涇의 막대 디퍼,**

행장을 가볍게 하여 좁은 돌길에 지팡이를 짚어

▶行행裝裝 : 여행할 때의 채비.

▶썰티고 : 떨치고.

▶石石涇涇 : 돌이 많은 오솔길

▶막대 : 지팡이, 막다히>막다이>막대

▶디퍼 : 짚어

•**百百川천洞洞 겨히 두고 萬萬瀑폭洞洞 드러가니,**

백천동 옆을 지나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百百川천洞洞 : 장안사 동북에 있는 옥경대, 명경대로 들어가는 골짜기

▶萬萬瀑폭洞洞 : 표훈사 위로부터 마하연 아래까지의 계곡

•**銀은 구튼 무지개, 玉옥 구튼 龍龍의 초리,**

은같이 흰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처럼 생긴

☞ 힘차게 쏟아지는 만폭동 폭포의 역동적인 장관을 절묘하게 구사한 구절로 무지개와 용의 초리의 원관념은 폭포이고, 직유법과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무지개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는 느낌이 강하고 용의 초리는 힘이 강렬하다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아름다우면서도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은'과 '옥'은 순수성과 고결성을 함축한다.

▶초리 : 꼬리로 현대의 '눈초리', '회초리'에 자취가 남아 있다.

☞ 이태백의 망여산 폭포가 연상된다.

日照香爐生紫煙 (일조향로생자연)

遙看瀑布掛長川 (요간폭포괘장천)

飛流直下三千尺 (비류직하삼천척)

疑是銀河落九天 (의시은하락구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향로봉에 햇빛 비쳐 안개 어리고
 멀리에 폭포는 강을 매단 듯,
 물줄기 내리 쏟아 길이 삼천 자
 하늘에서 은하수 쏟아지는가.

• **섯돌며 썸는 소리 십십리리의 주자시니,**

폭포가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십 리 밖까지 퍼졌으니

▶ **섯돌며** : 섞이어 돌며, **섯**(다)+돌다 셋돌다(합성동사)

▶ **주자시니** : 깔렸으니. 퍼졌으니.

•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더니 가까이서 보니 흰 눈이 날리는 것같구나.

☞ 폭포 모습을 청각적 심상(우레-폭포소리)과 시각적 심상(눈- 폭포의 모습)의 조화가 이루어진 구절.

▶ **우레러니** : 우뢰이더니. '우레' (원관념) 폭포 소리. -더->-러-: 유음화 우레>우뢰 : 민간어원

☞ 민간어원설.(우레의 어원이 한자어 '雨雷'인 줄 잘못 앞으로써 온 잘못.)

☞ 민간어원 : 언어학적 방법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되지 않고, 민간에서 속설로 믿어지고 있는 어원. 임진왜란 전에 발간된 책에 '행주치마'라는 말이 이미 있는데도 임진왜란 때 행주(幸州)에서의 싸움과 관련지어 유래를 설명하는 것 따위이다.

▶ **보니** : 보니. 본즉, '눈'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무의미한 음절.

▶ **눈** : '눈'(원관념) 폭포(의 포말) (은유법)

☞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음.

• **금금강강홀디 맨 우릍층의 仙선鶴학이 샷기 치니**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치는데,

▶ **금금강강홀디** : 표훈사(表訓寺) 북쪽의 깎아 세운 듯한 석벽

▶ **仙선鶴학** : 신선이 타고 논다고 하는 학.

▶ **샷기** : 새끼. 샷기>새끼(ㅣ모음 역행동화)

• **춘춘風품 玉옥笛덕聲의 첫짐을 깨똥던디,**

옥피리처럼 들리는 봄바람 소리에 풋짐을 깨었던지

▶ **玉옥笛덕聲** : 옥피리 소리. 산속의 봄바람 소리를 미화, 은유

▶ **깨똥던디** : 깨었던지.

• **縞호衣의玄현裳상이 半반空공의 소소 쓰니,**

학이 공중에 치솟아 뜨니 그 모습이

▶ **縞호衣의玄裳裳** :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본래 뜻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를 가리킴. 여기서는 '몸뚱이가 희고 날개 끝이 검은 학, 곧 선학'을 비유한 것임. '선학'의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소동파의 후적벽부에 "適有孤鶴적유고학 橫江東來횡강동래 翹如車輪시여차륜 玄裳縞衣현상호의(때마침 한 마리 학이 강을 건너 동쪽에서 오는데, 날개는 수레바퀴 같고 검은 치마 흰 옷을 입은 모양으로)

▶ **半반空공** : 하늘 가운데.

▶ **소소** : 솟아, 솟(동사 어근)+오(접미사) 솟아(파생 부사)

• **西서湖호 넷 主주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그 모습이) 서호의 임포를 반기는 듯하구나.

☞ 작자 자신을 은근히 신선적 풍모에 비기고 있으며,

▶ **西서湖호 넷 主주人인** : 송나라의 시인 임포(林逋)를 가리킴. 자신이 마치 임포(신선)인 양 말하고 있으며(대유법), 작자의 호방한 풍모를 암시하는 말

▶ **넘노는 듯** : 넘나들며 노는 듯. '듯':보조 형용사 '듯하다'의 준말.

▶ **西湖** : 중국 서강성에 있는 호수 이름. 송나라 때 임 포가 서호에 숨어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서 살았다고 하여 매처 학자(梅妻鶴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小소향향爐노 大대향향爐노 는 아래 구버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 보고

▶小소향향爐노大대향향爐노 : 만폭동 입구에 솟아 있는 작고 큰 두 봉우리로 향로처럼 생김.

●正정陽양寺스 眞진歇혈臺타이 고터 올라 안존마리,

정양사 뒤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正정陽陽寺스 : 표훈사 북쪽에 있는 절

▶眞진歇혈臺타이 : 정양사 뒤쪽의 높은 대

●廬녀山산 眞진面면目목이 여기야 다 봐는다.

금강산 만이천봉의 모습이 다 보이는구나.

☞ 여산의 참모습을 못 보았다고 소동파는 한탄했지만, 나는 진혈대에 올라 금강산의 참모습을 다 본다는 뜻으로, 금강산의 장관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구절로 녀산을 금강산으로 한 것은 은유법에 해당.

▶廬녀山산 : 중국의 명산. 문맥 의미: 금강산의 참모습(참된 아름다움)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여 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비김.

▶진면목 : 참모습

☞ 녀산의 진면목 : 소동파가 지은 '제서림사벽'에서 인용한 시구. "橫看成嶺側成峰(횡간성령측성봉) 遠近高低各不同(원근고저각불동) 不識廬山眞面目(부식녀산진면목) 只緣身左此山中(지록신좌차산중)" 비스듬히 보면 영마루가 되고, 옆에서 보면 봉우리도 되니, 멀리서 가까이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보는 것이 모두 다르다. 여산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은 다만 내가 이산(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로다.

▶여기야 : 여기서야.

▶봐는다 : 보인다.(피동사) 보(동사 어근)+니(피동 접미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다(평서형 종결어미)

●어와, 造造化화翁옹이 현수토 현수할샤.

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하구나.

▶造造化화翁옹 : 조물주.

▶현수토 현수샤 :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아름답게 꾸몄구나. '현수호기도'의 축약.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봉우리들이 날거든 뛰지 말거나, 셋거든 솟지 말거나

☞ 산봉우리들이 날고도 뛰고 셋고도 솟았다는 말로 산봉우리의 변화 무쌍한 모습을 표현 (활유법, 대구법)

▶'거든 마나' : 송순의 면앙정가의 영향을 받은 듯함.

▶넙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지마나 - 늘거든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부蓉용을 고갓는 듯, 白백玉옥을 뭏것는 듯,

부용을 꽃은 듯, 백옥을 묶은 듯 수려하며,

☞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유법, 대구법으로 표현, 송순의 면앙정가의 영향을 받은 듯함.

▶芙부蓉용 : 연꽃. 원관념 : (아름다운)산봉우리

▶白백玉옥 : 백옥, 원관념 : (아름다운)산봉우리.

●雙龍이 뒤트는 듯, 긴갑을 치פת는 듯 - 부용을 고갓는 듯, 백옥을 뭏것는 듯

▶뭏것는 듯 : 묶었는 듯.

●東동溟명을 박추는 듯, 北북極극을 괴왔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괴고 있는 듯 웅장하구나.

☞ 북극은 중의적 표현으로 임금을 상징하고, '북극을 괴왔는 듯'은 신하가 임금을 받들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송강 자신의 충절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직유, 대구, 활유법, 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인법이 사용되었다.

▶ **괴왓는 돛** : 떠받쳐 권, 괴고 있는 기본형은 괴오다.

▶ 溟:바다 명

▶ 북극성 : 임금을 상징

• **높을시고 望望高고홀디, 외로올샤 穴혈望望峰봉이**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 망고대, 혈망봉이라는 무정물을 유정물로 취급하여 자신의 높은 의지와 고고한 절개를 은근히 나타내

타내고 있다. 표현 기법 : 도치법, 영탄법, 의인법, 대구법

▶ 높을시고 : 높구나. 높(형용사 어간)+을시고(감탄형 어미)

▶ 외로올샤 : 외롭구나. 외롭(형용사 어간)+올샤(감탄형 어미)

• **하날의 추미러 무스 일을 스로리라**

하늘에 치밀어 무슨 말씀을 사뢰려고

☞ 산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 직간신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의연한 기개와 절의를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하늘** : 북극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상징하는 중의적 표현. 의인법

▶ 추미러 : 치밀어. '추다(양:揚)+밀다(추:推)'의 합성어.

▶ **무스** 일을 : 무슨일을

▶ **스로리라** : 알리려고. (기)스로다. 스로(어간)+리라(의도 종속적 연결어미)

• **千천萬만劫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끝없는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 산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새삼 느껴 자신의 절의(節義)를 다짐하고 호소한 말. 임금에게 직간(直諫)하고자 하는 지조의 표현임. 의인법, 직간의 지조

▶ 千천萬만劫劫 : 오랜세월

▶ 구필 : 굽힐. 굽(형용사 어근)+히(사동 접미사)+ㄹ(관형사형) (기)구피다.

▶ **모르는다** : 모르느냐?

• **어와 너여이고, 너 구투니 또 잇는가.**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 같은 것이 또 잇는가

▶ 너여이고 : 너(대명사)+여이고(감탄형)

▶ **구투니** : 굽(형용사 어간)+은(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 **開기心심홀디 고터 올라 衆동香향城성 바라보며,**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 **開기心심臺** : 정양사 위에 있는 대. 다시 올라 금간산을 잘 볼수 있는 곳임

▶ 衆동香향城성 : 영랑봉 동남쪽에 둘러 있는 암봉(岩峰).

• **萬만二이千천峯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호니**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 萬만 二이千천峯봉 : 금강산 모든 봉오리를

▶ 歷歷歷歷히 : 똑똑히. 분명히

▶ 혀여호니 : 세어 보니. 헤아리니. 혀여호니 : (기)헤다. ('혀'는 의미 강조와 음수율을 맞추기 위한 음절. 헤여호니)혀여호니 (동음생략)

• **峰봉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봉마다 밋쳐 잇고, 산끝마다 서린 기운

▶ **밋쳐** : 밋혀.(피동사), 밋(어근)+히(피동 접미사)+어(보조적 연결어미)

▶ 굿마다 : 끝마다.

▶ 기운 : 기운. 산의 정기

• **뭍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뭍디 마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서린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거나 할 것이지 맑으면서 깨끗하니

▶ 맑거든 깨끗하지나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운동 맑고 깨끗한(수려한) 기운이 감도는 산봉우리여, 산 정기의 맑고 깨끗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대구법, 연쇄법, 반복법이 사용되었으며, 송순의 면양정가에서의 문체와 같은 표현이다.

▶조티 : 깨끗하지 (기)좋다(淨)(형용사), 좋다(好)

•더 귀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弄돌고자.

금강산의 맑고 깨끗한 정기를 훑어 내어 인걸을 만들고 싶구나.

▶만 이천 봉에 맺혀 있는 깨끗하고 맑은 정기로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당시 조정 에 얽혀 있는 당쟁을 다스릴 인재를 갈망하는 심정의 표현으로 우국지정(憂國之情)이 담겨 있는 구절이다.

▶弄돌고자 : 만들고 싶구나. (기)弄돌다. 弄돌(어간)+고자(원망형)

•形형용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 할샤.

산의 생김새도 한이 없고, 형세도 다양하기도 하구나.

▶산(봉우리)의 변화 무쌍한 모습을 묘사한 말로, '어와, 조화옹이 閑스도 閑스홀샤'라는 구절과 대응되는 구절이다. 대구법과 영탄법

▶形형용용 : (산의)정적인 모습(靜態).

▶體體勢세 : 몸가짐, 모양새. (산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인 동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도 할샤 : 많기도 많구나.

•天天地地 삼기실 제 自自然然이 되연마는,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히 생겼지만,

▶천지가 처음 생겨날 때에는 자연히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다양한 산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구절

▶삼기실 : 생겨날. 창조될. (기)삼기다 삼기다>상기다>생기다 '시': 비존칭 선어말 어미.

▶自自然然 : 저절로.(부사)

▶되연마는 : 되었지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이제 와서 (금강산의) 모습을 보게되니 조물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경탄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구절

▶有有情정도 有有情정홀샤 : 유정하기도 유정하구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듯하여) 정답기도 하구나. 영탄법

•毗毗盧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가 누구인가?

▶毗毗盧로峰봉 : 금강산의 최고봉. 꼭대기, 해발 1638m

▶보니 : 본 이가 보(어간)+니(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그 : 그가

▶뉘신고 : 누구이신고? 누구인가?

•東동山山 泰태山山이 어느야 높듯던고.

동산 태산이 비로봉과 비교하여 어느것이 높던가?

▶이 구절은 '맹자(孟子) 진심장' 상편(上篇)에 나오는 것으로, 풀이해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의 인용으로서, 풀이하면 '공자가 동산에 올라 보고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보고 천하를 작게 여겼다.'라는 뜻이다. 도달하는 경지가 높고 크면 클수록 군소(群小)의 것은 작은 것으로 눈에 비치게 마련이다. 곧, 성인의 도는 다른 보통의 도보다 월등(越等)함을 깨닫게 해 준다는 말이다.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는 공자의 활달한 정신적 경지[浩然지기(浩然之氣)]를 흠모한 표현으로, 동산·태산같이 높은 비로봉에 올라가더라도 자신은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탄식했다. 설의법, 비교법 (비로봉 : 동산, 태산)

▶東동山山 泰태山山 : 중국 산둥성에 있는 두 산의 이름

▶어느야 : 어느 것이 어느(대명사)+야(강세 보조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높듯던고. : 높던가? 높(어간)+듯(감탄선어말어미)+더(회상선어말어미)+니고(의문형 어미)

- **魯國** 조는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 **넙거나 넙은 天** 下하 멋씨후야 적닷 말고.

(공자는)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는 말이고

【비로봉의 높은 산세를 바라보며 공자의 고사를 연상한 표현. [맹자(孟子) 진심장]에 [孔子曰 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란 구절이 있고, 공자의 활달한 정신적 경지(호연지기:浩然之氣)를 흠모한 표현.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후면 말 거이고.

아, 공자의 저 높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아, 공자의 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안회(顏回)가 공자의 덕의 높고 큼은 아무리 하여도 미치지 못하겠다고 자탄한 말[앙지미고(仰之彌高)]과 관련됨.

- ▶ 더 디위 : 저 (정신적) 경지,
- ▶ 디위 : ① 번(番), ② (정신적) 경지, ③(땅의) 경계

- **모루디 못후거니** 누려가미 고이출가.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공자의 높고 큰 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 중단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말로 성인의 도가 높고 큼을 이르는 말로, 비로봉을 바라보며 공자의 덕을 흠모하는 장면임, 개심대(開心臺)에서의 조망과 감회

- ▶ 고이 **출**가 : 괴이할까? 이상하랴? 그렇지 않다. 괴이(怪異) **호**다)고이 **호**다(동음생략)

- **圓** 원통통골 구는 길로 獅子_수주_주봉을 추자가니,

원통골 좁은 길을 따라 사자봉을 찾아가니

- ▶ 원통통골 : 표훈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
- 구는 길 : 좁은 길, 세로(細路), 주의) 가는 길: 行路
- 구는(細)- 형용사

▶ 가는(行) - 동사

- 그 앞피 너러바회 化_화龍_룡쇠 되어세라.

그 앞에 너럭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 ▶ 앞_피 : 앞에, 앞(명사)+**피**(처소부사격 조사)
- ▶ 너러바회 : 너럭바위, 반석(盤石).
- ▶ 化_화龍_룡쇠 : 화룡소(못, 명사)+**이**(보격 조사) 되었구나.
- ▶ 되어세라 : 되(어간)+여시(과거시제 선어말어미)+에라(감탄형 종결어미)

- 千_천年_년 老_노龍_룡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천 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어 있어

【화룡소의 굽이치는 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노룡은 상징적인 뜻으로는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중의적 표현임

- ▶ 구_비구_비 : 굽이굽이. (부사) 서려어 있어서

- 晝_듀夜_야의 흘러 내어 滄_창海_해히에 니어시니,

주야에(밤낮으로) 흘러(흐르게 하여). 아득히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이어 있으니.)

- ▶ 니어시니 : 이었으니 (기)났다)있다

- 風_풍雲_운을 언제 어더 三_삼日_일雨_우를 디련는다.

(노룡이) 언제 바람과 구름의 조화를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릴 것인가?

【형식은 묻는 말로 되어 있으나, 속뜻은 외적에 나와 있는 자신과의 자문자답(自問自答)으로 볼 수 있다. '언제 임금의 은총을 받들어 선정(善政)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화룡소 - 노룡(송강) - 풍운(정치를 펼 시기) - 삼일우(백성에게 베푸는 선정, 임금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은총)의 연상에 대한 표현

▶ **디련논다** : 내리려 하느냐? '디려하논다'에서 '하' 생략.

• **陰 음崖 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어수라.**

그늘진 언덕의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이 구절 역시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선정(善政)에의 의지와 관찰사다운 선치(善治)애민(愛民)의 정신을 나타낸 말이다. 은유법으로 풀은 곧잘 백성에 비유되는데 이는 창생(蒼生)의 '창(蒼)'이 풀빛을 의미하는 것과 관련된다.

▶ **陰 음崖 애에** : 응달, 그늘진 언덕.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벽지'를 비유함.

▶ **풀** : 시든 풀, 마른 풀. '도탄에 빠진 백성'

▶ **이온** : 이다>이올다>이올다

▶ **살와** : 살리어. ('살다'의 사동사) 살(어근)+오(사동 접미사)+아(보조적 연결형) (기)살오다

▶ **내어수라** : 내려무나. (명령형), 내(어간) + 여수라(명령형)

• **磨 마訶 하衍 연 妙 묘吉 길祥 상 雁 안門 문재 너머 디어,**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 **磨 마訶 하衍 연** : 만폭동 상류 가장 깊은 곳의 지명.

▶ **묘길상** : 마하연 동쪽 석벽에 새겨 놓은 불상 이름

▶ **안문재** : 마하연에서 유점사 넘어 내려가 도중에 있는 고개 이름.

• **외나모 써근 두리 佛 불頂 덩툰디 올라흐니,**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 **써근 두리** : 썩은 다리, 낡은 다리. 두리(橋), 다리(脚)

▶ **佛 불頂 덩툰디** : 고성군 서쪽 7리 밖에 있는 바위, 지금의 은선대

▶ **올라흐니** : 오르니.

• **千 천尋 심 絶 절壁 벽을 半 반空 공에 세여 두고,**

천길이나 되는 높은 절벽을 허공에 세워 두고,

▶ **千 천尋 심 絶 절壁 벽** : 천길이나 되는 절벽. 尋: 여덟자 심.

▶ **반공** : 공중

▶ **세여** : 세워. (기)세다 셔(자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여(보조적 연결어미)

• **銀 은河 하수 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어,**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 **열 두 단으로 흐르는 십이 폭포는 마치 은하수를 열 두 마디로 베어 놓은 것같다고 하였다**는 말로 십이 폭포의 장관을 표현한 구절로 비유와 묘사에 의한 표현

▶ **銀 은河 하수 수** : 은유법, 원관념 : 폭포

▶ **한 구비** : 많은 구비를, '한'은 형용사로서 '많은(多)'의 뜻. 오늘날에는 접두사에 자취가 남아 있다.

▶ **촌촌이** : 마디마디 (부사)

▶ **버혀 내어** : 베어. (기)버히다. 버히다>버이다>베다

• **실구티 플터이셔 뵈구티 거러시니,**

실처럼 풀어가지고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

▶ **십이폭포의 장관을 마치 베를 위에 걸어 놓은 날실과 베의 모습과 같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실처럼 풀어가지고는 폭포를 가까이서 본 모습을,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는 멀리서 바라본 모습을 각각 비유.** 폭포의 보조 관념: '은하수, 실, 뵈'. 직유법, 대구법

▶ **실구티** : 실처럼

▶ **플터이셔** : 풀어서, 풀어 가지고.

▶ **뵈구티** : 베같이.

▶ **거러시니** : 걸었으니.

• **圖 도經 경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산수도경에는 열두 굽이로 그려 놓았지만, 내 보기에는 더 되는 것같구나.

▶圖道經경 : 산수의 지세(地勢)를 그리고 설명한 책.

▶열 두 굽이 : 십이폭포

▶여러히라 : 여럿이다. 여러ㅎ(ㅎ받침체언) +이(서술격 조사의 어간)+라(평서형)

●季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이백이 지금 살아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ㄹ 이백의 벗 하지장(賀知章)이 "이백은 하늘에서 인간으로 귀양온 선인(仙人)이라."하였음. 이백은 여산(廬山)의 폭포가 기이한 것을 보고 '여산 폭포시'를 지었음.

▶季니謫덕仙선 : 이 백(李白).

▶고터 : 다시.(부사)

이태백의 망여산 폭포

日照香爐生紫煙 (일조향로생자연)

遙看瀑布掛長川 (요간폭포괘장천)

飛流直下三千尺 (비류직하삼천척)

疑是銀河落九天 (의시은하락구천)

향로봉에 햇빛 비쳐 안개 어리고

멀리에 폭포는 강을 매단 듯,

물줄기 내리 쏟아 길이 삼천 자

하늘에서 은하수 쏟아지는가.

●廬녀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허려니.

여산의 폭포가 금강산의 십이 폭포보다 낫다는 말을 못하리라.

ㄹ 십이 폭포의 장관을 강조한 말로, 이백이 '망여산폭포'에서 여산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것을 연상하고, 십이 폭포를 이와 비교하여 여산 폭포보다도 절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 도곤은 비교법

▶廬녀山산 : 여산 폭포, 중국의 폭포

▶여기도곤 : 여기보다. 여기(대명사)+도곤(비교 부사격 조사) 십이폭포보다.

▶낫단 : 낫다는

▶못 허려니 : 못 하리라. 못할 것이다. 주체 : 이적선(이백)

●山山中등을 미양 보라, 東동海해로 가자수라.

금강산만 늘 보라. 동해로 가자구나

ㄹ 내금강 → 해금강으로 장소가 전환되면서 동시에 시적 주인공의 모습도 일변하게 되는 전환구에 해당한다. 즉, 산에서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던 시적 주인공이 바다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미양 : 항상. 늘.(부사) 미양>미 >미양>미양>미양>미양 울림소리되기. 동음생략.

▶활음조. 15세기 동국정운식 표기: 每甞常甞

▶가자수라 : 가자구나, 가(어간)+자수라(청유형 어미)

●藍남輿어 緩완步보후야 山山映영樓樓누의 올라후니,

남어를 타고 천천히 걸어 산영루에 오르니,

▶藍남輿어 : 귀인이 타는 뚜껑없는가마

▶緩완步보 : 천천히 걸음

▶山山映영樓樓누 : 작자가 잠시 쉬어 가는 누각

●玲녕瓏농 碧벽溪계와 數수聲성啼啼鳥鳥도는 離니別별을 嚮원후는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ㄹ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운 심정을 시냇물과 새에 의탁한 감정이입으로 작자의 아쉬움이 담긴 심정을 마치 시냇물과 새가 그러한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다른 행에 비해 음보율이 파괴된 6음보로 한 행을 이루고, 이 구절은 내금강 유람길에 올랐을 때 " 縞호依의현裳상이 ~ 반겨서 넘노는 듯. "이라는 구절과 서로 호응한다.

▶玲녕瓏농碧벽溪계 : 눈부시도록 맑고 아름다운 푸른 시내.

▶數수聲성啼啼鳥鳥도 : 여러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旌정旗기를 썰티니 五오色색이 넘노는 듯,

깃발을 휘날리니 갖가지 색깔의 깃발이 서로 넘나들며 노는 듯하고,

☞ 동해로 가면서 느끼는 상쾌함과 위풍당당한 관찰사의 행차를 표현한 구절로 시각과 청각을 동원한 감각적인 표현으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旌정旗기 : 깃발. 관찰사의 행렬을 상징하는 깃발.

▶썰티니 : 떨치니. 위세있게 휘날리니. 썰(어근)+티(강세 접미사)+ 니(종속적 연결어미)

▶五오色色 : 여러 가지 빛깔.

▶넘노는 듯 : 넘나들며 노니는 뜻. (깃폭이 뒤섞여 나부끼는 모양)

●鼓고角각을 섯부니 海海雲운이 다 걷는 듯.

북을 치고 나발을 부니 그 소리에 바다 위의 구름이 다 걷히는 듯하다.

☞ 동해로 가는 관찰사의 행차가 잘 나타나 있고, 바다 위의 구름도 관찰사의 행차에 움츠러든 듯하다. 흥겨움과 생동감 넘치는 행차 광경의 대구적 표현.

▶鼓고角각 : 북과 피리.

▶섯부니 : 섞어 부니. 섯불다 섯불다. 섯다(混)+불다(吹)의 합성동사.

▶海海雲운 : 바다구름

▶걷는 : 걷히는. (기)걷다

●鳴명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仙을 빗기 시러,

모래밭 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

☞ 지은이가 도선적 풍류에 젖어 말을 탄 채로 명사 십리 바닷가를 따라 걷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다. 여기서 '취선'은 도선적인 풍류를 보인 말로서, 술과 풍경에 도취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은이의 취흥과 낭만적인 풍모를 엿볼 수 있다. 취선 - 작자 자신

▶鳴명沙사길 : 밟으면 씻소리가 울린다는 모래밭

▶니근 : 익은. 익숙한.

▶醉취仙仙 : 취한 신선. 작자 자신(송강). 은유법

▶빗기 : 비스듬히. 뵈(형용사 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빗기(파생 부사)

●바다을 것턱 두고 海海棠棠花화로 드러가니,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바다을 : 바다를.

▶것턱 : 곁에.

▶海海棠棠花화 : 해당화 꽃밭.

●白백鷗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갈매기야 날지 마라. 내가 네 벗인 줄 어찌 알겠느냐?

☞ 백구와 벗하면서 자연 속에 노닐고자 하는 자연 친화의 정서를 표현한 구절로, '너의 벗인 줄 어찌 알고 이렇게 날면서 반기느냐?'로 풀이해야 옳다는 견해도 있다. 백구와 벗하면서 자연 속에 노닐고자 하는 자연 친화의 감정이 나타나 있다. 즉,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희구한 말로 문답법과 도치법, 의인법이 쓰임.

▶아는 : '아는다'에서 '다' 생략.

●金金蘭蘭窟굴 도라드러 叢총石석亭亭 올라하니,

금난굴을 돌아 들어 총석정에 올라가니

▶金金 난窟굴 : 통천(通川)바닷가 높은벼랑에 있는 큰 동굴.

▶叢총石석亭亭 : 금란굴 북쪽 10리에 있는 바닷가 정자.

●白백玉옥樓樓 누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서 잇고야.

백옥루 남은 돌기둥이 다만 넷이 서 있구나.

☞ 총석정 앞 바다에 솟아 있는 네 개의 돌기둥을 미화한 표현. 미화법.

▶白백玉옥樓樓 : 옥황 상제가 거처한다는 누각.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네히 : 넷이. 네 개가. 네ㅎ(ㅎ받침체언)+이(주격 조사)

▶셔 잇고야 : 셔 잇구나.

•**工公垂슈의 성녕인가, 鬼귀썰부로 다두문가.**

(옛날 중국의 명장인)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신기한 귀신의 도끼로 만들었는가

▶工公 슈 : 중국 고대의 이름난 공작품(工作品) 공장(工匠)의 이름. 표현은 대유법

▶工匠: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

▶성녕 : 공작, 공작품

▶鬼귀썰부 : 신기한 연장(도끼). 다듬었는가?

▶다두문가 : 다듬(어간)+은 가(과거 의문형) 기본형은 다듬다.

•**구투야 六육면면은 므어슬 象상똥던고.**

구태어 돌기둥을 여섯 모 나게 한 것은 무엇을 본똥는가?

【 사선봉의 모양이 육면의 석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연 무엇을 본 똥 것일까?

육면은 여섯 면으로 된 네 개의 돌기둥(六角 石柱)을 옥황상제가 사는 누각의 기둥에 비기고, 공수가 만들었는지 신기한 도끼로 만들었는지 신묘(神妙)하기 이를 데 없다고 찬탄하였다.

▶六육면면 : 동서남북상하의 6면. 곧, 사방천지인 우주를 상징하는데, 사선봉을 이런 모양으로 만든 조물주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를 헤아려 본 구절이다.

▶므어슬 : 무엇을.

▶象상똥던고 : 형상했던가? 본똥던가?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추자가니,**

고성을 저만큼 놓아 두고 삼일포를 찾아 가니

▶高고城성을란 : 고성은

▶더만 두고 : 저만큼 놓아 두고

▶三삼日일浦포 : 고성 북쪽에 있는 포구 이름으로 사선(술량, 남량, 영량, 안상)이 3일 머물러서 삼일포라고 함.

•**丹단흠서는 宛완然연후되 四수仙선은 어디 가니,**

벼랑에 붉은 글씨는 뚜렷하되 사선은 어디 갔는가?

【 절벽에 '永郎徒南石行(영랑의 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글을 쓴 사선은 어디로 갔는가? 사선에 대한 지은이의 최고적 정감이 표현된 구절

▶丹단흠서 :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

▶宛완然연 후되 : 뚜렷하되, 분명하되

▶四수仙선 : 신라 국선(國仙)인 , 영랑, 남량, 술량, 안상.

▶가니 : 갔는가? 가(어간)+니(과거의문형)

•**예 사흘 머은 後후의 어기 가 쏘 머물고**

여기서 사흘 동안 머무른 후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머물고 : 머무를까? 문맥상 의미는 '머물렀는가'이다.

•**仙선遊유潭담 永영郎郎湖호 거괴나 가 잇는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나 갔는가?

▶仙선遊유潭담 : 간성 남쪽 10리쯤에 있는 못

▶永영郎郎湖호 : 연못

▶거괴나 : 그곳에나

▶가 잇는가 : 가 있는가?

•**淸淸澗간亭亭 禹만景경홀되 몇 고되 안똥던고.**

청간정, 만경대 등 몇 군데서 앉아 놀았던가?

▶淸淸澗간亭亭 : 간성 남쪽 45리쯤에 있는 정자, 관동 팔경의 하나

▶고되 : 곳에

▶안똥던고. : 앉았던가? 앉아 놀았던가? 앉(어간)+똥(감탄 선어말어미)+더(회상 선어말어미)+고(과거 의문형)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梨니花화는 벌써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 때

▶ 배꽃이 떨어지고 접동새가 슬피운다는 분위기는 애상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 **梨니花화**는 : 배꽃은

▶ **벌써** : 벌써

▶ **디고** : 떨어지고, 지고, 디다(落), 지다(負).

● **洛낙山山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대에 올라 안자,**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가서 의상에 올라 앉아

▶ **洛낙山山** : 산이름, 양양 동북 15리쯤 되는 바닷가의 산

▶ **義의相상臺대** : 낙산사 동쪽 바닷가 벼랑 위에 있는 정자.

●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동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밤중쯤 일어나니

▶ 작자의 원망(願望) 즉 소망이 담겨 있다.

▶ **보리라** : 보려고, 보(어간) -리라는 종속적 연결어미)

▶ **밤동만** : 밤중쯤, 한밤중에. '만'은 정도 보조사.

▶ **니러하니** : 일어나니.

●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륙龍룡이 바퇴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섯 용이 하늘을 떠받쳐 괴는 듯

▶ **해가 막 떠오르려는 순간의 장관을 묘사한 대목으로 동적인 이미지의 표현이며, 직유법, 과장법이 사용됨**

▶ **祥상雲운** : 상서로운(좋은 징조의) 구름.

▶ **집피는** :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 **동** : 동, 듯

▶ **바퇴는** : 떠받치는, 지탱하는.

● **바다히 떠날 제난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해가) 바다에서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이더니

▶ **바다히** : 바다에서, 바다로부터

▶ **萬만國국** : 온세상이

▶ **일위더니** : 흔들리더니, 일렁거리더니. (기)일위다.

● **天천中중의 티쓰니 毫毫髮발을 헤리로다.**

하늘로 치솟아 뜨니 터럭도 셀 수 있을 만큼 환하구나.

▶ **해 뜬 뒤의 광경으로 해가 솟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힘을 표현한 것으로,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비유하고 있고, 매우 밝다는 것을 직설적 표현**

▶ **天천中중** : 하늘

▶ **티쓰니** : 치솟아 뜨니.

▶ **毫毫髮발을 헤리로다** : 머리털 헤아리겠도다.

●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가 두렵구나.

▶ **간신배들이 임금의 총명과 예지를 흐리게 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내포한 말로, 지은이의 우국지정이 나타나 있다. 이백의 시구를 연상하여 인용한 것으로, '타'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우국의 정(憂國之情)이 담김.**

▶ **널구름** : 지나가는 구름으로 중의적인 표현으로 원관념은 간신

▶ **머물세라** :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 (기)머물다. 머물(어간)+세라(의구형 종결어미)

▶ 이백의 등금릉봉황대 참고할 것

●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이백은 어디 가고 그의 시구만이 남았느냐?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詩시仙선 : 이백을 가리킴.

▶ 咳咳(唾타) : 원뜻은 기침과 침, 훌륭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글. 이백의 시구로 은유법

▶ 나맛 晳니 : 남았느냐?

● 天天地地間간 壯장흔 弔別 주셔히도 嘯셔이고.

천지간 (일출의) 장한 기별을 (등금릉봉황대에서) 자세히도 (표현)하였구나.

▶ 弔別 : 소식, 내막, 사정

● 斜사陽양 峴현山산의 擲척躑躅을 므니불와

석양 무렵의 현산의 철쭉꽃을 잇따라 밟으며

☞ 철쭉꽃을 밟으며 경포로 간다는 데서 작자의 풍류정신을 엿볼 수 있다.

▶ 斜사陽양 : 석양(夕陽)

▶ 躑躅 躑躅 : 철쭉꽃

▶ 므니 불와 : 잇달아 밟아. (기)므니 불다. 므느다(늘이다. 계속하다) 므니(파생 부사)

불+아 불바>불와 와 (고어에서는 ㅂ불규칙 동사 현대어에서는 규칙 동사)

● 羽우궤개 芝지輪륜이 鏡경浦포로 누려가니,

새깃으로 뚜껑을 한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 우개지륜은 본디 신선이 타는 수레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탄 수레를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신선적 풍모를 들어내는 의미가 담겨 있다.

▶ 羽우궤개 芝지輪륜 : 새의 깃으로 꾸민, 신선이 탄다는 수레.

● 十십리리 氷빙紈환을 다리고 고터 다려,

십 리나 펼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 호수를 멀리서 바라본 정경이다. 호수의 넓은 정경과 맑고 잔잔한 수면을 묘사한 것으로 빙환은 호수의 수면을 은유한 것임

▶ 氷빙紈환 : 얼음같이 희고 깨끗한 비단. 원관념 : '맑은 호수의 물'

● 長당松송 울흔 소개 슬쑤장 퍼더시니,

큰 소나무 울창한 숲 속에 실컷 펼쳐졌으니,

▶ 長당松송 : 큰 소나무

▶ 울흔 : 울창한, 에워싼.

▶ 슬쑤장 : 실컷, 싫도록(부사).

▶ 퍼더시니 : 펼쳐졌으니.

●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물결이 잔잔하기도 하구나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겠다.

☞ 호수를 가까이서 본 정경으로 호수의 맑고 잔잔한 수면을 묘사한 것으로 '자도 잘샤'는 반복법과 영탄법이고 '헤리로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매우 맑다는 의미임

▶ 자도 잘샤 :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기) 자다(寢 靜) / 스다(細)

● 孤고舟舟 解히纜람하야 亭덩子주 우히 올라가니,

외로운 배를 띄워 정자 위에 오르니

▶ 孤고舟舟 : 한 척의 배.

▶ 解히纜람 : 닻줄을 풀어서 배를 띄움.

● 江강門문 橋교 너른 겨히 大대洋양이 거기로다.

강문교 넘어선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다.

▶ 너른 겨 𑖇 : 넓은 곁에

▶ 大대洋양 : 동해 바다

● 從동容용 肅肅다 이 氣기像상, 闊활遠원 肅肅다 더 境境界계,

조용하구나 이 경포의 기상, 넓고 아득하구나 저 대양의 경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작자는 '정자'에서 경포 호수의 고요하고 편안한 정밀미와 동해 바다의 광활미를 완상하고 있으며, 이 구절은 도치법과 영탄법 그리고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

▶從용용^훈다 : 조용하구나, 조용하다. 용용^훈(어간)+ㄴ다(감탄형 어미), 용용> 도용> 조용> 조용

▶關활遠원^훈다 : 넓고 멀구나.

●이도곤 ^기존 뒤 쏘 어디 잇닷 말고.

(경포호보다) 이보다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대명사)+도곤(비교 부사격 조사)

▶^기존 : 갖춘, 구비된 (기)궂다(備)

▶^기닷 : 곳

●紅^훈粧장 古^훈고事사를 軒^훈스타 후리로다.

홍장 고사가 야단스럽다고 하겠다.

▶^훈스타 : 야단스럽다고, 굉장하다고.

●江^훈강陵릉능 大^훈대都도護^훈호 風^훈풍俗속이 洵^훈홀시고,

강릉 대도호부 풍속이 좋구나.

▶강릉 대도호부는 고려 때부터 있던 행정 구역의 하나로 강릉 지방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말을 하여 자신의 치적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節^훈절孝^훈효旌^훈정門문이 緜^훈골골이 버러시니

충신·효자·열녀문이 마을마다 널렸으니

▶節^훈절孝^훈효 旌^훈정門문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세운 붉은 문.

▶^훈골골이 : 고을마다.

▶버러시니 : 벌였으니. 널려 있으니, 나열되어 있으니. (기) 벌다.

●比^훈비屋^훈옥可^훈가封^훈봉이 이제도 잇다 홀다.

요순시절 태평성대가 지금도 있다 하겠다.

▶강릉 지방의 미풍 양속을 예찬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풍속을 낳을 만큼 태평성대임을 나타낸 구절로 은근히 자신의 치적을 동시에 과시하고 있다. 자화자찬(自畫自讚)적 의미가 담겨 있음.

▶比^훈비屋^훈옥 可^훈가封^훈봉 : 요순 시대의 백성이 모두 착해서 집집마다 벼슬을 줄 만하였다는 말. '태평성대'와 같은 말. '比屋'은 '즐비한 집들', '可封'은 '벼슬을 가히 봉할 만하다'의 뜻.

▶잇다^훈홀다 : 있다고 하겠다.

●眞^훈진珠^훈주館^훈관 竹^훈죽西^훈서樓^훈루 五^훈오十^훈십川^훈천 擘^훈넉린 물이

진주관 죽서루 오십천 흘러내린 물이

▶眞^훈진珠^훈주館^훈관 竹^훈죽西^훈서樓^훈루 : 삼척에 있던 객사(客舍)로 옛날 공무 여행자를 위한 숙박 시설에 있는 누각

▶五^훈오十^훈십川^훈천 : 시내 이름, 삼척 죽서루 아래로 흐르는 내

▶擘^훈넉린 : 흐르는. 흘러 내리는.

●太^훈태白^훈백山^훈산 그림자를 東^훈동海^훈해로 다마 가니,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태백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오십천이 동해로 흘러가니라는 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하리 漢^훈한江^훈강의 木^훈목覓^훈먹의 다히고저'에 이어져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임금에게 보여 드리고 싶다는 발상으로서,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한강 - 목먹 - 한양 - 임금이 계신 곳'의 연상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절이다.

●출^훈하리 漢^훈한江^훈강의 木^훈목覓^훈먹의 다히고저.

차라리 한강의 남산에 달게 하고 싶구나.

▶차라리 임금이 계시는 한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남산에 달게 하고 싶다는 의미로 아름다운 풍경을 임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연군의 정(戀君之情)이 담긴 표현이다.

▶木^훈목覓^훈먹 : 남산의 옛이름.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히고져 : 달게 하고싶구나. 달(어간)+이(사동 접미사)+고져(원망형 종결어미). 다히다>다이다>대다

●**王^왕程^정덩이 有^유有限^한흔하고 風^풍品^품景^경이 못 슬^슬미니,**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싫증나지 않으니

☞ 관원으로서의 여정에는 한계가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싫증나지 않으니

▶王^왕程^정덩 : 관리의 여정(旅程). 작자의 신분 암시와 기행문임을 보여줌.

▶슬^슬미니 : 싫으니

●**幽^유懷^회회도 하도 할샤, 客^객愁^수수도 들 덕 업다.**

그옥한 회포가 많기도 많구나. 객수도 들 데가 없다.

▶幽^유懷^회 :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客^객愁^수 : 나그네의 근심 주로 기행문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

●**仙^선樣^상사를 띄워 내어 斗^두牛^우우로 向^향향할가,**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仙^선 사 : 신선이 탄다는 뗏목.

▶띄^띄워 : 띄워 (기)띄우다(사동사)

▶내어 : (기)내다(사동사)

▶斗^두牛^우 : 북두성과 견우성

▶向^향향할가 : 향할까?

●**仙^선人^인인을 추^추주려 丹^단穴^혈혈의 머^머므살가.**

시선을 찾으려 단혈에 가서 머물까?

☞ "仙^선樣^상사를 띄워 내어 斗^두牛^우우로 向^향향할가와 仙^선人^인인을 추^추주려 丹^단穴^혈혈의 머^머므살가"는 심리적 방황을 나타낸 구절로 속세로 돌아가기 싫어 차라리 신선이 되어 살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으로, 현실 도피적 태도와 신선 사상이 나타나 있고, 작자의 풍류적 태도가 신선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仙^선人^인 : 사선(四仙).

▶丹^단穴^혈 : 고성 남쪽에 있는 동굴로 四仙이 놀았다고 한다.

▶머^머므살가 : 머물까, 머무를까? (기)머물다.

●**天^천根^근근을 못^못내 보와 望^망洋^양양亭^정덩의 울^울은말이,**

하늘끝을 끝내 보지 못하여, 망양정에 올랐더니

▶天^천根^근 : 하늘의 끝.

▶못^못내 보와 : 내내 못 보아. 끝내 못 보아. 15세기 표기: 못내

▶울^울은말이 : 오르니. (기)오르다. 오^오락(어간)+은^은마리(종속적 연결어미)

●**바^바다 밖^밖근 하늘이니 하^하늘 밖^밖근 무^무서신고.**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 수평선을 묘사하고 있다.

▶밖^밖근 : 밖은. 밖(명사)+은(보조사).

▶무^무서신고 : 무엇인고?무서신고: 무^무섯(대명사)+이(서술격 조사의 어간)+고(의문형 종결어미)

●**갯^갯득 노^노한 고^고래, 누^누라셔 놀^놀내관^관뒤,**

가득이나 성난 고래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갯^갯득 노^노한 고^고래 : '성난 파도'를 비유한 말.(활유법).

▶누^누 : 누가. 누(대명사)

▶놀^놀내관^관뒤 : 놀라게 하기에

●**불^불거니 썸^썸거니 어^어즈러이 구^구는디고.**

불기도 하고 썸기도 하면서 어지러이 구는 것인가?

☞ 파도가 출렁거리며 부서지는 모습을 고래에 비교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어즈러이 : 어즈럽(형용사 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어즈러비>어즈러이>어지러이. 부사

●銀은山산을 건너 내어 六륙합합의 누리는 듯,

은으로 된 산을 깎아 내어 온 천지에 흩뿌려 내리는 듯하니, 오월의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고

【 거칠게 몰아쳐 부서지는 파도에서 흩어져 떨어지는 물방울을 표현한 구절

▶銀은山산 : '높이 솟은 파도, 즉 백두파(白頭波)를 비유. 미화법. 남송 때 시인인 육유의 향해시에 나온다.

潮來湧銀山(조래용은산) 밀물이 닥치니 은산이 솟구치다가

忽復磨青銅(홀부마청동) 홀연히 다시 청동을 갈았구나.

▶六륙합합 : 동서남북과 상하 즉, 천지사방. 온 세상. 팔황, 팔굉

▶누리는 듯 : 내리는 듯하니. 직유법

●五오月월 長당天천의 白백雪설은 무슨 일고.

오월의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는 것은 무슨 일이고.

【 물보라(파도) 묘사

▶五오月월 : 한여름. 멀고도 넓은 하늘.

▶白백雪설 : 원관념은 파도의 포말. 물보라. 은유법

▶무슨 일고 : 무슨 일인가?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定히거늘,

잠깐 사이 밤이 되어 풍랑이 가라앉거늘

▶저근덧 : 잠깐 동안에.

▶드러 : 되어

▶風풍浪浪 : 바람과 물결

▶定定히거늘 : 가라 앉거늘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해 뜨는 곳(부상)이 가까운 동쪽 바다에서 밝은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扶부桑상 : 중국 전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으로 해돋는 곳을 말하며 그 유래는 산해경(山海經)의 '陽谷之有扶桑'에서 유래한 말로 동의어로 양곡(陽谷), 반의어로 함지(咸池), 매곡(昧谷)

부상은 육기의 시에도 나온다.

扶桑升朝暉(부상승조휘) 부상에서 아침해 올라

照此高臺端(조차고대단) 이 높은 대의 끝을 비추도다.

▶咫지尺척 : 아주 가까운 곳. 지호지간(指呼之間)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되는 듯 숨는고야.

천길이나 되는 길게 뻗친 상서로운 달빛이 나타났다가는 이내 숨는구나.

【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가 보였다가 하는 장면의 묘사.

▶瑞서光광은 달빛의 은유

▶瑞서光光 千천丈丈 : 길게 뻗쳐 있는 상서로운 빛. 소동파의 시에서 '仲秋明月'에서 인용한 구절로

明月未出群山高(명월미출군산고) : 달이 뜨기 전에는 못 산이 높게만 보이더니

瑞光千丈生白毫(서광천장생백호) : 달이 뜨려고 상서로운 빛이 길게 뻗치니 백호(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털)으로 이 광명이 무량세계를 비춘다가 새로 나는 듯하다.

▶되 는 : (기) 보다 (사동사)

▶되 는 듯 숨는고야 : 보였다가 곧 숨는구나.

●珠쥬簾렴을 고터 것과, 玉옥階계를 다시 쓸며,

구슬로 만든 발을 다시 걷고 옥같은 섬돌을 다시 쓸며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 珠翫簾履 : 구슬을 꿰어 만든 발.
- ▶ 고터 것고 : 다시 걷고.
- ▶ 玉 옥階계 : 옥같이 희고 고운 계단. 미화법.

● 曙啓明明星성 뜻도룩 곳초 안자 부라보니,

셋별이 돈도룩 곳곳이 얹아 바라보니

- ▶ '경건한 자세(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다.
- ▶ 曙啓明明星성 : 셋별, 새벽별, 효성, 금성
- ▶ 곳초 : 곳곳이, 자세를 바로잡아 곧게.

● 白 蓮蓮년花화 혼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한송이) 흰 연꽃처럼 희고 아름다운 달을 누가 이 세상에 보냈는가

- ▶ 미화법, 은유법.
- ▶ 白 蓮蓮년花화 : 원관념은 달이고, 미화법임
- ▶ 뉘라셔 : 누가.
- ▶ 보내신고 : 보내셨는고?

● 일이 도흔 卍세界계 놈대되 다 ㅅ고져.

이렇게 좋은 (망양정의 달밤의 경치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도 보이고 싶구나.

▶ 月下絶勝(月下絶勝)을 강조한 구절로, 목민관으로서의 애민 정신과 선정에의 포부가 나타나 있다.

- ▶ 일이 : 이렇게. (부사)
- ▶ ㅅ고져 : 남에게 모두
- ▶ ㅅ고져 : 보이고 싶어라. 보(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고져(원망형 종결어미)

● 流 露露하酒쥬 ㅅ득 부어 ㄷㄷ려 무른 말이,

신선이 마시는 술을 가득 부어 들고 달에게 묻기를

- ▶ 流 露露하酒쥬 : 신선이 먹는다는 술.
- ▶ 무른 : 물은 (기)묻다(問) 묻(어간)+오(선어말 어미)+니(관형사형 어미). 15세기 표기: 무룬

● 英 雄웅은 어뉘 가며, 四 仙仙은 ㅅ 뉘러니,

(옛날의) 영웅은 어디 갔으며, (신라 때의) 네 명의 국선은 그 누구이던가?

▶ 옛날의 영웅은 이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달을 보고 술을 마시며 시선 이백을 연상한 것이다. 사선은 삼일포에서 회고한 바 있는 신라의 국선 네 명이다. 이 구절을 통하여 작자는 신선을 동경하는 풍모를 나타내고 있다.

- ▶ 英 雄웅 : 이백을 가리킴.
- ▶ 가며 : 갔으며.
- ▶ 四 仙仙 : 신라 때의 4국선.
- ▶ 뉘러니 : 누구이던냐? (의문형) 누(의문대명사)+이(서술격 조사)+러(회상 선어말 어미)+니(의문형 종결어미)

● ㅅ미나 맛나 보ㅅ ㅅ넷 ㅅ궐 ㅅ궐자 후니,

아무나 만나 옛 소식 묻고자 하니

- ▶ ㅅ미나 : 아무나. ㅅ (대명사)+이 나(불만, 선택 보조사)
- ▶ 맛나 보ㅅ : 만나 보ㅅ
- ▶ ㅅ넷 : 옛
- ▶ ㅅ궐자 : 묻자
- ▶ ㅅ궐 : 소식, 내막, 사정

● 仙仙山山 東동海회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삼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멀기도 하구나.

▶ 仙仙山山 : 삼신산(三神山)이 있다는 동해. 삼신산: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으로 동해에 있다고 함. 우리 나라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함.

- ▶ 길히 : 길ㅎ+이
- ▶ 머도 멀샤 : 멀기도 멀구나. '도':감탄 보조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퓏 드니,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선잠이 잠깐 드니

- ▶ 松송根근 : 소나무 뿌리
- ▶ 베어 : 베고.
- ▶ 풋즙 : 풋잠, 선잠.
- ▶ 얼퓏 : 잠깐, 슬쩍.(부사)

● 꿈애 혼 사람이 날두려 닐온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이르기를

- ▶ 夢애 : 꿈에
- ▶ 혼 사람 : 신선
- ▶ 닐온 : 이르, 이랴(어간)+오(선어말 어미)+니(관형사형 전성어미)

● 그뒤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眞仙仙이라.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그대는 하늘 나라의 참 신선이다.

☞ 꿈속에서 선인이 송강에게 한 말로 작가 자신이 선인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으며, 그의 사상적 밑바탕에는 신선사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上상界계 : 하늘 나라, 천상계
- ▶ 眞眞仙仙 : 참된 신선, 도를 성취한 참 신선

● 黃황庭庭경경 一일字字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황정경이라는 도가의 경전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 두고,

☞ 황정경(黃庭經) : 도가(道家)의 경문으로 천상에 황정이라는 뜰이 있는데, 신선들이 그곳에서 황정경이라는 경문을 읽는다하며 이때 글자 한자를 잘못 읽으면 옥황상제의 벌이 내려 인간 세계로 귀양 오는데 이백은 일찍이 그런 사정으로 귀양온 신선(적선)이라고 하였다. . 위 부인(魏夫人)이 전한 황제 내경경(黃帝內景經), 왕희지가 베껴서 거위와 바꾸었다는 황제 외경경(黃帝外景經), 황정 둔갑연신경(黃庭遁甲緣身經), 황정 옥축경(黃庭玉軸經)의 네 가지가 있다.

- ▶ 그릇 : 잘못, 그릇(부사)
- ▶ 닐거 : 읽어

● 人인間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쏘모는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 ▶ 쏘모다 : 따르느냐? (기)쏘모다.

●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모.

잠깐 동안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오

- ▶ 저근덧 : 잠깐 동안.

●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슈 부어 내어

북두칠성을 술국자로 하여 푸른 동해의 물을 술로 삼아 부어내서

☞ 송강의 호방한 기상이 나타난 구절로 자신을 이백과 견주려는 의도로 썼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 ▶ 北북斗두星성 : 북두칠성. 원관념은 술국자 . 국자같이 생긴 모습에서 유래함.
- ▶ 滄창海海水슈 : 푸른 바닷물 원관념은 술(유하주), 은유법

●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저도 먹고 나에게도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 ▶ 머겨늘 : 먹이거늘. (기)머기다. 먹(동사 어근)+이(사동 접미사)+어늘(종속적 연결어미). ㄱ탈락.
- ▶ 거후로니 : 기울이니 (기)거후로다.

● 和화風풍이 習습習습후야 兩兩腋脇을 추혀 드니,

따뜻한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 와 양쪽 겨드랑이를 추켜드니

- ▶ 和화風風 : 봄바람, 춘풍, 동풍, 셋바람. 반의어 건들바람(초가을에 선들선들 부는 바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첩습첩습^헛야 : 산들산들 불어서.
- ▶兩^양낭^낭腋^익 : 양쪽 겨드랑이.
- ▶추허 : 추켜.

●九^구萬^만里^리長^장당^당空^공공^공애^애 저기^기면^면 놀리^리로^로다.

아득히 먼 하늘에 웬만하면 날아오를 것만 같구나.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에 나오는 구절로 [전적벽부]에 나오는 '羽化而登仙(우화이등선)'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신선적 체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구절이다.

羽化而登仙(우화이등선)

縱一葦之所如(종일위지소여)
 凌萬頃之茫然(능만경지망연)
 浩浩乎如憑虛御風(호호호여빙허어풍)
 而不知其所止(이부지기소지)
 飄飄乎如遺世獨立(표표호여유세독립).

한 척의 작은 배가 가는 대로 맡겨
 넓은 수면의 아득한 데를 넘어 가노니
 하도 넓고 넓어 허공을 타고 바람을 탄 것만 같아, 그치는 데를 알지 못하겠으며,
 바람에 날려 속세를 잊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날개가 돋쳐 하늘로 오르는 선인만 같다

先^선우^우후^후락(先憂後樂)

목민관의 자세를 나타낸 말로, 중국 송나라 범중엄의 '악양루기(岳陽樓記)'의 끝부분에
 其必曰, 기필알

先天下之憂而憂, 선천하지우이우
 後天下之樂而樂歟, 후천하지락이락여,
 噫, 微斯人, 희 미사인

吾誰與歸 오수여귀(그것은 반드시, 천하(백성)가 걱정하는 것을 앞서서 걱정하며, 천하가 즐거움을 누린 뒤에야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리라. 아, 이런 (어진)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를 좇아 함께 갈 것인가?)

- ▶九^구萬^만里^리長^장당^당空^공공 : 아주 높고 먼 하늘, 구공(九空)으로 줄여 부르기도 함. =구만리장천
- ▶저기면 : 웬만하면, 조금만 더하면 거의 (부사)
- ▶놀리로다 : 날겠도다.

●이 술 가져다가 四^사海^해히^히에 고로^로 난화^화,

이 술 가져다가 온 천하에 고루 나누어

- ▶四^사海^해히^히 : 온 천하. 온 세상.
- ▶고로 : 고루고루.
- ▶난화 : 나누어. (기)난호다

●億^억萬^만만^만 즐^즐창^창生^생심^심을 다 醉^취취^취케^케 밍^밍근^근 후의^의,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 ▶億^억萬^만만^만 蒼^창生^생 : 모든 사람. 못 백성.
- ▶밍근 : 만든.(기)밍다.

●그제야 고터 맛나 또 혼 잔 하^하갓^갓고야.

그 때에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자구나

【선정의 포부와 애민 정신을 '좋은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데에서 알 수가 있다. '이 술 가져다가 ~ 또 혼 잔 하갓고야'는 송나라 범중엄의 '선우후락' 정신과 상통하며, 맹자의 '겸선천하'의 사상의 표현이기도 하다. 겸선천하(兼善天下) : 역시 목민관의 자세를 밝힌 말로, 맹자 '진심장구 상'에 나오는 말로 "~達則兼善天下" (영달하면 천하를 함께 선하게 해 나가겠소이다.)

- ▶그제야 : 그 때에 가서야.
- ▶고터 맛나 : 다시 만나.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호**갓고야 : 하자구나.(청유형)

●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그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 학을 타고 올라가는 주체는? '신선'

▶ 말 디자 : 말이 끝나자. 말이 떨어지자.

▶ 九구空공 : 구만리 장공의 준말. 아득히 넓은 하늘.

● **空公中동 玉옥蕭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피리 소리 어제인지 그제인지 어렵뜻하구나.

☞ 공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어렵뜻하다는 의미로 비몽사몽(非夢似夢)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 전환의 기법이다.

▶ 玉옥蕭소 : 옥통소. 바람 소리의 미화법.

▶ 어제런가 : 어제던가

● **나도 잠을 썬여 바다을 구버보니,**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 바다**을** : 바다ㅎ(ㅎ받침 체언)+**을**(목적격 조사)

● **기피를 모르거니 𠵼인들 었디 알리.**

깊이를 모르니 끝인들 어찌 알리?

▶ 기**피** : 깊이. 깊(형용사 어근)+**의**(명사 파생 접미사). 기**피**(명사)/ 기**피**(부사)

▶ 𠵼**인**들 : 가(끝)인들. 15세기 표기: 𠵼**인**들(𠵼+이+니 들)

● **明明月월이 千천山산萬萬落낙의 아니 비친 뒤 업다.**

밝은 달이 온 산과 촌락에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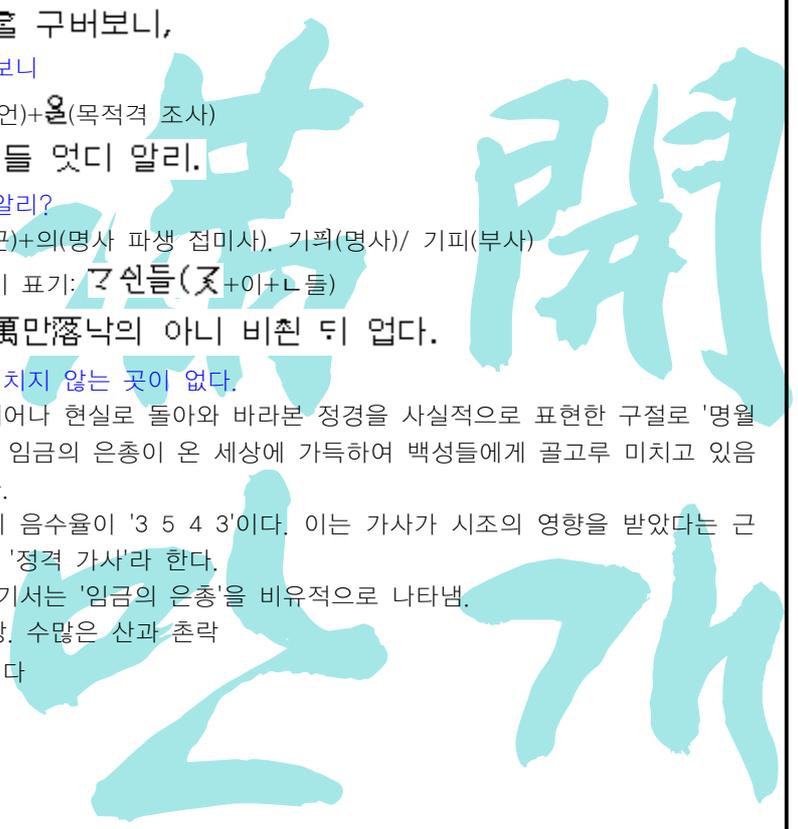
☞ 선경에서 노닐던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바라본 정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구절로 '명월'을 임금으로 보면 이 구절은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이 음수율이 '3 5 4 3'이다. 이는 가사가 시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 → 이러한 가사를 '정격 가사'라 한다.

▶ 明明月월 : 밝은 달로서 여기서는 '임금의 은총'을 비유적으로 나타냄.

▶ 千천山산萬萬落낙 : 온 세상. 수많은 산과 촌락

▶ 비**친** : 비치. 기본형은 비치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시가-누항사

누항사(陋巷詞)



어리고 우활(迂闊)홀산 이 너 우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과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깃픈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 홉 밥 닛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석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하다 장부(丈夫) 뜻을 몸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하다,
 ㄱ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호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서사)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로는 이 나보다 다한 사람이 없다.
 모든 운수를 하늘에다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놓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세 홉 밥에 다섯 홉 죽(초라한 음식)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하구나,
 덜 데운 송늱을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살림살이가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누항에서 안빈 일념으로 살려는 심정- 생애저어)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 논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해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橐于囊)의 줌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예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해야 몇 백전(百戰)을 지너연고.

(본사)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서야 말겠노라고 마음 먹어

開
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전란 5년 동안에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쟁을 치루었던가.

(충성심으로 백전고투했던 왜란을 회상함 - 회억병과)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져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생각허리,
 경당문로(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쫄논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한 몸이 겨름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하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 - 궁경가색)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허리 업것마논,
 아므려 갈고전돌 어너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 허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놓흔 논애 잠깐 낀 널비예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더허두고,
 쇼 흥 적 듀마 허고 엄섬이 허논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그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너웁노라.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소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또는 탐탁지 않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달도 없는 황혼에) 허우적허우적(허둥지둥)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멀찍이) 혼자 서서
 '에헴.'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물기에 '염치 없는 저올시다.'

(농사 위해 농우를 빌리러 감 - 궁경심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초경(初更)도 거윈타 괴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 하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곰 하니나 갑시나 주엄 측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목지읍(玉脂泣)게 썬어 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홀년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리 즈칠 썬이로다.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무슨 일로 와 계신가?'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공것이거나 값을 치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어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고마움(은혜)을 어떻게 감지 않겠는가(어찌 아니 감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료.'
 정말로(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현 모자를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짓을 뿐이로구나.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함 - 인인수모)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牖)을 비겨 안자 쇠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추창(終朝惆悵) 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논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싸몬 저 소뵈는 벗보님도 뎡홀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터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샤.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가까운 저 쟁기는 벼보임도 좋구나.
 가시가 영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만
 빈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팽개쳐 던져 버리자.
 (돌아와 한탄하며 봄갈이농사 포기 - 종조추창)

강호(江湖) 훈 썸을 썬언지도 오락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찌다.
 첩피기옥(瞻彼淇澳)혼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더 하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깃픈 곳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넘지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결사)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 다오(빌려라).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가라고 하려(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자연을 벗삼아 대자연 속에서 절로 늙기를 소망하고, 강호에의 꿈을 되새김. - 첩피기옥)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인간(人間) 어네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너 생애(生涯) 이러호더 설온 쫓은 업노왜라.
 단사표음(單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훈 쫓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하리 누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렸노라.

못생긴 이 몸(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밧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오, 없으면 굶을망정,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짓는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나아오랴?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대 광주리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빈이무원하고, 단사표음도 족히 여기면서, 사충요, 화형제, 신봉우에 힘씀 - 안빈낙도)

■요점 정리

- 작자 : 박인로(朴仁老)
- 갈래 : 가사, 은일(隱逸)가사
- 연대 : 광해군 3년(1611)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 성격 : 전원적, 사색적, 한정가(閑情歌)
-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으로 4음보의 연속체
- 서사 - 길흥 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 일념으로 살려는 심정
- 본사 1 -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했던 왜란의 회상
- 본사 2 -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를 지음
- 본사 3 - 농사를 지으려 하니 농우가 없어, 농우를 빌리러 감
- 본사 4 -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 본사 5 -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준경을 포기함
- 결사 1 - 자연을 벗삼으면서 절로 늙기를 소망함
- 결사 2 - 빈이무원하고 단사 표음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충효와 화형제·신봉우에 힘 씬

기	누항(陋巷)	생애저어(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고 싶음)	도입
서	농우(農牛)	회억병과(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회상)	전개
		궁경가색(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고심함)	
		궁경심려(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러 소를 빌리러 감)	
	인인수모(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강호(江湖)	종조추장(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밭 갈기를 포기함)	전환	
	첨피기옥(밝은 달 맑은 바람을 벗 삼아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 늙겠다 다짐)		
결	단사표음(簞食瓢飮)	안빈낙도 (빈이무원하고 충효, 화형제, 신봉우를 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	결말

- 제재 : 빈이무원(貧而無怨)의 삶
- 주제 : 누항(陋巷)에 묻혀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추구,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경지
- 줄거리 : 첫째 단락에서는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누추한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심정을 읊었다. 둘째 단락에서는 지난날 7년간 왜란에 몸바쳐 싸우던 일을 회상했다. 셋째 단락에서는 몸소 농사짓고자 하나 소가 없어 낙심하며, 넷째 단락에서는 소를 빌리려다가 수모만 당한 참담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다섯째 단락은 집으로 돌아와 인심을 닦으며 봄갈이를 포기하는 대목이다. 여섯째 단락은 가난한 현실을 외면하고 달과 바람을 벗삼아 자연 속에서 늙기를 바라며, 일곱째 단락에서는 다시 안빈낙도의 뜻을 읊었다.
- 표현 : 대구법, 설의법, 과장법, 열거법이 사용되었고,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사실적이고 구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적으로 형상화했고, 농촌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이 쓰였고, 고상한 삶의 목표와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갈등이 담겨 있다.(빈궁한 삶 - 현실적 제약 / 시적화자 - 갈등 / 안빈낙도 추구 - 이상적인 삶의 목표)

● 출전 : 노계집(蘆溪集)

■ 내용 연구

어리고 우활(迂闊)홀산 이 너 우히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과 부쳐 두고,
 누항(陋巷) 깃폰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셉히 되야,
 셔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썩일 뿐이로다.
 생애 이러 허다 장부(丈夫) 쫓을 몸길년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허다.
 ㄱ올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허며,
 주머니 뷘엇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헌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서사)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로는 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길흉화복 모든 운수(운명)를 하늘에다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놓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세 흙 밥에 다섯 흙 죽(초라한 음식)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하구나.
 덜(설) 데운 송늡을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살림살이가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누항에서 안빈 일념으로 살려는 심정- 생애저어)

- 어리고 : 어리석고
- 우활(迂闊)홀산 : 세상 물정에 어두움
- 우히 더니 업다 :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 부쳐 두고 : 맡겨 두고
- 누항(陋巷) : 누추한 곳, 좁고 더러운 거리로 화자의 삶의 태도가 안빈낙도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임
- 풍조 우석(風朝雨夕) :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곧 변화무쌍한 날
- 석은 답히 셉히 되야 : 썩은 짚이 땀감(땀)이 되어
- 셔흙 밥 닷흙 죽(粥) : 세 흙의 밥과 다섯 흙의 죽, 곧 초라한 음식
- 숙냉(熟冷) : 송늡
- 빈 배 : 텅 빈 배, 고픈 배
- 몸길년가 : 옳길 것인가
- 안빈 일념(安貧一念) : 구차한 삶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겠다는 한 가지 생각
- 수의(隨宜) : 옳은 일을 좇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날로 조차 저어(齟齬) **하**다 : 날이 갈수록 어긋나다
- **가을**히 : 가을이
- 뷘엇거든 : 비였는데
- 병(瓶)의라 : 술병이라고

기한(飢寒)이 절신(切身) **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 **논**가,
 분의 망신(奮義忘身) **하**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橐于囊)의 줌줌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셔,
 이시섭혈(履尸涉血) **하**야 몇 백전(百戰)을 지너연고.

(본사)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서야 말겠노라고 마음 먹어(의에 분발하여 제 몸을 잊고 죽
 어야만 그만두리라 생각한다.)

전대와 망태에(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을)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임진왜란(전란) 5년 동안에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는 혈전을 몇 백이나 치루었던가.

(충성심으로 백전고투했던 왜란을 회상함 - 회억병과)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로(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한 몸이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 간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하인은 전쟁 중에 도망을
 가고 없다)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전란 후 돌아와 몸소 농사 - 궁경가색)

- 기한(飢寒) : 굶주림과 추위
- 절신(切身) : 몸에 절실하다
- 이질 **논**가 : 잊겠는가
- 분의 망신(奮義忘身) : 의에 분발하여 자기 몸을 잊음
- 죽어야 말녀 너겨 : 죽어서야 말겠노라고 마음먹어
- 우탁(于橐) 우랑(于囊) : 전대와 망태
- 줌줌이 모아 녀코: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 병과(兵戈) : 병정과 창, 곧 전쟁
- 감사심(敢死心) : 죽고 말리라는 마음
- 이시 섭혈(履尸涉血) :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감
- 지너연고 : 치루었던가
- 일노 장수(一奴長鬚) : 긴 수염이 난 종. 늙은 종
- 노주분(奴主分) : 하인과 주인의 분수
- 이젓거든 : 잊어버렸거든
- 고여 춘급(告余春及) :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줌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경당 문노(耕當問奴) :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음
- 놀 ㄷ려 : 누구더러
- 궁경 가색(躬耕稼穡) :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리어 곡식을 거둠
- 분(分) : 분수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흐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돌 어니 쇼로 갈로손고,
 한기태심(旱既太甚) 하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놓흔 논애 잠깐 낀 널비예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싼 닻혀두고,
 쇼 훈 적 듀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귀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너옴노라.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가뭄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두둑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근원 없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소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저녁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에헴.'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문기에 '엄치 없는 저올시다.'
 (농사 위해 농우를 빌리려 감 - 궁경심려)

초경(初更)도 거민타 귀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훈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하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목지읍(玉脂泣)게 썬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홀년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썬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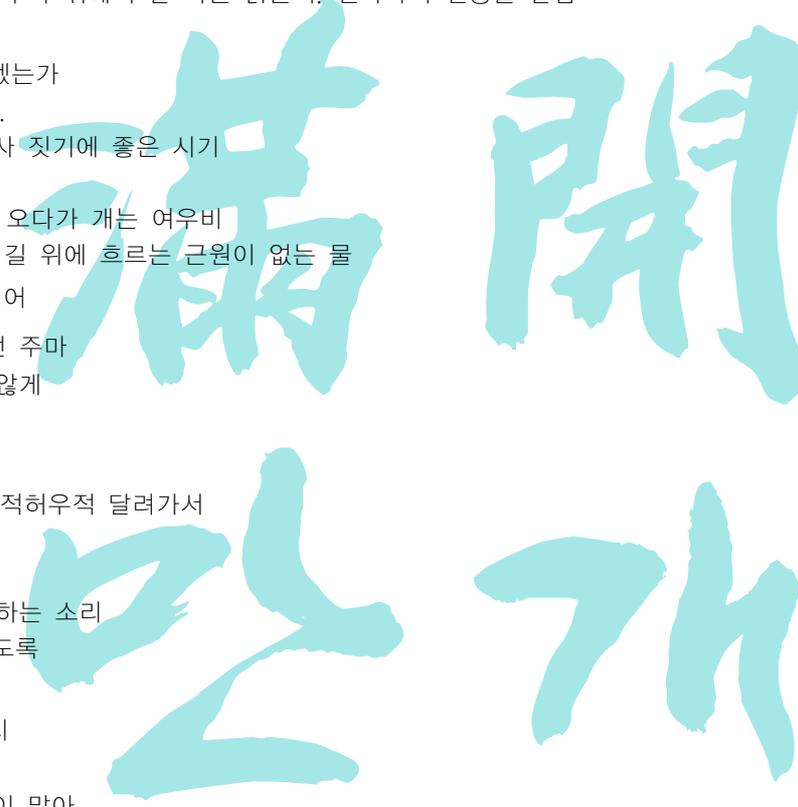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무슨 일로 와 계신가?'
 '해마다 이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공것이거나 값은 치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어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고마움)를 어떻게 갚지 않겠는가(어찌 아니 갚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료.'
 정말로(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흰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짐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구나.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함 - 인인수모)

- 신야 경수(莘野耕叟) : 들에서 밭 가는 늙은이. 은나라 탕와의 재상이 된 이윤(伊尹)을 말함
- 농상 경옹(隴上耕翁) : 밭 두둑 위에서 밭 가는 늙은이. 진나라의 진승을 말함
- 갈고전들 : 갈고자 한들
- 소로 갈로손고 : 소로 갈겠는가
- 한기태심 : 가뭄이 극심함.
- 시절(시절) : 여기서는 농사 짓기에 좋은 시기
- 서주(西疇) : 서쪽 두둑
- 념비 : 지나가는 비, 잠깐 오다가 가는 여우비
- 도상무원수(道上無源水) : 길 위에 흐르는 근원이 없는 물
- 반만간 덕허 : 반쯤만 대어
- 쇼 혼 적 듀마 : 쇼 한 번 주마
- 엄섬이 : 엉성히. 탐탁치 않게
- 너긴 : 여긴. 생각한
- 들 업슨 : 달이 없는
- 허위허위 다라가셔 :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 구디 다든 : 굳게 닫은
- 어득히 : 우두커니
- 아함이 : 인기척. '에헴' 하는 소리
- 양구(良久)토록 : 꽤 오래도록
- 녀옴노라 : 나올시다
- 초경(初更) : 저녁 7 - 9시
- 거원덕 : 거의 지났는데
- 헤염 만하 : 헤아림(걱정)이 많아
- 공흔이나 갑시나 : 공것이거나 값을 치거나
- 거넛 집 : 건너 집
- 수기 치(雉) : 수평
- 옥지읍(玉脂泣)계 :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 간 이근 : 갓 익은
- 삼해주(三亥酒) :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빚은 좋은 술
- 미편(未便) : 편하지 못함
- 사설 : 말씀
- 실위(實爲) : 사실로, 참으로
- 혈마 : 설마
- 먼덕 : 멩덕. 짐으로 만든 모자
- 수기 : 숙여
- 설피설피 : 맥없이 어슬렁어슬렁 걷는 모습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牖)을 비겨 안자 쇠배룰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추창(終朝惆悵)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까운 저 소뵈는 벳보님도 뎡홀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샤.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구나(재촉한다).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벳보임(보습 위에 대는 쇠조각)도 좋구나(날도 잘 서 있어).
 가시가 영긴 묵은 밧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만
 텅 빈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벽에 걸린 쟁기를)뎡개쳐 던져 버리자.
 (돌아와 한탄하며 봄갈이농사 포기 - 종조추창)

강호(江湖) 훈 쉼을 썩언지도 오락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썩다.
 첸피기묵(瞻彼淇澳)혼다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더 하나 빌려스랴.
 노화(蘆花) 깃픈 곳애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넘지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랴.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랴.

산수 자연 한 (산수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살기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먹고 사는 것이 거리낌이 되어 아아! 슬프게도 잊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물가를 바라보니 '시경'의 '위풍' 중에서'기옥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
 임)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네.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대자연의 벗이 되어,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늘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오라 하며 가라 하랴?
 다툼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자연 속에서 사는 흥)

- 와실(蝸室) : 달팽이집. 자기 집을 겸손히 일컫는 말
- 시벽 : 새벽
- 대승(戴勝) :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 도우^느다 : 조장한다
- 종조 추창(終朝惆悵) :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함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소취 : '쟁기' 의 사투리.
- 벗보님 :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 엉킨 : 엉킨
- 슬디업시 : 쓸데없이, 공연히
- 거의거다 : 거의 다 지났다
- 후리쳐 더더 : 팽개치어 던져
- 구복(口腹) : 먹고 사는 것
- 위루(爲累) : 누가 됨, 거리낌이 됨
- 어지버 : 아, 슬프구나
- 이저찌다 : 잊었도다
- 침피 기욱(瞻彼淇澳) :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 유비 군자(有斐君子) : 교양 있는 선비
- 노화(蘆花) : 갈대꽃
- 무심(無心) : 아무런 생각이 없음, 아무 걱정이 없음
- 다토리 업슬 손 : 다툼 이가 없는 것은
- 다문 인가 : 다만 이것뿐인가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논,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스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랴.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긔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논
 너 생애(生涯) 이러호타 설온 쫓은 업노왜라.
 단사표음(單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훈 쫓이 온포(溫飽)애논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흐리 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렸노라.

만개

(보잘것없는)뭇생긴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논
 두세 이랑 되는 밧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랴?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논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대 광주리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빈이무원하고, 단사표음도 죽히 여기면서, 사충요, 화형제, 신봉우에 힘쓰 - 안빈낙도)

- 무상(無狀) : 보잘 것 없는, 못생긴
- 지취(志趣) : 뜻과 취향
- 이령 : 이랑, 발두령
- 무겨 : 묵혀
- 슬히 : 싫게
- 헤다 : 내젓는다고
- 불리 : 부럽게
- 손을 치다 : 손짓을 한다고
- 명 밧긔 삼겨시리 : 운명 밖에 생겼으리
- 단사 표음(單食瓢飮) : 간소한 음식, 곧 어려운 생활
- 온포(溫飽) :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음
- 외다 : 그라다고
- 삼긴 덕로 : 타고난 대로
- 이너 우히 더니 업다. :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 빈 배 석일 썬이로다 : 빈 배 속일 뿐이로다. 한 끼를 대강 때운다는 말. 작자의 궁핍한 삶이 절실하게 표현된 구절이다.
- 隨宜(수의)로 살려 흐니 날로조차 齟齬(저어) 흐다.
 옳은 일과 길을 쫓아서 살려 하나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현실과 신념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자탄을 노래한 구절이다.
- 可올히 不足(부족)거든 봄이라 有餘(유여)하며,
 가을에 식량이 부족한데 더구나 봄에 여유가 있겠는가
- 兵戈(병과) 五載(오재)에 - 몇 百戰(백전)을 지너연고. :
 전쟁 오 년에 죽음을 감수하면서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다니며 몇 백 번이나 싸웠던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을 노래한 것이다.
- 耕當問奴(경당문노)인들놀드려 물물논고. :
 밭갈기를 종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나, 종이 없으니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아므려 갈고전 들 어너 쇼로 갈로손고. :
 아무리 갈고자 마음을 먹은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농우(農牛)가 없음을 자탄하는 말이다.
- 즐기는 - 즐을 모락는다. :
 (걱정거리가 많이) 즐거운 농부들의 노랫소리도 흥없이 들리고, 세상 인심을 모르는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 강호(江湖) 훈 - 어지버 이저쩌다.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꾸지도 오래더니 먹고 마시는 것이 거리낌이 되어 잊어버렸다는 말,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생겨난 말
- 平生(평생)훈 - 업노왜라. :
 평생 한 가지 뜻은 따듯이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 있지 않다. 선비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려는 자세를 노래한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지은이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가 생활하던 중에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이 찾아와 누항(陋巷)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자신의 곤궁한 생활상과 안빈낙도하는 심회를 담은 작품이라 전한다. 한음이 노계의 고생스런 생활상을 물었을 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으며 안빈낙도하는 심회와 생활상을 읊은 작품으로, 내용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道)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웃집에 농우를 얻으려 갔다가 뜻대로 되지 못하고 돌아와 세상 일에 대한 체념적 심회를 읊기도 하고, 속세의 물욕을 떠나 청풍명월과 벗하여 대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 보자는 초월적 모습을 드러내기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도 하였다.

이런 작품의 내용은 사대부의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 생활의 빈궁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조선 전기의 가사가 보여 주었던 자연 완상의 세계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누항(陋巷)'이란 '논어'에 나오는 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貧而無怨)'의 경지나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함을 알게 해 준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은 당대의 산림에 묻힌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사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일상 생활의 언어를 대폭 받아들여 생동감과 구체성을 획득하는 탁월성을 보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작품은 자연에 은일하면서도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대부와는 다른 어려운 한문 어구를 상징적으로 쓰면서도 농민에게 끼이지 못하는 형편을 감안, 일상 언어를 대폭 사용하여 구체적이고도 절실하게 묘사함으로써 가사 문학에 현실 인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며, 특히 그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일상 생활의 언어를 대폭 등장시켜 생동감과 구체성을 배가한 점이 돋보인다.

이해와 감상1

1611년(광해군 3) 박인로(朴仁老)가 지은 가사. 작자의 나이 51세 때 작품으로 《노계집 蘆溪集》에 실려 있다. 이본으로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 필사본이 전한다. 4음보 혹은 3음보를 1행으로 헤아려 총 77행이다. 작자가 이덕형(李德馨)과 교류할 때 작자의 곤궁한 생활을 묻는 데 대하여 답으로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누추한 곳에 초막을 지어 가난한 생활을 할 때, 굶주림과 추위가 닥치고 수모가 심하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을 벗삼아 충성과 효도, 형제간의 화목, 친구간의 신의를 바라면서 안빈낙도의 심경을 노래하였다.

내용에 따라 7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락에서는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누추한 곳에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심정을 읊었다. 둘째 단락에서는 가난한 생활에 굶주림과 추위가 닥쳤으나, 지난날 몸을 잊고 의를 좇아 7년간의 왜란에서 백전고투하던 일을 회상하였다.

셋째 단락은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농사일에 쓸 소가 없어 낙심하는 대목이다. 넷째 단락에서는 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받고 돌아오는 정경을 그렸다. 다섯째 단락은 집으로 돌아와서 야박한 세상인심을 한탄하며 봄같이 할 생각을 그만두는 대목이다.

여섯째 단락은 밝은 달 맑은 바람을 벗삼아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절로절로 늙기를 바라는 대목이다. 일곱째 단락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충효에 힘쓰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벗들과 신의 있을 것을 다짐하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작자가 당면한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렸다.

표현면에서 미화된 말을 버리고 실감을 얻는 길을 열어 사대부 가사의 한계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미 설득력을 잃은 가치관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점은 그 한계이다.

한편, 사본으로 전하는 작품에는 《노계집》에 실려 있는 작품에 없는 부분이 군데군데 첨가되어 있다. 첨가된 부분은 율격이 나머지 부분과 다르고, 부연하여 설명한 내용이 많다.

《참고문헌》 蘆溪集, 改稿朴蘆溪研究(李相寶, 一志社, 1962),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朴景義, 玄岩社, 1966), 蘆溪詩歌研究(李相寶, 二友出版社, 1978), 朴仁老論(鄭在鎬, 韓國文學作家論, 螢雪出版社, 1977), 가사의 복고와 혁신(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해와 감상2

1611년(광해군 3)에 박인로(朴仁老)가 지은 가사. 《노계집(蘆溪集)》에 실려 있는데, 작자가 이덕형(李德馨)과 교류하면서 작자의 곤궁한 생활을 묻는 것에 대하여 답으로 지은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누추한 곳에 초막을 지어 가난한 생활을 할 때, 굶주림과 추위가 닥치고 수모가 심하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연을 벗삼아 충성과 효도, 형제간의 화목, 친구간의 신의를 바라면서 안빈낙도의 심경을 노래하였다. 이 작품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대부로서의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할 만한 여건도 갖추지 못하여 양쪽에서 소외된 괴로움을 그렸다.(출처 :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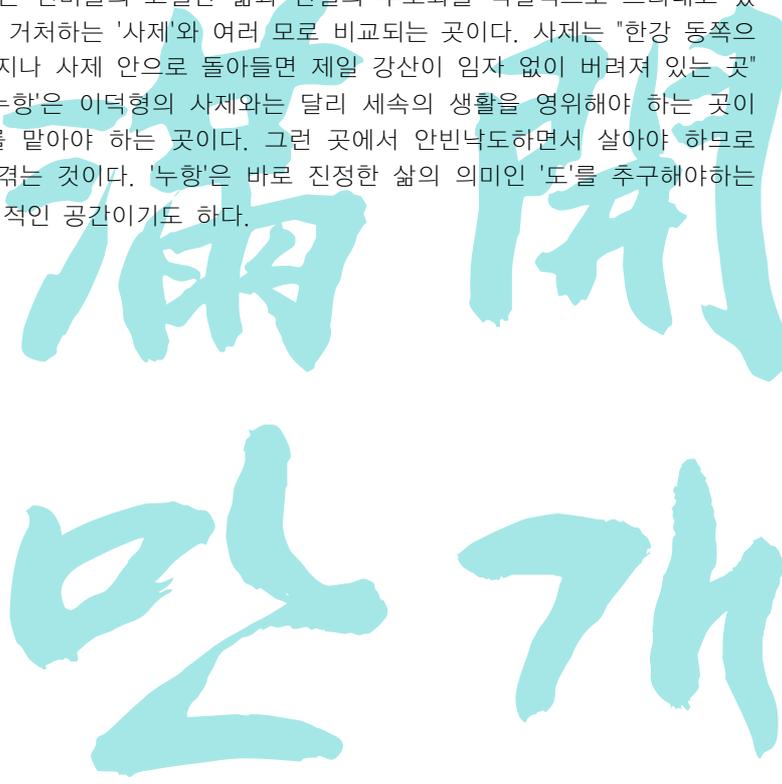
■ 심화 자료

● '노계가사'에 대한 평가

노계 박인로의 가사는 열정과 자구(字句)의 세련미에 있어서 송강 정철에게 일보를 양보한다 하겠거니와, 특히 그 시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한자나 고사성어, 전고(典故)가 너무 많이 사용된 단점이 있으나, 수사나 조어(造語)의 묘는 '송강가사'에서 보는 것과 유사한 점이 다분히 보이며, 더욱이 초기의 작품은 풍부한 어휘에 그 필자가 웅렬(雄烈)하여, 무인다운 기상이 가득차 있으며, 신선미와 기백이 잘 드러나 있다. 시가 문학사상 정철,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시대 3대 시가인으로 꼽힌다.

● '누항'의 의미

'누항'이란 우선 박인로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곳은 세속적인 장소이며, 작중 화자가 세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곳에서 안빈낙도를 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곳이다. '논어'에 나오는 '누항'은 가난한 삶 가운데도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을 즐기는 공간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로 이 가사는 제목에서부터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빈이무원'의 경지나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경지를 알게 해 준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은 당대의 산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의 부조화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누항'은 이덕형이 거처하는 '사제'와 여러 모로 비교되는 곳이다. 사제는 "한강 동쪽으로 산수를 찾아가 용진강을 지나 사제 안으로 돌아들면 제일 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곳"이다. 이에 비해 박인로의 '누항'은 이덕형의 사제와는 달리 세속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곳이고, 밥을 끓이고 매운 연기를 맡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안빈낙도하면서 살아야 하므로 노계는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누항'은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인 '도'를 추구해야 하는 이들에게 항상 상존하는 현실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산민(山民)



下馬問人居 **하마문인거**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 **부녀출문간** 아낙네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坐客茅屋下 **좌객모옥하** 띠집처마아래 손을 얹게 하고
 爲我具飯餐 **위아구반찬**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
 丈夫亦何在 **장부역하재**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나 하니
 扶犁朝上山 **부리조상산**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山田苦難耕 **산전고난경**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日晚猶未還 **일만유미환**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四顧絕無隣 **사고절무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鷄犬依層巒 **계견의층만**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中林多猛虎 **중림다맹호**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採藿不盈盤 **채곽불영반**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
 哀此獨何好 **애차독하호** 슬프다 외딴 살이 어찌 좋으리
 崎嶇山谷間 **기구산곡간**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樂哉彼平土 **락재피평토** 평지에 살면 더없이 좋으련만
 欲往畏縣官 **욕왕외현관**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

❖요점 정리

- 지은이 : 김창협(金昌協)
- 연대 : 조선 숙종 때
- 갈래 : 오언 배율
- 성격 : 현실고발적, 비판적
- 표현 : 직설법
- 압운 : 看, 餐, 還, 巒, 盤, 間, 官
- 구성 : 수함경미의 사단 구성

- 1~4행 - 산가 방문과 아낙의 소박한 대접
- 5~8행 - 산 속 생활의 고단함
- 9~12행 - 산 속 생활의 외로움과 두려움
- 13~16행 - 산 속에 사는 이유

산중	평지
사나운 호랑이	관리들의 횡포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

- 주제 : 관리들의 횡포와 평민들의 고된 삶 /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
- 출전 : 농암집

❖내용 연구

下馬問人居 **하마문인거** 말에 내려 인가를 찾아가 보니
 婦女出門看 **부녀출문간** 아낙네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백성들의 인정있는 모습]
 坐客茅屋下 **좌객모옥하** 띠집 처마아래 손을 얹게 하고
 爲我具飯餐 **위아구반찬** 나를 위해 밥과 반찬 내어오네(작가는 산 속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민가에 들어서게 된다. 어렵게 사는 생활이지만 손님을 위한 대접에는 소홀하지 않는 순박한 농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산 속 민가의 우연한 방문 -수
 丈夫亦何在 **장부역하재**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나 하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扶犁朝上山 부리조상산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山田苦難耕 산전고난경 산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日晚猶未還 일만유미환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부녀만 있는 집에 들어 가서 잠시 머물며
 바깥 주인의 출타 여부를 묻자, 아낙네는 산 속에 있는 밭을 일구러 쟁기를 메고 올라가 아
 침부터 저녁까지 고되게 일을 한다고 알려준다. 산속에 사는 농민의 고달픈 생활을 알 수
 있다.)- 산 속 농민의 고된 생활 - 함

四顧絕無隣 사고절무린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鷄犬依層巒 계견의층만 개와 닭도 산기슭에 의지해 사네
 中林多猛虎 중림다맹호 숲 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원님보다는 덜 무서운 산짐승]
 採藿不盈盤 채곽불영반 나물도 마음대로 못 뜯는다네(만중운산의 깊은 산속으로 키우는 가족들
 도 사람이 그림고, 먹을 것도 없어 산 속을 헤매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 속에서 시간
 을 보낸다. 그만큼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산짐승이 무서워서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나물도
 뜯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런 까닭에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늘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산다는 것이다.)- 산 속 생활의 외로움과 두려움 - 경

哀此獨何好 애차독하호 슬프다 외딴 살림살이 어찌 좋으리
 崎嶇山谷間 기구산곡간 험하고 험한 산골짜에서……

樂哉彼平土 락재피평토 평지[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면 더없이 좋으려만
 欲往畏縣官 욱왕외현관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 두렵다네(산골에 사는 이유와 벼슬아치가 두렵다
 는 말에서 당시 민중들의 고달픈 삶의 원인이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
 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를 떠올리는 구절로 당시 민중의
 고단한 삶이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황구첨정(黃口簽丁 : 조선 후
 기에, 군정(軍政)이 문란해져서 어린아이를 군적(軍籍)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던 일), 가렴주
 구(苛斂誅求 :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백골징포(白骨徵布
 : 선 후기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 대장에 올려 놓고 군포(軍布)를 받던 일.) 등
 이 있었다. - 학정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 미

❖이해와 감상

산민(山民)은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리들을 피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곳에서 산은 관리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도피처이지만 그 도피처는 단지 고달픈
 삶만을 제공하는 산일 따름이다. 그곳에는 인간의 교유가 없고, 단지 극한적인 생존만이 존재한
 다. 그런 극한적인 생존도 가렴주구를 일삼는 관리들의 학정보다는 견딜만하다는 데에서 당시
 민중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다. ‘예기’에 나오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
 호(苛政猛於虎)의 고사성어를 연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있어 호랑
 이에게 잡혀 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로 춘추 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孔子:B.C 551~
 479)의 고국인 노(魯)나라에서는 조정의 실세(實勢)인 대부(大夫) 계손자(季孫子)의 가렴 주구(苛
 斂誅求)로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태산(泰山) 기
 슭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부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일행이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니
 길가의 풀숲에 무덤 셋이 보였고, 부인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자비심이 많은 공자는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라고 했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부인, 어인 일로
 그렇듯 슬피 우십니까?"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호환(虎患)을 당하시더니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
 고 이번에는 자식까지 호랑이한테 잡아 먹혔습니다." "그러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 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 자로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잘 들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결국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정자들의 반성을 촉구하
 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촉구일 따름이지 실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 그것을 보여 준
 다.

❖심화 자료

- 김창협(金昌協)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1651(효종 2)~1708(숙종 34).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 또는 삼주(三洲). 경기도 과천 출신.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자, 아버지는 영의정 수항(壽恒), 어머니는 안정나씨(安定羅氏)로 해주목사 성두(星斗)의 딸이다. 영의정을 지낸 창집(昌集)의 아우이다.

1669년(현종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2년(숙종 8) 증광문과에 전시장원으로 급제해 전직에 출사한 뒤, 병조좌랑·사헌부지평·부교리 등을 거쳐 교리·이조좌랑·함경북도병마평사(咸鏡北道兵馬評事)·이조정랑·집의·동부승지·대사성·병조참지(兵曹參知)·예조참의·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송시열(宋時烈)의 《주자대전차의 朱子大全筭疑》를 명에 의해 교정하였다.

청풍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자, 사직하고 영평(永平 : 경기도 포천군)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옥사 후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호조참의·예조참판·홍문관 제학·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세자우부빈객·지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평소에 부드럽고 화기가 가득하지만 의리를 분별해 밝힐 때는 목소리를 높여 기개와 절조를 표현해 그의 말을 끊을 수 없었지만, 선입견이 없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으면 곧 주장한 바를 양보하였다. 또한 후학을 순순히 교화해 모두 심복하게 하였다.

문장은 단아하고 순수해 구양수(歐陽修)의 정수를 얻고, 그의 시는 두보(杜甫)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고상한 시풍을 이루었다.

학문은 이황(李滉)과 이이(李珣)의 설을 절충하였다. “사단(四端)은 선(善)뿐이고 칠정(七情)은 선과 악을 겸했으니, 사단은 오로지 이(理)만 뜻하고 칠정은 기(氣)를 겸한 것”이라는 이이의 설에 대해, 다만 기까지 겸하였다는 한 구절에서 차이를 보인다.

칠정이 비록 이와 기를 겸했다라도 그 선한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랐음이지요, 그 선하지 않은 것은 기가 능히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니, 처음부터 기가 주된 것이라고 해 이황의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을 지지하였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도 그는 기의 맑은 것은 모두 선하지만 선한 정(情)이 모두 맑은 기에서 나왔다 함은 옳지 않으며, 정의 악한 것이 탁(濁)한 기에서 나왔지만 탁한 기가 발(發)해 된 정이 모두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인심의 동(動)함에 이가 비록 기에 탕어도 기가 또한 이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만약 선악의 정을 모두 기의 청탁에 돌린다면 이의 실체와 성(性)의 선함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악론변 性惡論辨〉에서 그는 “사람의 성은 본래 선한 것이나 순경(荀卿)이 인성을 악하다고 말한 것은 기요, 성이 아니다. 대체로, 사람이 세상에 날 때 기는 질(質)이 되고 이는 성이 되는 것인데, 이는 선만 있고 악이 없으나 기에는 선한 것도 있고 선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사람에게 선하지 못함이 있음은 기의 소위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이기설에서 대체로 이이보다는 이황의 설에 가까우며 호론(湖論)을 지지하였다. 특히, 문장에 능하며 글씨도 잘 써서 문정공이단상비(文貞公李端相碑)·감사이만웅비(監司李萬雄碑)·김승겸표(金崇謙表)·김명원신도비전액(金命元神道碑篆額) 등이 있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영암의 녹동서원(鹿洞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농암집》·《주자대전차의문목 朱子大全筭疑問目》·《논어상설 論語詳說》·《오자수언 五子粹言》·《이가시선 二家詩選》 등이 있고, 《강도충렬록 江都忠烈錄》·《문곡연보 文谷年譜》 등을 편집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참고문헌》 농암집(金昌協), 朝鮮儒學史(玄相允, 民衆書館, 195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滿開] 고향시가-아리랑 타령

아리랑 타령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말깨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깨나 낱을 년 갈보질하고
 목도깨나 메는 놈 부역을 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신작로 가상다리 아까시 남은
 자동차 바람에 춤을 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먼동이 트네 먼동이 트네
 미친 님 꿈에서 깨어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
- 갈래 : 서정 민요, 구비 민요, 제창요,
- 운율 : 3음보
- 성격 : 풍자적, 현실비판적, 적층적, 구비적, 직설적
- 표현 : 분절체, 후렴구의 반복법, 대구법, 대유법, 제유법
- 제재 : 민씨의 세도 정치 및 일본의 수탈
- 주제 : 위기에 처한 민족의 수난,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민 씨의 세도 정치 및 일본 수탈을 고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 구성 : 추보식(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
 - 1연 - 외척의 세도 비판
 - 2연 - 실속 없는 신식 군대 비판
 - 3연 - 현실과 유리된 개화 비판
 - 4연 - 일제의 수탈에 대한 비판
 - 5연 - 잘못된 개화에 대한 비판
 - 6연 이하 (생략)
- 의의 : 구비 문학으로서의 적층성이 잘 반영되어 있고, 민요 형식을 빌어 민중들의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노래했고, 일상적 용어 사용했고, 이 노래를 통해 비판하고자 한 것은 외척의 세도, 일제의 경제 수탈, 피폐해진 민족의 삶, 민중의 삶과 유리된 개화 등이다.
- 출전 : 성경린, 장사훈 편 '조선의 민요'

■내용 연구

이씨(고종)를 가리킴. 왕실(王室)을 지칭)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고종의 비 '명성황후'를 가리킴, 외척(外戚)을 지칭으로 실세(實勢 : 실제의 세력이나 기운, 또는 그것을 지닌 사람이나 무리들)의 팔촌이 되려무나.[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 조선조 왕족인 이씨의 가까운 친척보다 외척인 민비의 먼 친척이 더 권세가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당시 민씨의 세도가 하늘을 찌를음을 알 수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후렴구는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이니 배 띄워 놀다 가자는 것으로 보아, 현실 향락적이면서도 다소 체념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음보의 정형적 울격을 바탕으로 하여, 매 연마다 일정한 후렴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적 효과를 살리고 있다]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띄워라 놀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춘단(고종의 명으로 1895년 을미사변 때 전사한 충신 열사를 모시던 사당)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실전 훈련보다 의식 훈련만 하고 있는 신식 군대에 대한 풍자)
 [남산 밑에다 장춘단을 짓고 /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만 한다. : 국토 방위에 전념해야 할 신식 군대가 하는 일이라곤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경례만 하고 있다는 뜻으로 형식에만 치우친 군대를 비판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전차) 오기만 기다린다.[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거장을 만들어 전차가 다니게 한다는 뜻으로 민족의 삶과 유리된 개화를 비판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문전(문 앞, 집 가까운 곳)의 옥토(기름진 땅,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땅)는 어찌 되고

쪽박(작은 바가지, 여기서는 거지의 비유로 나라를 빼앗겨 어렵고 가난한 민족의 생활상을 표현한 것임)의 신세가 웬 말인가.[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말인가. : 일제의 가혹한 경제적 수탈로 피폐해진 민족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밭[밭과 집은 민중의 생활의 터전]은 헐려서 신작로[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새로 만든 큰 길(개화의 대유)] 되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집은 헐려서 정거장(개화의 대유) 되네.[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 신작로의 정거장이 만들어져 겉으로 보기엔 세상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러한 외형적인 화려함이 받을 헐고 집을 허는 등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외화내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말깨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일깨나 하는 놈 공동산(공동묘지가 있는 산)[말깨나 하는 사람은 항일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일깨나 하는 사람은 노역으로 숨졌다는 말로 당시 민중들의 고단한 실정을 말함]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아깨나(아이깨나, 아이를 어느 정도 잘) 낳는 년 갈보질(몸을 팔며 천하게 노는 계집질)하고 목도(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굵은 막대기)깨나 메는 놈은 부역질(賦役 : 국가나 공공 단체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하여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신작로 가상자리(혹은가장 자리) 아까시 남은(아까시아나무는)

자동차 바람에 춤을 춘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먼동이 트네 먼동이 트네

미친 님 꿈에서 깨어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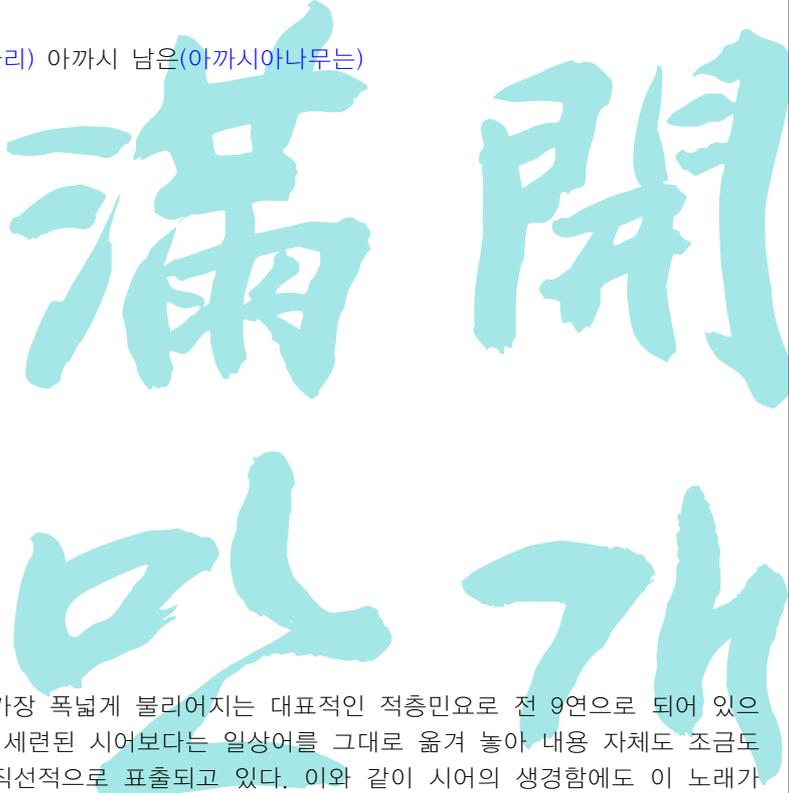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 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여라 노다 가세.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폭넓게 불리어지는 대표적인 적층민요로 전 9연으로 되어 있으며, 3음보격으로 되어 있다. 세련된 시어보다는 일상어를 그대로 옮겨 놓아 내용 자체도 조금도 변용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직선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어의 생경함에도 이 노래가 무한한 여운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단 두 행에 표현된 구체적 사실 하나하나가 당시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했던 체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날카로운 풍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동일한 곡조의 반복 구조로 민씨 세도 정권 때부터 일제 강점하의 시기 속에서 민족적 수난으로 인한 삶의 파괴와 민중들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 말기 대원군의 하야 이후에 민씨 외척의 특세로 국정이 문란하게 되었다는 것과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개화정치'를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일제 식민통치이후에는 유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바른 말 잘하고, 힘쓰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반반한 여자는 사창가로, 일하는 남자는 노역에 동원되고, 그러나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들여온 자동차가 달리지만, 먼동이 트고 미친 놈이 깨어나면 풍년이 온다는 희망찬 미래를 암시하고 있으며, 진솔하고, 소박한 표현으로 민중들의 건강하고 힘찬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어찌면 김수영의 '풀'과 같은 민초들을 연상하게 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시가-흰 구름프른 내는

흰 구름 프른 낙 | 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상(秋霜)에 물든 ㉠단풍(丹楓) 봄나긔도곤 더 조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하야 뵈 빗출 꿈여 낙 | 도다
 - 김천택, <흰 구름 프른 낙 | 는~>

김천택, < 흰 구름 프른 낙 | 는~>

- 해제 : 화자는 가을에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좋다고 말하면서 비교의 방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주제 :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예찬
- 구성
 - 초장 : 하얀 구름의 가을 풍경
 - 중장 : 가을 단풍과 봄꽃의 비교
 - 종장 : 가을의 아름다움 예찬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날개(1936)

-이 상-

◆ 소설 읽기

● 줄거리

〈프롤로그〉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인 '나'는 독백을 통해 자신의 의식의 상태를 보여주며 여성의 전부가 미망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일상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펼친다.

유쾌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은 33번지의 18가구에는 밤에 무엇을 하는지 침침한 방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지내며, 18가구 중 제일 작고 아름다운 내 아내만을 소중히 생각한다. 우리 방은 대문간에서 일곱 번째 칸에 있다. 장지로 두 칸으로 나누어 별이 드는 아랫방은 아내가 쓰고 별이 안드는 윗방은 내가 쓰고 있다.

아내가 외출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동쪽 창문을 열고는 찬란히 빛나는 아내의 화장병과 돋보기를 가지고 논다. 아내의 방은 화려한 옷들이 많다. 그러나 내방은 코르덴 양복 한 벌이 전부이다. 아내는 열한 시에 첫 번째 세수를 하고 저녁 일곱 시에 두 번째 세수를 한다.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나 아내가 외출을 즐기는 것으로 보아서 직업이 있는 듯하다. 아내에게 내객이 있는 날은 나는 온종일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 한다. 나는 아내가 주는 것을 넘죽넘죽 받아 먹기는 하나 영양부족으로 야위어 간다. 내객이 가거나 외출에서 돌아오면 아내는 내 방에 들러 은화를 놓고 간다. 어느날 돈이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한 나는 아내에게서 받은 은화를 넣은 병어리를 변소에 갖다가 버린다.

나는 아내의 밤 외출을 틈타서 외출을 한다. 다리가 아파서 건디지 못한 나는 내객이 있는 아내의 방을 건너 내 방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 외출을 한 나는 경성역의 시계가 자정을 지난 것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원을 주고 잠을 잔다. 경성역 대합실 걸 다방에서 열한 시까지 있다가 비를 맞고 자정을 기다린다. 오한을 견디지 못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방에서 못 볼 것을 본다. 나는 여러 날을 앓아 눕는다. 나는 아내가 주는 약을 받아 먹고 잠에 취하며 거울을 보러 아내의 방에 갔다가 아스피린처럼 생긴 최면약 아달린을 발견한다.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외출을 한 나는 아내가 나를 밤낮으로 재워놓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은 돈을 문지방에 놓고 도망쳐 나온다. 나는 미쓰꼬시 옥상에 올라가 지나간 스물 여섯 해를 회고하면서 자문자답을 하다 불현듯이 거드랑이가 가려움을 느끼고, '날개야 돌아라 날자'를 외쳐대고 싶어진다.

● 인물의 성격

◆ 나 → 화자이면서 주인공. 자의식에 사로잡힌 좌절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로 표현된 자폐적 성격의 소유자이고, '두 개의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중 성격 내지 자아분열의 징후를 보이는 비밀상성의 인물

◆ 아내 → 물질과 사회적 타협의 표상으로 타락한 현실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존재이다.

● 구성 단계

◆ '나'가 집에서 보고 느낀 의식, 무의식의 상태와 외출해서 느낀 점 등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단 순구성

● 이해와 감상

이상의 문학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심리주의 소설로서,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자기 소모적이고 해체적인 삶을 통해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심리적 의식, 즉 내면으로 투영시킨 작품이다. '아내'는 '나'를 제압, 구속하고 압박하는 당위의 거대함을 보여주고, '나'는 동물처럼 그에 길들여진 존재의 왜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당위와 존재라고 하는 상반된 입장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게으름과 삶의 권태에 찌든 주인공(존재)이 아내(당위)에게 승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존재와 당위의 불화없는 공존관계가 성립되지만,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는 돈으로 인해 외출에의 계기를 갖게 되고, 나의 외출로 인해 아내는 나의 존재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섯 차례에 걸친 '외출'이 의미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자아에 눌러마비되었던 본질적 자아를 자각함으로써 시작하여 이 본질적 자아를 되찾는, 의지적인 인간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복예의 과정이다.

이 작품은 소위 '의식의 흐름' 수법을 시도하고 주관적 내면 의식을 객관화시켜 드러내는 등, 현대문학적 기법을 선보임으로써 발표 당시부터 문단에 상당한 파문을 던졌고, 비평계에서는 리얼리즘에 입각한 논란을 일으켰다. 현실도피적이고 자폐적인 내성 소설로 보는 부정적 견해와 주관적 의식세계를 객관화하여 사실주의를 심화시켰다는 긍정적 견해가 그것이다.

이 소설은 이기적이고 억압적인 외부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자폐증을 지닌 인간이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자폐증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심리적 갈등을 내적 독백의 형태를 빌어 그리고 있다. 아내는 살기 위해 몸을 파는 생활적 자아이고, 생활력이 없는 나는 본래적 자아일 수도 있다.

● **핵심사항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심리주의 소설, 초현실주의

◆ **배경**

* 공간적 - 해가 들지 않는 서울의 33번지 구석방, 거리, 역대합실, 산, 옥상

* 시간적 - 1930년대 어느 날

* 사상적 - 다다이즘, 모더니즘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자기의 주관적인 의식 세계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것은 일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대상화하여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나'가 제시하는 여러 상황에 독자를 참여하게 하여 자신의 의식 세계를 더욱 사실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 **표현상 특징** : 독백체에 의한 직접적 서술, 의식의 흐름

◆ **갈등구조** : 주인공 내부에서의 일상적 자아와 본래적 자아간의 갈등. 이 두 개의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통합해가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 **주제**

*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의식의 심화와 그 초극을 위한 몸부림

* 식민지 처한 지식인의 분열된 자의식과 극복 의지

● **생각해 볼 문제**

1. '나'와 '아내'는 대조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비교해 보라.

⇒ 아내의 방은 화려하고 햇벌이 들지만, '나'의 방은 빈대가 들끓고 어두침침하다. 아내는 화려한 옷에 하루 두 차례 세수를 하고 '돈'을 벌지만, '나'는 검은색 단벌에 세수도 하지 않고 아내가 주는 돈을 그저 받기만 한다. 즉, '나'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성적으로 아내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2. 나에게 있어 '방'과 '거리'는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

⇒ '방'은 사회성과 일상성이 결여되어 유폐된 공간을, '거리'는 자아 회복의 공간을 의미한다.

3. 이 작품에서 '외출'이 상징하는 바는 ?

⇒ 아내에게 종속된 관계와 전도된 질서 및 폐쇄된 방 등으로부터 탈출하여,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고 분열된 자아를 통일하며 퇴행적인 자폐적 생활의 굴레로부터 해방됨을 상징한다.

4. 결말 부분의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구나.'라는 외침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 자아를, 자신의 욕망과 꿈과 이상을 되찾고 거기 따라 살고 싶다는 절박한 소망이 암시된 말.

5. '나'와 '아내'의 관계를 간단히 묘사하고, 근대도시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거기서 어떻게 상징되고 있는지 써라.

⇒ 부부라는 관계를 이루고 있음에도 가족적인 유대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감이 상실된 근대사회에서의 고립되고 소외된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6. '의식의 흐름'이라는 수법이 드러난 구절을 찾아보자.

⇒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

7. 프롤로그에 드러난 '나'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 이후의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 보자.

⇒ 프롤로그에서의 화자는 자신을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반 쪽만의 자아를 가진 자신에 대한 냉소적 비판임과 동시에 그런 지성에 몰입해 있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자아의 모습은 속이야기에서 그대로 구현되며,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적 자아로 다시 태어나려는 몸짓으로 나타난다.

● 더 읽을거리

◆ 이 소설에서의 주요 공간인 '방'과 '거리'의 상징성, 외출이 지닌 상징성에 대해서

'방'은 유폐된 공간으로 자폐적 삶을 사는 나의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거리'는 열린공간으로 자아의 해방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구성은 '방'에서 '거리'로 나오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 대목에서 '날자꾸나'의 자기 독백은 과거의 폐쇄적 삶과의 결별선언이다. 이 자유의 선언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외출을 거치는데, 물론 그것은 점층적 성격을 지닌다. 그 과정을 보면,

- ① 첫 번째 외출 : 아내의 사생활 인지
- ② 두 번째 외출 : 아내와의 관계에 변화가 옴
- ③ 세 번째 외출 : 폐쇄적인 환경에서 벗어남
- ④ 네 번째 외출 : 일상성에서 벗어난 삶으로의 이행
- ⑤ 다섯 번째 외출 : 자발적인 일탈 행동

이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는 음울한 자폐 상태에서 자아의 회복으로 점점 전이되어 간다. 따라서 주제가 '자아의 통합 지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감상을 위한 읽을거리

〈날개〉는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의 이야기다. 타락한 아내의 집 한 구석 방 안에서 기거하는 '나'는 아내가 없을 때 아내의 방에서 돋보기, 화장품 등을 가지고 노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아내가 어떻게 번 돈으로 자신에게 밥을 주는지, 왜 밤에는 잠만 자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와의 갈등은 '나'의 분열된 자의식으로 나타난다. '나'의 자아는 분열되어 지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불안한 자의식을 작가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특별한 줄거리 없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따라가며 사건을 전개하는 기법을 말한다.

겉으로는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한 모습이지만,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를 가진 '나'는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가게 된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던 '방'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쓸모없다고 버렸던 병어리저금통의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있다면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즉, 자아 회복을 위한 장치로 '돈'이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작가 이상은 뛰어난 지식인이었다. 그는 1926년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건축과에 입학한 합격자 12명 가운데 유일한 조선인 학생으로 수석을 다뤘으며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한다. 건축뿐 아니라 시와 소설 등 문학 활동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으며, 친구의 소설책에 그림을 그려 줄 만큼 미술 실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이상은 생업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기생 금홍과 관계를 맺던 이상은 그녀가 벌어들인 돈으로 삶을 유지했고, 금홍과 헤어진 후에도 동림이라는 여자의 힘으로 먹고 살았다. 〈날개〉에는 이러한 이상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식민지 지식인.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날아 보자."를 외치는 '나'는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려는 작가 자신이 아니었을까?

◆ 「날개」의 소설적 특징

소설 「날개」는 1936년 9월 『조광』에 발표되었으며, 이상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비교적 명료하게 이야기의 줄거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라는 지식인이다. '나'는 도시의 병리를 대표하는 매춘부인 아내와 기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희망도 비판적 자각도 없는 무기력한 주인공이, 좁은 방으로 표상되는 비정상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소설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삶은 외적 현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오직 아내에게 기생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아내가 수상한 외출을 하거나 아내 방에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도 분노할 줄 모르며, 오히려 착한 어린이나 순한 동물처럼 '아무 소리 없이 잘 논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한 적응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시키고 자아에 대한 모독과 부정을 일삼는 병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적 쾌락으로 전화되어 나타난다.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동물적 존재로 비하하거나 아내가 아스피린이라고 속이며 건네주는 수면제를 먹고 무자각의 상태에 빠짐으로써 무의미한 삶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이러한 무의미한 삶과 자의식의 세계로부터 탈출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표출해내고 있다. 서두에서 주인공의 무기력한 삶이 '박제'로 상징되었다면, 결말 부분에서 표출되는 탈출에의 의지는 '날개'로 상징된다.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라는 절규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탈출에의 의지는 미래로의 적극적인 투기라기보다는 결코 행동화될 수 없는, 자의식 속에서만 메아리치는 간절한 내적 원망의 표백에 더 가까운 것이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끝의 환락 비극.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현대소설-태평천하

● 줄거리

인력거를 타고 대문 앞에 당도한 윤 직원 영감은 "권연시리 그년의 디를 갔다가 그놈의 인력 거꾼을 잘못 만나서 실갱이를 허구, 애만 돈 5전을 더 쓰구 허였구나."하고 불평한다. 춘심이를 따라 명창 대회에 갔던 것이다. 사실 윤 직원은 명창 대회를 좋아했고, 춘심이를 앞세우고 갔었다. 구경을 잘 하고 돌아올 때, 춘심이더러 걸어가라 하고는 자신은 인력거를 타고 온 것이다.

대문이 열려 있자, 거지들 오라고 그러느냐면서 호통이다. 이 집의 사실상 주부인 며느리가 열어 놓은 것이라 듣고는 "짜 찢을 년!"이라고 욕한다. 윤 직원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욕을 하고는 다음 말을 한다.

윤직원의 선친 윤용규는 천하 농팡이였는데 윤이 트이려고 하니 일조에 출처를 모르는 돈 이백 냥이 생기자 노름방 출입을 삼가고 착실한 살림꾼으로 변했는데, 그 때부터 살림이 일어 삼천 석을 하는 부자가 되었다. 윤 직원은 어릴 때부터 취리에 밝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렇게 30년 동안 가산을 늘려 왔다. 그 때는 수령에게 뜯기기도 하고 화적에게 빼앗기기도 하는 재산이었다. 화적 떼에게 윤용규가 죽자 윤 직원은 "오냐, 우리만 빼고 다 망해라!"하고 절규했다. 그리고 돈을 더욱 모았다. 재산 더미에 올라앉아 이 태평한 시절을 생각하며 만족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그대로 부족한 것이 있었다. 문벌이 변변찮은 것이 마음에 걸린 그는, 족보에 도금을 칠하고 새로 만들었으며, 향교의 우두머리 직함인 '직원'을 억지로 했다. 그리고 자식들을 양반 혼인을 시켰다. 이제 그는 집안에서 군수 하나와 경찰 서장 하나, 이렇게 실속있는 양반을 하나 내놓자고 생각했는데, 마침 손자가 둘이다.

명창대회에서 돌아와 안방에 들어간 뒤 둘째 손자 며느리가 밥상을 날라 온다. 경찰서장감으로 동경에서 공부하는 손자 종학의 아내로 과부나 다름없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맏손자 며느리다. 맏손자 종수가 시골에 가서 첩 살림을 하기에 역시 과부나 다름없는 신세다. 딸 하나는 진짜 과부로 친정에 와 있고, 윤 직원에 맞다대기를 할 양으로 버티고 있는 맏며느리도 과부다. 윤 직원은 태식을 부른다. 태식은 증손자와 나이가 비슷한 윤 직원의 아들이다. 모자라는 아들을 윤 직원은 끔찍이 여긴다.

맏며느리는 맏아들 윤창식이 첩 살림을 하는 바람에 생과부로 31년을 늙은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살림의 전권이 그만 맏손자 며느리에게 넘어가자 윤 직원을 미워한다. 윤창식은 아버지 윤 직원과는 달랐다. 돈에 워낙 관심이 없고, 남의 빚보증을 서 주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기도 했다. 이런 점은 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직원은 돈 문제로 그들과 다투어야 했다.

맏며느리와 한 바탕 싸우고, 사랑방에 들어간다. 윤 직원의 재산으로 거간을 해 먹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거기서 윤 직원은 비싼 이자를 요구한다. 그 때 호외를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종일 전쟁 때문에 연일 호외가 도는 판국인데, 윤 직원은 중국이 아라사의 꾀에 빠져 사회주의를 하니 일본이 혼을 내는 것이라고 전쟁을 해석한다.

거간들을 보내고 나서 보료에 편안히 누워 춘심이를 기다린다. 대복이도 기다려진다. 대복이가 먼저 들어온다. 대복이는 윤 직원의 비서이자 지배인이다. 라디오를 만져 놓고 제 방으로 가는 대복이와 엇갈려 춘심이가 들어선다. 윤 직원이 늦었다고 하니, 춘심이는 자유 세상에 제 맘이라고 농을 하며 웃는다. 금년 봄 내리 다섯 번을 실연한 윤직원이 여섯 번째 얻은 애인이 춘심이다. 시방 방 안에서는 일흔두 살 증조할아버지가 열다섯 살 애인과 연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날이 밝아온다. 오전에 춘심이에게 반지를 사 주고 온 윤직원 영감은 방금 계동 자택에서 점심을 받으려던 차이다. 이 때 아들 창식이 어려운 발걸음을 한다. 해가 동쪽에서 뜨겠다고 윤 직원은 말한다. 창식은 종학이 사상 관계로 동경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보여 준다. 윤 직원은 수천 길 밑으로 떨어지는 듯 정신이 아찔해진다. 옛날에 드세던 부랑배의 침노보다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서웠던 것이다. 이 태평천하에 그런 짓에 하다니 처 죽일 놈이라고 소리를 친다.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마치 장수의 주검을 만난 군졸들처럼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차차 사랑개로 사라진다.

● 인물의 성격

◆ **윤 직원** → 일제치하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늘려가기에 유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역사의식이 없이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사회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강한 당대인들의 전형화된 인물이다.

◆ **윤종학** → 동경 유학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장차 경찰 서장감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된다. 소설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소설에 유일하게 나타난 긍정적인 인물이다.

◆ **윤종수** → 윤직원이 군수감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고향에서 군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매일같이 주색잡기나 하는 방탕한 인물이다. 할아버지 윤직원과 아버지 윤창식을 닮은 부정적 인물이다.

◆ **윤창식** → 개화기에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윤 직원의 아들이다.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이다.

◆ **윤경손** → 윤종수의 아들로 증조부 윤직원의 애인인 춘심과 연애를 하고 할아버지뻘인 태식을 놀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인물이다.

◆ **윤직원의 부인 오씨, 며느리 고씨, 딸 서울아씨, 큰 손자 며느리 박씨, 둘째 손자 며느리 조씨** → 윤씨 집안의 여인들로 과부 아닌 과부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진짜 과부이기도 한 비극적인 인물들이다.

◆ **대복이, 석서방, 춘심이, 병호, 옥화, 방물장수, 침모 전주댁, 행랑아범, 행랑어멈, 두쟁이 여인** → 윤씨 가문에 기생하여 비속한 짓을 하거나 몇 푼의 돈을 바라고 술수를 부리는 비윤리적인 인물들이다.

● 구성 단계

- ◆ **발단** : 인력거를 타고 와서 그 샷을 깎으려고 하는 윤직원 영감의 행태
- ◆ **전개** :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내력과 치부 과정
- ◆ **위기** : 둘째 손자 종학에 대한 윤 직원 영감의 기대, 윤 직원 영감의 아들 창식과 큰 손자 종수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
- ◆ **절정 · 결말** : 둘째 손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일본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에 충격을 받는 윤 직원 영감

● 이해와 감상

◆ <태평천하>는 1938년 '조광'에 <태평천하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윤직원 일가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여, 당대 사회의 모순과 중산층의 삶의 태도를 풍자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윤 직원 일가의 사람들은 종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부패한 지방 수령이나 일제의 식민지 체제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이윤추구나 주색잡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작가는 전면에 내세워 한바탕 추켜세우고는, 그들의 추악한 삶의 모습에 대한 회화화를 시도한다. 특히 윤직원 영감은 절대적인 궁핍 속에서 대다수의 민족이 고난을 겪는 지옥과 같은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느끼는 도덕이나 양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는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식민 통치에 혜택을 입거나 식민 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인물이다. 그는 결국 철저한 이기주의자이며,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인물인 것이다. 작가 채만식은 이 작품을 통해 **식민지하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믿는 주인공의 시국관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한다.**

◆ 이 작품은 염상섭의 <삼대>, 김남천의 <대하>와 더불어 1930년대를 대표하는 가족사 소설로 볼 수 있으며, 인물의 성격 묘사를 통해서 당시 사회 전체의 실상을 암시하려는 성격소설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가족사 소설은 한 가족의 몰락상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소설은 5대에 걸친 가계의 관계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시된다. 중심인물은 윤직원 영감이며, 그의 아들, 두 손자, 그리고 부친에 이르는 여러 세대가 배경이 된다. 물론 윤직원의 부친과 둘째 손자 종학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부친이 현재의 직전 세대를 대표하고, 앞으로 전개될 시대는 물론 종학이 대표한다. 따라서 윤직원의 현재는 그 시대의 실상이며, '윤직원-아들(윤창식)-큰손자(종수)'가 사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할 때, 그들의 모순과 결함은 곧 그 사회의 결함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은 염상섭의 <삼대>와 세팅이 유사하다. '윤직원-조외관', '윤창식-조상훈', '윤종학-조덕기'와 같이 대응되면서 가족의 붕괴상을 보이는데, 그 주제 또한 일치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현대소설에 적용하여 문학의 전통성을 살리고, 주제를 강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입니다'식의 경어체 문장이나 '~겠습니다'와 같은 경박한 어투를 빌어서, 판소리 창처럼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 서서 작중 인물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이는 바로 방자나 말뚝이 같은 인물이 양반 사대부의 면전에서 공경스러운 태도를 짓다가도 뒤에 가서 느닷없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본뜬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판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와 작중 인물 사이에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작중 인물을 평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서술자는 판소리의 창자(唱者)와 유사하다. 판소리 창자는 사건을 이끌어 가는 자이면서, 때로 관객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서술자로서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따로 평자의 입장에 서면서 그 위상을 다양화한다. 그런 자리 바꿈을 통해 적절한 풍자와 해학을 구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층위를 보여줌으로써 미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가 바로 판소리 창자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반어를 통한 희화화, 우스꽝스럽고 격이 낮은 언술을 통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수법 등은 판소리 사설의 수법과 유사한 것이다.

◆'태평천하'의 작중 진행 시간 : '태평천하'의 이야기 시간은 하루 남짓이다. 윤 직원이 춘심이를 데리고 명창 대회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윤 직원의 집안 내력과 윤 직원의 아들과 손자가 벌이는 행동이 몇 장면 소개되는 데까지가 하루이다. 다음 날, 손자 종학이 동경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전보가 날아들면서 윤 직원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마침내는 처절한 절규를 하는 데서 소설은 끝난다. 중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작중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묘사가 세밀하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핵심사항 정리

◆ 갈래: 중편소설, 풍자소설, 사실주의 소설, 가족사 소설

◆ 배경

- * 시간적 → 1930년대 식민지 치하
- * 공간적 → 서울, 평민 출신의 윤 직원 일가
- * 사상적 → 민족주의 사상과 반자본주의 사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 * 반어적 희화화를 통한 인물 풍자
- * 경어체의 사용
- * 서술자가 판소리 광대의 어조를 사용함.
- * 판소리 사설을 연상케하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문체

◆ 주제

- * 일제 식민지 치하 윤 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의 과정
- * 부정적 인물을 통한 식민지 시대 타락한 삶의 비판

◆ 출전 : <조광 27~35>(1938. 1. ~ 1938. 9.)에 연재 발표됨.

● 생각해 볼 문제

1. 작가가 제목을 '태평천하'라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 결코 태평천하가 아닌 시대를 그렇게 보는 윤 직원 영감의 저열한 인식과 역사적식의 부재 반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2. 비판과 풍자가 이 소설의 주제의식인데도 문면에 노골화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리하여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풍자성은 그 서술에서 드러난다. 서술자가 윤 직원 영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비판을 노골화하지 않고 우스개처럼 풀려주고 있어서 겉으로는 재미만 느껴진다. 그렇지만 그 재미있는 서술 속에 비판과 풍자가 도사리고 있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작가가 윤 직원의 부정적인 세계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종학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그린다. 그것은 윤직원 영감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계와는 다른, 더불어 사는 이타적 삶이라고 할 것이다.

4. '서술자-독자', '서술자-사건상황'의 거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고, 그 양상을 말해 보자.
 ⇒ 이 작품의 서술자는 사건 상황과 매우 밀착된 거리를 보인다. 사건을 진술하는 자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 사건을 요약하고 평가하면서 사건의 중심에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에게도 매우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독자에게 하는 가운데 계속 독자 쪽을 힐끔거리며 일러바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판소리 기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5. '윤 직원'과 '놀부'를 비교해 보자.
 ⇒ 두 인물의 공통점은 구두쇠, 반인륜적 · 반사회적 인물, 부당한 수단에 의해 부를 축적함, 신분 상승의 욕망을 지님. 풍자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두 인물의 차이점은 놀부가 봉건 사회의 서민형 지주의 모습이라면, 윤 직원은 근대 자본주의 식민지 시대의 친일 지주라는 점이다.

◆ 교과서 학습 활동

1. 구성면에서 볼 때, 이 소설은 15개의 장(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비유적인 소재목이 붙어 있다. 이 작품의 소재목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 이 말의 원래 뜻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진나라의 도사 노생이 바다에 들어갔다 돌아와서 도참을 진언하기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胡)입니다."라고 했다. 진나라 시황은 그 말을 믿고 군사를 보내어 흉노족을 격파하고 북쪽 국경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실지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시황의 작은 아들 호해(胡亥)의 학정(虐政)이었다.

'망진자는 호야니라.'의 의미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장 믿고 있는 내부의 가족이 진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윤 직원 영감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윤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제라는 외부의 적, 즉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믿고 아꼈던 둘째 손자 종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전보'는 작품 구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설명해 보자.
 ⇒ 윤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며, 신선 놀음을 하고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신선 놀음이 손자 종학으로 인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전보'는 윤 직원 영감의 이런 기대를 극적으로 반전시킨다. 자신이 가장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사회주의에, 가장 큰 희망이요 보람이었던 경찰 서장감 종학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안 윤 직원은 격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다음은 윤직원의 말이다. 이러한 말을 근거로 윤직원은 어떤 인물인지 말해 보자.
 "우리만 빼 놓고 어서 망해라!"
 "멋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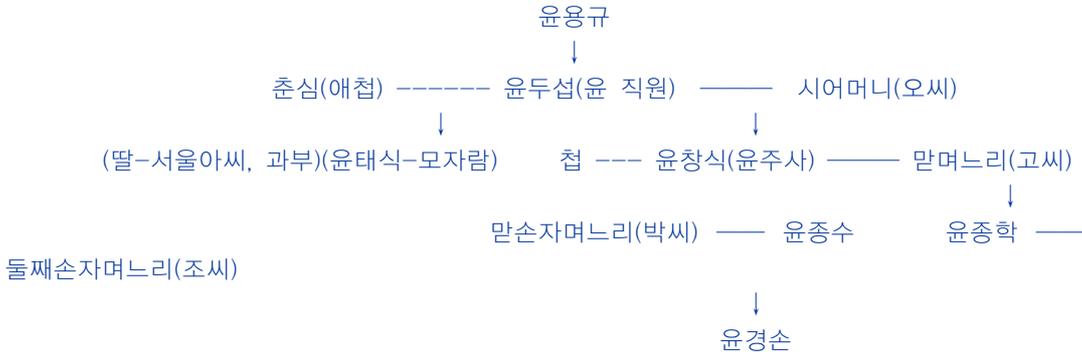
⇒ 첫 번째 윤 직원의 말에서 윤 직원이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말을 통해 배금주의에 철저한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하는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없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4. 다음의 표현을 중심으로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 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1)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에 대해 어떤 태도로 서술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윤 직원 영감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반어적으로 비웃고 있다.
 (2) 인용된 내용은 작중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체가 사용된 예를 앞에서 배운 <춘향전>에서 찾아보자.

⇒ '곤장 태장 치는 데는 사령이 서서 하나 둘 세건마는 형장부터는 법장이라, 형리와 통인이 닭쌈하는 모양으로 마주 엮여서 하나 치면 하나 굶고, 둘 치면 둘 굶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벽에 술값 굶듯 그어 놓으니 한 일자가 되었구나.'와 같은 부분에서 서술자가 개입하고 논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5. 복잡한 장편소설의 경우,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간략한 표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이 작품은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다루고 있다. 작품 전편을 읽고 인물들의 관계를 가계도 형식으로 정리해 보자.



● 더 읽을거리

〈태평천하〉는 근대소설이고, 판소리는 공연예술로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판소리의 여러 국면 가운데 사실 즉 서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필 경우라야 대서사 양식에 가장 접근한다. 판소리와 판소리 소설의 관계는 많은 논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온 영역이다. 그리고 그 영역은 우리 소설사의 중요한 맥을 이루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태평천하〉와 판소리의 관계가 세부적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소설의 전통 논의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의 검토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소설이 판소리를 수용한다고 할 경우, 서술 방식과 수사적 방식, 어휘적 특성 등의 국면에 걸쳐 그 수용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장편소설 〈태평천하〉는 판소리 일반의 서사구조와 수사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면서 인물의 유형으로는 〈홍보가〉의 홍보를 수용한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용은 문학 일반의 법칙성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수용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된다. 개별 작품의 특성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판소리의 서술상황은 일차적으로 극적인 전달의 상황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과 유사성을 지니면서 극의 경우와는 또다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준다. 극이 이야기를 행동화하여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이 원칙이라면, 판소리는 무대에서 창자가 노래를 하면서 극적인 요소는 '발림'으로 보여주며 동작은 언어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창자가 가상적으로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 그것을 창과 아나리로 서술(노래)하는 것을 관객은 들으면서 무대를 상정하는 그러한 전달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자는 판소리의 언어적인 텍스트를 해석하고 고수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속으로 청중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연극의 전달방식과 다른 판소리 서술방식의 특징이다. 이러한 서술상의 기법은 〈태평천하〉 전반을 지배하는 서술원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원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아나리'에 해당하는 작자의 주관적인 서술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태평천하〉의 서술 특징이다.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원리는 사건의 통일성이나 계기성에 구애되지 않고 각 부분이나 상황이 제공하는 의미 정서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태평천하〉의 경우에도 사건의 통일성이나 계기성보다는 부분이나 상황이 전체 구조에 비해 비대해진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소리 구성 방식과 흡사한 면이다. 윤 직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틀에 걸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작중인물들의 활동공간에 따라 에피소드 나열 식의 구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 판소리의 서사구조를 〈태평천하〉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전반적인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구조의 부분을 이루는 작은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윤 직원 영감의 편집광적 인색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분의 강화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판소리의 수사적인 측면은 그것이 운문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과 공식구를 사용하여 표현이 양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전소설 일반의 수사방식과 상통하는 점인데, 산문 서술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를 수용하는 자리에서는 그 서술방식을 전혀 도외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고사성어의 삽입이라든지 일상적인 관용구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은 그러한 서술법의 수용 양상이라 설명된다. 이는 판소리의 서술방식 가운데 언어의 다층성, 공식구적인 수사법, 보고서적 서술 등을 〈태평천하〉가 반영하고 있다는 논지와 연관된다.

-우한용, '채만식 〈태평천하〉의 담론 특성에 대한 고찰 - 극 양식의 수용과 담론의 풍자성

[滿開] 헛된소식-압록강은 흐른다

- ☑ 갈 래 : 장편 소설, 성장 소설
- ☑ 성 격 : 자서전적, 고백적, 회고적, 회상적.
- ☑ 배 경 : 시간(일제 강점기 전후), 공간(미륵의 고향집, 서울, 상해, 독일)
- ☑ 시 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구 성 :
- ☑ 줄 거 리 : 근대 역사의 격동기인 구한말에 태어난 주인공 '나'는 어릴 때는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공부하였으나 개화의 급박한 물결과 함께 신식 중학에서 서양식의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 학교를 중단하게 되고 혼자서 강의록으로 계속 독학하여 의학 전문 학교에 입학한다. 그가 3학년이 되던 해 3·1운동이 일어나 '나'는 피 끓는 젊은 학도로서 조국의 기구하고도 불행한 운명에 울분을 품고 동료 대학생들과 더불어 전단을 인쇄하고 살포하는 등 항일 운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단말마적인 일제의 폭압에 결국 '나'는 상해로 망명하고 상해에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구라파로 향한다. '나'는 파리에 도착하여 독일에서의 학업을 꿈꾼다.
- ☑ 특 징 : ① 독일어로 씌어진 소설 ② 자전적인 소설 ③ 우리나라의 풍습과 산하, 사고 방식 등이 서정적으로 묘사됨 ④ 설명이나 묘사를 절제하고 사건 자체의 골격만 서술하는 간결한 문체를 씀
- ☑ 인 물 :
 - 나: 어려서는 한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인물
 - 수암: '나'와 어린 시절을 보낸, 유일한 '나'의 세계로 인식되는 인물
 - 아버지: 지혜롭고 고결한 인물로, '나'에게 신학문을 배울 것을 충고하는 인물
 - 어머니: '나'에게 넓은 1세계로의 이상을 품으라고 용기를 주는 인물
 - 봉운: '나'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같이 간 친구
- ☑ 제 재 : 개화기 무렵 황해도 지방의 풍습과 생활 윤리, 서울에서의 학창생활, 유럽으로의 유학길
- ☑ 주 제 : 개화기의 여러 가지 양상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본 세계속의 한국인
- ☑ 작가소개 : 이미륵(1899~1950) 본명 이의경(李儀景). 황해 해주(海州) 출생. 1917년 경성의 학전문에 입학, 재학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반일(反日) 전단을 뿌리는 등 학생활동 주동자로 활약, 그해 상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일을 돕다가 유럽행 여권을 받았다. 1920년 독일에 도착, 1921년 3월부터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의학공부를 계속했으나 건강 때문에 휴학, 1923년 하이델베르크대학교, 1925년부터는 뮌헨대학교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전공하여 1928년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하였다. 1931년 《다메 Dame》지에 《하늘의 천사》를 처음으로 발표, 그후 민족적인 경향이 짙은 단편적인문학작품을 독일어로 독일 신문·잡지에 수시 발표했다. 그의 문학은 주로 한국을 배경으로 동양문화의 전통과 풍습을 주제로 하였으며, 1946년에는 대표작인 《압록강은 흐른다》가 독일에서 발간되어 전후 독일문단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은 영문 및 국문으로 번역되었으며, 그 일부는 독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독일학생들에게도 애독되었다. 1947년부터 뮌헨대학교 동양학부 강사로 있다가 1950년 3월 위암으로 죽었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속편인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가 경상북도 왜관(倭館) 분도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작품활동을 한 유일한 한국작가이다.
- ☑ 개 관 : 1946년 독일 뮌헨 피퍼 출판사가 출판한 이 소설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어로 씌어진 가장 빼어난 문장'이란 평가를 들으며 독일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던 바로 그 화제의 작품이다. 독일의 신문, 잡지 등에 100여 차례의 서평이 실리고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되기도 한 문제 작품이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1900년대 초반 이미륵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에서 사촌 수암, 어머니,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누이, 친구 등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가정과 학교 생활, 구식 교육과 신식 교육, 일본 제국의 침략과 탄압 정치, 압록강을 건너 상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하여 독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다.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1인칭 소설로, 신문명이 지배하는 당시 유럽에 소개해 조국과 고향의 이야기를 외국의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데 성공한 셈이다. 소박하고 간결한 어린 시절의 묘사는 국경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장롱 위의 꿈을 훑쳐 먹다 들킨 일이며 사촌들과 싸우며 놀던 기억, 잠자리채 이야기 등 토속적인 한국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학(鶴)



◆본문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封堂)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찍이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쩌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성심었다.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 올랐다. 귓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하는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 흑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보지 않았다.
 성삼이는 밤나무를 안은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흔들지도 않은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 떨어져 내렸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捕繩)에 꼬꽂 묶이여 있다.
 (중략)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깃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나?
 한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별안간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가 밤송이에 찢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흑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 댔다. 밤가지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찢끔 거려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땡겨 문 담배를 집어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를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해, 성삼이가 삼팔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꼴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아!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농민 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덕재는 그냥 잠잠히 건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꼴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 번 낯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들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滿開(만개) : 풀이 학과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발명은 소용 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 보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발명은 하려구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군이라구 해서 농민 동맹 부위 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앓아 누웠다. 벌써 한 반 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빈농군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장가 안 들었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구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가 작고 뚱뚱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데기였다. 그것이 알미워서 덕재와 자기가 번번히 놀려서 올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나?”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대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름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른 사내란 사넨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열 일 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루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두 아버질 업구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 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그래, 나만 민구 농삿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됐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 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삿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삿일이였다. 다행히 그 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히들 있다.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다가왔다. 참, 오늘날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 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 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였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였다. 새끼로 날개까지 얹어매 놓고는 매일 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였다.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쓰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별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였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였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었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얹어매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후쳤다. 별안간 총 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 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둥그러미를 그리며 저 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였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땀 줄을 몰랐다.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 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내 이걸루 울가미를 만들어 놓께, 너 학을 몰아 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성삼이는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건헸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섰는 거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요점 정리

- 지은이 : 황순원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서정적, 인간주의적
- 배경 : 6·25 전쟁 중 삼팔 접경의 북쪽 마을
-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임.
- 문체 : 간결체
- 경향 : 휴머니즘
- 제재 : 어린 시절의 친구를 호송하는 성삼
- 구성 : 역순행적 구성(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회상의 내용을 제시한 다음, 다시 현재 이후의 사건을 제시하는 역행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덕재의 성삼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으며, 민족의 동질성과 동족애의 회복이라는 주제 의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발단 : 황폐해진 마을에 공포 분위기가 감돈다
 전개 : 임시 치안대에 끌려온 덕재를 보고 호송을 자처하는 성삼
 위기 : 덕재를 추궁하던 성삼은 덕재의 처지를 이해하게 됨
 절정 : 학 사냥을 하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함
 결말 : 성삼이 학 사냥을 제의하며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줌
- 주제 : 전쟁과 이념의 증오를 넘어서는 우정의 따뜻함,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는 따뜻한 인간애(이 소설의 주제는 민족의 동질성과 동족애의 회복이다. 즉, 이념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했던 과거의 체험을 떠올리면서 현실의 갈등을 해소하고 예전처럼 동질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과 삼팔선 부근의 마을 배경으로 삼은 점이라든지,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조망하고 관찰하는 서술자를 내세운 점 등도 이러한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애의 실현
- 작품 개관 :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과 삼팔선 부근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덕재와 성삼이라는 두 인물 간의 이념 대립과 그 해소 과정을 간결하면서도 집약적인 구조로 표현한 단편 소설이다. 단편 소설은 단일한 주제와 사건을 다루며, 인물의 성격이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점, 서사 구조가 선명하며 일관된 시점을 유지한다는 점,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일적인 인상을 준다는 점 등에서 소설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형식이다. 통일에 대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민족적 상황과 관련하여 볼 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줄거리 : 한 마을에서 단팍동무로 지냈던 성삼이와 덕재는 6·25가 나면서 이념을 달리하는 적대 관계로 만나게 된다. 치안 대원이 된 성삼이는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는 청단까지의 호송을 자청하여 덕재를 데리고 나선다.
 호송 도중, 성삼이는 유년 시절 때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과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을 서리하다가 들켜 혼이 난 추억들을 떠올리며 내적 갈등을 느낀다.

농민 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덕재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품기도 했으나,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점차 적대감이 누그러지면서 덕재의 몰(沒)이념성을 알게 된다. 즉, 덕재는 스스로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빈농(貧農)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당했을 뿐으로 사실은 땅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었던 것이다.

덕재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고, 또 농사에 대한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피난하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다. 성삼이는 자신이 피난 가던 때를 회상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 어느덧 덕재에 대한 증오심이 점차 우정으로 바뀌면서 고갯마루를 넘는다.

성삼이는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전처럼 살고 있는 학 떼를 발견하고는 옛일을 회상하게 된다. 어린 시절, 학을 잡아 얹어매 놓고 괴롭히다가 사냥꾼이 학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었다.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날지 못하다가 자유로워진 학이 푸른 하늘로 날아 갔던 일에 대한 추억이 그것이다.

성삼이는 덕재의 포승줄을 풀어 준다. 덕재는 처음에는 성삼이가 자기를 쏘아 죽이려고 이러나 보다고 멍처했으나, "어이, 왜 맹추같이 게 섰는 게야?" 하는 성삼이의 재촉에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사이로 도망친다. 때마침 단정학(丹頂鶴) 두세 마리가 가을 하늘을 날고 있었다.

◆ 내용 연구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잠잠하고 호젓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封堂 : 재래식 한옥에서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흙바닥을 그대로 둔 곳)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타지 않은 박)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늙은이의 행동을 통해 전쟁이 가져다 준 불신감으로 가득 찬 마을 분위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찍이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전쟁의 공포감이 표출됨).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랄곤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성싶었다.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 올랐다. 귓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회상의 매체로 다음에 나오는 담배 역시 회상의 매체임)에 올라가는구나.'하는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려 왔다(성삼이의 추억 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건을 소개한 구절로 성삼이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향에 대한 추억은 친구 덕재에 관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그 흑부리 할아버지도 그세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보지 않았다.

성삼이는 밤나무를 안은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다. 흔들지도 않은 밤나무 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 떨어져 내렸다. 임시, 치안대(6·25 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인 조직)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捕繩 : 오랏줄)에 콩콩 묶이어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팍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이 소설에는 '천태'와 '청단'이라는 지명이 제시된다. 이 두 지명은 황해도 해주에서 개성에 이르는 국도 상에 있는 곳들로, 둘 간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곳은 북한의 곡창 지대로 알려진 연백 평야의 중심부를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 동맹(6·25 때 북한군이 남침한 후에 만든 어용 농민 단체) 부위원장을 지낸 농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드러나지 않게 숨음)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는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됐다.

성삼이는 다 탄 담배 공초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 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다(담배 맛도 모르면서 연거푸 담배를 피워대는 성삼이의 행동은 그가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담배는 성삼이의 내면을 간

접적으로 암시할 뿐만 아니라, 호박잎 담배를 나누어 피우던 일과 밤서리에 얽힌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회상을 계기로 덕재와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어 간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깃눔에게 담배를 권하더니 뭘 말이나?(덕재가 안쓰러우면서도 적대감을 갖고자 애쓰는 성삼의 심리 상태가 드러난 부분으로 일종의 반어적 표현으로 담배를 권할까 생각한 것은 성삼에게 우정이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한번은 어려서 덕재와 같이 흑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일이 있었다. 성삼이가 나무에 올라갈 차례였다. 별안간 흑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엉덩이가 밤송이에 찔렸다. 그러나 그냥 달렸다. 흑부리 할아버지가 못 따라올 만큼 멀리 가서야 덕재에게 엉덩이를 돌려 댔다. 밤가시 빼내는 게 더 따끔거리고 아팠다. 절로 눈물이 찔끔거리졌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성삼이는 새로 불을 덩겨 문 담배를 집어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를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덕재가 흑시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까 보아서, 또 그렇다면 담배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될까 보아서 아예 자신도 담배를 안 피우기로 한 것이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해, 성삼이가 삼팔이남 천태 부근으로 이사 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끌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었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쳐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었어?”

덕재가 다시 이리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아!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불잡혀 가는 주제에 자기에 대들다니 하는 생각과 덕재의 결백을 확인한 데서 오는 성삼의 안도감을 나타낸 것이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농민 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덕재는 그냥 잠잠히 건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꼴리는(마음속으로 좀 썩기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 번 낫짝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발명(변명을 말함)은 소용 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 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발명은 하려구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貧農 : 가난한 농민)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군(勤農軍 : 부지런한 농사일을 하는 일꾼(농부))이라구 해서 농민 동맹 부위원장이 됐던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파먹는(농사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변명은 할려구도 않는다. - 예나 이제나 땅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구절이다. 이념의 문제를 바라보는 작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바로 성삼이와의 동질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앉아 누웠다. 벌써 한 반 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오는 빈농군이었다. 칠 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늙은이의 살갗에 생기는 검은 얼룩)이 돋은 얼굴이었다.

“장가 안 들었냐?(대화가 사적인 내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덕재가 '아버지가 앉아 누웠다'고 이야기한데 따른 것으로, 성삼의 심리적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음을 암시)

잠시 후에,

“들었다.”

“누구와?”

“꼬맹이(키가 작은 사람을 깔보는 조로 이르는 말)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가 작고 뚱뚱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데기(‘새침데기’, 새침한 태도가 있는 사람)였다. 그것이 알미워서 덕재와 자기가 번번히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몇이나 되나?”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대나.”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꼬맹이에 대한 대화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꼬맹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며 성삼이가 웃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점차 우정을 회복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이 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를 안고 있을 꼬맹이, [성삼이는 그만 저도 모르게 -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를 안고 있을 꼬맹이, : 어려서 알고 지내던 뚱뚱한 꼬맹이가 어느덧 임신해 있음을 생각하고는 자연스레 우스워진 것이다. 성삼이에게도 이념 따위보다는 동심과 연결된 풋풋한 인정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구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두 피하려구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면 사내란 사낸 모조리 잡아 죽인다구, 열 일 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전투력을 지닌 남자)는 강제루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나두 아버지 업구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 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 버려 두구 어딜 간단 말이나구.: 추상적인 이념보다 땅을 중시하는 농민의 태도가 확인되는 구절이다. 땅이야말로 농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삶의 근거임을 알 수 있다.], 그래, 나만 민구 농삿일루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구,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댓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댓자 별수 있는 것두 아니구.: 농민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이 역시 덕재와 성삼이의 동질성을 시사하는 구절이다.]”

지난 유월달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 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삿일을 늘어놓구 어디루 피난 간단 말이나.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키느라고 피란을 가지 못한 덕재와 대조를 이룬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삿일이었다. 다행히 그 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히들 있다.

고갯마루를 넘었다(이 소설의 배경은 삼팔선 접경 지역의 시골 마을이다. 이는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당시 상황을 집약하여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삼의 내적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암시한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견고 있었다(친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우정이 되살아 났음을 암시). 가을 햇별이 자꾸 이마에 다가왔다. 참, 오늘같은 날은 타작 하기에 꼭 알맞은 날이라고 생각했다.(성삼 역시 반공 이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본래의 농민 의식을 되살려 덕재를 대하려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날씨와 타작을 연관짓는 그의 생각을 통해 드러낸 부분이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학’은 깨끗함, 결백함, 순수함 등의 이미지를 지닌 존재로, ‘백의 민족’인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정치적 현실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학’의 모습을 통해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緩衝地帶 : 양 편의 충돌을 막기 위해 두 세력 사이에 설정한 중간 지대)가 되었던 이 곳(이 작품에서 전쟁 직후 38선 접경 지역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당대 역사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집약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 마을은 어떤 구체적인 마을을 가리키는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남북으로 갈린 민족의 상처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사람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살고 있지 않은 - 것이었다. : 여기서 학은 상징적으로도 읽힌다. 전쟁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갈라졌어도 우리 민족은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삼팔선이란 임시적인 경계선에 불과하며, 우리 민족도 학들처럼 얼마든지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 열 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라미(새끼나 노끈 따위로 고를 내어 짐승을 묶어서 잡는 장치)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丹頂鶴 : 정수리에 붉은 점이 있는 학. (백)두루미를 달리 일컫는 말, 여기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은 농촌에 기반한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 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떠들석한 일을 벌이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로서로 누가 학을 쓰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標本 : 사생이나 자연 같은 것의 학습에 쓰이는 실물 견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총독이 정무를 보는 관청.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 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 자기들이 잡아 놓은 학이 잘못하면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어른들에게 들켜 야단을 맞을 거라는 걱정보다 컸다. 또한,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지, 학을 잡을 허가를 받아왔다는 부분을 통해 동네 전체에서 학을 보호하고 아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자기네의 학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라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골랐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얽매어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서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후렸다[투(投)치다 : 멀리 가 버리도록 던져 쫓다]별안간 총 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 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등그러미를 그리며 저 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자유의 상징)에서 눈을 땔 줄을 몰랐다.

“애, 우리 학 사냥이나 한 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학 사냥을 제안한 것은 덕재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겠다는 암시이다)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내 이걸루 올라미를 만들어 놀게, 너 학을 몰아 오너라.”

포승(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으로 이데올로기가 민족의 공동체 의식, 또는 구체적으로 농민의 순박한 의식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을 상징한다)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성삼이는 잡풀 새를 걷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건헸다[친구인 성삼이가 저를 차마 직접 마주보고 쓸 수 없기에 자신을 풀어 주고는 잡풀 속으로 들어가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성삼이의 의도에 대한 덕재의 오해]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기억력이 부족하고 흐리멍당한 사람으로 작은 말은 '맹추임)이 섰는 거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섰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 기회를 주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덕재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일러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자유를 찾아 도망치라는 뜻),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자유의 몸이 된 덕재를 상징하면서 민족적 상흔(傷痕)의 치유책을 암시하고 있다.]

1. 위 소설의 시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고 있다.
2. 위 작품의 주제를 ‘이념을 초월한 우정(友情)’ 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들은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

배경 :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이다. 제시된 자료의 ‘포승

줄', '총살감'이라는 말을 통해 덕재와 성삼이 이념적으로 대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친구였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유년 시절과 대립되어 극적 효과를 높임으로써, '이념을 초월한 우정'이라는 주제 형상화에 기여한다.

상징적 소재 :이 작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재는 '학'이다. '자유'와 '평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학'은 성삼과 덕재의 우정 회복과 함께 덕재의 자유를 의미한다. 덕재를 끌고 가던 성삼은 어린 시절의 학 사냥을 떠올리고, 덕재를 풀어 주기로 결심한다. 마지막에 학 두세 마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아오르는 장면은 두 사람의 우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결국 이념보다도 우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자체가 작품의 주제 의식이 된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줄거리

나는 스물 세 살 때인 1943년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으로 끌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탈출을 결심하고, 대정대학에 유학한 바 있는 불교학자인 진기수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생면 부지 적국의 옷을 입은 한국인인 '나'를 믿지 않자, 나는 오른손 식지를 깨물어 '원면 살생(願免殺生) 귀의불은(歸依佛恩)'이라는 혈서를 써 올려, 결국 그의 도움으로 정원사에 도착하여 원해대사를 배알한다. 이곳에서 나는 수업을 하는 도중, 금불각을 발견하고 불상 역시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등신불을 대했을 때 나는 전율과 충격을 받는다. 등신불은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결가부좌상이었다. 젊은 승려인 청운의 이야기와 만적 선사 소신성불기를 읽고 나는 만적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만적은 범명이고 속세에서의 이름은 조기이다. 그는 금릉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에게 개가하여 그의 외아들 사신과 같이 산다. 기와 신은 같은 또래인데, 어머니가 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탐내어 신의 밥에 독약을 감춘다. 우연히 그것을 엿본 기는 그 밥을 자기가 먹으려 한다. 어머니가 이를 보고 기겁을 한다.

며칠 뒤에 신이 집을 떠나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기도 어머니의 사악함에 환멸을 느껴 가출하여 중이 된다. 만적은 범림원의 취리소님의 상좌로 불법을 배우다가 열여덟에 취리소님이 열반하자 은공을 갚기 위해 불전에 소신공양할 결의를 보인다. 그러나 운봉선사가 만류한다. 운봉선사의 알선으로 해각선사를 만난 만적은 스물 세 살 되던 해 겨울 금릉에 나갔다가 10년 만에 문동병에 걸린 사신을 만난다.

만적은 '신'의 목에 염주를 걸어 주고 절로 돌아와 소신 공양을 결심하고는 화식을 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은 것은 하루에 깨 한 접시씩 뿐이다. 이듬해 봄 법사소님과 공양주 스님만을 모시고 취단식을 하고 한달 뒤 대공양을 한다. 만적이 몸을 태우던 날 육신이 연기로 화해 갈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으나, 단 위에는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씩뚱져 있었다. 이러한 신비가 일어나, 모인 사람들은 불을 입어 모두 제몸의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재를 던져 새전이 쌓이게 된다. 모인 새전으로 만적이 탄 몸에 금을 입히고 금불각에 모신다.

나는 금불각의 등신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아로새긴 부처님(등신불)이 하나쯤 있어도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친 원해대사는 '나'에게 남경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서를 바치느라 입으로 살을 물었던 오른손 식지를 들어 보라고 한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대사는 아무런 말이 없다. 북소리와 목어 소리만 들려 온다.

● 인물의 성격

- ◆ 나 → 작품의 화자. 일제시대 학병으로 남경에 끌려갔다가 살기 위해서 도주하여 정원사에서 지내며 등신불을 보고 감동한 인물이다. 뚜렷한 특징이나 성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정적 인물임.
- ◆ 만적 → 1200년 전의 설화적 인물로, 인간의 오뇌와 비애의 화신이며, 보은정신이 투철하고 신념이 확고한 인물이다. 이복동생의 독살을 막고 절에 들어가서 성불을 하는 동적인 인물임.
- ◆ 진기수 → 중국 불교학자로 일본 대정대학에서 유학을 하였으며, '나'의 탈출을 도와주는 인물
- ◆ 원해대사 → 정원사의 주지스님이며,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임

● 구성 단계

- ◆ 발단 : 학병인 '나'는 진기수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밤에 산길 백 리를 걸어 정원사에 도착함
- ◆ 전개 : 정원사에서 생활하던 중, 금불각을 보고 화려한 외향에 반감과 저항심을 가짐.
- ◆ 위기 : 등신불을 보고 충격과 전율을 느낌
- ◆ 절정 : 등신불에 대한 의문과 원해대사로부터 들은 만적 선사의 소신 성불 과정
- ◆ 결말 : 소신과 단지를 통해 본 불교적 인연과 깨달음

● 이해와 감상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등신불(等身佛)'이란 사람 키 만한 정도로 만든 불상을 이르는 말이다. 이 작품은 얇은 채로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하고 불상이 된 사연과 그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서 인체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금의 불상이 된 등신불을 통하여 자연과 초자연의 상관관계를 그려 낸 작품이다.

◆ **만적의 소신공양은 자기 구원과 타인 구제의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복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근원적인 죄의식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들이 가진 숙명적인 고통에 대한 절대자의 자비를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 이 작품의 화자인 '나'는 단순한 관찰자의 위치에만 있지 않고, 자신의 번뇌와 내면세계까지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나'는 단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불문에 귀의한 스스로를, 소신공양을 통해 인간적 고뇌와 비애를 성불의 경지로 승화시킨 만적과 비교함으로써 삶의 번뇌를 한층 더 사실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만적의 이야기는 '나'가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의 행위와 연관됨으로써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나'가 전쟁이라는 학살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살을 물어 뜯는 행위는 소극적이거나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희생이라는 점에서 만적의 소신공양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이 작품은 불교적 소재를 취하고 있지만, 불교의 초월적 신앙을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존적 인간 경험과 그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힘으로 밀려오는 숙명적인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절대자를 갈망하게 되며, 등신불은 그런 점에서 불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특이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원혜대사의 선문답과도 같은 질문의 의미** → '나'의 단지(斷指)의 행위와 '만적'의 소신(燒身)의 행위가 정신적인 면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그 공통점은 '삶의 치열성'이다. 삶의 질은 고뇌와 비극을 온전히 맞본 다음에야 새로운 삶의 지향이 가능해진다는 비극의 본질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핵심사항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액자소설

◆ **배경**

* 액자 외부 이야기 → 1943년 여름 중국의 양자강 북쪽 정원사

* 액자 내부 이야기 → 당나라때

* 사상적 배경 → 불교사상, 휴머니즘

◆ **내용**

* 액자 외부 → '나'의 생활과 금불각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

* 액자 내부 → 만적이 소신공양하여 등신불이 되는 과정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액자 내부 -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상 특징**

* 만연체의 문장

* 만적 선사 소신 성불기 부분은 '역어체'

* 설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이고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함.

◆ **갈등구조**

① 인간과 사회 : 나 ↔ 일제

② 세속과 종교 : 나 ↔ 등신불, 나 ↔ 원혜대사

③ 인간과 인간(양심과 본능) : 조기(만적) ↔ 어머니

④ 인간과 운명 : 사신(만적의 이복 동생) ↔ 운명

◆ **주제** ⇒ **인간의 세속적 고뇌의 종교적 구원**

◆ **출전** : <사상계>(1961)에 발표

● **생각해 볼 문제**

1. '나'가 등신불에 대하여 충격을 받은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원만 구축한 부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적 비원과 오뇌가 가득 찬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등신불의 그런 모습은 '나'의 내면풍경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원혜대사가 식지를 들어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의 단지(斷指) 행위와 만적의 소신이 정신적으로 일치함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불은(佛恩)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치열한 삶의 결과 얻어지는 것임을 넌지시 일깨우며, '나'로 하여금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를

이심전심으로 전하려는 것 때문이다.

3. 마지막에 복소리를 통해 드러내려는 '나'의 심정은 무엇일 거라고 추측되는가?

⇒ 복소리가 으르렁거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간의 고요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 속에 깨달음이 일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전율이 가슴을 흔들고, 열정이 솟구치는 가운데 불은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더 읽을거리

이 작품은 <무녀도>와 마찬가지로 토속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배어 있는 전통적 서정주의 세계를 보여 준 김동리의 후기 작품 세계를 대표한다. 인간의 운명을 추구하는 서정성과 순수문학의 옹호라는 김동리의 문학관이 이 작품 속에서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만적의 소신공양을 통해 종교적으로 승화되어 있다. <등신불>은 그의 단편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액자소설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전체 구조로 보아 내부 이야기에 작품의 무게가 실려 있지만 전후의 '나'의 행위와 깨달음에도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다. 외부 이야기는 '나'의 생활과 금불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렸고, 내부 이야기는 이 작품의 핵심 사건이 주인공 '만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신공양을 하게 되고 등신불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나'와 '만적'과의 대비를 통해서 불교사상이 보여주는 삶의 번뇌와 한계 상황, 그리고 인간 의지를 통한 초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소승적 의지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인간적 아픔과 슬픔을 성불의 경지로 승화시킨 '만적'의 대승적 의지를 통하여 살신성불의 비장미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인공이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 실존적 경험은 '만적'이 육신을 불사를 때 느낀 처절한 인간 체험과 같은 현실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나'가 식지를 깨물어 혈서를 쓴 것과 '만적' 선사의 소신공양은 개인과 중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원의 의미 즉, 운명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의지나 품성과 관계 없이 거대한 힘으로 밀려오는 숙명적인 고통과 번뇌는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그러나 해결해야 할 영원한 과제다. 그 번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절대자를 갈망하게 되고,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게 된다. 그런 점에서, 등신불은 불성과 인성을 지닌 특이한 부처가 아닐 수 없다. '만적'의 소신공양은 자기 구원과 타인 구제의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만적'의 소신공양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복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근원적인 죄라는 인식, 그리고 그 죄의식이 가져온 번뇌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진 숙명적인 고통에 대한 절대자의 자비를 구한다는 의미가 남겨 있다. '만적'의 불교 설화는 주인공 '나'가 손가락을 깨물어 쓴 혈서의 행위와 연관됨으로써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주인공이 전쟁이라는 학살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살을 물어뜯는 행위는 소극적이거나 최악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희생이라는 점에서 만적의 소신 공양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김동리는 인간의 원초적 죄의식과 번뇌, 그리고 이에 대한 종교적 구원이라는 주제를 즐겨 다루는 작가이다. <역마>에서는 운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인간 고뇌의 종교적 승화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 주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는 장편 <사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

[滿開] 현대소설-토치

토지(土地)

◆본문

제 1 편 어둠의 발소리
서(序)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 옷에 땀기꼬리를 늘인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쓰다니다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 질 무렵 이래야, 차례를 치러야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남정네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들 시중에 음식 간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후우이이- 요놈의 새떼들아!"

극성스럽게 새를 쫓던 할망구는 와삭와삭 풀밭이 선 출입옷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굵을 보고 있을 것이다. 추석은 마을의 남녀노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까지 포식의 날인가 보다.

빠른 장단의 팽과리 소리, 느린 장단의 둔중한 여음으로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타작마당과 거리가 먼 최참판댁 사랑에서는 흐느낌같이 슬프게 들려온다. 농부들은 지금 꽃 달린 고깔을 흔들면서 신명을 내고 괴롭고 한스러운 일상(日常)을 잊으며 굶놀이에 중하고 있을 것이다. 최참판댁에서 섭섭잡게 전곡(錢穀)이 나갔고, 풍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실한 평작임엔 틀림이 없을 것인 즉 모처럼 허리끈을 풀어놓고 쌀밥에 식구들은 배를 두드렸을 테니 하루의 근심은 잊을 만했을 것이다.

이날은 수수개비를 꺾어도 아이들은 매를 맞지 않는다. 여러 달만에 소증 풀었다고 느긋해하던 늙은이들은 뒷간 출입이 잦아진다. 힘 좋은 젊은이들은 벌써 읍내에 가고 없었다. 황소 한 마리 끌고 돌아오는 꿈을 꾸며 읍내 씨름판에 몰려간 것이다.

최참판댁 사랑은 무인지경처럼 적막하다. 햇빛은 맑게 뜰을 비취 주는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새로 바른 방문 장지가 낯설다.

한동안 타작마당에서는 굶놀이가 멎은 것 같더니 별안간 경풍 들린 것처럼 팽과리가 악을 쓴다. 빠르게 드높게, 팽과리를 따라 징소리도 빨라진다. 깨깁 깨애깁! 더어응응음- 장구와 북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들려온다. 신나는 타악 소리는 푸른 하늘을 빙글빙글 돌게 하고 단풍든 나무를 우쭐우쭐 춤추게 한다. 웃지 않아도 초생달 같은 눈의 서금돌이 앞장 서서 놀고 있을 것이다. 오십 고개를 바라보는 주름살을 잊고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이, 몸은 늙었지만 가락에 겨워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 구성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으니까. 웃기고 울리는 천성의 광대기는 여전히 구경꾼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리. 아직도 구슬픈 가락에 반하여 추파 던지는 과부가 있는지도 모른다.

"쯔쯔 ... 저 좋은 목청도 흙 속에서 썩을랑가?"

"서서방이 죽으면 자지러지는 상두가 못 들어서 서분을 기요."

"할망구 들을라? 들으면 지랄할 기다."

"세상에 저리 신이 많으니까 자게 마누라밖에 없는 줄 아니 그것이 보통 드문 일가?"

"신주단지를 그리 위할까? 천생연분이지 머."

"소나아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제집 한 분 모르고 지내는 것도 병신은 병신이지?"

나이 들직한 아낙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는지 모른다.

목수가 본업이요 섬진강의 강태공인 꿈보 흠아비(정확히는 총각) 윤보는

"이 사람들아! 사랑도 품앗이라 안 하더냐?"

"머라 카노? 자다 봉창 두드리네."

"타작마당에서만 이럴 기이 앙이라 강가에도 가서 한마당 굴리자!"

"그는 또 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용왕님네 심사도 풀어주어야 안 하겠나? 그래야 개기도 풍년이 들제."

"젓상에도 못 오르는 민물개기가 어디 개기가! 당산에 가자! 당산에!"

누군가가 팔팔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너희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두만아버는 느릿느릿 징을 칠 것이다. 봉기는 해죽해죽 웃으며, 구경하는 아낙들보고 부끄러워하며 고깔을 흔들 것이다. 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 살림의 기틀을 잡고 있는 삼십대 중간쯤의 장정들이 싱긋이 웃으며 큰 키를 점잖게 가누어 맴을 도는 이용이다. 그는 누구니 누구니 해도마을에선 제일 풍신 좋고 인물 잘난 사나이, 마음의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며 장단을 치고, 칠성이 북을 더덕덜! 뜨드리면 무같이 미쪽한 영팔이는 옥옥 헛힘을 주어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아낙들은 노인들 아이들 틈새에서 제 남편 노는 꼴을 반쯤은 부끄럽고 반쯤은 자랑스러워 콧물을 풀쩍일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한마당 벌이고 나면 시장기가 든 농부들은 강가도 당산도 아닌 마을길을 누비다가 살짝 큰 집에 밀고 들어 한바탕 지신(地神)을 밟고 그러고 나면 갈고리 같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술과 밥을 먹게 될 것이다.

팔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삼삼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애는 아닐는지. 태곳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는지. 서늘한 달이 산마루에 걸리면 자잔한 나뭇가지들이 얼기설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소복 단장한 청상의 과부는 밤길을 홀로 가는데 - 팔월 한가위는 한산 세모시 같은 처량한 삶의 막바지, 체념을 묵시(默示)하는 축제나 아닐는지. 우주 만물 그중에서도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가을의 대지에는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잔해가 굴러 있다. 여기저기 얼마든지 굴러 있다. 쓸쓸하고 안스럽고 엄숙한 잔해 위를 검시(檢屍)하듯 맴돌던 찬바람은 어느 서슬엔가 사람들 마음에 부딪쳐와서 서러운 추억의 현(絃)을 건드려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하고 많은 이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흥년에 초근목피(草根木皮)를 감당 못하고 죽어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 한 침을 써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산을, 민란 때 관가에 끌려가서 원통하게 맞아죽은 남편을, 지금은 흙 속에서 잠이 들어버린 그 술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여준다.

"저승에나 가서 잘 사는가."

사람들은 익어 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들판의 익어 가는 곡식은 쓰러린 마음에 못을 박기도 한다.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다 간 사람들 때문에.

"이만하든 목을 긴데……."

풍요하고 떠들썩하면서도 쓸쓸하고 가슴 아픈 축제, 한산 세모시 같은 한가위가 지나고 나면 산기슭에서 먼, 먼 지평선까지 텅 비어 버린 들판은 놀을 받고 허무하게 누워 있을 것이다. 마을 뒷산 잡목 숲과 오도마니 홀로 솟은 뿔등이 누릿누릿 시들 것이다. 이려고 저려고 해서 세운 송덕비며 이끼가 낀 열녀비며 또는 장승 옆에 한 두 그루씩 서 있는 백일홍나무에는 물기 잃은 바람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의 긴 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부터 더욱 흐느끼는 듯 뺨과리 소리는 여전히 마을 먼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밤을 지샬 모양이다. 하기는 마을 처녀들의 놀이는 이제부터, 달 뜨기를 기다려 강가 모래밭에서 호작거리는 물 소리를 들으며 시작될 것이다.

"진지상 올릴까요."

방문 앞에 계집종 귀녀가 와서 묻는다. 벌써 두 번이나 물어보는 말이다.

방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

"등잔에 불을 켜야겠습니다."

하며 귀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최참판댁 당주인 최치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래 묵은 한지 같은 저녁 빛깔이 방안에 밀려들고 있다. 등잔불이 흔들리면서 밝아온다. 어둑어둑한 방에서 정말 글을 읽고 있었는지. 최치수 콧날에 금실 같은 한줄기 불빛이 미끄러진다. 수그러진 그의 콧날이 날카롭다. 이 세상 온갖 신경질과 우수가 감도는 옆모습, 당장에라도 벌떡 일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칠 것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방안 가득히 맴돈다.

"자리나 깔아."

"예."

거들떠보는 것도 아니었던만 귀녀는 눈웃음치며 도톰한 입술을 오므린다.

병약한 치수로서는 번거로웠던 명절날 집안 행사에 어지간히 시달리어 피곤했던 것 같다.

"저녁은 안 드시겠습니까?"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놓고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귀녀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방에서 물러난다. 대청을 지나 건너편 방으로 해서 그 방에 잇달린 골방으로 들어간 귀녀는 품속의 면경을 꺼

내어 얼굴을 비쳐본다. 치수 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방에서 면경을 보았었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한 번 더 꺼무꺼무한 자기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 면경을 품속에 넣는다. 뒤뜰로 향해 난 장지문에서는 아직 엷으려다 말고 귀녀의 눈이 맞은편으로 쏠린다. 사랑 뒤뜰을 둘러친 것은 아트막한 탕자나무의 울타리다. 울타리 건너편은 대숲이었고 대숲을 등지고 있는 기와집에 안팎 일을 다 맡는 김서방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울타리와 기와집 사이는 채마밭이다. 그 채마밭을 질러서 머슴 구천이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냉담한 귀녀의 눈이 구천이의 옆모습을 따라가다가 눈길을 거두며 실땀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귀녀는 신발을 신고 치맛자락을 걷으며 안채를 향해 돌아나간다.

무 배추를 심은 채마밭이 아슴아슴한 저녁 안개에 싸여들어가고 있고, 부스스한 옷매무새의 김서방댁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추잎을 쪼아먹고 있었다.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당산 누각 앞에까지 올라간 구천이는 자신의 발부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시 느릿한 보조로 누각에 올라간 그는 난간을 짚으며 걸터앉는다. 달 뜨기를 기다리는가. 마을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최참판댁 기둥귀에 내걸어놓은 육각등이 뿌옇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달은 솟을 것이다. 낙엽이 날아내린 별당 연못에, 박이 드러누운 부드러운 초가지붕에, 하얀 가리마 같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달이 비칠 것이다. 지상의 삼라만상은 그 청정한 천상의 여인을 환상하고 추적하고 포옹하려 하나 온기를 잃은 석녀(石女), 달은 영원한 외로움이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검은 명부(冥府)의 길손이다.

구천이는 눈을 반쯤 감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난 정월 대보름날에는 당산에 달집을 지었었다.

"워어이이- 달 나왔다이!"

아이들이 달을 향해 소리치면 강아지도 덩달아서 짖어대었다. 저마다 한 가지씩 소망을 품었을 마을 사람들이 달집 둘레에 모여들면서 불을 질렀었다. 훗훗 타오르는 불길, 아낙들은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했었다. 불빛을 받은 사내들 얼굴은 질분게 번들거렸으며 눈은 숯덩이처럼 질게 빛났었다. 순박하고 경건한 소망의 기원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장날에 모여든 장꾼처럼 떠들기를 시작했었다. 사내들은 공방대를 꺼내들며, 아낙들은 코를 풀고 치맛자락을 걷어 불빛에 윤이 나는 콧등을 닦으며 새삼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지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씨발은 암소 얘기며 떡이 설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며 노친네 수의(壽衣) 걱정이며, 이윽고 달집은 불길 속에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불길마저 사그러지면은 끝없이 어디까지나 펼쳐진 은빛의 장막, 그 장막 속에서 노니는 그림자같이 마을 사람들은 뽀뽀이 흩어져 갔던 것이다. 달이 떠오른다.

강이 굽이쳐 돌아간 산마루에서 달이 얼굴을 내비친다. 까맣게 찢겨진 나뭇잎들의 흔들리는 모양이 뚜렷해지고 밋밋한 나뭇가지는 잿빛, 아니 갈빛을 띠기 시작한다. 팽과리 징 소리가 먼 곳에서 흐느껴 울고 강가에서 부르는 처녀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좀더 가깝게 들려온다.

달은 산마루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직은 붉지만 머지않아 창백해질 것이다. 희번덕이는 섬진강 저편은 전라도 땅, 이편은 경상도 땅, 너그럽게 그어진 능선을 확실한 윤곽을 드러낸다.

난간에 걸터앉아 달 뜨는 광경을 지켜보는 구천이의 눈이 번득하고 빛을 낸다. 달빛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참담한 소망이었는지 모른다.

1장 서희

김서방이 떠들어댔다.

"해마다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다 말이다!"

"누가 애를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 기요."

"말 마라. 소가 죽었심다. 다리를 뿌라서 일 못했심다. 혼사가 있어 장리빚을 냈심다. 나중에는 무슨 핑계를 댈 기든고?"

그러나 김서방을 넘보고 있는 상대는 "내가 핑계를 댄다든 벼락을 맞일 거요. 그런 애맨 소리는 안 하는 기이 좋겠구마."

볼멘소리로 대꾸했다.

"이래가지고는 못해묵는다 못해묵어. 양새 긴 나무맨치로 어디 사람이 할 짓이가."

저마다 이려고 저러고 통사정해오는 작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유순한 김서방도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며칠 전부터 최참판댁은 안팎이 시끄러웠다. 늘비하게 이어진 고방에는 끊임없이 벅섬이 들어갔다. 한편 읍내로 곡식을 실어내는 바람에 하인들도 지치지만 근력 좋은 마구간의 말과 외양간

의 살진 황소도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행랑은 행랑대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모여온 마름과 작인들이 득실득실 판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큰 가마솥은 설새없이 밥을 삶아내야만 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께!"

"들어나마나 뻥하지 머. 축이 난 것만은 틀림이 없인께."

"아 그러매 하는 말 아니오."

"만 분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지 머."

"이런 딱할 데가 있나. 돌 하나라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올빼미걸이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른 소용 있소? 눈이 봐야 말이지."

"그래. 그라곤 우리가 거부지기를 썬서넣었겔소? 축이 날 리가 없단 말이요!"

담장 밖에서 다투는데 막걸리 사발이나 들이켠 걸걸한 목소리였다.

"봉순아 흐흐흐... 흐, 나 여기가 있다아!"

벚섬을 지나르는 구천의 다리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걸어오던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양중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나이는 다섯 살. 장차는 어찌 될지, 현재로서는 최치수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서희는 어머니인 별당아씨를 닮았다고들 했으며 할머니 모습도 있었다. 안전하지 못한 것은 나이 탓이라 하고 기상이 강한 것은 할머니 편의 기질이라 했다.

서희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봉순이 건너오려 하는데 서희는 맴돌아 구천이 앞으로달아나며 끼룩끼룩 웃는다.

"넘어지른 큰일난다 캬는데, 애기씨!"

봉순이 울상을 지었으나 날개짓을 배우기 시작한 새새끼처럼 서희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좀체 봉순이에게 잡히려 하지 않는다. 유록빛에 꽃 자주신을 두른 조그마한 꽃신은 펴어나 날렵하다.

"애기씨!"

일꾼들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앓을까, 이 광경을 마님한테 들키면 큰일나겠다 하며 조마조마하는 봉순이를 꿰려주려고 서희는 다시 구천이 다리를 방패삼아 뒤에 숨는다.

"애기씨, 이리심 안 됩니다."

이번에는 걸음을 멈춘 구천이가 말했다.

"넘어지지 않아!"

강충 뛰며 구천이의 땀에 젖은 잠방이 뒷자락을 심술궂게 잡아당긴다.

"이리심 안 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타이른 구천이는 벚섬을 진 채 몸을 돌리며 봉순이에게

"애기씨 뽀시고 별당."

한참 만에 다시

"별당에 가서 놀아라."

하고 말을 끝맺었다. 서희는 구천이의 잠방이를 잡고 늘어지며 오도가도 못하게 방해로 한다.

"애기씨, 가서 사감(소꿌) 사입시다."

피듯이 봉순이 손을 잡는데 뿌리치고

"나 여기서 놀 테야."

"일질에 넘어지십니다."

구천이의 목소리는 역시 나직했다.

"싫어. 안 갈 테야!"

"마님께서 보시면 꾸중하시지요."

"나 할머니 무섭지 않다!"

잠방이자락을 겨우 놓아준 서희는 구천이를 노려보면서 제 주장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으로

"구천이는 바보 덩신! 중놈!"

욕을 하며 달아난다. 봉순이 그 뒤를 쫓아 뛰어간다. 짧은 저고리 도련 밑에 늘어진 빨강당기가 찰랑찰랑 그네를 뛰더니,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벚섬을 짙어진 채 아이들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구천이는 고방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으윽!"

힘주는 소리와 함께 벚섬은 고방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장골이 나락 한 섬을 지고 맥을 못 추니 우찌 된 일고."

들여다주는 벚섬을 돌이와 함께 맞잡아서 고방에 쌓아올리던 삼수는 갈고리를 벚섬에 걸며 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했다.

"땀 좀 닦아라."

이번에는 돌이가 딱해하며 말한다. 구천이는 지푸라기가 엉겨붙은 잠방이 소매를 끌어당겨 땀을 닦는다. 얼굴빛이 푸르고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갈고리를 걸어놓기는 했으나 돌이는 땀 닦는 구천이를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으므로 삼수는 코를 킁 푼다. 콧물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니 그라다가 몸 베릴라?"

땀을 닦다 말고 구천이는 삼수의 입매를 쳐다본다. 삼수는 다시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도 좀 알고 싶구마."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하듯 서 있던 구천이의 눈이 다음 순간 거칠게 빛났다.

삼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돌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치기!"

뱃섬을 들어올린다. 그러고는 날씨 이야기며 부춘서 벼 심고온 박서방의 흑이 금년에는 더 커졌다는 등 하며 삼수보다 돌이가 무관심한 척하려고 애를 쓴다. 삼수는 결눈질로 구천이의 기색을 살피면서

"어서 가서 나락 저오라고. 아무도 해를 잡아 매놓지 안 했인께."

했다. 등받이로 쓰는 마대를 고방 바닥에서 주워 어깨 걸치고 구천이는 긴 팔을 늘어뜨리며 돌아서 나간다.

"싫대두, 싫어! 아버지가 싫단 말야."

서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침모 봉순어미는 웃고름을 여며주며 달래고 있다. 구천이는 눈을 내리깔며 그들 옆을 지나간다.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으리께 문안드리라고."

중년으로 접어든 봉순네는 살빛이 희고 좀 비대한 편이었는데 서희는 봉순네 치맛자락을 잡으며

"두만네 집에 강아지 보러 갈 테야."

"마님께서 아시든 큰일나지요. 귀중하십니다. 봉순아, 어서 애기씨 뒤편 사랑에 가거라."

서희 등을 도닥거리며 봉순네는 딸에게 이른다.

"아버진 싫다는데두, 고흠! 고흠! 하고."

목을 뽑고 기침하는 치수의 시늉까지 낸다. 봉순네는 웃음을 참는다.

"큰일날 소리, 봉순아, 어서."

"애기씨, 가입시다."

봉순이도 싫은지 부스스 말했다.

"그라운 사랑마당에까지 지가 데리다 디리지요."

봉순네는 병아리를 몰 듯 뒤에서 아이들을 몰아낸다. 서희는 민적민적하면서도 가기는 간다.

"이제 가지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봉순네를 올려다보는 서희 눈에 겁이 잔뜩 실린다.

사랑의 앞뜰에는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다. 돌담 옹마루 높이만큼 키를 지닌 옥매화, 매초롬한 회색가지를 뺨은 목련, 삼화에 석류나무, 치자나무는 마치 봄날의 햇빛을 받아 노곤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미 순환은 멈추어졌을 것이며 메말라버린 나뭇잎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잎을 추려버린 파초 역시 누릿누릿 시들고 있는 것 같았다.

긴장하여 땀이 나는 손을 잡고 마주보고만 있던 아이들은 결심을 하고 치수가 기거하는 방 앞에까지 간다. 목소리를 가다듬은 봉순이

"나으리마님. 애기씨께서 문안오셨습니다. 마님께서 문안드리라 하시어 오셨습니다."

몇 번이나 입 속으로 굴려보았던지 줄줄 외듯 나왔다. 방안에서 발은기침 소리가 났다. 기침이 멎은 뒤,

"들어오너라."

음산하게 울리었다.

신들 위에 작은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서희는 마루로 올라간다. 서희의 얼굴은 해쓱해져 있었다. 봉순이 열어주는 방문에서 서희가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금 일어나 마주했는지 치수는 서안 앞에 앉아 있었다.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부자리는 반쯤 걷혀져 있었으며 버릇집의 버루랑 연적, 붓, 두루마리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다. 문갑 위의 상감청자 향로와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 놓은 서책 위에도 먼지는 뿌옇게 앉아 있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바깥 날씨가 차나?"

길게 찢어진 눈이 서희를 응시하며 물었다. 서희는 그 말이 귀에 달지도 않았던 것처럼 붉은 치마를 활짝 펴면서 나뭇이 절을 한다.

"요즘에는 아버지 병환에 차도가 있으신지 문안드리웁니다."

봉순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청을 가다듬고 외는 투의 억양 없는 소리를 질렀다.

"괜찮다. 서희도 밥 잘 먹고 감기는 안 들었느냐?"

갈기갈기 갈라진 여러 개의 쇠가 서로 부딪칠 때 나는 것 같은 목소리는 여전히 음산했다. 그는 서희의 공포심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없는 싸늘하고 비정한 눈이 서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당장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애처롭게 그를 마주본 채 고개를 저었다. 치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도리어 서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서희로부터 시선을 돌린 치수는 서안 위에 펼쳐놓은 책의 갈피를 넘긴다. 허약한 체질에 비하면 뼈마디는 굵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엾을 만큼 여위고 창백한 그의 손이 책갈피를 누르면서 눈은 글자를 더듬어 내려간다. 손뿐인가, 뜰 아래 물기 잃은 목련의 앙상한 가지처럼, 그러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비참한 느낌이기보다는 도리어 상대에게 견딜 수 없는, 숨 막혀서 견딜 수 없이 결국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강한 분위기를 그는 내어뿜고 있었다. 어떤 일에도 감동되지 않을 눈 빛, 철저히 스스로를 거부하는 눈 빛, 눈빛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뼈만 남은 몸 전체가 거부로써 남을 학대하는 분위기의 응결이었다.

일단 방에 들어온 뒤에는 나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희는 일어설 수 없다. 숨소리를 죽이며, 그래서 가냘픈 가슴이 더 뛰고 양 어깨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따금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길상아!"

별안간 귀청을 찢는 것 같은 고향에 서희는 용수철같이 앉은자리에서 튀었다.

"길상아!"

"예에!"

대답과 함께 급히 뛰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뜰 아래서

"나오리마님 부르셨습니까."

옛된 소년의 목소리였다.

"방이 왜 이리 차나!"

"곧 불을 지피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이 왜 이리 차냐고 묻지 않았느냐!"

푸른 정맥이 이마뼈기에서 부풀어올랐다. 서희의 얼굴이 질린다.

"예, 지금 곧, 불 지피겠습니다."

"이놈! 방이 왜 이리 차냐고 물었겠다! 고안 놈!"

"잘못했습니다. 나오리마님."

소년은 겁을 먹은 소리를 냈으나 매양 당하기 때문인지 길들은 사냥개처럼 뒤쪽으로 달려가서 장작 한아름을 안고 뛰어온다.

"으흐 킁!"

신경질은 심한 기침을 유발했다. 치수는 수건을 꺼내어 입을 막았으나 기침은 멎지 않았다. 눈이 활짝 벌어지면서 붉은 눈알이 불거져 나온다.

기침은 잠시의 틈도 용납치 않고 그에게 달려든다. 입을 막고 상체를 흔든다.

고독한 모습이었다.

"나, 나, 나가거라."

질식하는가 싶더니 기침은 멎고 가래가 끓어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간신히 치수는 말했다.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을 때 서희는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했다.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순이는

"애기씨."

감싸듯이 서희를 안았다. 헛구역질은 딸꾹질로 변했다.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돌았다.

"애기씨."

치마를 걷어서 봉순이는 서희의 눈물을 닦아 준다.

滿開(만개) : 붉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요점 정리

- 지은이 : 박경리
- 갈래 : 장편 대하소설, 가족사 소설, 순수 소설
- 배경 : 시간적으로는 1897년 한가위에서 1945년 광복후까지로 공간은 경남 하동 평사리에서, 서울과 만주 북간도와 용정
- 성격 : 사실주의적, (일부는 회상적, 추리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전 5부 16권 25편 376장
 1부 : 최 참판 댁의 몰락과 조준구의 재산 탈취 과정
 2부 : 서희의 복수(최씨의 귀환)
 3부 : 민중의 삶과 지식인 신여성의 삶
 4부 : 길상의 활동과 유인실과 오가다의 사랑
 5부 : 복잡한 민족의 삶
- 제재 :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애환과 민족사의 수난
- 주제 : 삶의 터전인 토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펼치는 삶의 굴곡과 애환에 의한 민족 의식과 한, 한국 근대사의 인물들이 겪는 식민지적 고통과 운명을 통한 민족의 한과 의지, 또는 격동의 근대사를 살아 온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과 강인한 생명력, 민족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애착을 드러냄. **한국 근대사의 한과 고통 속에 지켜 온 민족의 자존 의식**
- 표현상의 특징 : 주로 지은이의 서술로 이루어진 간결체이며, 극적인 장면은 대화와 행동의 간결한 묘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며, 토속어 구사로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고 있고, 일정한 시점에 구애되지 않고 등장 인물이나 사건에 따라 다양한 시점이 사용되며, 다양한 진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대화와 행동 묘사에 의한 사건을 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논평을 하기도 하며,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인의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다.
- 인물 :
 - 서희** : 최치수와 별당 아씨의 소생으로 외동딸이자 최 씨 가문을 이어가는 마지막 핏줄로, 최 씨 가문을 이어가는, 굳은 의지를 지닌 인물. 최치수와 별당아씨의 외동딸. 최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용정으로 가서 부(富)를 이룩함. 공노인과 임역관의 중개로 빼앗긴 토지의 대부분을 회수, 길상과 헤어져 귀국을 감행, 진주에 자리잡음. 몰락한 조준구로부터 집문서를 넘겨 받아 가문의 재건과 복수를 마감한다. 양현이를 윤국과 짝을 맺어 며느리를 맞이하고자 하는 집착이 양현의 거부로 좌절되고 길상의 재수감, 윤국의 학병지원으로 또 다른 한의 그림자가 생긴다. 이런 고통은 그 동안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던 서희의 가슴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상이 센 성격의 여인상에서 정감 있는 어머니 상으로 변한다.
 - 김길상** : 신분이 다른 서희와 결혼한 독립 운동가. 고아 출신으로 연곡사 우관 스님의 보호로 자라다가 최씨 집안으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된다. 침모의 딸 봉순의 은근한 사모를 받지만 서희에 대한 동정과 연모의 정을 가진다. 서희의 몰락 과정에서 그녀를 끝까지 보호한다. 용정으로 함께 이주하여 서희가 부를 축적하는 데 크게 기여, 드디어 둘은 결혼한다. 서희의 귀국에 동행하지 않고 간도에 잔류, 독립 운동에 투신한다. 2년의 감옥 신세를 지고 진주에 은둔. 동학당 조직을 재건하려 하나 좌절, 원력(願力)을 모아 관음탱화를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 최치수** : 윤씨 부인의 적자이자 최 씨 집안의 마지막 당주로, 선대에서 이룩한 만석의 재산을 누리며 평사리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버린 자식 김환(구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자 관계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윤씨 부인의 태도에 상처를 입고 독선과 아집으로 몽친 냉소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귀녀의 음모로 죽음을 맞이한다.
 - 구천(김환)** : 윤씨 부인과 동학군 장수 김개주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의 비밀로 인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살아가는 비극적 인물이자 문제적 인물로 동학 혁명의 실패로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이름을 구천으로 바꾸어 최 참판 댁 며슴으로 숨어 들어간 후 형수뻘되는 별당 아씨를 사모하여 함께 도망을 친다. 최치수의 추적을 피해 도망을 하던 중 묘향산에서 별당 아씨가 죽은 후 전국을 유랑하다가 지리산을 본거지로 하여 독립 운동을 벌인다. 후에 김길상에게 정신적 감화와 영향을 끼친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조준구 : 최치수의 이종형으로 최참판 댁의 재물을 탐내는 욕심 많은 인물.
별당아씨 : 최 참판 댁의 며느리이자 안주인으로 어린 서희를 두고 구천과 도망가다가 병으로 죽는다.
윤씨부인 : 김개주와 사이에 태어나 버린 자식 김환(구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자 관계를 의식적으로 피해 최치수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최치수의 모친
귀녀 : 종의 신분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과 양반에 대한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최참판 댁의 계집종으로 최치수의 씨를 받아 종의 신분을 면하고자 하나 그 뜻이 좌절되자 김평산으로 하여금 최치수를 교살(絞殺)하도록 사주(使呪)하나 발각되어 형을 받는다. 옥중에서 강 포수의 지순(至純)한 사랑에 감동받아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상헌 : 이동진의 아들로써 서희를 사랑하나 실패하여 방황하는 지식인.

최참판댁 하인들과 서민 군상 : 최참판 댁의 그늘에서 사는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양반 부류의 최치수, 윤씨 부인이나 서희와는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물어뜯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조그마한 현실에 극히 민감하다. 호박 한 덩어리 없어진 것으로 온 동네가 시끄럽고, 누가 가져다 준 제사 떡 한 접시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등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일상적인 삶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최치수나 윤씨 부인, 서희가 사용하는 표준어가 아닌 경남 서부 지방의 사투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다. 이들의 희로애락은 일차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으며, 언어 역시 직설적이고 감각적이다. 거기에는 서로를 은폐하거나 혼자 고상한 체하는 가식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생활에는 냉랭함보다는 따뜻함이, 미적지근함보다는 화끈함이 있다.

●특징 : 박경리의 작품 경향은 민중과 생명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결합된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추악한 진상을 고발하였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였는데 '토지(土地)'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민족사의 흐름을 배경으로, 최 참판 댁 일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수난과, 토지에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역정을 그려 낸 대화 장편 소설이다. 그 방대한 분량만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파란만장한 개인사와 그에 얽힌 인간의 욕망, 의지와 갈등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학이 인간 현실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유익한 작품이고, 장대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농촌 공동체의 전통적인 삶의 양상이 그려져 있음을 주시시키고, 당시의 삶의 모습을 문화사 내지 풍속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출전 : 토지(土地)(1944년)

●줄거리 :

〈제1부〉(1987년 한가위 - 1908년 5월) :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을사 조약 체결, 전국 각지에서 의병 봉기, 1897년 대한 제국 성립, - 최참판 가문의 몰락, 조준구의 재산 탈취

구한말인 1897년 무렵,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는 5대째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만석꾼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농민들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최씨가 유일한 혈육인 어린 서희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할머니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하녀 봉순이를 동무하며 자라고 있고, 머슴으로 들어온 구천이는 무언가 많은 고뇌와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보인다.

구천이는, 최 참판 댁의 정신적 지주인 윤씨 부인이 청상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훗날 동학당 접주가 되어 사형당하는 김개주에게 겁탈당하여 낳게 된 아들 '환'이다. 아버지를 따라 동학당에 참가했던 환은 몸을 숨기기 위해 구천이란 가명으로 최 참판 댁에 찾아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이복형인 최치수의 부인 별당 아씨와의 사랑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별당 아씨와 함께 지리산으로 도망친다.

자의식이 강하고 냉정한 최치수는 어머니를 감싸고 도는 비밀을 알기 위해 몸부림친다. 또한 재종형 조준구와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성적 무능력자가 된다. 그는 조준구가 구해 준 총으로 구천과 별당 아씨를 찾기 위해 지리산을 헤맨다. 별당 아씨는 환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환은 연곡사 우관 스님에게로 돌아간다.

자신의 신분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하녀 귀녀는 최 참판 댁의 씨를 얻으려 최치수에게 접근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자 그녀는 김평산과 음모를 꾸며 칠성이와 강 포수에게 몸을 허락하여 씨를 받는다. 최치수가 성불구자임을 모르는 귀녀는 강 포수의 출현으로 일이 틀어지자 김평산으로 하여금 최치수를 살해하게 하고 자기 몸의 씨를 내세워 집안의 대를 잇게 하려

는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에 의혹을 가진 윤씨 부인은 침모 봉순네의 귀뜸으로 귀녀의 자백을 받아 내고, 김평산과 칠성은 함께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평산의 아내 함안덕은 자살하고 칠성의 아내 임이네는 마을을 떠나게 된다.

한편 최 참판 덕의 소작인 용이는 무당의 딸 월선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항상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질투심이 많은 아내 강청덕의 행패로 월선이는 그의 곁을 떠난다. 그리고 용이는 강청덕과의 성적 관계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는 마을로 다시 돌아온 임이네를 돌봐 주다 관계를 맺고 흥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다.

집안의 기둥을 잃어버린 최 참판 덕에 조준구가 부인 흥씨와 꿈추 아들 병수를 데리고 찾아든다. 김평산에게 최치수의 살해를 은연중 시사했던 그는 최 참판 덕 재산을 노린다. 그러던 중 마을을 휩쓴 호열자와 흉년으로 윤씨 부인과 김 서방, 봉순네 등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와중에 살아남은 조준구 일가는 최 참판 덕을 차지하고 마음껏 세력을 휘두른다.

고아 신세가 된 윤씨 부인의 손녀 서희는 타고난 총명함과 함께 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최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인 그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조준구 일가와 맞서 나간다. 그러나 서희를 돌보던 수동이 죽고,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을사 조약이 체결되는 등 상황은 더욱 조준구에게 이롭게 돌아간다. 조준구의 행패에 불만이 쌓인 마을 사람들은 목수 윤보를 선봉으로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최 참판 덕에 들이닥친다. 그들은 재물을 탈취하고 조준구 내외를 죽이려 하지만 찾아 내지 못한다.

그 틈에 서희는 부친인 최치수를 모시던 종인 길상으로 하여금 토지 문서를 찾게 하여 일시 힘을 회복하지만, 조준구 내외를 죽이는 데에 실패한 그들은 고향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서희는 할머니 윤씨 부인이 남겨 준 재물을 지니고 이들과 함께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난다.

<제2부>(1911년 5월 간도 용정촌의 대화재 - 1917년 여름) - 경술 국치 후 지리산 동학 단당 모임,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1912년 중국민국의 성립과 러시아의 정세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1914년 1차 세계대전(-1918년), 1917년 러시아 혁명 - 서희의 복수, 최씨가 귀환

간도에 정착한 서희는 가문을 되찾으려는 일념을 불태우며 윤씨 부인이 남긴 재물을 자본으로 길상과 공 노인의 도움을 얻어 두류(豆類)와 토지 거래에 성공하여 거부가 된다.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인 이동진의 군자금 요청을 거부하고 친일적인 운흥사 공사에는 기부금을 내는 등 공공연한 친일 행위도 불사한다. 그녀는 이동진의 아들 상현을 사모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미 결혼한 상현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길상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는다.

길상은 서희와 결혼하기 전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만났던 옥이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한다. 그는 가문에 대한 서희의 무서운 집념과 완전히 허물 수 없었던 신분의 벽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만, 환의 출현으로 그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독립 운동에 투신한다.

환은 별당 아씨가 죽은 후 윤봉, 윤도집, 지삼만, 송관수, 판술 등과 함께 의병 활동을 한다. 방법론상의 견해 차이로 윤도집, 지삼만 등과 대립하며 간도로 건너간 그는 길상을 만나고 이동진, 권필응 등과도 만난다.

서희와 길상의 결혼으로 충격을 받은 상현은 서울로 돌아와 서의돈, 임명빈, 황태수 등과 사귀며 일본으로 유학도 한다. 그러나 그는 길상에 대한 패배감, 아버지 이동진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스스로의 무력감 때문에 정신적 방황을 계속한다.

한편 서희 일행과 헤어지고 기생이 된 봉순은 기화라고 이름을 바꾸고 천부적인 미모와 소리로 유명해진다. 그녀는 간도로 건너가 서희, 길상, 고향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

월선, 임이네, 흥이와 함께 용정에 정착한 용이는 월선과 함께 잠시 국밥집을 한다. 그러나 그는 임이네의 돈에 대한 욕심에 못 견뎌하고, 자신이 장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는 흥이를 월선의 곁에 남겨 두고, 임이네와 함께 영팔이가 정착한 통포슬에서 청인의 소작인이 되어 농사를 지으며 겨울에는 벌목꾼으로 일한다.

임이네는 월선 몰래 가로챈 많은 돈을 용정의 큰 불로 잃게 되지만 탐욕은 갈수록 심해진다. 월선은 용이가 떠난 후 흥이와 함께 살지만 암으로 한 많은 일생을 마친다.

김평산의 아들 기복은 김두수로 이름을 바꾸고 간도 땅에서 일제의 밀정으로 활약한다. 그는 달아난 금녀를 되찾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대신 길상을 짝사랑하던 공 노인의 양딸 송애를 농락한다. 달아난 금녀는 독립 운동을 하던 장인걸의 도움을 얻어, 귀환한 한국인 썰러란 심의 집에 은거하며 차츰 삶의 안정을 찾게 된다.

귀녀의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던 강 포수는 그 아들에게 두메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그가 성

장하자 송장환에게 교육을 부탁한다. 조준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정한조의 아들 석이는 송관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조준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인으로 가장하여 그의 집에 잠입한다. 서희는 공 노인을 내세워, 광산에 투자하여 큰 실패를 본 조준구에게 접근하여 빼앗긴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찾는다. 그녀는 월선의 장례식 후 영팔이네와 용이네를 귀향시키고, 독립 운동을 위해 환과 함께 떠나 버린 길상과 헤어져 두 아들(한국, 윤국)과 유모, 안자와 함께 그리던 귀향길에 오른다.

<제3부>(1919년 3·1운동- 1929년 원산 총파업, 광주학생사건, 1919년 임시정부 수립, 1920년 김좌진장군의 청산리대첩, 1929년 사회주의 사회 단체인 계명회 사건 - 김환의 죽음으로 송관수 등의 민중적 삶과 서울의 임명회를 둘러싼 지식인과 신여성들의 삶이 그려짐.)

귀향 후 진주에 정착한 서희는 조준구와 만나 5천 원에 평사리의 본가를 되찾는다. 서희는 완전히 복수를 달성하지만,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두 아들을 보살피며 진주에서 살아 간다.

용이는 임이네의 탐욕에도 무심해진 채 평사리 서희의 본가를 지키며 안정된 말년을 보낸다. 월선의 죽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간도의 벼들과도 헤어진 흥이는 생모 임이네의 탐욕에 대한 증오와 자학으로 비틀어진다. 그는 사랑하는 장이의 몸을 겁탈하지만, 의병의 혐의를 받고 잡혀갔다 온 후 마음을 잡고 운전 기술을 배워 김 훈장의 손녀 보연과 결혼한다. 그러나 그는 일본인과 결혼한 장이와의 불륜의 현장이 발각되어 고통을 받기도 한다. 그는 용이의 장례식이 끝난 후 오랫동안 계획해 오던 간도행을 준비한다.

윤도집과 운봉의 죽음으로 동학의 세력은 와해되고 지삼만은 청일교의 교주가 되어 많은 신도와 돈을 모으게 된다. 중국에서 귀국한 환은 지삼만의 밀고로 일경에 잡히지만 조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지삼만 역시 심복인 지 서방에게 살해당한다.

김두수는 마침내 중국 여인으로 가장한 금녀를 붙잡고, 그녀를 통해 독립군의 정보를 빼내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금녀는 침묵으로 맞선다. 그 후 그녀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한다. 한편, 김두수는 관수의 주선으로 독립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간도로 간 동생 한복과 해후한다.

길상은 서의돈과 함께 계명회 사건에 연루되어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한다. 이에 서희는 서울을 왕래하면서 길상의 뒷바라지에 힘쓴다. 한국은 아버지 길상을 매우 존경하며, 그의 자질을 이어받아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서희의 뜻을 따라 와세다 대학 법과를 지원한다.

상현은 일본 유학 후 서울에서 기화를 모델로 소설을 쓰기도 하지만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방황한다. 임명비의 누이 명희는 상현에 대한 사랑이 거부되자 조용하의 후처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녀는 시동생 찬하에 대한 남편의 질투와 외도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던 기화는 상현을 사랑하나 그에게서 끝내 버림받고 상현의 딸 양현을 낳는다. 아버지 이동진의 죽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중국행을 감행한다. 홀로 양현을 키우던 기화는 아편쟁이가 되어 서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지만, 상현과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으로 서희의 곁을 떠난다. 하지만 기화는 그녀를 사모하던 정석의 설득으로 다시 평사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석이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가정 파탄이 일자 그것이 자기 탓이라 생각하고 섬진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다.

기화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들은 상현은 긴 방황을 청산하고 소설을 써, 그 고료를 양현을 위해 써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명희에게 보낸다. 명희는 양현을 양딸로 데려가길 원하지만 서희는 이를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양현을 키운다.

<제4부>(1930년-1939년) : 1933년 뉴딜정책, 독일의 나치 정권, 1936년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1937년 중일전쟁 발발, 1938년 남경학살사건, 유인실과 일본인 오가다의 사랑

김환이 죽고 길상이 수감된 후, 관수와 강쇠 등은 만주, 조선에 걸쳐 인망을 엮는 데 힘쓴다. 관수의 아들 영광은 강해숙과 편지를 교류하는 중 신분이 탄로나고 퇴학까지 당하자 가출한다. 이것이 한이 된 관수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독립 운동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길상의 출옥 후를 생각하며 관수는 서울 출신의 소지감을 운동에 끌어들이고, 지감은 그를 통해 지리산의 강쇠, 해도사를 알게 된다.

청년기의 한국과 윤국은 3·1운동 후 학생 운동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자신들의 풍족한 처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 방황과 고민이 깊어가고, 윤국은 가두 시위에 참가하여 감옥살이를 하고 무기 정학 처분을 받는다. 서희는 아들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집안의 재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두 아들을 보며 공허감이 더욱 커져만 간다.

불행한 결혼 생활에 점점 황폐해져 가는 명희에게 조용하는 동생 조찬하와의 불륜을 이유로

이훈을 선언한다. 항복을 받아 낼 것을 의도했던 조용하였지만 명희는 순순히 이훈에 응하겠다고 자진해서 떠나 버리고, 조용하는 분노에 몸을 떠다.

일본 여인과 결혼한 조찬하는 일본에서 오가다란 일본인과 사귀게 되는데, 오가다는 명희의 제자인 유인실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조찬하는 그와의 대화에서 일본적인 것과 조선적인 것을 구명해 보려고 애쓴다.

가출한 명희를 불러들인 조용하는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명희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산장에 가두고 능욕한다. 모욕감에 자살을 기도하다 살아난 명희는 여욕을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하고, 결국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 촉탁으로 일하게 된다. 조찬하는 유인실과 오가다와 함께 시골 학교의 명희를 찾아가지만 초라한 그녀의 모습에 놀라고, 그녀 역시 모멸감에 괴로워한다.

한편, 길상은 어느 새 중요해진 자신의 위치를 종종 낮설어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는 최씨 집안에서 꽃 같은 존재인 양현이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연스레 알아 나가기 바란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오가다에 대한 사랑으로 갈등하던 유인실은 오가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바치고, 결국 그로 인해 아이를 얻게 된다. 그녀는 아무도 몰래 일본에서 아이를 낳아 조찬하에게 부탁하고, 독립 운동을 하러 중국으로 떠난다. 그 곳에서 그녀는 송장환을 찾아가고 그를 통해 윤광오를 만나게 되고, 찬하는 고민 끝에 아이를 자식처럼 기른다.

인실이 떠난 후 상실감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오가다는 만주에 와 떠돌아 다니다 토건 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여행을 하던 중 하얼빈에서 우연히 인실의 자취를 발견한다.

<제5부>(1940년 8월 - 1945년 광복) : 1940년 광복군 결성, 1939년 제2차대전 발발, 1943년 카이로 선언, 일본의 항복- 광복을 향한 민족의 삶, 양현과 영광의 사랑과 갈등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점점 장기전에 빠지며 열강에 외면당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 호열자로 인해 죽은 아버지 관수의 유해를 모시고 진주를 찾은 영광은, 강에 빠져 자살한 어머니 기화를 생각하며 그 강에 꽃을 던지는 양현을 보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백정의 자손과 기생의 딸로서 비슷한 슬픔을 나눈 두 사람은, 영광이 만주로 도피하면서 헤어지게 된다. 양현을 이 부사 댁에 입적시켜 둘째 아들 윤국의 배필로 삼으려한 서희는, 양현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이가 멀어진다. 상심한 윤국은 학병에 끌려가 소식이 없다. 의전을 졸업하고 인천에 취직한 양현은, 점차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서희에게 이끌려 다시 귀향한다. 가산을 탕진하고 끈추 아들 병수에게 얹혀 사는 조준구는, 중풍에 걸려 누워 지내면서 갖은 행악을 부리다 죽는다.

계명회 사건 이후 출옥한 길상은 도솔암에서 관음 보살의 탕화 제작을 결심하고, 화려함과 함께 삶의 본질인 외로움과 슬픔이 잘 어우러진 걸작을 남긴다. 보연의 금불이 밀매 사건으로 진주로 송환된 흥이는, 이를 계기로 불편했던 김두수와의 관계를 끝내고, 하얼빈에서 극장을 운영하며 조직의 일을 계속한다. 여행 중에 하얼빈에 들러 우연히 인실을 본 조찬하는 인실로 하여금 오가다에게 아들의 존재를 알릴 것을 종용한다. 찬하의 아들 쇼지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오가다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찬하에게 감사한다. 인실과의 계속된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오가다에게 인실은 일본이 망하는 날에 대한 여운을 남긴다.

흥이의 아이들인 상의와 상근은 진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중학교에 다니나, 전쟁으로 수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남학생들은 군사 훈련을, 여학생들은 간호 훈련을 주로 받는다. 상의는 완고하고 심술궂은 사카모토 선생과의 대립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나, 무사히 졸업하게 되고, 졸업 후에 흥이가 있는 만주로 갈 계획을 세운다.

이상현은 윤광오, 수영 부부가 마련해 준 집에서 석이와 함께 기거하며 약간의 활동도 하나 때로 주정도 한다. 민족주의의 강한 유대감이 점차 바래져 가고 사회주의 성향이 짙어 가는 때에, 강 포수가 내력을 숨기고 기른 귀녀의 아들 강두메는 투철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나, 상현 같은 인물은 차후에 도태해야 할 반동분자로 생각한다.

조용하가 자살한 후 그의 재산을 상당히 상속받은 임명희가 회사한 돈 오천원의 사용처를 의논하는 중, 산(山)의 조직을 독립 후에 사회주의 운동 조직으로 키울 야심을 가지고 입산한 과격한 사회주의자 이범호와 산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며, 산 사람들은 이범호를 경계한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신형 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으로 조선에서의 피폭을 걱정하는 가운데, 서희는 길상이 사상범 예비 검거령에 의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서울로 식구 모두 올라갈 것을 결심한다. 상심해 있는 서희의 식욕을 위해 장에 가던 양현은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滿開] 현대소설-암소

이문구

1. 길잡이

1970년 <월간 중앙(月刊中央)>에 발표된 작품. 작가 이문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의 무대는 농촌이나 어촌, 혹은 산업화의 소외 지대인 도시의 변두리이다. 이 작품도 삶의 터전을 상실해 가는 사람들의 비애, 그리고 그것을 초래한 상황의 모순을 형상화하고 있다.

2. 줄거리

올해로 52살이 된 황구만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농부이다. 황구만은 섬달 눈 오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출이와 나누었던 대화를 상기하며 몹시 마음이 상해 있다.

삼 년 동안 황씨네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박선출은 군에 입대하면서 그 동안 새경을 모아 만든 팔만 원의 돈을 황씨에게 맡기고 떠났었다. 황씨는 그 돈으로 소창직 직조틀을 서너대 장만하여 가내 공장을 시작했다. 처음엔 잘 돼 나갔었다. 그러나 인근 읍내에 공업 단지가 조성되는 바람에 부리던 직공들이 들고일어나고, 자기네가 앉아서 일하고 있던 사이 세상은 빠르게 기계화의 길로 내닫고 있었음을 자각한 것이다. 결국, 그의 가내 공장은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고, 군에서 제대한 박선출에게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에 주인 황씨가, 5·16 정권이 들어서며 시작된 농가 고리채 정리기간 동안에 털썩 신고를 해 버린 탓에 박선출은 원리금을 몽땅 날릴 판이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출이가 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의중계 합의를 보았다. 내용인즉, 황씨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 키워 그것을 다시 팔아 그 돈으로 부채를 청산하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은 암소를 극진히 먹여 키우게 되고, 어쩌다 심하게 부린 날이면 막걸리를 먹여 재우기도 했다. 오늘은 황씨집에 고사가 있는 날이다. 음식을 마련한 황씨 아내는 술지게미를 소여물통에 놓아두었다. 그 동안에 황씨와 선출은 암소가 뺨 송아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술지게미 맛을 본 암소는 술내가 풍기는 광으로 들어가서 너 말가웃 되는 막걸리 향아리를 단숨에 비워 치우고 쓰러져 버린다. 결국, 암소는 죽어 버리고, 황씨는 암소에게 달려들고, 선출이는 몸부림치는데, 그 곁에서 선출의 애인 신실이도 목놓아 운다.

3.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1970년 10월 <월간 중앙>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이미 이문구는 <지혈>(1967), <이삭>(1968), <몽금포 타령>(1969) 등을 통해 독특한 문학관을 드러내어 보였고, 특히 그의 출세작인 <관촌 수필>은 사라져 버린, 혹은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고향의 풍경과 정서를 그 특유의 토착어로 포착해 내고 있다.

작가 이문구는 생생한 농촌 묘사로 정평이 난 작가이다. 이 소설에서도 그의 묘사력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여기에 '암소'를 둘러싼 두 인물의 상이한 입장이 치밀한 심리 묘사에 의해 덧붙여지고 있다. 황구만씨가 암소를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물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를 아낄 수밖에 없는 농민의 심성에 기인한 것이다. 자칫하면 악덕 지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인물에 '인간다움'을 부여하는 것은 그의 묘사력이 지닌 정치(精緻)함 덕분이다.

그의 소설이 지니는 또 하나의 '맛'은 충청도 토속어의 걸출한 구사력이다. 그것은 작품 전체를 훈훈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로 이끌며, 농촌의 궁핍한 실상을 건조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 관한 풍부한 디테일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정감 어린 인정 묘사는 사라져 버린 전통적 세계에 대한 문학적 헌사(獻辭)라 할 만하다.

결국, 이문구의 소설들은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도피적이거나 토속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기왕의 소설들과는 달리, 60-70년대의 산업화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 그리고 농촌의 피폐와 해체 과정을 충실한 리얼리티와 정감 있는 문체로 보여 줌으로써 농민 소설의 새로운 흐름을 열었다고 하겠다.

4. 핵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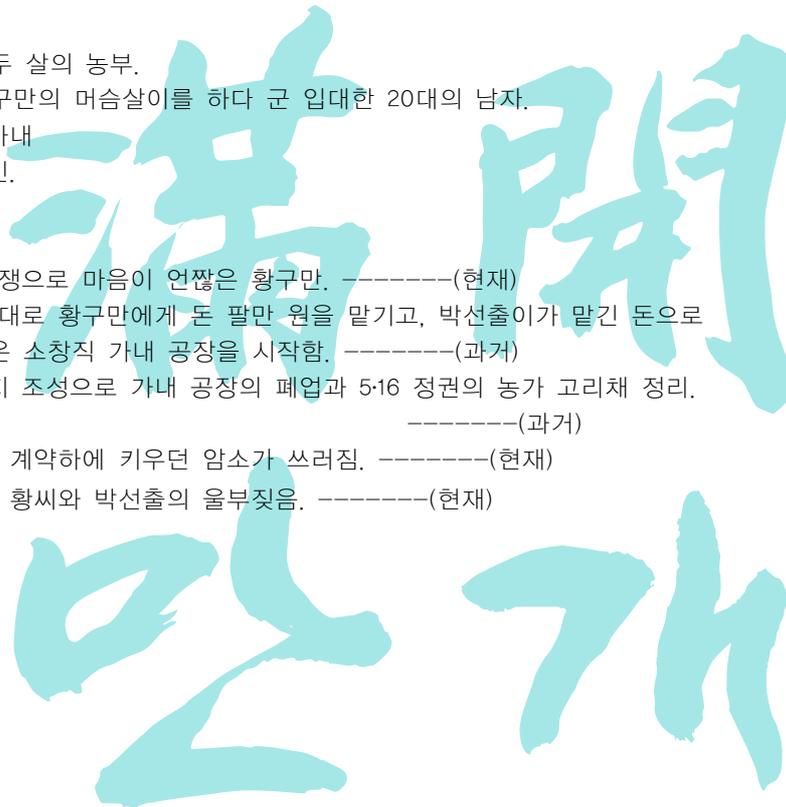
- 갈래 : 단편소설, 농민소설
- 배경 : 시간 - 1960년대 초반
공간 - 충청도 어느 농촌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 충청도 토속어 구사
- 의의 : 농촌의 피폐와 해체 과정을 걸출한 충청도 토속어의 구사력으로 보여줌으로써 농민 소설의 새로운 면모를 개척.
- 주제 : 산업화 속에서 농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

5. 등장 인물

- 황구만(黃九滿) : 신두 살의 농부.
- 박선출(朴先出) : 황구만의 머슴살이를 하다 군 입대한 20대의 남자.
- 고랏댁 : 황구만의 아내
- 신실 : 박선출의 애인.

6. 구성

- 발단 : 박선출과의 언쟁으로 마음이 언짢은 황구만. -----(현재)
- 전개 : 박선출은 군입대로 황구만에게 돈 팔만 원을 맡기고, 박선출이가 맡긴 돈으로 황구만은 소창직 가내 공장을 시작함. -----(과거)
- 위기 : 읍내 공업 단지 조성으로 가내 공장의 폐업과 5·16 정권의 농가 고리채 정리. -----(과거)
- 절정 : 황씨와 선출의 계약하에 키우던 암소가 쓰러짐. -----(현재)
- 결말 : 암소의 죽음과 황씨와 박선출의 울부짖음. -----(현재)





황석영의 「객지(客地)」

작가 소개

황석영(黃皙暎 1943-) 소설가, 만주 장춘 출생. 동국대 철학과 졸업. 1970년 <조선일보> 신춘 문예에 '탑'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과 생산의 문제를 깊게 다룬 일련의 리얼리즘 소설을 창작하였고, 민중의 꾀팍한 삶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대표작으로는 '객지', '한씨 연대기', '어둠의 자식들',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등이 있다.

작품의 줄거리

서해안 간척지에서 일급 노동자로 일하는 장씨, 대위, 동혁 등은 뜨내기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을 해도 법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 이상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일당을 받지만, 그나마 현금이 아닌 전표(錢票)로 받는다. 또 노동자들은 회사와 이들 사이의 중간 계층인 서기, 감독 등으로부터 착취를 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항의를 해 보지만, 회사측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침내 노동자들은 며칠 후에 국회의원들이 시찰 나온다는 말을 듣고, 동혁과 몇몇 인부들이 주동이 되어 동조자들과 함께 노동 조건 개선과 관련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작업장 근처에 있는 산(山)인 독산 위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한다. 반면 소장은 이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쟁의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고참 노동자들은 경험으로 보아 이만하면 얻을 것은 다 얻었다면 쟁의를 끝내려고 한다. 그러나 동혁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며 혼자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핵심 정리

- 이 작품은 1970년대 황석영 문학의 대표작으로 노동 현실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특징 :
 - ①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속어와 노동 현장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 열악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장의 모순과 그 해결의 가능성

작품의 이해와 감상

1971년 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 소설이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 전후의 노동자의 노동과 투쟁의 과정을 그렸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노동 소설의 문을 연 작품으로 꼽힌다. 1970년대는 대자본을 육성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위주라는 파행적인 산업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작품은 1960년대 후반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간척 사업의 현장을 무대로 그곳에서 일하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즉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있다. 궁벽한 바닷가의 공사 현장에서 삶의 막바지에 몰린 노동자들은 그곳이 생존 투쟁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일당은 실제로 10원조차도 안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체질화된 무기력과 적극적인 삶의 의지가 없다. 즉 오랜 기간 사회의 밑바닥에 눌러 살면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제거 당한 하층 노동자들의 패배 의식과 비인간적 노동 조건에 동혁은 감원자를 대신해서 들어온다. 그 곳에서 젊은 노동자 '대위'는 여타의 노동자와는 달리 자각하고 있는 노동자였다. 그는 현장에서 부대낌에 자각하게 된 자연스러운 형상화이다. 따라서 그는 자각하는 노동자 계층의 전형이다. 이 인물형이 당시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동혁과 함께 파업 쟁의를 주도하고 쟁의 과정에서는 홀몸으로 감독조 무리와 싸우다 집단 폭행을 당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지만 그를 통해 쟁의의 불씨를 지피는 헌신적인 노동자상을 보여준다. 즉 노동자 의식의 성숙 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혁은 감정적인 폭발로 끝나는 쟁의는 무의미하며 어디까지나 개선을 위한 쟁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는 신념과 희망을 갖고 있다. 그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쟁의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한다.

이들 인물은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의 태열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시적인 부랑자이거나 떠돌이 날품팔이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작가는 암담한 현실과 희망 없는 미래를 능동적인 삶의 태도로 극복하게 한다.

황석영은 이 작품에서 간척 공사장의 노무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을 짜임새 있는 구성 위에서 사실적이고 긴박한 문체로 묘사함으로써, 산업화에 따른 현실적 모순과 열악한 노동자의 생활 및 그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력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뛰어난 문학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했다든지 노동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든지 하는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적인 형상화 때문만은 아니다. 작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절실하게 파헤치는 동시에, 주인공 동혁을 비롯한 인간의 내면 심리에 대한 치밀한 추적을 늦추지 않고 세밀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내면 상황에 따른 미묘한 움직임에 기민한 통찰력으로 포착해 냈다.

특히 작가의 탁월한 점은 “객지”의 지향성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단순한 옹호나 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한다는 환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는 무모한 관념적 선취를 절제하면서, 오히려 한 개인을 계급의 대표자보다는 자신의 계층을 뛰어넘고 상승하려는 폭넓은 상상력을 지닌 인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객지”는 소외된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와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데 이르며, 이것은 바로 한 시대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표출한 작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과 인간에 대한 믿음 - 객지

<객지>에서 노동자들이 힘겹게 조직해 낸 쟁의는 실패로 돌아가지마 이 실패는 동혁의 ‘꼭 내일이 아니라도 좋다.’는 희망찬 결의와 함께 미래의 승리로 기약된다. 그 기약이 현실화되기 까지 역사는 7,80년대 노동 운동의 고난에 찬 성장사를 요구하게 되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작가의 예지는 시간을 앞서 역사의 진실을 문학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객지>는 70년대 민중문학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 비인간적 노동 조건과 패배 의식

<객지>는 60년대 후반 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간척 사업의 현장을 무대로 그 곳에서 일하는 떠돌이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읍내로 나가도 육십 리 길을 가야 내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탈 수 있는 궁벽진 바닷가의 공사 현장은 삶의 막바지에 몰린 떠돌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처절한 생존 투쟁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그 곳에서 노무자들은 혹독한 노동에 몸을 밀어 넣지만 그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손에 쥐게 되는 일당 130원짜리 맘보 한 장(현금이 아닌 이 전표는 110원에 거래된다.)으로는 세 끼 밥과 합숙소에서의 숙박비를 제하고 나면 고작 10원이 남는다. 그러나 이 10원조차도 실제로는 남아나지 못한다.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그러므로 너무도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조직적으로 쟁의를 전개할 힘이 없다. 감원당한 사람의 자리를 메우려 들어온 신참 노동자 동혁에게 공사판의 사정을 알려 주는 장씨의 경우처럼 체질화되어 버린 무기력도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공사판을 전전하는 사이에 어느덧 늙어 버린 장씨에게선 적극적인 삶의 의지 따위는 찾을 길이 없다. 그는 젊은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오랫동안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은 한낱 ‘객기’에 불과하며, ‘개선이니 진정서니 서명이니 하는 것들이’ 관철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 조건이 불합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마찰 없이 순응하는 것만이 날품팔이 신세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인생 철학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사회의 밑바닥에 눌러 살면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제거당한 하층 노동자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滿開] 현대소설-순이 삼촌

● 줄거리

서울 큰 회사의 부장 자리에 있는 나는 8년 만에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여하러 비행기로 고향 제주도 서촌으로 간다. 나는 일곱 살 때 병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4·3 사건 전에 아버지는 경찰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해 버렸기에, 큰아버지 밑에서 삼촌과 함께 자랐으며, 물으로 건너와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그럭저럭 15여 년을 보냈다.

8년 만에 찾아간 고향, 제삿날이기에 친척들을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쉽게 확보된다. 그런데 그 친척 중에서 꼭 있어야 할 순이 삼촌이 눈에 띄질 않았다. 이 고장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 부르며 가까이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순이 삼촌은 나이 많은 여인으로 불과 두 달 전까지 1년 간 나의 서울 집에서 식모처럼 밥을 짓고 집을 봐주다가 어느 날 문득 내려간 터인데 그새 죽었던 것이다.

순이 삼촌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야기는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나의 집에 와 있을 적의 순이 삼촌의 여러 기행(奇行)이 차례차례 밝혀진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도 밥을 많이 먹는 식모라고 하여 자기를 흥분다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생선 구운 석쇠까지 방 안으로 가져와 생선 부서진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님을 하나 하나 입증하는 결벽증을 보이는데 이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 그녀를 데리러 온 사위(출가한 딸이 있으나 순이 삼촌은 혼자 살았다)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이런 기행이 모두 환청 때문임이 판명된다. 있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고 우기는 이런 신경 장애의 원인을 차곡차곡 살펴 나가면, 1948년의 제주도 4·3사건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여 년 전 그 해 음력 선달 열드렛날, 그날은 유달리 바람 끝이 맵고 시린 날이었다. 별안간 밖에서 연설 들으러 나오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보통 때와 달리 군인들의 수십 명 퍼져 다니면서 재촉하였다. 군인들 가족과 순경 가족, 이어서 공무원 가족이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무언가 이상한 낚새를 눈치 챈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별안간 불이 났다고 소리쳤다. 마을엔 삼시간에 무서운 불길의 타오르고 있었다. 동요하는 마을 사람들을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다. 마을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 돼지 몰듯 하여 우리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차례 차례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어갔다. 그러나 작전 명령에 의해 소탕된 것은 대부분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제주도 부락민들이 5·10선거 때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부화뇌동되어 선거를 보이콧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밤에는 폭도에 쫓기고 낮에는 군경에 쫓겨 갈팡질팡하다 결국은 할 수 없이 굴 속으로 도피를 했던 것이다. 순이 삼촌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 때문에 도피자들 틈에 끼어 있다가 우리 할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오누이 자식을 데리러 내려 왔다가 그만 화를 당한 것이다. 군경측의 무리한 작전과 이념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었다.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마을을 태우는 불빛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날 밤 사람들은 한길을 피해 모두 교실로 몰려 들어가 불안한 밤을 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두 번 크게 놀란다. 한 번은 대밭이 타면서 터지는 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고 놀랐고,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였다. 삼촌은 총살을 당하기 전에 기절을 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 학살 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순이 삼촌은 그후 경찰에 대한 심한 기피증이 생겼고, 제주공 사건으로 결벽증까지 생겼으며, 나중에는 환청증세도 겹치게 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순이 삼촌 만큼 그날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없었다. 평생 그날의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순이 삼촌은 자식이 돌이나 문힌 그 움팡밭에서 사람의 뼈와 탄피 등을 골라내며 30년을 과부로 살아오다가 그날의 일을 환청으로 듣게 되고, 마침내 그 살육의 현장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된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30년이 지나고도 그 일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선불리 들고 나왔다면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달 전에 자살한 순이 삼촌의 삶은 이미 30여 년 전의 시간 속에서 정지해 버린 유예된 죽음이었다고 생각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인물의 성격

- ◆ **순이 삼촌** → 선달 열드렛날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신경 쇠약과 환청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소박한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
- ◆ **고모부** → 서북청년단 출신으로 선달 열드렛날의 비극을 시국 탓으로 돌리고 숨기려 함. 현재는 도청 주사로 있으면서 밀감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인물.
- ◆ **길수형** → 어린 시절, 나와 함께 선달 열드렛날의 비극을 겪은 인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인물.
- ◆ **나** → 작중 화자

● 구성 단계

- ◆ **발단** : 나의 귀향과 순이 삼촌의 죽음을 알게 됨.
- ◆ **전개** : 순이 삼촌의 평탄치 못했던 서울 생활
- ◆ **위기** : 선달 열드렛날의 일을 회상함.
- ◆ **절정** :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순이 삼촌
- ◆ **결말** : 순이 삼촌의 고통의 세월을 생각함.

● 이해와 감상

- ◆ 이 작품은 1949년 1월 16일 제주도의 동쪽 마을 북촌리에서 500여명의 주민이 군인에 의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된 소위 '북촌리 사건'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작가의 체험을 함께 섞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사실주의 기법의 작품이다.
- ◆ 이 작품에서 현기영은 군인의 대량민 학살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 참혹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이 학살의 와중에 극적으로 생존한 순이 삼촌의 정신이 어떻게 황폐화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4 · 3 사건'의 여파가 지금까지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정신적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름없는 다수의 사람들, 짓밟히면서도 왜 짓밟히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작가가 대신 아파하고 분노의 목소리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 ◆ 이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폭도들에게 입산하지 않는 자는 빨갱이라는 논리하에 대창에 찢려 죽고, 낮에는 약탈당하지 않은 집은 좌익 동조자라고 해서 취조를 당했다. 이런 흑백논리 속에서 마을 소각이라는 참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 즉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낳은 비극인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4 · 3 사건의 고발이라는 작품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4 · 3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보여 주지 않고 있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핵심사항 정리

- ◆ **갈래**: 중편소설, 액자소설, 사실주의 소설
- ◆ **배경**
 - * 시간적 → 액자 내부(1949년 겨울), 액자 외부(30년이 지난 현재)
 - * 공간적 → 제주도
-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 **특징**
 - *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확보함.
 - * 4 · 3 사건을 사실적으로 다루면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고발정신이 반영됨.
 - * 내용상 액자소설로, 내부 액자와 외부 액자의 교차로 구성됨.
- ◆ **주제**→**선달 열드렛날의 비극과 순이 삼촌의 황폐화된 삶**
- ◆ **출전** : 창작과 비평 가을호(1979. 9)

1. 이 작품은 제주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4 · 3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의 소설화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의를 말해 보자.

⇒ 한 3백 명 되는 좌익의 '무장 폭도'를 사냥한다는 목적으로 5만여 명의 양민까지 학살한 그 엄청난 사건을 기나긴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고 폭로, 고발해 낸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미친 역사'에 의해, 좌익 폭도와 토벌대 양자의 틈새에 끼여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양민'들, 그 억울한 사연을 고발해 낸 정신은 문학이 중요하게 짚어야 할 의무 중 하나이다.

2.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작가의 역사 이해에 대해 비판해 보자

⇒ 이 작품 속에는 '고발 정신' 속에는 지나간 사실을 그대로 복원하려는 정신만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양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은 토벌대만이 아니라, 그 계기를 제공한 '폭도'들에게도 돌려지고 있으며, 섬사람과 육지사람들 간의 감정 대립을 그 원인으로 바라보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있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지방 간의 대립 관계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또 다른 사회관계가 가로 놓여 있는지는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는 그 작업이 결여된 가운데 지역 간 대립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 작품의 한계이다.

◆ 4 · 3 사건에 대해

1948년 4월 3일 제주 전역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 8 · 15 광복 직후의 혼란기를 틈타 남조선 노동당은 제주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인민해방군은 일본군이 숨겨놓은 무기와 화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하고 유격전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제주도민에 대한 경찰 및 우익단체의 무차별한 테러가 극심하여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북 출신의 경찰관들이 제주에 파견되자 이를 계기로 좌익 세력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 단독정부 반대, 반미 · 반경찰 · 반서북청년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중 봉기를 주도하며, 유격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군정청은 경찰병력을 제주에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자 군을 투입하여 제주도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약 9만 명의 이재민과 엄청난 재산 ·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는 5 · 10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발발 1년 만인 1949년 5월 일단 종결되었으나, 봉기의 여파로 인한 완전 진압은 6 · 25전쟁을 거쳐 1954년에 가서야 가능하였다.

◆ 신문 기사문

1978년에 발표된 현기영(55) 씨의 중편 <순이 삼촌>은 30년 동안 묻혀 있던 4 · 3의 진실을 거의 최초로 공론화한 문제적 소설이다. 비록 이 소설로 인해 작가 자신은 보안사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책도 발매 금지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이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 역사적 의의는 그로 인해 더 한층 막중해졌다.

음력 선달 열여드레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추어 고향인 제주 서촌 마을에 내려간 '나'를 화자로 내세운 소설은 30년 전 향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을 통해 4 · 3의 아픈 역사를 고발하고자 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제목이 되기도 한 순이 삼촌(제주에서는 촌수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흔히 삼촌이라 부른다.)은 30년 전의 학살 현장에서 두 아이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인물이지만, 평생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을 떨쳐 버리지 못하다가 그에 자살을 택하고 만다.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전 그 옹팡밭에서 구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예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었다."

소설 <순이 삼촌>은 48년 음력 선달 19일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질 양민 학살 사건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날 아침 이 마을 어귀에서 무장대의 습격으로 군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군인 2개 소대 병력이 마을로 들이닥쳐 3백여 동의 가옥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양민을 학살한 것이다. 마을의 남정네들이 군 · 경에 학살당하거나 토벌대를 피해 입산함으로써 여자만 남게 되어 한동안 '무남촌(無男村)'으로 불리기도 한 북촌은 함덕 해수욕장과 지척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제주 마을이다.

검은 돌담과 셋노란 유채꽃, 기와지붕 가냘픈 흰색 테두리와 옥빛 바닷물이 현란한 색채의 잔치를 연출하는 이 마을에서 반세기 전의 비명과 유혈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일주도로 변의 북촌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김없이 그날 마을 사람들을 소집한 군대가 학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군 · 경 가족을 가려내던 그 장소요, 옷자란 마늘 줄기들로 시퍼런 학교 뒤 옹팡밭은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던 바로 그 학살터임에 분명하다.

"적어도 내 상상 속에서 나의 향리는 예나제나 죽은 마을이었다. 말하자면 삼십 년 전 군 소개 작전에 따라 소각된 잿더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북촌이 비록 현기영 씨의 고향은 아니지만, 소설 속 '나'의 목소리를 작가 현 씨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바람에 날려오는 유채꽃의 비릿한 향내에서 죽은 자들의 시취(屍臭)를 맡고, 화산암의 거무튀튀한 색깔에서는 완벽하게 불타 버린 반 세기 전 제주도를 연상하게 된다고 현 씨는 말했다.

"작가로서 내가 4 · 3에만 매달리는 것은 편협한 지방주의 때문이 아니라 변죽을 쳐서 북판을 울리는 문학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 3에 응축되어 있는 민족적 · 민족적 모순을 통해 보편성에의 요구에 응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글 최재봉 / 한겨레신문 1996. 04. 16



[滿開] 현대소설-유년의 뜰

유년의 뜰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의 곁을 비운 사이,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밥집 일을 시작한다. 큰오빠는 어머니의 외박이 점점 잦아지면서 동네에 나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경멸한다.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과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난다. 그런 어머니와 밤의 왁자지껄한 저잣거리를 경멸하던 큰오빠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날에는 이유 없이 언니를 때리고 휘파람을 불며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는 '작은 폭군'으로 변해 간다. 언니가 밤에 저잣거리에 나가더라도 한 날이면 큰오빠는 어김없이 언니를 때렸던 것이다.

황금히 들어와 숨을 가다듬고 자는 체하노라면 한발 늦게 돌아온 오빠는 사천왕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 냄새라도 맡을 듯 코를 벌름이며 말했다.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언니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시늉을 하며 잠에 취한 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냐, 내가 언제……. 어쩐다고 그래.”

언니의 대꾸는 가냘프고 자신이 없었다.

“밤에 쓰다니지 마. 가만 안 둘 테야.”

오빠는 그러고도 자못 미심쩍은 눈길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잠들었던 동생이 때마침 약하게 칭얼대기 시작했다. 벽을 보고 누웠던 할머니가 동생 쪽으로 돌아누우며 가슴팍을 풀어 빈 젖을 물렸다. 오빠는 신을 벗을 염도 없이 문을 잠고 선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는 가쁜 숨을 죽이고 자는 체하고 있었지만 나는 오빠가 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더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오빠가 또 언니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저렇게 묵묵히 있는 것도 아마 트집 잡을 궁리에 골몰한 탓일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오빠는 언니를 때렸고 할머니는 말할 염도 없이 동생을 업고 나가 개울가를 서성거렸다.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 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 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을, 공공연히 자행(恣行)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오빠는 자신이 가장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언제나 침울하고 긴장으로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으로 억눌려져 자라지 못하는 욕망, 자라지 못하는 슬픔, 분노 따위는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때로 내게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애매해 보였다. 우리를 때릴 때조차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빠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는 듯 걸핏하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붉혔다. 그것은 오빠의 밤 외출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는 오빠를 무서워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연민과 동정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드러누워 나와 동생을 번갈아 발바닥 위에 베개통처럼 가벼이 엮고 들어 올릴 때조차 — 동생은 숨넘어가는 소리로 모처럼 까르륵거리며 좋아했지만 — 나는 오빠가 무서웠다. 무서움 때문에 오빠의 몸은 한없이 커지고 이윽고 방은 오빠의 몸으로 숨 쉴 틈도 없이 가득 찼다. 오빠가 방에 들어설 때면 문틀이 버그러질 만큼 짹 들어차는 것이었다.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던 오빠가 세계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언니가 흐르르 한숨을 쉬며 내게 속삭였다.

“노랑눈아, 나 나갔었던 말 하지 마.”

저녁을 마친 할머니는 언니에게 설거지를 이룬 뒤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갔다. 동생은 해가 질 무렵이면 울어 대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 밤 깊도록 동생을 업고 서성이다 밤이슬로 머리칼과 옷이 눅눅히 젖을 때야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동생에게서는 감기 기운이 떠나지 않고 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과 발은 심상치 않은 미열로 늘 따듯했다.

거미처럼 여윈 그 애는, 할머니의 빈 젖을 빨 때 외에는 늘 가늘고 약하게 울었다. 모처럼 잠이 들었을 때도 힘없이 벌린 입에는 잔울음 끝이 물려 흐득였다. 나는 때때로 잠든 동생의, 늘 침이 흘러 벌겁게 혈어 있는 턱을 기이하게 바라보았다.

작은오빠는 개울에 어항을 묻어 미꾸라지를 잡거나 낭창낭창한 버드나무 회초리로 개구리를 잡아 오고 할머니는 그것을 부지런히 고아 먹여도 아픈 생살을 뒤덮은 부스럼은 낫지 않았다.

밭 가운데, 혹은 둔덕에서는 잔돌 무더기가 흔히 있었다. 애기 무덤이라고 했다.

우리는 언젠간 그 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와 어머니의 소리 죽인 울음을 들으며 흠이불에 감긴 그 애는 조그만 보통이처럼 지게 짐으로 얹혀 나가게 될 것이다.

종일 냇가에서 어항을 놓고 먹을 감던 작은오빠는 팔다리를 내던지고 아랫목에서 잠들었다. 어두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그릇 소리를 내던 언니는 읊내에 나갔는지 조용했다. 오빠는 저녁 전에 진작 나갔던 터였다. 돌아눕는 작은 오빠의 발길질에 발치께에 놓아둔 주발(周鉢)이 데구루루 구르고 뚜껑이 벗겨졌다. 뚜껑을 닫으려다 말고 나는 밥풀을 몇 알 뜯어 입에 넣었다. 희고 매끄러운 밥알은 알지 못할 사이 목구멍으로 슬쩍 넘어가 버렸다. 나는 다시 부리나케 몇 알을 주워 먹고는 표시가 안 나게끔 설핏설핏 퍼 놓았다.

작은오빠는 이를 갈며 몸을 뒤척이다가 히힃 웃었다. 나는 급히 주발 뚜껑을 닫고 벽에 기대앉았다. 어두운 방은 무서웠다. 자꾸 주발로 손이 갔다. 밥알의 들큰한 맛이 입에 남아 있는 동안은 무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손이 가는 사이 주발의 밥이 펍 줄어들었다. 한 겹 살포시 덮은 쌀밥 밑은 우리들이 먹는 시커먼 보리밥뿐이었다.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자꾸 주발 뚜껑으로만 가는 손과 싸우며 그곳에서 애써 눈을 돌렸다. 어머니는 술을 마신 날은 대개 밥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단서로 염치없는 손을 타일렀다. 살며시 뚜껑을 열어 한 움큼 쥐고는 떠낸 자국을 고르게 퍼 놓고 작은오빠 곁에 누웠다.

자고 싶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 그리고 성난 기세로 저잣거리에서 돌아온 오빠가 함부로 우리들의 팔과 다리를 짓밟으며 건너질러 벽에 대고 씨근거리는 것을 보기 전, 아니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전 잠들고 싶었다.

안침 뒤뜰에서 익어 가는 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네도 자고 있을까. 어두운 밤 홀로 깨어 누워 있으면 무서운 생각만 잇달아 떠오른다. 무서움을 잊기 위해 한 알씩 아껴 가며 오래도록 씹었는데도 한 움큼의 밥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발가락만 움직이면 발치에서 기우뚱, 주발이 굴렀다.

나는 일어나 더듬더듬 부엌으로 나갔다. 발돋움질을 하고 선반의 그릇과 찬장을 뒤졌다. 할머니가 삶아 둔, 밤마다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한 고구마는 찬장의 냄비 속에 숨겨져 있었다. 고구마가 없어진 것을 알면 할머니는 한밤중에라도 자는 언니와 작은오빠를 흔들며 깨울 것이다.

“네가 처먹었지, 네가 처먹었지?”

나는 쥐가 그런 것처럼 냄비 뚜껑을 부엌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조금 신내 나는 고구마를 한입 베어 물었다.

부엌의 판자벽 바깥으로 할머니의 발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고구마를 삼켰다. 목이 메고 가슴이 빠개어지는 듯 아팠으나 물을 찾아 마실 겨를도 없었다.

조금 전 떨어뜨린 냄비 뚜껑이 다급한 발길에 차여 데구루루 굴렀다.

방으로 들어오다 문지방에 짙은 발이 몹시 아팠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호야의 불을 밝혔다. 석유 내가 풍기고 그을음이 거말게 피어오르다 방이 밝아졌다. 불빛이 펍 밝아졌는데도 할머니는 눈이 침침한지 손을 더듬어 나를 벽 쪽으로 밀고 동생을 눕혔다.

나는 살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 엉겨 붙은 고구마가 손에 찌든찌든 묻어났다.

“에미야, 시장하지? 어서 들어가.”

밤늦어 어머니가 돌아오자 앉아서 꼬박꼬박 졸던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 왔다. 나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다.

“관두세요, 밥집에서 끼니 거를까 봐요.”

어머니에게서는 쉰 술내가 물씬 풍겼다.

“아니다, 속 버린다. 좀 들어가.”

어머니가 버선을 한 짝씩 힘겹게 뽑아 윗목으로 던졌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에구머니, 밥이 왜 이러냐?”

어머니에게 손갈을 들려주며 주발 뚜껑을 열던 할머니가 기겁을 했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아랫배가 팽팽히 당겨 왔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다.

“이젠 에미 밥까지 손을 대니……. 노랑눈이년 짓이다. 쥐새끼처럼 무엇 하나 남겨 두는 게 없어. 안집에선 떨어진 감꼭지 하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 이거 원 남부끄러워서…….”

할머니는 과장된 노기로 목청을 높였다. 할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말투에는 언제나 면목 없어 하는 듯한 아침기가 있었고, 어머니 역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속이 쉬이 꺼져서 그래요. 보리밥이 무슨 맥이 있나요. 한참 먹을 나인데……. 아무거나 집어 먹어 속을 채워야죠.”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흡사 술주정 같기도, 푸념 같기도 했다.

“남 들으면 내가 굶기는 줄 알겠다. 큰애들보다 먹긴 더 먹어. 몸을 봐라. 즈 언니보다 더 실 딱하지.”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나를 흔들며 깨울 듯한 서슬이었다.

“관두세요.”

어머니는 밥상을 고스란히 밀어 놓았다.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웠다.

“죄 될 소리지만……. 난 개가 어쩐지 내가 낳은 애 같지 않아요.”

잠이 드는가 싶었던 어머니가 술기 가신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돌아앉아 발에 들기름을 바르며 대꾸가 없었다. 석유 내와 들기름 내가 뒤섞여 그를 음처럼 거뭇게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난리 통에 파편을 밟아 덴 발에 밤마다 들기름을 바르고 기름종이로 싸다.

어머니는 별반 대꾸를 기다리는 기색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다른 애들하곤 달라요. 멍청하고 걸귀(乞鬼)가 들렸는지 노상 먹을 생각밖엔 없어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몰라. 일곱 살이 되도록 오줌을 싸고……. 그것도 내년에는 학교에 넣어야 하는데, 어린애가 자꾸 살이 찌니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물이 차면 그렇게 붓는 수가 있대요.”

“노랑눈이보다 막내가 걱정이다.”

할머니가 바삭바삭 기름종이 소리를 내며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아무래도 제구실을 못 할 것 같아. 웬일로 날이 갈수록 까무라쳐 가니…….

등에 업으면 꼭 검불 하나 얹힌 모양으로 맥이 없어. 고추가 아깝지.”

어머니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방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이리라. 날로 희미하고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두운 밤, 망령처럼 성큼 벽 틈으로 스며 당당히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드러눕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땀으로 펴 젖은 셔츠의 등과 더 짙은 얼룩으로 젖어 있던 겨드랑이를 보이며 트럭에서 내리던 모습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손을 내저으며 울부짖었다.

“이 근방에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곧 돌아와야 해요.”

어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벽에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일렁였다. 어머니는 흑 남뿔불을 불어 켰다. 그림자는 순간 펄럭이며 사라졌다.

“큰애가 안 들어왔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겠죠.”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풀벌레가 찌르찌르 맑게 울고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모으노라면 내 몸은 아주 얇고 투명한 껍질이 되어 샷자리 밑을 빠르게 달려가는 그리마의 발소리도 들 수 있었다.

밤이 깊어 오빠는 축축한 이슬 내를 풍기며 돌아왔다. 알지 못할 욕설을 중얼거리며 우리들의 몸을 건너 벽 쪽에 누웠다.

나는 소리 나지 않게 고구마를 조금씩 떼어 단맛을 혀로 녹이며 끈끈한 손가락을 뿌리까지 찬찬히 빨았다.

그리마의 수많은 발들이 더욱 분주히 어둠을 갹아 대고, 베개를 베지 않고 자는 우리들은 맹렬히 이를 갈았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어머니는 잠결에 괴롭게 한숨을 쉬고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부엌에서는 배고픈 쥐가 간단없이 달그락거리며 빈 그릇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말갭게 뜨고 조그맣게 말했다. “니 집에 가아, 먹을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조바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문지방에 짙은 발은 이미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몸을 오그려 발을 싸쥐고는 사납게 얼굴을 찡그렸다. 어둠 속에서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맹렬히 이빨 가는 소리 속에 우리들이 저마다 뿜어 대는 땀 냄새, 떨어져 내리는 살비듬 내, 풀썩풀썩 귀어 대는 방귀 냄새, 비리고 무구한 정육의 냄새, 이 모든 살아 있는 우리들의 냄새는 음험하게 끓어올랐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머리맡께를 더듬었다. 어머니는 취한 중에도 꼭 지갑을 요 밑에 찔러 두고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나는 지갑에서 지전(紙錢)을 한 장 꺼내고는 다시 그것을 요 밑에 넣었다. 어머니는 취한 탓인지 언제나 지갑에서 돈이 비는 것을 모르는 성심었다. 그러나 나는 어찌면 어머니가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지도 모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때문에 결국 돈을 꺼내게 되고야 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갑에서 그것을 빼낼 때까지, 달디단 사탕을 다 녹일 때까지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나는 돈을 아직도 끈적이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 놓고 반듯이 누워 비로소 아슴아슴 잠에 빠져 들어 갔다. <중략> 여름이 오고 전쟁은 끝이 났다.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난민 두어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났다. 여름이 다 가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늦여름의 아침, 손바닥만한 거울을 창틀에 기대 놓고 머리를 빗던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를 빗는데 보리 툯 같은 이가 자꾸 떨어지지 뭐예요.” 할머니의 낮빛이 대번에 달라졌다. “머리를 툯 건 나쁘지만 꿈에 이를 보면 좋다는데……. 암튼 무슨 소식이 있을라나 보다. 예미가 한번 올라가 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머니가 쇠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잠깐 푸르르 떨렸다. “노랑눈이는 학교 안 가니?” 침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덩달아 심란한 얼굴을 짓고 책보 싸던 손을 놓아 버린 내게 할머니가 호통을 쳤다. 나는 얼른 허리에 책보를 두르고 뛰어나왔다. 해는 벌써 높다랗게 솟아 불별을 쏟아붓고 있었다. 시작종을 친 지 오래인 듯 운동장에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우리 반의 열린 창문으로 여럿이 소리를 합해 국어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똥보야, 오늘은 안 사 먹니?” 솜사탕 장수가 불러 세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 첫 시간 끝나는 종소리가 땡땡 울렸다. 마지막 수업인 넷째 시간은 미술이었다. 우리는 미술 교본에 있는 대로 화분에 심겨진 튜립을 그렸다. 초에 물감을 섞어 만든 크레용은 잘 칠해지지 않았다. 자꾸 동강동강 부러져 나갔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코를 훌쩍대며 열심히 색칠을 했으나 나는 멍청히 앉아 앞에 앉은 아이의, 머리털이 뽀뽀할 듯 단단히 땀은 머리털, 팽팽히 당겨진 머리털 밑 흰 피부에 송송 맺혀 반짝이는 땀방울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부엌에 칠판을 비추어 분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무더운 날씨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돈을 만지작거리며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갈 때까지 교문 앞에 솜사탕 장수

가 있어줄 것인지를 생각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신작로, 퇴약별 아래 맥고모자를 쭈그러뜨려 쓴 남자가 비렁뱅이처럼 다리를 끌며 지나갔다. 더위 때문인가, 아니면 낮술에 취해 있는 걸까, 벌건 얼굴에 키가 훌쩍 큰 남자였다. 어느 순간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줄곧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듯 열린 창문마다 찬찬히 살피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자, 시간 됐다. 다 그린 사람은 갖고 나와.”

선생님이 교탁을 자막대기로 딱딱 두들겼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코를 훌쩍 들이마시고 하얀 채로 남아 있는 반도 못 그린 그림에 빨강과 초록색의 크레용을 문질렀다.

끝나는 종이 울릴 때 늙은 급사(給仕)가 쪽지를 들고 교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다. 어서 가 봐.”

나는 급사를 따라 복도 맨 안쪽의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때마침 손님을 배웅하고 있던 차였다.

“육학년 김정님이 동생이지?”

손님을 보내고 돌아온 교장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조그맣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오셨다. 집을 몰라 학교로 언니를 찾아오셨어. 교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니 어서 모시고 집에 가거라.”

햇빛이 교장 선생님의 안경을 가로지르고 그 뒤 흑판(黑板)에 아아아아아아 떨어져 금을 긋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모시고 가거라.”

교장 선생님의 말을 나는 아무 뜻 없이 곱씹어 중얼거렸다.

내 눈길은 크림을 씌운 케이크 두어 조각이 담긴 접시가 놓인 탁자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주위로 파리가 끈끈히 날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곧 회의가…….”

늙은 급사가 문간에 서서 우물우물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더 무슨 말을 할듯 잠깐 내 어깨에 손을 얹었으나 어서 아버지에게 가 보렴, 한마디 남기고는 앞서 방을 나갔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자 나는 얼른 탁자 위의 단 케이크를 한 조각 입에 우겨 넣었다. 급히 삼키는 바람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쉹 빠져나왔다. 나는 나머지 한 조각을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교장실을 나왔다. 그리고는 복도를 빠져나왔다.

변소의 창으로 거위처럼 두 팔을 휘저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애들은 손가락 사이에 면도날을 끼워 계집애들이 팽팽이 마주 잡고 있는 고무줄을 끊고 계집애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흠을 집어 뿌렸다. 그 애들을 헤집으며 언니는 달려가고 있었다. 교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탕자나무 울타리 위로 솜사탕이 구름송이처럼 동실 떠올랐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구역구역 토해 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담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똥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똥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엌에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요점 정리

지은이 : 오정희

갈래 : 중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 회상적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성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지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이 글은 두 가지의 서술자의 목소리를 갖게 된다. 즉, 어린 '나'의 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가치 판단을 유보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단점을 성인인 '나'의 시선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 :

시간적 배경 :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쟁이 끝난 직후까지 대략 삼 년 동안의 시간

공간적 배경 : 노랑눈이의 가족이 피란을 떠나 온 어느 마을

구성 :

발단 - 유년 시절 회상. 저녁만 되면 화장을 하고나갈 준비를 하는 어머니와 큰오빠 사이에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흐름.

전개 -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해 은연 중 가장을 자임한 큰오빠는 밤마다 집에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읍내로 나감.

위기 - 어머니와 큰오빠의 갈등이 위태로운 지경이 됨. 큰오빠는 밤이면 부네의 동생 서분과 함께 사라졌다가 마른 풀내를 내며 돌아와 잠.

절정 - 큰오빠는 어머니가 연이들 외박하자, 언니를 때리고 어머니의 거울을 부숨. 어머니가 정육점 주인과 정분났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짐.

결말 -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피란민들도 하나 둘씩 떠남.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옴.

주제 :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가족의 와해, 유년 시절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한 소녀가 겪는 방향과 상실감을 통한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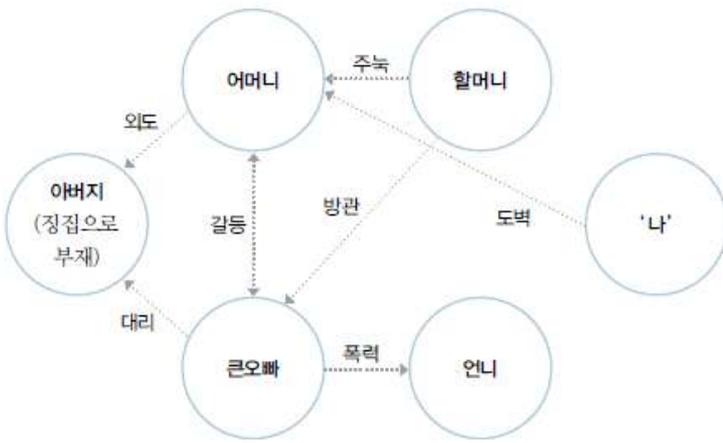
특징 :

- 회상의 형식으로, 어린 여자아이의 시선을 통해 서술함.
- 상징성이 강한 소재와 장면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작품 해제 : 이 작품은 1980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가장인 아버지가 징집되어 집을 떠나고 다시 귀환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 여자 주인공 '노랑눈이'의 시선을 통해 비극적 현실의 구체적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주인공 '노랑눈이'는 일곱 살 난 여자아이로, 그녀의 가족은 피란민이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장을 자임한 큰오빠는 수시로 언니를 때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밥집 일을 하지만 밤마다 술냄새를 풍기고 돌아오거나 외박을 하여 큰오빠와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랑눈이는 식탐과 도박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노랑눈이는 엄마의 지갑에서 훔친 돈으로 사탕을 사서 빨며 혼자 길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아버지를 막연히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과 달리 막상 돌아온 아버지를 대하는 노랑눈이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전쟁이라는 외부적인 상황과 아버지의 부재라는 내부적인 상황이 한 가족에게 가져다 준 시련과 생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고통,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그린 소설이다.

-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



- 인물들의 행동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인식

인물	인물의 행동	아버지에 대한 인식
어머니	가장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나 외박이 잦음.	남편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짐.
큰오빠	동생들을 엄격하게 단속함.	가장 대리로 자임하며, 그 책임을 지나치게 인식함.
'나'	먹는 것에 집착하고 돈을 흠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함.

- '나' 와 케이크



- 어머니가 꾸는 꿈의 상징성

꿈의 내용	할머니의 해몽	'나'의 체험	꿈의 실현
머리를 빗는데 보리 돌 같은 이가 자꾸 떨어짐.	부정적 내용 머리를 문 건 나쁨.	비렁뱅이처럼 다리를 끌며 지나가는 남자를 봄.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만 비루한 모습임.
	긍정적 내용 이를 보면 좋음.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옴.	

내용 연구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가족의 곁을 비운 사이,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밥집 일을 시작한다. 큰오빠는 어머니의 외박이 점점 잦아지면서 동네에 나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경멸한다.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과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난다. 그런 어머니와 밤의 왁자지껄한 저잣거리를 경멸하던 큰오빠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날에는 이유 없이 언니를 때리고 휘파람을 불며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는 ‘작은 폭군’으로 변해 간다. 언니가 밤에 저잣거리에 나가더라도 한 날이면 큰오빠는 어김없이 언니를 때렸던 것이다.

황급히 들어와 숨을 가다듬고 자는 체하노라면 한발 늦게 돌아온 오빠는 사천왕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위압적인 태도**] 뉘새라도 말할 듯 코를 벌름이며 말했다.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언니가 밤에 저잣거리를 나갔었다는 말**]

언니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시늉을 하며 잠에 취한 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다.[**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아냐, 내가 언제……. 어쩐다고 그래.”

언니의 대꾸는 가냘프고 자신이 없었다.

“밤에 쓰다니지 마. 가만 안 둘 테야.”

오빠는 그러고도 자못 미심쩍은 눈길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잠들었던 동생이 때마침 약하게 칭얼대기 시작했다. 벽을 보고 누웠던 할머니가 동생 쪽으로 돌아누우며 가슴팍을 풀어 빈 젖을 물렸다. 오빠는 신을 벗을 염도 없이 문을 잠고 선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는 가쁜 숨을 죽이고 자는 체하고 있었지만 나는 오빠가 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더듬고 있음을 알았다.[**언니에 대한 오빠의 감시와 폭력은 어머니에서 비롯된 것임. 어머니의 외도로 인한 /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책임감도 작용하고 있음.**]

나는 오빠가 또 언니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저렇게 묵묵히 있는 것도 아마 트집 잡을 궁리에 골몰한 탓일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오빠는 언니를 때렸고 할머니는 말릴 염도 없이 동생을 업고 나가 개울가를 서성거렸다.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 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 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나’의 가족이 처한 현실이자 오빠가 폭력을 휘두르는 원인**]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가장의 위치에서 행동함을 드러낸 말**], 공공연히 자행(恣行)[**방자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오빠는 자신이 가장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언제나 침울하고 긴장으로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으로 억눌려져 자라지 못하는 욕망, 자라지 못하는 슬픔, 분노 따위는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때로 내게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애매해 보였다. 우리를 때릴 때조차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빠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는 듯 걸핏하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붉혔다. 그것은 오빠의 밤 외출과 무관하지 않았다.[**오빠가 밤 외출을 하게 된 이유로 오빠는 가장 역할을 할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어 그 심리적 부담감을 왜곡된 폭력의 형태로 표출하게 된다. 그렇기에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 이 부분은 성인인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 부분은 다 자란 ‘나’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의 오빠를 평가하고 있음**]

나는 오빠를 무서워했다[**‘나’의 오빠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연민과 동정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드러누워 나와 동생을 번갈아 발바닥 위에 베개통처럼 가버이 엮고 들어 올릴 때조차 — 동생은 숨넘어가는 소리로 모처럼 가르륵거리며 좋아했지만 — 나는 오빠가 무서웠다. 무서움 때문에 오빠의 몸은 한없이 커지고 이윽고 방은 오빠의 몸으로 숨 실 틈도 없이 가득 찼다. 오빠가 방에 들어설 때면 문틀이 버그러질[**짜임새가 벌어져 틈이 생긴다.**]만큼 짹 들어차는 것이었다.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던 오빠가 세계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언니가 호르르 한숨을 쉬며 내게 속삭였다.

“노랑눈아, 나 나갔었던 말 하지 마.” (중략)

여름이 오고 전쟁[**6·25전쟁**]은 끝이 났다.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난민 두어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났다.

여름이 다 가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늦여름의 아침, 손바닥만한 거울을 창틀에 기대 놓고 머리를 빗던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아보았

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를 빗는데 보리 툄 같은 이가 자꾸 떨어지지 뭐예요.”
 할머니의 낯빛이 대번에 달라졌다.
 “머리를 푼 건 나쁘다만 꿈에 이를 보면 좋다는데……. 암튼 무슨 소식이 있을라나 보다.[전쟁
 으로 인해 집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아버지의 소식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곧 들려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 예미가 한번 올라가 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머니가 쇠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잠깐 푸르르 떨렸다.[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말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
 는 이중적 감정 / 오빠의 분노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음]
 “노랑눈이는 학교 안 가니?”
 침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덩달아 심란한 얼굴을 짓고 책보 싸던 손을 놓아 버린 내게 할머
 니가 호통을 쳤다.
 나는 얼른 허리에 책보를 두르고 뛰어나왔다. 해는 벌써 높다랗게 솟아 불별을 쏟아붓고 있었
 다.
 (중략)

끝나는 종이 울릴 때 늙은 급사(給仕)[관청이나 회사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부리는 사
 람]가 쪽지를 들고 교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다. 어서 가 봐.”
 나는 급사를 따라 복도 맨 안쪽의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때마침 손님을 배웅하고 있던 차였다.
 “육학년 김정님이 동생이지?”
 손님을 보내고 돌아온 교장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조그맣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오셨다. 집을 몰라 학교로 언니를 찾아오셨어. 교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니 어서 모
 시고 집에 가거라.”
 햇빛이 교장 선생님의 안경을 가로지르고 그 뒤 흑판(黑板)[칠판]에 아아아아아아 떨며 금을 긋
 고 있었다.[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의 떨리는 마음이 안경을 통과하여 떨리
 듯 칠판을 비추는 햇빛에 투영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모시고 가거라.”
 교장 선생님의 말을 나는 아무 뜻 없이 곱씹어 중얼거렸다.
 내 눈길은 크림을 씌운 케이크 두어 조각이 담긴 접시가 놓인 탁자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주위로 파리가 끈끈히 날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곧 회의가…….”
 늙은 급사가 문간에 서서 우물우물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더 무슨 말을 할 듯 잠깐 내 어깨에
 손을 얹었으나 어서 아버지에게 가 보렴, 한마디 남기고는 앞서 방을 나갔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자 나는 얼른 탁자 위의 단 케이크를 한 조각 입에 우겨 넣었다.[식탐을 드
 러내는 나의 모습 /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결핍감과 불안감 탓에 보이는 무
 의식적 반응] 급히 삼키는 바람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쉼 빠져나왔다. 나는 나머지 한 조각을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고 교장실을 나왔다. 그리고는 복도를 빠져나왔다.
 번소의 창으로 거위처럼 두 팔을 휘저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애들은 손가락 사이에 면도날을 끼워 계집애들이 팽팽히 마주 잡고 있는 고무줄을 끊고 계
 집애들은 옥설을 퍼부으며 흙을 집어 뿌렸다. 그 애들을 헤집으며 언니는 달려가고 있었다. 교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탕자나무 울타리 위로 솜사탕이 구름송이처럼 동실 떠
 올랐다.[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이 ‘나’에게 현실감 없이 느껴짐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 표현]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 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
 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 냈다.[노랑눈이는 그토록 아버지
 가 돌아오길 바랐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온 순간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된다. 아버지에 대한 그
 리움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느낀 허탈감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데서 나오는 행동으
 로 추측할 수 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
 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아버지의 부재중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과 가족의 모습에서 오는

슬픔]

나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뚱뚱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뚱뚱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엌에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 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 주고 있다.]

'유년의 딸' 에서 '나' 의 가족이 처한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

- '나' 의 가족이 처한 상황 : '나' 의 가족은 피란을 나와 있으며, 아버지대신 어머니가 국밥 집에서 일해 생계를 유지하지만 외도를 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 앞에서도 늘 면목 없어 하고, 이에 가장을 자임한 큰오빠는 언니를 때리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 '나' 의 가족이 처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 : 이러한 상황은 모두 가장인 아버지가 집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장인 아버지가 징집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6·25 전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와 감상

오정희의 '유년의 딸' 연구

'유년의 딸' 은 아버지가 징집병으로 집을 떠나고 다시 귀환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어린 여자 주인공이 주변의 일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이르는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적 성규율의 유무(有無)가 기준이 되어 시골과 읍내(저잣거리)가 양분화되어 있으며, 읍내의 확장된 공간이 도회지(대처)로 나타나고 있다. '유년의딸' 의 여자들은 가부장제의 성 규율로 통제되는 전근대적 세계를 이탈하여, 근대 자본주의 세계로 출분(出奔 : 도망해 달아남)하고자 한다. 어린 여자 주인공도 반모성적인 관능적 육체로 근대 도시 세계로 진출하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가부장제적 질서로 가족을 통제하는 폭력적인 대리 가장, 외도로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노로 자녀들을 구타하는 아버지, 억압적 폭력으로 딸을 감금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 '유년의딸' 은 이 땅에서의 가부장제적 성 규율로 억압받는 여성적 삶의 양상들을 제시하며, 남성 중심적 성규범이 여성적 욕망 발산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억압적 권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주인공 노랑눈이는 개인적 의지와 자유가 박탈 당한 부네를 보게 됨으로써 여성의 욕망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전근대 세계의 탈주 욕망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여성의 실존적 상황으로 수락함으로써, 미래의 자신의 삶도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된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랑눈이의 심리적 결핍감은 식탐과 도벽 등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표출된다. 노랑눈이는 엄마의 지갑에서 훔친 돈으로 사탕을 사서 빨며 혼자 길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내밀한 욕망을 키운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로 인한 고통을 위무하듯 허구적 아버지를 만들어 그것으로 기대와 위로로 삼는다.

그러나 긴 기다림 끝에 거렁뱅이로 돌아온 아버지를 보게 된다. 아버지의 귀환에 따른 구토는 더욱 강화될 가부장제의 질서를 거부하는 심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환상적 기대 속의 강건한 아버지와 현실의 비천하고 남루한 아버지와의 거리를 통해서 주인공의 꿈과 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라는 허구적 이념이 무너지게 된다. 환상과 실제의 간극, 혹은 그 옛 갈림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근원적 상실감과 공허감을 의미한다.

이 소설의 서사는 계절에 따른 감나무의 변화와 밀착되어 전개된다. 이것은 주인공의 육체적 성장과 그에 따른 삶의 경험이라는 자연성을 함축한다. '유년의딸' 은 주인공이 여성적 욕망의 깊이, 삶과 죽음, 기대와 좌절을 체험하면서 성 정체성 확인에 이르며 세계 인식에 변화를 나타내는 성장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방민화, '오정희의 '유년의 딸' 연구 : 여성 성장 소설의 관점에서' , "현대 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滿開] 현대소설-외딴 방

요점 정리

작가 : 신경숙

갈래 : 장편 소설, 성장소설

배경 : 1970년대 말, 1990년대 초 농촌, 서울의 공단, 제주도 등

성격 : 자전적, 회상적, 고백적

시점 : 일인칭 주인공 시점

구성 :

발단 : '나'는 제주도에 와서 열여섯 살의 '나'를 회상하며 글로 표현하려 한다.

전개 : 농촌에 살던 '나'는 외사촌과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다닌다.

위기 : 공장에 다니면서 영등포 여고 산업체 특별학교서 공부를 시작하고, 서른일곱 개의 방 중 하나에 살고 있는 희재 언니를 알게 된다.

절정 : 희재 언니는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애인의 말에 충격을 받아 '나'에게 방 자물쇠를 걸어 달라고 부탁한 뒤 자살을 하고, '나'는 죄책감으로 외딴 방을 뛰쳐나온다.

결말 :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된 '나'는 공단 시절 알던 친구로부터 자신들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의식을 일깨운다.

주제 : 성장과정의 회상과 자기 고백을 통한 내면의 성숙

특징 :

- ① 현재와 과거를 병치하여 서술함
- ② 내적 독백 형식으로 서술자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보여 줌

작품 한눈에 보기

'외딴 방'의 의미 : 서른일곱 개의 방 중 하나 / '나'가 큰오빠와 외사촌과 함께 지내야 하는, 외따로 떨어진 좁은 방 / 노동자들의 고된 삶과 아픔을 보여 주는 공간

사진집 속의 '숲 속'의 의미 : 아득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새들이 잠들어 있는 곳 / 평화로운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 / 고단하고 절망적인 삶 속에서 '나'가 꿈꾸는 세상

풍속화의 의미 : 당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 - 시골 출신들이 산업 발전의 역군으로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던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말로, 도시화·산업화로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늘어난 1970년대의 사회상을 보여줌.

이 작품은 열여섯 살의 '나'가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장에서 일하며 산업체 학교를 다녔던 당시의 일들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나'가 살았던 외딴 방은 소녀가 산업화 사회의 공단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체험이 담긴 공간이면서,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외딴 방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희재 언니의 삶을 통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병치시키며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핵심 짚기

내적 독백 ;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등장인물인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소화하기 때문에 다분히 고백적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이 글을 쓰는 현재의 '나'를 일깨워 주며 현재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찰하게 하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띤다.

인물들 사이의 관계 : '기어이 튀어나오고 마는 이름'이라고 하며 희재 언니에 관해 회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나'와 '희재 언니'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반면 서른일곱 개의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야.”

큰오빠[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야간 대학에 다님]는 외사촌['나' 를 다독이며 사진 작가의 꿈을 키우는 인물]과 나[열여섯에 상경하여 큰오빠와 단칸방에 살면서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 학교에 다님]를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여기야, 라고 말하던 큰오빠의 목소리가 그때처럼 지금 내 귀로 흘러든다. 거기였다. 서른일곱 개의 방[여러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집 구조] 중의 하나. 우리들의 외딴 방. 그토록 많은 방을 가진 집들이 앞뒤로 서 있건만, 창문만 열면 전철역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보였다. 구멍가게나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육교 위 또한 늘 사람으로 번잡했었던, 왜 내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방을 생각하면 한없이 외졌다는 생각, 외로운 곳에, 우리들, 거기서 외따로 이 살았다는 생각['외딴 방' 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변함없는 생각 -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홀로 존재하는 공간]이 먼저 드는 것인지. - 방을 구하던 당시의 기억과 외딴 방에 대한 느낌

나는 다시 쓰고 있다['나' 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소설 쓰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함.].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삼 미터 앞,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돗가가 있었다, 고[과거 체험을 소설로 계속 쓰고 있음을 알려 줌.]. 계단 왼편엔 황색 나무 문 두 개, 그 나무 문의 유리창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고. 그 먼지 속에 흰 페인트 글씨로 男·女가 써어 있었다[화장실 표시], 고. 아침이면 서로 멧씩어 하며, 전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탄전 피우며, 그 집 사람들은 수돗가 근처에서 서성거렸다[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들], 고. 서로 그때만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고. 웃지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계단 오른편에서 두 번째 문 …… 희재 언니['나' 에게 방 자물쇠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고 자살하며, '나' 는 자살을 도왔다는 자책감으로 외딴 방을 떠남]는 거기 혼자 살았다, 고. - 서른일곱 개의 방이 있던 집의 풍경을 묘사하며 과거를 더듬으며 소설로 써 나갈

희재 언니…… 기어이 튀어나오고 마는 이름['나' 의 기억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우리는, 희재 언니는 유신 말기 산업 역군[도시화·근대화로 도시의 공장 노동자가 늘어난 1970년대의 시대 상황 반영]의 풍속화. 성이 무엇이었던가. 김홍도의 풍속화첩[대부분 서민들의 생업을 다루었음]을 본다. 김홍도가 길거리나 나무터, 서당이나 주막이나 씨름판이나 빨래터를 향해 앉아 한번 붓을 쳐들기만 하면 그 시절 사람들은 그의 화폭 속에서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그려져서 신기하다.['희재 언니' 라는 인물은 공단 근로자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김홍도의 풍속화와 유사한 성격을 띠] 어떻게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랴, 하며 손뼉을 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데, 그[김홍도]는 희재 언니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풍속화 속의 인물들은 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포착되었지만 희재 언니는 희미한 웃음[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웃음]으로, 포착될 것이다. 고구려의 풍속화를 생각해 본다. 고분 벽화며 수렵도, 전투도, 무용도, 투기도, 곡예도를, 그리고 방앗간과 푸줏간과 외양간과 마구간을.

우리는, 희재 언니는, 동적인 분위기와 힘찬 필치 속에 놓이지 못한다[힘이 없고 정적인 인상이었음을 강조함]. 우리는, 희재 언니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conveyor]앞이나 언젠나 실이 꿰어져 있는 미싱(machine) 바늘 앞에서 동글넓적하다거나 동글동글한 눈매 대신 피로한 눈매[힘겨운 노동에 지쳐 있음]로, 해학의 흥겨움이 물씬 났 구수하고 정감이 넘치는 생활 감정 대신, 겨우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햇볕을 쬐는 창백한 그늘로[가난과 절망적인 삶 상징], 존재할 것이다. 복식사 속에서는 뒤에 주름이 잡힌 푸른 작업복을 입고서.[공장에서 일하는 고단하고 힘겨운 희재 언니의 모습을 묘사함] - 당시 희재 언니에 대한 느낌

참을 수 없어서서[과거 기억이 주는 고단하고 힘겨운 희재 언니의 모습을 묘사함] 나, 일어난다.

봐라, 나는 도망친다. 도망치는 나를 내가 붙잡는다[고통을 극복하고자 계속 글을 쓰게 하기

위함 / '나' 와 '내' 는 두 자아. 앓아 봐, 더는 도망을 못 가. 그때나 지금이나[피하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 그리고 언제까지나, 앉으라구.[자신의 말문을 튀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자 함]

풍속화 속의 고독의 날들 속에서 내가 자주 힘겹게 떠올린 건 도시로 나오던 그날 밤, 외사촌이 보여 준 사진집 속의, 아득한 밤하늘 아래, 별을 향해 높고 아름답게 잠든 새[삶의 고단함 속에서 가지던 희망]들이었다. 나, 그들을 내 눈으로 보려 갈 날이 있을 것임을 힘겹게 나에게 기약하며 그 풍속화 속에서의 나날들을 살아 내곤 했다. 훗날, 살아가는 피로와 관계의 부재[사회적 인간관계가 없이 고독했음] 속에 처절하게 외로워졌을 때도, 그날 밤 외사촌이 들고 있던 화보[외롭고 고독한 현실과는 상반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함] 속의 새들, 백로들, 숲속[평화로운 세계]에, 밤이 온 숲 속에,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한 듯, 서로 울망졸망 기대어 숲을 아름다이 잠으로 뒤덮고 있던 백로들의 무리를 내 눈으로 보려 가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나, 언젠가, 기차의 창틀에 팔을 흔들거리며, 눈앞을 가로막는 능선을 넘어서 가리라고, 절망과 고독의 날일수록 남몰래 나에게 기약하였다. - 삶의 피로와 고독 속에서 가졌던 꿈들

- 신경숙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소설-남영부주치

📌요점 정리

- 작가 : 김시습
- 연대 : 조선 전기
- 갈래 : 한문 소설
- 성격 : 전기적, 괴기적, 환상적, 비판적
- 사상적 특징 : 불교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올바르지 못한 길이나 사악한 도리로 보나 사도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며, 최종의 목적은 정도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보며, 불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유불조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 구조 : 몽유 구조(현실 - 꿈 - 현실) - 액자식 구성

현실	꿈	현실
박생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과거에 계속 낙방함	꿈속에서 염부주왕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염부주왕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함	꿈에서 깬 박생이 가사를 정리하고 죽은 후 염부주의 왕이 됨

- 제재 : 박생과 염부주왕의 대화
- 주제 : 선비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 자세와 당대의 현실 비판
- 줄거리 : 경주에 사는 박생(朴生)은 유학(儒學)으로 대성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과거에 실패하여 불쾌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뜻이 높고 강직하고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 그는 귀신·무당·불교 등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유교경전을 읽고, 세상의 이치는 하나뿐이라는 내용의 철학논문인 <일리론(一理論)>을 쓰면서 자신의 뜻을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어느날 꿈에 박생은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炎浮洲)라는 별세계에 이르러 염왕(閔王)과 사상적인 담론을 벌였다. 유교·불교·미신·우주·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문답을 통하여 염왕과 의견일치에 이름으로써, 자신의 지식이 타당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염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위문(禪位文)을 내려주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다. 꿈을 깬 박생은 가사를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었다. 그는 의원과 무당을 불러 병을 고치지 않고 조용히 죽었다.
- 특징 : 귀신, 명부, 염라국 등의 비현실적 세계를 다룸

📌내용 연구

[박생이 꿈에 남영부주에 도착하여 왕에게 인도되어 현실 세계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부분으로 작가의 이념이나 사상이 드러남]

박생[우리나라 사람이 주인공임]이 이러한 책을 저술한 뒤에 하루는 자기 방에 앉아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다가 베개를 베고 잠깐 졸다가 꿈[꿈을 통해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한다. 이것은 현실적 부조리와 모순을 자각하면서도 현실의 속박, 봉건적 사회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적 한계를 암시하는 말 / 박생이 비현실적 세계로 나아가는 장치 / 군왕 통치하의 봉건적 사회하에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군주의 도리 등을 꿈속 비현실계의 일로 만들어 발언하고 있는 것]에 한 나라에 이르더니[꿈을 통해 염부주에 이름] 창망(滄茫)한[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바다 가운데의 한 섬이었다[이 작품의 배경은 염라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염라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곳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 없고, 오직 진리, 진실만이 통한다. 작가는 염라국을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곳에서의 박생과 염부주왕의 대화가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곳에는 초목도 모래도 없고, 밟고 가는 것이 구리쇠가 아니면 쇠였다. 대낮에는 불길 이 하늘을 뚫을 지경이어서 대지가 다 녹아 없어지는 듯하고, 밤이면 처참한 바람이 서쪽으로 부터 불어 와서 사람의 살과 뼈를 에우는 듯하였다[낮은 매우 덥고, 밤엔 매우 추움]. 또한 쇠로 된 벼랑이 마치 성벽과 같이 되어 있어서 해변에 연이었고 한 개의 철문이 있어 굉장한데 그 자물쇠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문을 지키는 자는 꼴이 영악[성질이 영악하고 간특하다]하기 그지없고 창과 철퇴를 가져 외적을 방어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백성들은 쇠로써 집을 지었는데 낮에는 더워 죽을 지경이며, 밤이면 얼어 죽게 마련이었다. - 박생이 꿈속에서 염부주에 도착함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박생은 크게 놀라 주저하는데[매우 처참한 광경이었으므로 머뭇거리거나 망설임] 문지기가 부르는지라 당황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수문장은 창을 세우고 박생에게 묻되,

“그대는 어떤 사람이요?” [수문장은 박생이 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

박생은 두려움에 떨면서 대답하기를,

“아무 나라 아무 땅에 사는 한낱 유생에 불과하오니 영관(靈官)[선관, 곧 선경의 관원을 일컬음]께서는 널리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엎드려 절하며 두 번 세 번 빌자 수문장이 말하기를,

“유생이란 본시 위엄 앞에서도 마땅히 굴하지 않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굽힘이 이와 같은뇨? 우리들은 이치를 아는 유생을 만나고자 한 지 오래였으며[박생과 염부주의 왕이 대화를 나누는 계기를 제시] 우리의 국왕께서도 그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할 말을 동방에 전하고자 하던 터였소. 조금만 기다리고 앉아 계시오. 국왕께 장차[앞으로, 미래에] 고하여 뵈게 해 드리리다.”

말이 끝나자 어디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 나와서 말하기를,

“국왕께서 당신을 편전(便殿)[예전에,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던 궁전]에서 맞이하려 하오니, 당신은 마땅히 위엄에 공포를 느끼지 말고 정직한 말로 대답하되 이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견도록 하여 주기 바라오.”

말이 끝나자 흑의와 백의를 입은 두 동자가 손에 두 권의 문권[문서]을 가지고 왔는데 동자가 그 책을 박생의 좌우에 펴놓아 보이는데 그의 성명은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현재 아무 나라의 박 아무개는 전생에 죄가 없으니 이 나라의 백성됨에 마땅치 않다.[박생은 죄가 없으므로 염부주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제시하고 박생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갈 것을 암시] - 박생이 염부주의 왕을 만남

박생이 머리를 들어 바라보니 앞에 철성(鐵城)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궁궐이 드높기 한이 없는데 금산의 아래에 있으며 불꽃이 충천[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름]하여 무섭게 타고르고 있었다. 길옆에 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그 불꽃 가운데서 구리쇠와 쇠를 밟고 다니는데 마치 진흙을 밟고 다니는 것과 흡사하였다. 그 나라의 왕성이 이르니 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못과 다락과 대가 한결같이 인간 세계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데 아름다운 두 아가씨가 나와 절하며 손을 맞잡아 인도하여 들어가니 왕이 통천관(通天冠)[임금이 조칙(詔勅)을 내리거나 정무(政務)를 볼 때 쓰던 관.]을 쓰고 문옥대(文玉帶)[문채 나는 옥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뜰아래에 내려와 맞이하니 박생은 황급히 엎드려 능히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중략>

박생이 또 물었다.[염왕과 박생의 대화는 작가의 정치관, 사회관을 피력하고, 작가의 이상적 사상을 표출하기 위함]

“왕께서는 어떤 연고로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시며 임금이 되셨나이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왕께 충성을 다하여 발분하여 도적을 없애며 맹세하기를 죽어서라도 마땅히 여귀(廬鬼)[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 못된 돌림병으로 죽은 귀신.]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나머지 원을 다하지 아니하고 충이 없어지지 아니한 까닭으로 이 나쁜 나라에 의탁하여 군장이 되었소[스스로 원하여 염부주의 왕이 됨]. 이제 여기 살면서 나를 우러러 좇는 자는 다 전세 인간에서 흉악의 무리가 여기에 태어나 나의 절제함을 받게 된 것이오. 그릇된 마음을 고치고자 함인데, 그러므로 내 정직을 지키며 사리사욕[개인의 이익과 욕심, 사리사복]을 청산하지 못하고는[왕이 지킬 도리], 아무도 이 땅의 군주가 되지 못할 것이오. 내 일찍 들으며 선생의 정직 불굴하는 성격은 천고의 달인[널리 사물의 도리에 통한 사람]이라[박생에 대한 염왕의 평가], 그러나 선생의 높은 뜻은 세상에 편한 바 없으니 마치 형산(荊山)의 백옥[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인 변화가 형산에서 옥덩이를 얻었는데, 매우 값진 옥이라고 함]이 티끌에 묻혀 있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빠진 것 같아 만일 슬기 있는 공장(工匠)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지극한 보배임을 알아주겠소. 이 어찌 아까웁지 아니하랴[박생에 대한 심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냄]. 내 또한 이제 시운이 다하여 이 자리를 떠나야 할 판이오. 선생도 명수가 끝난 것 같으니 이 나라의 백성을 맡아 주실 분은 선생이 아니고 누구라 하겠소[박생의 운명을 암시함].”

염마는 말을 마치자 크게 잔치를 베풀어 즐길 새 삼한 흥망의 잔치를 열기도 하거늘 박생이 일일이 얘기하다가 고려의 건군[고려의 왕건을 말하고, 고려와 같이 그 이전의 사례만을 언급함]에 얘기가 미치자 염마는 수차 감탄하여 마지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나라를 맡은 이는 폭력으로써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덕이 없이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명령은 엄한 것이요, 그리고 대체 국가는 백성의 것이요, 명이란 하늘이 정하니 천명이 가 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비록 몸을 보존코저 한들 어찌 될 수 있겠소.” [민심이 중요함 - 박성의 발언에서 당시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엿볼 수 있음] 박성은 다시 역대 제왕이 이도(異道)[서로 다른 길이나 여기서는 불도를 말함]를 믿다가 재앙을 입은 얘기를 하며 염왕은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백성들이 기쁘게 노래 부르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자연 재해]가 이르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일에 삼갈 것을 암시함이고, 인민이 원망하되 상서로운 일이 나타남은 임금으로 하여금 더 교만하고 방종케 함이니, 역대 제왕이 재앙을 입을 때 그 인민들은 안락하였소, 원망하였소?”

“그것은 간신이 벌떼처럼 봉기하여 큰 난리가 일어나되 임금은 인민을 놀려 정치를 하게 되었으니 인민이 어찌 안락[매우 평안하고 즐거움, 괴로움이 없음.]할 수가 있었으리까?” [당대의 현실 비판하는 것으로 당시 세조의 집권에 반대한 작가의 생각을 박성의 입을 통해 말함]

“아마 선생의 말이 옳소이다!” (하락)

- 앙양불락(怏怏不樂) : 우울하여 불쾌한 마음, 매우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야속하게 여겨 즐거워하지 아니함.
- 편전 : 임금이 휴식하고 연회를 여는 별전
- 연좌 : 연꽃을 그린 불좌
- 파리채 : 말꼬리, 얼룩소 꼬리털을 묶어 자루를 단 것으로 던져 장애를 물리치는 표지로 씀.
- 통천관 : 고대 임금이 거동할 때 쓰는 관
- 문옥대 : 임금이 매는 띠 이름
- 창힐 : 한제 때 사관
- 구담 : 성도하기 전의 석가모니
- 황탄 : 언행이 허황함
- 양능 :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
- 육신 : 풍백, 우사, 영성, 선농, 사지
- 울결 : 억울하게 맺혀서 풀리지 않는 것
- 명부십왕 : 염라 지장 등 십왕이 있다는 불가의 말
- 십팔옥 : 담 밑에 18개의 지옥이 있다함
- 삼대 : 하, 은, 주 세 나라
- 육국 : 춘추 전국시대의 초, 제, 연, 한, 위, 조 여섯 나라
- 복전 : 불가의 말에 경전 사전에 비전이 있음
- 극락 정토 : 부처님이 있는 곳
- 오전 : 부의, 모자, 형우, 제공의 자호
- 삼강 : 군신, 부자, 부부
- 달인 : 사리에 통달한 사람
- 선위문 : 왕위를 선양하는 선언문
- 야차 : 사물의 가장 추악한 종류
- 나찰 :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괴물
- 이매망양 : 온갖 도깨비 귀신
- 한약 : 성질이 사납고 악함
- 염라왕 : 지옥을 맡은 신관 시왕의 하나로 염라와 같음

이해와 감상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 찬탈에 통분하여 경주(慶州) 금오산(金鰲山)에 은거할 때 만든 작품으로, 조선 전기에 김시습(金時習)이 지은 한문소설로 목판본이 있고, 작자의 단편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있다.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은 일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몽유구조의 소설로서, 작자의 철학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 나타난 염부주(炎浮洲:염라국)와 염왕은 작자가 자신의 사상이 타당한 것임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매개로 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된 사상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이다.

첫째는 유교가 불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유교사상은 주인공의 기본사상이자 작자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불교의 미신적 타락상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둘째는 세계에는 현실세계만 존재할 뿐 천당·지옥·저승 같은 별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따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라서 세상의 이치도 하나일 뿐이라는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다. 즉, 미신적·신비주의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현실적·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폭력과 억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 대하여, 백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경고하는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남염부주지 〉 는 이같은 사상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상에 투철한 유능한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릇된 세상을 은연중 비판하고 있다. 작자의 깊은 사상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나 사상을 밀도 짙게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작자는 이 작품에서 박생과 염라왕의 문답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상을 표출하였다. 첫째, 작자는 염라왕의 입을 통해 유교를 정도로 보고, 불교를 사도로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교의 필요성으로 유불조화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복 불교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공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불교에 내세설에 대해서 염라왕은 유교적인 음양이론에 의하여 불교의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염라왕은 귀신을 음양이기의 조화로 보고, 부질없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미신이라 하여 경계하였다. 네 번째로 정치관에 대해서는 왕도와 패도의 차이를 말하며 왕도를 고취하고 패도를 배격하고는, 고금의 여러 왕들의 치란의 자취를 들어 말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이상의 유교관, 불교관, 정치관 등으로 작자는 전등신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염부주지'가 현존하는 금오신화 다섯 작품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 되는데 '생육신문집'에서는 이 작품을 소설지제일야(소설에서는 가장 으뜸)이라고 평하고 있다.



●작가의 대변자인 주인공 '박생'과 '염부주왕'과 대화에 나타난 '임금의 도리'가의 대

박생	청렴, 강직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함	작가(김시습)
	염부주의 왕이 됨	현실의 불의를 다스리고 싶은 의지	

이 작품에서 박생은 김시습의 대변자로 작가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박생과 염부주는 유교, 불교의 사상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군주에 대한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설정된 박생의 모습은 당시 세조의 집권에 반대하는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품 속에서 박생이 죽은 후 박생에게 죄인을 심판하는 염부주왕의 직책을 맡기는 것은 천명과 민심에서 어긋난 현실의 불의를 저승에서나마 다스려 보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박생은 염부주왕과 임금의 도리를 논하는 부분에서 '백성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말 것'과 '민심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덕으로써만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박생의 발언에서 당시 폭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滿開] 고전소설-사씨남정기

요점 정리

- 지은이 : 김만중
- 연대 : 숙종 15 ~ 18년 간
- 갈래 : 국문 소설, 가정 소설, 풍간(諷諫 : 완곡한 표현으로 잘못을 고치도록 말함)소설
- 배경 : 중국 명나라 초기, 중국 북경 금릉 순천부
- 문체 : 문어체, 역어체(원본) 현대어 풀이 본문은 산문체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추보식 구성

발단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희는 늦게야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는 열다섯 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 학사를 제수받는다.
전개	유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한다. 그러나 사씨가 9년이 되도록 출산을 못하자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의하여 교씨를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한 여자로 아들을 낳자 사씨를 내쫓고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 남편에게 사씨를 참소한다.
위기	교씨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죄를 사씨에게 뒤집어 씌우자 유한림은 사씨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맞이한다.
절정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한림을 천자에게 참소하여 유배시키고 지방관이 된 동청과 함께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그 때 조정은 유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결말	정배에서 풀려난 유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씨를 찾아 전죄를 사과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 제재 : 처첩간의 갈등
- 주제 : 처첩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과 권선징악
- 인물 :

사씨 -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곱고 착한 여인의 전형.

교씨 - 위선적이며 교활하고 표독스런 악인의 전형.

유연수 - 판단력이 없고, 양반사대부가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봉건적 사고방식을 지닌 전형적 인물이나 본성은 착하다.

동청 - 교씨의 정부(情夫)로써 악인의 전형

엄승 - 유한림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서는 간신.

	역사적 사실	사씨남정기
인물	숙종	유연수
	인현왕후 - 아들 없음	사 씨 아들 - 아들 인아
	희빈장씨 - 아들 군(경종)	교 씨 아들 - 아들 장주
사건 전개	희빈 장씨의 무고 - 인현 왕후 폐위 - 인현 왕후 복위	교 씨의 모해 - 사 씨 추방 - 사 씨 복권

- 특징 :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전체적으로 추보식 구성이나 부분적으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했고, 숙종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 소설임.
- 의의 : 후대 가정소설의 모범이 된 작품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가 축첩 제도의 불합리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한 가정소설로 선악의 인물 대립관계로 작품이 이루어졌고,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하여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출전 : '해재신해계동유동찰판(海在辛亥季冬由洞札板)'을 근거로 현대어 풀이
- 줄거리 :
'사씨남정기'는 양반사대부 가문인 유한림의 가정과 서로 다른 양반사대부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는 사정옥과 교채란 사이의 갈등을 통해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동시에 양반가정의 추악한 내막을 드러내고 있다.
구성은 '성혼', '요망한 첩', '간악한 문객', '가화', '남정', '가운회복' 등 제목을 단 몇 개의 장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야기줄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소설의 앞부분은 '성훈'부터 '가화'까지이다.

금릉 순천부의 명 가문에 한림 학사 유연수와 아내 사정옥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 10년이 지났어도 둘 사이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씨는 어느 날 남편에게 첩을 맞아들일 것을 간청한다. 유한림이

"어찌 일시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여 첩을 얻겠소.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법인데, 부인은 왜 화를 자청하시오? 천부당만부당하니 그런 생각 마시오."

라고 반대하지만 사씨는 끝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교채란이 첩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제 스스로 늘 말하기를,

"가난한 집 선비의 아내가 되느니보다는 공후 부귀가의 첩이 되는 것이 좋다."

고 말해온 여인이다. 이때 교씨의 나이는 이팔청춘이었으나 성품이 교활하여 유한림의 비위를 잘 맞춰주었고 사씨를 섬기는 것도 극진해 보였다. 유씨 가문엔 전에 없던 기쁨과 화기가 떠도는 듯하였다. 사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유한림도 이제 자식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피상적인 것이었다. 교씨는 유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노래와 탄금(彈琴)으로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한편, 동청이라는 한량을 끌어들여 그와 함께 남몰래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흥계를 꾸미다 마침내 자기 소생인 장지까지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덮어씌운다. 간계에 속은 유한림은 십 년 세월 함께 살아온 사씨를

"천지간에 용납 못할 죄를 저지른 음부, 방자하고 음흉한……"

운운(云云)하면서 집에서 내쫓는다. 이때부터 서글프고 괴로운 사씨의 '남정'이 시작된다.

소설의 뒷부분은 '남정'부터 '가운회복'까지이다.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시부모 선산에서 초가집을 얻어 여생을 마치려 한다. 그러나 행방을 알 아낸 교씨는 동청과 함께 또다시 흥계를 꾸며 냉진이라는 사나이를 보내어 사씨의 절개를 꺾으려 하지만 사씨가 먼저 떠났기에 실패로 돌아간다. 한편 유한림도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교씨와 동청의 모함으로 간신 엄승의 손을 빌려 '입금을 기롱한' 죄로 귀양가게 된다. 유씨가문은 마침내 파산몰락의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곧 황제의 은사령으로 유한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모함한 원수들의 행차와 마주친다. 이를 안 교씨와 동청은

"그놈이 죽어 타향 귀신이 될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만일 다시 득의(得意)한다면 우리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건장한 관졸 수십 명을 뽑아 유한림의 목을 베어오면 천금의 상을 주겠노라고 한다. 쫓기던 유한림은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쪽배 한 척을 발견하고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그 배에는 소복 단장한 부인이 그를 맞이하는데 그녀는 바로 사씨였다. 이 무렵 조정에선 전횡을 일삼던 엄승상이 처형되고 동청과 냉진도 차례로 처단된다. 교씨는 낙양땅에 도망쳐서 창루의 창기로 타락한다. 예부상서로 복위된 유연수는 사씨부인을 데리고 서울로 가던 중에 교씨를 만나 그녀를 처단한다.

전반부는 유연수 가문 내에서의 갈등을 주로 다루었고 후반부는 조정에서의 정치적인 사건의 해결을 주로 다루었다. 임진왜란 이후 양반사대부들 내에서 첩을 맞아들이는 일이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서 그것이 빚어내는 악덕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착한 것은 승리하고 악한 것은 망한다는 궁극적인 도덕윤리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아주 간단하게 작품 줄거리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중국 명(明)나라 때 유현(劉炫)의 아들 연수(延壽)는 15세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유한림은 그 후 숙덕(淑德)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씨(謝氏)와 혼인하였으나, 9년이 지나도록 소생이 없자 교씨(喬氏)를 후실로 맞아들인다. 그러나 간악하고 시기심이 많은 교씨는 간계로써 사씨부인을 모함하여 그녀를 폐출시키고 자기가 정실이 된다. 그 후 교씨는 간부(姦夫)와 밀통하며 남편인 유한림을 조정에 모함하여 유배 보내게 한 다음 재산을 가지고 간부와 도망치다가 도둑을 만나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궁지에 빠진다. 한편 유한림은 혐의가 풀려 배소에서 풀려나와 방향하는 사씨를 찾아 다시 맞아들이고 교씨와 간부를 잡아 처형한다.

• 창작 동기

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궁녀가 이 작품을 숙종에게 읽도록 하여 숙종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의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중국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 의식을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교씨의 모함	사씨의 추방	사씨의 복권
장희빈의 무고	인현왕후의 폐위	인현왕후의 복위

내용 연구

〈앞 부분 줄거리〉 한림 학사 유연수와 아내 사정옥은 결혼 후 9년이 지났어도 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씨는 남편에게 첩을 맞아들일 것을 간청한다. 마침내 교씨가 첩으로 들어온다. 성품이 교활한 교씨는 유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림을 유혹하는 한편, 동청이라는 한량을 끌어들이어 갖가지 흥계를 꾸민다. 교씨는 마침내 자기 소생인 아들까지 죽이고 그 죄를 사씨에게 덮어씌운다.

이튿날 한림이 일가친척(一家親戚)을 모두 청해[불러] 놓고 사씨의 전후 죄상(罪狀)을 이르고 기어코 쫓아낼 것을 말하니, 모든 사람이 본디 사씨의 친절함을 알고 모두 한림의 망령(妄靈)임을 짐작하니[일가친척들은 사씨를 쫓아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음] 모두 한림에게 먼 일가 아니면 손아래 사람이라 뉘 즐거이 고집을 부려서 한림의 뜻[사씨를 쫓아내는 것]을 거스르리오. 그래서 모두 가로되,

“이는 한림의 생각대로 처리할 것이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겠노라.”

하니 한림이 이에 비복(婢僕 : 계집종과 사내종)을 분부하여 향촉(香燭 : 제사나 불공 드릴 때 쓰는 향과 초)을 갖추어 가묘(家廟)에 분향(焚香) 배례(拜禮)하고[집의 사당에 향을 피우고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사씨의 죄상을 고할 새 그 글에 하였으니,

“유세차(維歲次) 모년 모월 모일에 효손 한림학사 연수는 삼가 글월을 증조고(曾祖考) 문헌각 태학사(太學士) 문충공부군 증조비 부인 호씨, 조고 태상경 이부상서(太常卿 吏部尙書)부군 조비 부인 정씨, 현고(顯考) 태자소사 예부상서(禮部尙書) 성형공부군 현비 부인 최씨의 신위(神位)에 밝게 고하나이다. 부부는 오륜(五倫)의 하나요 만복의 근원이라. 나라에서 이로써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바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오리까. 슬프다, 저 사씨 처음 가문에 들어오매 숙덕(淑德)이 예법에 있어 어김이 없더니,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지 못하여 혹시 불미한 일이 있으나 대체를 돌아보아 꾸짖지 않고 또 삼년 초토(草土)를 한가지로 받들었으므로 출부(黜婦)치 않으며, 갈수록 음흉하여 모병(母病)을 칭탁(稱託 : 어떠한다고 핑계를 댐)하고 본가(本家)에 가서 추행이 탄로하였으나 가문에 욕될까 하여 사실을 감추고 집안에 머물어 두었더니, 스스로 후회치 않고 그 죄 칠거(七去 : 아내를 내쫓는 이유의 일곱 가지 허물. 곧,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에 대하니 조종 신령이 흠향(歆饗 :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음)치 아니하실 바니 향화(香火)가 끊어질까 저어[걱정]하여 부득이 출거(黜去)하고, 소첩 교씨는 비록 육례(六禮 : 혼인의 대례. 곧, 납채(納采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례)·문명(問名 : 혼인을 정한 여자의 장래 운수를 점칠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물음)·납길(納吉 : 신랑 집에서 혼인날을 받아 신부 집에 알리는 일)·납폐(納幣 :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일. 또는 그 예물로 흔히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으로 함)·청기(請期 : 혼인할 때에 신랑집에서 택일을 하여 그 가부(可否)를 묻는 편지를 신부 집으로 보내는 일)·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친히 맞음)]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실로 명가 자손이고 백행이 구비하여 조종의 제사를 받들지 하온지라 교씨를 봉하여 정실(正室)을 삼나이다.”

하였더라. 읽기를 다하며 시비로 하여금 사씨를 이끌어 조종(祖宗 : 시조가 되는 조상)의 영위(靈位 : 상가(喪家)에서 모시는 혼백이나 신위(神位), 위패.)에 나아가 사배(四拜) 하직할 새, 사씨 눈물이 비 오듯 하니 모든 일가들이 문 밖에서 절하고 이별하며 모두 눈물을 흘리더라. [사씨가 죄를 뒤집어 쓰고 집을 떠나게 됨]<중략>

이 때 집안 시비들이 교씨를 붙들어 가묘에 분향할 새,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에 다홍 치마. 곧, 젊은 여자의 곱게 치장한 옷차림.)에 옥패(玉佩 : 옥으로 만든 패물) 소리 쟁쟁하니 천상 선녀 같은지라. 예를 마치고 집안 비복에게 하례(賀禮 : 축하하는 예식)하는 인사를 받을 새 교씨 말하되,

“내 오늘부터 새로 집안일을 다스릴 터이니, 너희들은 다 각각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시비 등이 영(令)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니라. 이 때 비복 등 팔구 인이 모여서 교씨에게 말하여 가로되,

“사 부인이 비록 쫓겨났으나 여러 해 섬기던 바에 자못 은혜 중한지라, 부인이 허하시면 소복(小僕) 등이 한번 나아가 이별코자 하나이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교씨 가로되,

“이는 너희들의 정의(情義 : 인정과 의리)라 어찌 막으리오.”

모든 시비가 일제히 사씨를 따라가 통곡하니, 사씨 교자를 멈추고 가로되,

“너희들이 이같이 와서 나를 전송하니 감사하도다. 너희들은 힘써 새 부인[교씨]을 섬기며 고인(故人 : 사씨)을 잊지 말라.” [사씨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음]

비복 등이 눈물을 흘리고 절하며 작별하니라.

이 때 사씨 가마꾼에게 분부하여 시부모의 산소 아래로 향하라 하니, 가마꾼이 이를 듣고 유씨의 선영 아래 이르니라.

사씨 이에 수간 초옥(數間草屋 :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草家))을 얻어 거처할 새, 부모와 죽은 시부모를 생각하며 처량한 신세를 슬퍼하여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라. <중략>

이 때에 교군(驍軍 : 가마꾼) 등이 돌아가 사씨가 유 상공[한림의 아버지]의 묘하(墓下)로 감을 고하니, 교씨 생각하되,

‘제 신성현[사씨의 본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유씨 묘하에 있음은 반드시 출부(黜婦 : 시집으로부터 쫓겨난 여자)로 자처함이 아니라.’

하고 이에 한림에게 말하되,

“사씨 더러운 이름으로 종조(宗祖 : 조상)에게 득죄하였거늘 감히 유씨 묘하에 있으리오.” [판단력이 부족함]

한림이 잠자코 있다가 가로되,

“제 이미 출부된 바에 거취를 제 뜻대로 할지라. 하물며 묘하에 타인도 많이 사나니 저를 금하여 무엇하리오?”

하니 교씨 마음에 거리끼나 감히 어떻게 못 하더라.

하루는 교씨 동청(董淸 : 교씨의 정부로 악인의 전형)을 보고 의논하니, 청이 가로되,

“사씨 유씨 묘하에 있고 본가(本家)로 가지 아니함은 네 가지 까닭이 있으니, 첫째는 전일에 옥지환 일을 발명(發明)코자 함이요[죄나 잘못이 없음을 밝히고자], 둘째는 유가(儒家)의 자부(子婦 : 며느리)로 자처하여 후일을 바램이요, 셋째는 유가 종족에게 인정을 끼쳐 후일 도움이 되게 함이요, 넷째는 한림이 춘추(春秋)로 묘하에 다니니, 사씨 심산궁곡(深山窮谷 :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에서 무궁한 고초(苦楚 : 고난)를 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비록 철석(鐵石)이라도[쇠와 돌처럼 굳고 단단할지라도] 전일(前日)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이 어찌 동(動)치 아니하랴.”

교씨 가로되,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죽임이 쾌(快)하리로다.” - 동청과 의논하여 사씨를 죽이려함

◆ 이해와 감상

사씨 남정기는 즉, 작중인물 중의 사씨부인은 인현왕후를, 유한림은 숙종을, 요첩(妖妾) 교씨는 장희빈을 각각 대비시킨 것으로, 궁녀가 이 작품을 숙종에게 읽도록 하여 회오시키고 인현왕후 민씨(閔氏)를 복위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일부 다처주의 가정 속에서의 처첩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루고 있어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며, 즉 교씨와 동청 등 음모자들의 활약과 적나라한 욕망의 표출,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정실 부인,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시비들의 역할 등이 후대 가정 소설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후대의 여성 독자층의 요구와 기호에 맞추어 처첩간의 갈등, 축첩으로 인한 가정 내 비극이 얽혀 장편 대하 소설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특히 숙종 때 장희빈(張禧嬪)사건과 유사하여,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정비(正妃)로 세운 것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제기된 이러한 지적으로 말미암아 목적 소설의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실상 인현 왕후 폐비 사건에 김만중 집안은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숙종의 첫 왕비가 김만중의 형 김만기의 딸이었고, 조카딸 왕비가 죽은 뒤 인현 왕후가 왕비가 된 이후 계속 인현왕후 편에 서 있었던 것이다. 김만중은 처음 장희빈이 세력을 얻을 때 숙종에 간하다가 선천으로 유배되어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김만중의 증손자인 김춘택은 인현 왕후의 복위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작품 내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양한 묘사를 통해 인간의 성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많은 시비들과 창두, 유모 그리고 배장사꾼 등이 교씨, 동청, 냉진을 '하늘 땅에 용납 못할' 사람으로 증오하고 사씨부인의 비극적 운명을 동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민중들의 도덕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씨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하고 만다는 결말 처리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유연수는 가장으로서 언뜻 보기에는 학식이 있고 사리에 밝은 사람으로 조정에서는 간신 엄승상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수신제가 못 이룬 무능한 양반관료에 불과하다. 그는 교씨의 흥계에 속아 사씨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똑같은 궁한 처지에 빠진다. 눈여겨 볼만한 인물로 유한림의 고모인 두 부인이 있다. 그녀는 유씨 가정의 어른으로서 오랜 생활체험을 통해 축첩제도의 불합리성을 깨달은 인물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씨가 자진해서 첩을 맞아들인다고 했을 때,

"속담에 이르기를 한 말에 두 안장이 없고 한 밥 그릇에 두 손가락이 없다 하더라, 지금 시속이 예전과 다르고, 성인이 아닌 범인으로서 어찌 투기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하라. 공연히 옛날의 미명(美名)을 사모하여 화근의 씨를 뿌리지 않도록 함이 좋다."

고 타이른다. 이러한 인물의 설정은 작가가 축첩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씨남정기》는 특히 교씨, 동청, 냉진 등 부정적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에서 매우 사실주의적이다. 동청과 냉진은 전형적인 악인이다. 그들은 모두 양반가의 자손들로 주색과 사기, 모략과 야부를 일삼는 패륜아들이다. 그들은 교씨와 한 짝이 되어 음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이들을 간신 엄승상과 연계시켜 놓고 그들의 성격을 사회관계 속에서 밝히고 있다.

작품은 또한 까다로운 한문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하여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우리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권선징악적 관념과 봉건적인 각도에서 사씨부인의 성격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묘사한 한계를 갖고 있다. 사씨는 양반가문에서 자라났고 유씨 가문에 시집온 후에도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규범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인이다. 그녀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진해서 첩을 맞아들이는 것, 누명을 뒤집어쓰고 유씨 가문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남편의 선산에 가서 살려는 것 등이 다 '착하고 현숙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그녀의 이러한 판단과 처신은 유교적인 삼종지의(三從之義)를 따르는 것으로 작가 자신의 가치관이 봉건적 도덕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한계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씨남정기'에 대한 후대의 논평

서포는 속언(俗言)으로 많은 소설을 지었다. 그 가운데 '남정기'라 하는 것은 할 일없이 지은 작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패관 소설은 황탄하지 않으면 경박하고 화려한데, 백성의 도리를 돈독히 하고 세교(世教)에 도움이 되게 할 만한 것은 오직 '남정기'뿐이다. -김춘택의<북헌집>에서-

심화 자료

●김만중(金萬重)

1637(인조 15) ~ 1692(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 · 소설가. 본관은 광산(光山). 아명은 선생(船生), 자는 중숙(重淑),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조선조 예학(禮學)의 대가인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다. 충렬공(忠烈公) 익겸(益謙)의 유복자이다.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만기(萬基)의 아우로 숙종의 초비(初妃)인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숙부이다. 그의 어머니는 해남부원군(海南府院君) 윤두수(尹斗壽)의 4대손이다. 영의정을 지낸 문익공(文翼公) 방(昉)의 증손녀이고, 이조참판 지(玆)의 딸인 해평윤씨이다.

[생애]

김만중은 어머니의 남다른 가정교육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아버지 익겸은 일찍이 정축호란(1637) 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형 만기와 함께 어머니 윤씨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윤씨부인은 본래 가학(家學)이 있어 두 형제들이 아비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한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궁색한 살림 중에도 자식들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입함에 값의 고하를 묻지 않았다. 또 이웃에 사는 흥문관서리를 통해 책을 빌려내어 손수 등사하여 교본을 만들기도 하였다.

《소학》 · 《사략 史略》 · 《당률 唐律》 등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다. 연원 있는 부모의 가통(家統)과 어머니 윤씨의 희생적 가르침은 훗날 그의 생애와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만중은 그는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훈도를 받고 14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6세에 진사에 일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뒤 1665년(현종 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관료로 발을 디디기 시작하였다. 1666년에 정언(正言), 1667년 지평(持平) · 수찬(修撰)을 역임하였다.

1668년에는 경서교정관(經書校正官) · 교리(校理)가 되었다. 1671년에는 암행어사로 신정(

申晷) · 이계(李穡) · 조위봉(趙威鳳) 등과 함께 경기 및 삼남지방의 진정득실(賑政得失)을 조사하기 위해 분견(分遣)된 뒤에 돌아와 부교리가 되었다. 1674년까지 헌납 · 부수찬 · 교리 등을 지냈다.

1675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있을 때에 인선대비(仁宣大妃)의 상복문제로 서인이 패배하자 관작을 삭탈당했다. 30대의 득의의 시절이 점차 수난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에 그의 형 만기도 2품직에 올라 있었고 그의 질녀는 세자빈에 책봉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 예송(禮訟)이 남인의 승리로 돌아가자, 서인은 정치권에서 몰락되는 비운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680년(숙종 6) 남인의 허적(許積)과 윤희(尹瑱) 등이 사사(賜死)된 이른바 경신대출척에 의해 서인들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는 이보다 앞서 1679년 예조참의로 관계에 복귀하였다. 1683년에는 공조판서로 있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당시에 사헌부의 조지겸(趙持謙) · 오도일(吳道一) 등이 환수(還收)의 청(請)이 있자 이를 비난하다가 체직(遞職 : 직무가 바뀜.)되었다. 3년 뒤인 1686년에 대제학이 되었다.

1687년에 다시 장숙의(張淑儀)일가를 둘러싼 언사(言事)의 사건에 연루되어 의금부에서 추국(推鞠 : 특명으로 중죄인을 신문함.)을 받고 하옥되었다가 선천으로 유배되었다. 1년이 지난 1688년 11월에 배소에서 풀려 나왔다.

그러나 3개월 뒤인 1689년 2월 집의(執義) 박진규(朴鎭圭), 장령(掌令) 이윤수(李允修) 등의 논핵(論劾)을 입어 극변(極邊)에 안치되었다가 곧 남해(南海)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이같이 유배가게 된 것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閔氏)의 여화(餘禍) 때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그의 어머니인 윤씨는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끝에 병으로 죽었다.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로 1692년 남해의 적소(謫所)에서 56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1698년 그의 관작이 복구되었다. 1706년에는 효행에 대하여 정표(旌表)가 내려졌다.

[활동상황]

김만중의 사상과 문학은 이전의 여느 문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말년에 와서 불운한 유배생활로 일생을 끝마쳤다. 그러나 생애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상당한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득의의 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명한 재능을 타고났다.

그리고, 가문의 훌륭한 전통 등으로 인해 그의 학문도 상당한 경지를 성취하였다. 그가 종종 주희(朱熹)의 논리를 비판했다든지 아니면 불교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했다든지 하는 점은 결코 위와 같은 배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만중의 사상의 진보성은 그의 뛰어난 문학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정한 한계는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국문가사예찬론’은 주목받아 마땅한 논설이다. 그는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한문은 ‘타국지언(他國之言)’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鄭澈)이 지은 <사미인곡> 등의 한글가사를 굴원(屈原)의 <이소 離騷>에 견주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개명적 의식(開明的意識)의 소산으로 타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김만중이 ‘국민문학론’을 제창하였다고 할 만큼 그의 문학사조상의 공로는 매우 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용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는 재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만중이 살던 시대는 분명 중세의 봉건질서가 붕괴된 시대는 아니었던 만큼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도 성립할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적어도 ‘국민문학론’이 제창되는 것은 조선왕조가 끝나고도 한참 뒤에나 가능할 노릇이기 때문이다.

김만중의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일종의 ‘국자의식(國字意識)’은 충분히 강조될 만하다. 더구나 그가 <사씨남정기>와 같은 국문소설을 파다하게 창작했다는 점과 관련해 보면 허균(許筠)을 잇고 조선 후기 실학파 문학의 중간에서 훌륭한 소임을 수행한 것으로 믿어진다.

김만중은 시가와 소설에 대해서 상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김만중은 소설의 통속성에 대하여 진수(陳壽)의 <<삼국지>>나 사마광(司馬光)의 <<통감 通鑑>>, 그리고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 三國誌演義>를 서로 구별하여 통속소설에 대한 예술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김만중은 한시 시학의 표준으로 고악부(古樂府)와 《문선 文選》의 시를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율시(律詩) 이전의 시를 배울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점은 주희의 학시관(學詩觀)과 상통하면서도 인간의 정감과 행동을 중요시하는 연정설(緣情說)을 시의 본질로 본 것으로 특징적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363수에 이르는 그의 시편들의 주조를 형성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김만중의 많은 시들에서 그리움의 정서가 자주 표출되고 있는 점은 그의 생애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시 계열의 작품을 애송하였던 것과도 맥이 닿고 있다. 장편시인 〈단천절부시 端川節婦詩〉는 그의 주정적(主情的) 시가관(詩歌觀)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그 밖에 그의 소설이나 시가에서 많은 인물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흥미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낭만주의적 정감의 전달 대상으로 선택된 것 같다.

국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주로 〈구운몽〉 · 〈사씨남정기〉 등과 같은 소설이었다. 그러다가 근년에 들어와서 그의 시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김만중은 비교적 다른 인물보다 많은 연구논문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새롭게 고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의 생애를 완벽하게 재구성해 보는 문제와 소설과 시가 사이의 관계, 또는 그의 사상의 진보성과 한계 등에 대한 정밀한 탐색이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축적된 연구성과 위에 김만중과 그의 문학이 문학사적 전망 속에서 보다 뚜렷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西浦文集, 西浦漫筆, 金萬重(李明九,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67), 九雲夢研究(丁奎福, 高麗大學校出版部, 1976), 西浦小說研究(金戊祚, 螢雪出版社, 1976), 西浦家門行狀(宋百憲, 형설출판사, 1982), 金萬重研究(丁奎福, 새문사, 1984), 西浦年譜(金炳國 외 번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金萬重文學研究(丁奎福 외, 국학자료원, 1992), 金萬重論(朴晟義, 思潮 2 思潮社, 1958), 金萬重研究(金茂祚, 동아논총 5, 동아대학교, 1969), 西浦의 漢詩考(金戊祚, 又軒 丁仲煥博士回甲紀念論集, 1974), 西浦評論研究(金周漢, 嶺南語文學 3, 1976), 金萬重論(丁奎福, 한국문학작가론, 螢雪出版社, 1977), 西浦漢詩研究(趙鍾業, 語文研究 9, 1976), 金萬重(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지식산업사, 1979), 西浦漫筆에 나타난 批評의 特性(崔信浩, 韓國學報 25, 一志社, 1981), 西浦의 생애와 한문학에 대한 재조명(尹浩鎮, 민족문화 10, 민족문화추진회, 1984).

만개

[滿開] 고전소설-양반전

●요점 정리

- 지은이 : 박지원(朴趾源) / 이우성 · 임형택 옮김
- 갈래 :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성 : 단순 구성으로 정선군의 한 양반이 가난하여 환곡을 갚지 못하자, 감사와 아내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이를 알게 된 마을의 한 부자가 환곡을 갚고 양반을 샀다. 군수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두 사람 사이의 매매 사실을 군민으로 증인으로 삼고 증서를 만들었다. 증서의 내용은 양반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들을 열거하고 있다.
발단 - 전개 - 결말의 3단 구성
- 문체 : 번역체, 산문체, 문어체
- 배경 : ① 시대적 - 18세기 ② 공간적 - 정선군 ③ 사상적 - 실학사상
- 주제 :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 · 비생산성 ·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 양반의 무능력과 위선에 대한 풍자
- 특징 :
 - ①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비판 풍자함.
 - ② 당시의 시대상의 반영으로 평민 부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함.
 - ③ 독특한 풍자와 해학으로 근대 의식을 보여 줌.
 - ④ 실사구시의 실학 사상이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남
 - ⑤ 소재를 현실 생활에서 취하고 사실적인 태도로 묘사함.
 - ⑥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횡을 일삼는 양반을 풍자적으로 고발함.
- 등장 인물 :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매우 복잡하다.

양반	강원도 정선의 양반으로 봉건사회에 기생하는 소위 선비의 계층에 속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무기력하고 타성에 젖어 독서만 하다 천석이나 되는 관곡을 터 먹고 어쩔 수 없이 양반을 팔게 되는 무능력한 인물이다. 당시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기생층적인 생활을 하는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음.
양반의 아내	관곡을 갚지 못하여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자기 남편의 무기력함을 원망하고, 양반 권위를 부정한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에 민감한 여인으로 남편을 질타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찰사	여러 고을을 순행하다가 정선양반의 관곡 사건을 알고 크게 노하여 양반을 잡아 가두게 한다.
군수	몹시 세련된 관료적인 인간형으로 양반과 동네 부자간의 양반 매매에 관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지만 위선적 인물임
동네부자	양반의 딱한 소식을 듣고 천석이나 되는 관곡을 양반 대신 갚고 양반권을 사려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렇게도 원했던 양반의 모순된 점을 알고는 다시는 양반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다만 아무런 보람없이 천석만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마는 인물
기타	동네 부자와 양반 사이에 양반권 매매사건이 있을 때 군수의 명에 따라 양반문권을 작성할 때 자리했던 공형, 별감, 통인, 사족(士族), 농민, 공장이, 장사아치 등

- 줄거리 :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학식이 높고 현명하고 정직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손님들을 초대하여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부임하는 신임군수들은 몸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곤 했다. 그런데 양반은 너무 가난하여 관가에서 내주는 환자를 타먹고 살았다. 이렇게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 빛은 산더미처럼 쌓여 천석이나 되었다. 이 고을에 순찰차 들린 관찰사가 관곡을 조사하다가 천석이 빈 것을 발견하였다. 대노한 관찰사는 그 연유를 알고 당장 그 양반을 투옥하라고 했다. 군수는 양반을 투옥할 수도 그 빛을 갚도록 할 방도도 없어서 난감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한 사실을 안 양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만 하고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무능을 질타하였다. 이때 이웃에 사는 동네 상민 부자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양반의 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분을 동경하던 중이라 이 기회에 양반을 사서 양반노릇을 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양반을 찾아가서 양반을 팔라고 한다. 양반은 기꺼이 승낙하여 천부는 관곡을 갚아준다.

양반이 관곡을 갚았다는 말을 듣자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군수가 양반을 찾아가자 양반은 상인 행세를 하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군수는 군민들을 모아놓고 양반권 매매 계약서의 작성에 들어간다. 처음에 양반이 취할 형식적인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열거하자 천부는 양반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행동의 구속만 받아서야 되겠느냐며 좋은 일이 있게 해 달라고 한다. 이에 군수는 두 번째 문서를 작성한다. 양반의 횡포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관직에도 나갈 수 있고, 상인들을 착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동네 상민 부자는 '그런 양반은 도둑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도망치고 만다. 그리고 다시는 양반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 출처 : 연암집 제 8권 '방경각외전'

📌 **내용 연구**

양반이란, 사족(士族 : ①조선 시대 사농공상의 사민 가운데 사의 집안이나 그 자손, ②선비나 무인(武人)의 집안,)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정선군(旌善郡)에 한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매양[언제나, 번번이]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으레 몸소 그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서 인사치레를 신경쓰는 양반 계층의 허례 허식에 대한 비판 의식이 깔려 있음].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자[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 주던 제도, 환곡(還穀)]를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 석(섬, 용량의 단위로 열 말, 또 중량의 단위로 백이십 근)에 이르렀다(양반의 지위에 걸맞지 않게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 후기 양반의 경제적 몰락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 설정이다. 또한, 무능한 양반을 묘사한 것이지만 천 석이란 엄청난 양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이런 양반들에게만 집중되었다는 면을 고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강원도 감사(監使)가 군읍(郡邑)을 순시(巡視) : 돌아다니며 사정(四正)을 보살핌. 또는 그런 사람.)하다가 정선에 들러 환곡(還穀 :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곡식을 꾸어 주던 제도, 환곡(還穀))의 장부를 열람하고 대노(크게 노함)해서,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軍糧 : 원문에는 '군흥(軍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환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곡은 원래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군량임.)을 축냈단 말이나?"

하고, 곧 명해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게 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했지만 무슨 도리가 없었다.[속수무책(束手無策) :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도(일을 하여 갈 방법과 도리.)를 차리지 못했다(글 읽는 것밖에 해 본 일이 없는 양반이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현실 생활에 무능력한 양반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그 부인이 역정(성, 화)을 냈다.

"당신은 평생 글읽기만 좋아하더니 고을의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아내의 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박지원의 또 다른 작품인 '허생전'의 '허생'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쫓쫓 양반,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걸."[양반의 무능과 비생산성, 남편의 무능을 질타]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존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비천(卑賤)하지 않느냐(양반은 가는 데마다 상이요, 상놈은 가는 데마다 일이라. : 여기서 양반의 의미는 대접받는 존재이므로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고생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괴롭다는 말임. 사회적 지위는 낮아도 경제적 지위는 높은 당시의 신흥 상공인 계층의 모습을 반영한 인물 설정이다. 대구 대조적 표현). 말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굶신굶신 두려워해야 하고, 엉금엉금 가서 정하배(庭下拜 : 뜰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것)를 하는데,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는 등 우리는 노상 이런 수모를 받는단 말이다[상민들이 양반으로부터 받는 수모이자 양반을 사게된 동기임]. 이제 동네 양반이 가난해서 타먹은 환자[각 고을의 사창에서 봄에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되돌려 받던 제도, 환곡]를 갚지 못하고 시방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 (경제적인 여유를 지니게 된 부자들이 돈으로 양반직을 사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보고 자기가 대신 환자를 갚아 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다[신분질서제도의 동요, 당시 사회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신분이 달라짐, 당시 양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의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양반이 옥에 갇히기가 두려워 아무런 고민 없이 신분을 팔고 있음]. 그래서 부자는 즉시 곡식을 관가에 실어가서 양반의 환자를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환곡을 모두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했다. 군수가 몸소 찾아가서 양반을 위로 하고, 또 환자를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털로 검고 두껍게 만든 모자.)를 쓰고 짧은 잠방이(가랑이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짧은 남자용 훌바지)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윗사람에 대한 자기의 겸칭]'이라고 자칭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부자에게 양반을 팔았기 때문에 원래 양반이 평민처럼 행동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양반다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풍자적이다. 부자에게 양반의 신분을 팔고 나서 스스로 평민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병거지' 와 '짧은 잠방이'는 평민의 신분을 나타내는 차림이다. 희화화 :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고 있다. 양반이란 신분에 의지한 허울일 뿐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서 부축하고,

"귀하[원래 양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요?"(어질고 글읽기를 좋아하여 신임 군수들이 몸소 찾아가 인사를 드릴 정도로 덕망이 높은 사람이 갑자기 평민의 옷차림을 하고 길에 엎드려 있는 까닭을 의아해하고 당혹해하며 묻는 말이다.)

하고 말했다. 양반은 더욱 황공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려 아뢰었다.

"황송하오이다. 소인[양반의 신분 변화를 알 수 있음]이 감히 욕됨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았습지요. 동리의 부자 사람이 양반이옵습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의 양반을 모칭(冒稱 : 성명을 거짓으로 꾸며 댐.)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했다.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인색(吝嗇 : 체면 없이 재물만 아끼어 꽤 더러움)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양반]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지혜로운 일이다(신분이 높고 낮은 것을 말하며 계급 사회에서는 특권이 많은 높은 신분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지혜롭다고 했다. 양반의 특권 의식을 비꼬는 풍자적 표현임).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사사로 팔고 사고서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송사(訟事 : 백성들끼리의 분쟁을 관청에 호소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일.)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군민(郡民)으로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어 미덥게(믿음성 있게) 하되 본관(군수)이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신분제 사회의 동요와 지배 질서를 유지해야 할 관료들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말로 군수가 직접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일에 증인이 되고 증서를 남기겠다고 한 것은 당시 이런 양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임]

그리고 군수는 관부(官府 : 관가)로 돌아가서 고을 안에 사족(士族) 및 농공상(農工商)들을 모두 불러 관정(官庭 : 관가의 뜰)에 모았다. 부자는 향소(鄕所 : 유향소, 고려, 조선 시대에 지방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의 오른쪽에 서고, 양반은 공형(公兄 : 삼공형,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구실아치, 호장, 이방, 수형리를 이른다)의 아래에 섰다.[부자와 양반의 뒤바뀐 처지를 보여줌]

그리고 증서를 만들었다.

건륭(乾隆 : 1745년(영조 21년). 건륭은 청나라 고종의 연호) 10년 9월 일

위에 명문(明文 : 증서(證書),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은 양반을 팔아서 환곡을 갚은 것으로 그 값은 천 석이다.

오직 이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글을 읽으면 가리켜 사(士)라 하고, 정치에 나가면 대부(大夫 : 벼슬의 품계에 붙이는 칭호)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君子)이다. 무반(武班)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반(文班)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양반 권위의 상실]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옛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오경(五更)만 되면 일어나 황(黃)에다 불을 당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래 박의[東萊博義 : 송(宋)나라 여조겸(呂祖謙)이 지은 책.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대한 사평(史評)]을 얼음 위에 박 밀듯 읽는다[등그런 박이 빙판 위에서 잘 나가듯이 멈춤 없이 유창하게]. 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뎌 입으로 설궁(說窮 : 살림의 구차한 형편을 남에게 말함)을 하지 아니하되, 고치·탄뇌(叩齒彈腦 : 도가의 양생법으로 이를 여러 번 마주치는 것을 고치,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탄뇌라고 한다)를 하며 입안에서 침을 가늘게 내뿜어 연진(懸津 : 도가의 양생법 중 하나)을 한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걸 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해서 입내를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古文眞寶 : 송나라 말기에 황건이 주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 당시품회(唐詩品彙 : 중국 명나라의 고병이 편찬한 당시 선집)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백 자를 쓰며,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 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쭈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불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처를 두들기지 말고, 성내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말고, 노복(奴僕)들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마소를 꾸짖되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아파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 지낼 때 중을 청해다 재(齋)를 드리지 말고[양반의 미혹한 모습과 서민들의 미신적인 형태에 대해 비판하는 것임],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말고, 돈을 가지고 놀음을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에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官)에 나와 변정[울고 그림을 가리어 바로잡음]할 것이다[양반이 규범을 어길 경우 잘잘못을 가려 양반의 신분을 뺏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자와 대변자인 '군수'가 기존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편에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므로, 까다로운 법도와 체면치레를 중시하는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이는 다음 양반 매매 증서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를 이루면서 양반이 지켜야 할 도리를 통해서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성주(城主) 정선군수(旌善郡守) 화압[花押 : 수결(手決), 사인(sign)], 좌수(座首) 별감(別監) 증서(證書)

이에 통인(通引 : 관아의 심부름꾼)이 탁탁 인(印)을 찍어 그 소리가 엄고(嚴鼓 : 시간을 알리는 북) 소리와 마주치매 북두성(北斗星)이 종으로, 삼성(參星)이 횡으로 찍혀졌다. [도장 소리가 엄고 소리, 즉 임금 행차시 북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고, 도장이 마치 밤하늘의 별 모양인양 별려 있음을 묘사하였다. 이는 양반 신분을 산 부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동시에 관의 횡포를 암시한 표현이다]

부자는 호장(戶長)이 증서를 읽는 것을 쫓 듣고 한참 머영하니[실망하는 마음이 담긴 표정/실망감]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연극 대본으로 바꾸어 쓸 때, 아연실색하여, 어리둥절하여, 어안이 병병하여,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나는 양반이 신선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걸요. 원하옵건대 무어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주옵소서."[양반 신분을 사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부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는 양반과 부자가 동시에 풍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하늘이 민(民)을 낳을 때 민을 넷으로 구분했다. 사민(四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사(士)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않고[양반계층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줌] 약간 문사(文史)를 섭렵해 가지고 크게는 문과(文科) 급제요, 작게는 진사(進士)가 되는 것이다. 문과의 홍패(紅牌 : 문과 과거의 합격증)는 길이 2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문과에 급제하기만 하면 저절로 재물이 생기게 된다는 내용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긁어 모으는 양반의 비도덕적 모습을 풍자]. 진사가 나이 서른에 처음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 있는 음관(蔭官 : 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덕으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이 되고, 잘 되면 남행(南行 : 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벌을 따라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귀밀이 일산(日傘)의 바람에 희어지고(벼슬아치의 행차 때 햇빛을 가리는 일산을 씌워 주니 얼굴이 별에 타지 않아 희어지고, 하인들이 떠받들어 모시니 기분이 흡족하게 되고, 문벌의 덕을 입어 과거도 거치지 않고 큰 벼슬을 갖게 되면 호강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여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내용이다.), 배가 요령 소리에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뜰에 곡식으로 학(鶴)을 기른다. 공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武斷)을 하여(힘을 믿고 강제로 행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을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괘시하라. 너희들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 꼬등을 희희 돌리고 수염을 뉘아채더라도 누구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양반 신분의 비도덕적 행위를 고발하는 문장으로 양반의 이중적 속성을 스스로 폭로하도록 하고 있음]

부자는 증서[양반 매매 증서에 담긴 작자의 의도는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할 규범을 나열함으로써 형식에 얽매인 양반들의 모습을 희화화했고,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사라이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풍자함]을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 두시오, 그만 두어. 맹랑하구먼(생각하던 바와 아주 달라 허망하군 / 양반의 실상을 파악한 상민 부자의 현실 인식),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양반을 사서 신분 상승을 이루려던 부자가 양반들의 작폐를 듣고 양반되기를 포기하는 부분이다. 양반을 '도둑놈'이라 표현하는 대목에서 부패한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批判)과 풍자(諷刺)가 절정에 이른다. 재력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려던 부자가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하는 장면이다.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통해 양반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풍자 정신이 돋보인다.)

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부자는 평생 다시 양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다.(부자 자신이 추구했던 존귀라는 가치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달음.)[양반의 전횡에 대한 비판, 지배 계층의 무능함 폭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양반층에 대한 폭로, 양반의 무위도식하는 생활에 대한 비난]

●작품개관 :

'양반전'은 조선 후기 소설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되는 작품으로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회상이 어떻게 문학에 반영되었으며, 작가의 비판 정신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는지 살필 수 있다. 이 작품은 (연암집)의 방경각외전에 실린 7편의 전(傳)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은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인간상(무능하기 짝이 없는 양반, 부패한 관료, 무지한 천민 등)을 해학적이고 풍유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몰락하는 양반과 부상하는 평민을 등장시켜 삶의 발랄함을 부각시키려는 해학적인 이 작품은 무능한 양반과 부자가 된 평민 사이에서 이루어진 양반 매매사건을 소재로 해서, 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양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교묘하고 익살스런 표현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며, 그러한 표현이 높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다.

● 연암 박지원의 사상 :

조선 후기 실학의 전반적인 이념은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집약된다. 이 중에서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은 이용후생 이념에 집중되어 있다. 연암의 실학적 이념은 '허생전'과 '양반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에 두루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작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연암이 일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하는 성리학적 수신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이다. 그리고 양반들이 지키는 규범 중에는 실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과, 양반들이 누리는 권세가 서민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규범과 권세를 부당하다고 파악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 후기 시대상 :

조선 후기는 임진, 병자 양란의 후유증으로 조선 전기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상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발달 등으로 평민 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당시의 지배 관료층은 혼란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공허한 명분에 얽매어 있었으며, 관료 사회의 부패 또한 극심하였다. '양반전'은 이와 같은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 지도방법

작품의 배경이 된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며 읽도록 지도한다.

이 작품은 임진·병자 양란을 계기로 조선 전기까지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산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평민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조선 후기 시대 상황을 학생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사 교과서나 역사 관련 교양서적을 참조하면 교과 통합적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실학자였던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려하며 읽도록 지도한다.

'양반전'의 창작 동기를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의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에 실현되었는지 학생들이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실학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작가가 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싶어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에서 주된 풍자의 대상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끌어주기 :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활동은 작품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을 찾음으로써 문학과 시대 상황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양반이 풍자되고 있는데, 양반의 어떤 점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두 번에 걸친 매매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하게 한다.

예시답안 :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양반 계층임이 분명하다. 그가 비판하고자 한 양반의 모습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문서에서 풍자된 양반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며 공허한 관념과 겉치레에 얽매인 비생산적 계층으로 드러나 있으며, 두 번째 문서에서 풍자된 양반은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집단으로 드러나 있다.

(2) 부자가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이끌어주기 :

(1)의 활동에서 정리된 풍자의 대상이 된 양반의 면모에 대하여 '그만 드시오, 그만두어, 맹랑하구먼.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라고 한 부자의 마지막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

예시답안 :

부자는 양반층의 공허한 관념, 비생산성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소극적인 비판을 하지만, 양반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양반을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며 강하게 비판한다. 즉, 부자는 양반층의 공허한 관념, 비생산성과 부당한 특권 남용을 비판하며, 자신은 그러한 부정적인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2.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배경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移行期)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특징을 조사해 보자.

이끌어 주기 :

중세가 봉건제를 사회 제도의 근간으로 삼았다면, 근대는 자본의 집적과 이에 따른 상업 문화의 활성화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 경제적 특성은 상업 문화가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역사 지식과 연관되므로, 국사 교과서나 역사 관련 교양서적을 참조하면 교과 통합적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예시답안 :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경제적 특징은 상품 화폐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자 농민들은 상품 생산을 위한 농업 경영에 나서게 되었고, 지주들은 늘어난 소작료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농촌의 시장은 크게 발달하였다. 이처럼 상품 화폐가 경제가 진전되자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주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으로 세 부담을 한층 줄인 농민들은 수공업에도 관심을 돌렸고, 전업적인 장인들도 수공업에 가세함으로써 상품 화폐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여기에 상설 점포인 서울의 육의전(六義廛) 및 개성, 평양, 전주,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시전(市廛)이 생겨나 상품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게 된다. 시장의 형성에 따라 상품의 도산매와 위탁 판매, 운송업이나 금융업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고, 객주와 여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무역이 성행하게 되어 개성상인인 송상, 의주 상인인 만상, 동래 상인인 내상은 상업 자본을 축적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상업 발달의 이면에서는 전통적인 양반사대부가 농민층으로 전락해 가고 토지의 독점으로 소작농들은 더욱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다.

(2) 이 작품에 나타난 양반과 평민의 관계가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끌어주기 :

이 활동은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신분을 귀속 신분이라고 하며,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게 되는 신분을 획득 신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기는 동 중 어느 것이 더 중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예시답안 :

이 작품에서 평민 부자는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사려고 한다. 양반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 자체가 귀속 신분보다는 경제력에 의한 획득 신분이 중시되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3. 문학 작품은 '작가 의식의 산물' 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조사해 보고, 이러한 사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표해 보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끌어주기 :

이 활동은 작가의 사상이 문학을 창작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의 전반적인 이념은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로 집약된다. 이 중에서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은 이용후생 이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암의 실학사상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후생의 개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도상 주의할 것은, 작가의 사상이 문학 작품 속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인물의 성격이나 발언, 그리고 사건이나 배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이다.

예시답안 :

연암의 실학사상은 이용후생(利用厚生)으로 집약된다. 이용후생(利用厚生)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식·주 생활을 뜻한다. 이 말은 본래 상서라는 책의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 유화(惟和)'란 구절에서 '정덕'과 '유화'를 버리고 따온 말이다. 여기에서 특히 '정덕'을 버렸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변혁이라 할 수 있다. 정덕이란 부자·형제·부부간에 지켜야 할 유교적 윤리체계이며 이용과 후생은 국민의 풍요로운 경제생활이다. 즉 이용후생을 기치로 내세웠다는 것은 윤리 우위의 정치가 아니라 경제 우위의 정치를 부르짖었다는 것이다.

연암은 흥대용·박제가와 더불어 북학파라 일컬어진다. 북학파란 존화(尊華)의 명분론에서 벗어나서 우리보다 앞선 청나라의 문물과 학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정덕 이후에 이용, 후생이 있다는 전통적 관념을 비판하고 경제가 넉넉해야 윤리도 있게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들 학파들은 자연과학의 도입, 중소기업의 육성, 기술 혁신, 해외 통상 증진 등 국민의 경제를 향상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박지원은 (한전론)에서 '백성들의 이용과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오랑캐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연암의 이러한 실학적 이념은 '허생전'과 '양반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작품에 두루 반영되어 있다. '양반전'에서 비판의 주된 대상은 무능한 양반이다. 양반은 공부를 하느라고 가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 환자를 갚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부자에게 증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군수는 첫 번째 증서에서 양반의 지켜야 할 도리를 일일이 열거하여 부자를 깜짝 주눅들게 만든다.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열거하여 다시 부자를 놀라게 한다. 그것은 모두 양반이 권세를 부리는 방법이기 하지만, 남들을 희생하면서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삶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 내적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암이 일상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하는 성리학적 수신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점이다. 그리고 양반들이 지키는 규범 중에는 실생활에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과, 양반들이 누리는 권세가 서민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규범과 권세를 부당하다고 파악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연암이 양반들의 규범 자체를 문제삼았다기보다는 신분을 팔아 생계를 도모하는 양반답지 못한 양반, 신분을 재물로 사려는 부자답지 못한 부자를 동시에 비판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서 박지원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을 등장시켜 당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양반 신분을 판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 자체가 귀족 신분보다는 경제력에 의한 획득 신분이 중시되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은 임병 양란을 계기로 조선 전기까지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산업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평민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매매 문서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지배층은 공허한 명분에만 얽매어 있는 무능한 존재였으며, 혼란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커녕 관료 사회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작자는 이러한 양반의 실상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통렬하게 폭로하는 한편, 선비 계층이 올바른 인식과 각성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출전 : 한계전 외 4인 공저 문학교과서)

[滿開] 고전소설-최고운전

요점 정리

- 연대 : 미상
- 작가 : 미상
- 형식 : 고전 소설, 전기체의 소설, 영웅소설, 설화소설
- 성격 : 영웅적, 도술적, 설화적, 전기적
- 구성 :

발단 - 최치원이 금돼지의 아들이라 하여 버려짐

전개 - 중국 황제가 함에 든 물건을 알아내라 하자, 최치원이 시를 지어 올림.

위기 - 중국 황제가 최치원을 죽이려 하나, 최치원이 이를 지략과 도술로 모두 해결함.

절정 - 황소의 난을 해결한 최치원이 모함으로 유배되어 위기를 맞이함.

결말 - 최치원이 도술로 위기를 모두 모면한 뒤 신라로 돌아와 신선이 됨.

- 주제 : 최고운의 일대기를 그리고, 당대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문제삼음. / 최치원의 영웅적 꿈 모와 현실적 좌절

- 특징 : 조선시대의 많은 군담소설(軍談小說)이 전쟁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영웅을 창조하고 있음에 반해,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역력한 점이 큰 특색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 줄거리 : 한문본과 국문본의 줄거리는 비슷하나, 그 표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인공 최고운이 태어나자 그의 부모는 금돼지의 새끼[[금와왕설화](#) 참조 / [동명왕 설화](#)]로 잘못 알고 내다 버리지만, 선녀와 연꽃 및 백조들이 아기를 돌보는 기적이 나타나자 다시 데려다가 키워 학문과 문장으로 크게 떨치게 된다.

하루는 중국 황제가 들으니 시 읊는 소리가 하도 낭랑하여 알아보게 한 즉, 그것은 신라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즉시 신하를 신라로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신라에는 재사가 수백 명이나 된다는 보고에 황제는 신라 석함(石函)에 달걀을 넣고 초로 밀봉한 다음 다시 신하를 시켜 석함 속의 물건을 시로 지어 보내지 않으면 대국(大國)을 가볍게 본 죄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최고운이

團團石物中	단단석물중	등글고 등근 함 속의 물건은
半白半黃金	반백반황금	반은 희고 반은 황금인데
夜夜知時鳴	야야지시명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건만
含情未吐音	함정미토음	뜻만 머금을 뿐 소리를 토하지 못하는도다

이라 하여, 이미 그 내용물인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음을 작시(作詩)해 보내니 탄복한 황제는 최고운을 중국에 초빙한다. 중국에서 장원급제한 그는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적장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 마침내 난을 다스리니 황제는 더욱 감탄한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중국인 신하들의 모함으로 외딴 섬에 유배되어 몇 차례의 위기를 도술로 모면한 뒤 무사히 신라로 돌아오고, 왕은 그에게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가야산(伽倻山)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줄거리 2

최충은 임신했던 아내를 금돼지에게 빼앗겼다가 아내의 지혜로 아내를 다시 찾아온다. 아내가 돌아와서 낳은 아들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닐까 의심하여 그 아이를 버리는데 버려진 아이가 최치원이다. 최치원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 와 보호해 주고 선비들이 내려와 글을 가르친다. 중국 황제가 계란을 넣은 석함을 신라에 보내 이를 맞히지 못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최치원이 그것을 맞히자 황제는 물건 맞힌 인재를 중국으로 들여보내라 하고, 최치원은 중국으로 간다. 도중에 용자(龍子) 이목(李牧)을 만나고, 늙은 할미를 만난 후 그의 지시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부적 세 개를 얻는다. 중국에서 최치원은 모든 재주 겨루기에서 부적 등을 이용하여 이기고, 과거에도 급제한다.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문장으로 적의 항복을 받지만 최치원을 질투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을 간다. 귀양지에서 이전에 노파가 주었던 간장에 적신 숨을 빨아 먹으며 석 달을 버티다가 황제가 부르자 낙양에 돌아온다. 그 후 최치원은 고국 에 돌아와 임금의 행차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내쫓김을 당하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는데 그 이후를 알 수 없다.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해제 : 이 소설은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을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작자와 연대를 모두 알 수 없다. 작품 속 최치원은 뛰어난 글재주로 국내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는 위기에 처하는 등 중국에서도 그 영웅성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최치원은 중국 황제를 호통칠 만큼 기개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귀국하여 신라 왕에게 내침을 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진정한 영웅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읽을 수 있다.

● 내용 연구

몇 년 뒤 황소가 3만 군사를 모아 지방의 여러 고을을 함락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토벌에 나섰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황제가 최치원을 대장으로 삼아 황소의 반란군을 토벌[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의 무리를 쳐서 없앴.]하게 했다. 최치원은 맞서 싸우지 않고 적진에 격문 한 장[토왕소격문 : 주제는 적장의 죄과를 꾸짖고 투항할 것을 권고하는 글로 이 글의 의의는 신라인으로서 당나라 사람들까지 놀라게 한 명문으로 최치원의 명성을 천하에 떨치게 한 글로 당나라에서 활약하던 최치원이 반란의 주범인 '황소'가 반역을 단념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쓴 격문이다. '황소'가 이 글을 읽고 크게 놀랐다는 일화(逸話)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상대를 설득하는 전략이 돋보이는 글이다.]을 보냈을 뿐이었는데 반란군이모두 투항[적에게 항복함]했다. 이에 최치원은 반란군의 두목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황제가 매우 기뻐하며 영지(領地)[황제가 내린 땅]를 더 하사[왕이나 국가 원수와 같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금품이나 물건 따위를 줌.]하는 한편 많은 황금을 내리니[중국 황제의 신임이 두터워짐], 임금의 총애가 비[비교]할 데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대신들이 최치원을 시기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모함하며 헐뜯는 말을 했다.

“최치원은 중국이 비록 크지만 소국만 못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황제가 진노[성을 내며 노여워함.]하여 최치원을 남쪽 바다의 섬으로 귀양 보내고 음식을 일절 [(一切)부사로 아주, 도무지, 전혀, 결코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 씀./ 일체 : 명사로 모든 것, 온갖 사물.] 주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치원은 예전에 노파에게서 받았던, 간장에 적신 숨을 밤마다 꺼내 빨아 먹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최치원의 지혜로움]
 황제는 한 달 뒤 최치원이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최치원!” 하고 부르자, 최치원은 그 의도를 짐작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최치원의 지혜로움]. 사자는 돌아가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여러 대신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최치원은 소국의 천한 놈이면서 중국에 와 온갖 방법으로 황제를 속였지[대신들이 최치원을 배척하고 있음 / 따돌림]. 그러다 요행으로 높은 벼슬을 얻고는 세력을 믿고 교만하게 굴더니만 지금은 도리어 그게 재앙이 돼서 굵어 죽게 생겼군.”

이때 마침 안남국 사신이 공물[궁중이나 나라에 바치던 물건]을 바치러 당나라에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홀연 섬 위에 한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선녀 수십 명이 늘어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 안남국 사신이 배를 멈추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 선비에게 시 한 수를 지어 달라고 청하자 선비가 시를 지어 주었다. 안남국 사신은 당나라에 이르러 황제에게 그 시를 바쳤다. 황제가 시를 보고 말했다.

“누가 지은 시인가?”
 사신이 대답했다.
 “신이 남쪽 바다의 섬을 지나는데, 어떤 선비가 승려들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고 선녀 수십 명이 그 곁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최치원을 잘 모르는 사람의 증언으로 최치원의 능력이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비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그 시를 보여 주고 이렇게 말했다.
 “시에 담긴 뜻으로 보건대 최치원이 지은 듯하다만, 석 달 동안이나 음식을 끊고 어찌 살아 있을 리가 있겠느냐? 분명 최치원의 훈령이 지은 시일 것이다.”
 이에 다시 사자를 섬으로 보냈다. 사자가 또 “최치원!” 하고 부르자[최치원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최치원이 목청을 높여 말했다.

“너는 뭐 하는 놈이기에 건방지게 매번 내 이름을 부르는 게냐?”
 그렇게 말하고는 꾸짖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다.
 “최치원이 죽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목청껏 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몹시 놀라 말했다.

“하늘이 돕는 사람이로다!” [최치원의 비범함을 인정]

황제가 다시 사자에게 명령했다.

“최치원을 불러들여라.”

사자는 황제의 명에 따라 최치원을 낙양으로 데려왔다. 황제가 최치원을 자신의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물었다.

“경[임금이 이품(二品) 이상의 관원에 대하여 일컫던 말로 대명사]은 석 달이나 밖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던고?”

황제가 또 물었다.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왕의 신하 아닌 이가 없다.’ 라는 말이 있지. 이 말 대로라면, 경이 비록 신라 사람이긴 하나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경의 임금 또한 나의 신하다[중화사상]. 그렇건만 경이 나의 사자를 꾸짖은 이유가 무엇인가?”

최치원이 허공에 손으로 ‘한 일(一)’ 자를 굿더니 펄쩍 뛰어올라 자신이 쓴 글자 위에 앉았다. [전기적 요소]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도 폐하의 땅입니까?” [중국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도전으로 황제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

황제가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최치원이 황제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소인배들의 모함하는 말을 듣고 훌륭한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최치원],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소매에서 ‘돼지 저(猪)’ 자가 적힌 종이를 꺼내 땅에 던지자 종이가 금세 푸른 사자가 되었다. 마침내 최치원은 그 사자를 타고 날아올라 구름 사이로 들어갔다.[전기적 요소]

신라 땅으로 들어서니 시냇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최치원이 친구에게 묻자 친구가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했다.[삼인성호(三人成虎) :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말.]

“국왕께서 밖에 나와 계신 걸세.”

최치원이 그 말을 곧이듣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까이 가 보니 그저 사냥꾼들일 뿐이었다. 최치원이 친구에게 말했다.

“내 너에게 속았구나.”

마침내 말을 타고 달려 동문 밖에 이르렀다. 때마침 신라 왕이 밖에 나와 있다가 최치원이 말을 타고 행차 앞을 그대로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 왕은 사람을 시켜 최치원을 포박해 오게 한 뒤 매우 준엄하게 꾸짖었다.

“국왕의 행차를 범하는 죄를 지었으니 너를 죽여야 마땅하다만 그동안 세운 공이 많으므로 차마 벌을 주지는 못하겠다. 지금 이후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현실의 권위적 질서를 극복하지 못하는 소외 의식 / 신라의 폐쇄적 정치]

이 일 때문에 최치원은 신라 왕에게 죄를 얻어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에 거꾸로 매달아 둔 것과 신이 발견됐는데,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이야기의 결말을 미완으로 남겨둠으로써 주인공의 신이성을 강조.]

◆ 이해와 감상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한문본과 한글본, 필사본과 활자본이 있다. 한문본으로는 〈최고운전〉 과 〈최문헌전 崔文獻傳〉, 한글본으로는 〈최충전 崔食傳〉 과 〈최고운전〉 이 전하고 있으나, 한문본이 앞선 본이다. 한글본 〈최충전〉 은 한문본 〈최고운전〉 (대제각 영인본)계의 번역 개작이고, 한글본 〈최고운전〉 은 신소설조로 된 개작이다. 이 작품은 최치원 (崔致遠)의 일생을 허구적 구성을 통하여 형상화한 전기적 소설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때, 부임하는 신임현령마다 부인이 실종되는 문창에 현령으로 부임한 최충은 미리 부인의 손에 명주실을 매어 두었다가 부인이 실종되자 찾아 나선다. 실이 뒷산 바위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최충은 부인을 잡고 있던 금돼지를 죽이고 부인을 구하여 온다.

그후 부인이 아들 최치원을 낳자, 최충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버렸더니, 선녀가 내려와 보호해주고 천유(天儒)가 내려와 글을 가르친다. 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황제에게까지 들리자 황제가 두 학사를 보내 글을 겨루게 하나 치원을 당하지 못하고 두 학사는 중국으로 돌아간다.

황제는 함 속에 물건을 넣어 신라에 보내며 맞이지 못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치원은 함 속의 물건을 맞이면 벼슬과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임금의 명령과 승상 나업의 딸 운영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운영의 종이 된다. 치원은 나업에게 물건을 맞이면 자신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사위로 삼아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그것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된 것임을 맞힌다. 황제가 물건 맞춘 인재를 중국으로 들여 보내라고 하자 치원은 중국으로 간다. 도중에 용자(龍子) 이목(李牧)을 만나고, 늙은 할미를 만난 후 그의 지시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부적 세계를 얻는다. 중국에서 치원은 모든 재주 겨루기에서 부적 등을 이용하여 이기고, 과거에도 급제한다.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문장으로 항복을 받는다. 그러나 치원을 질투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향한다. 치원은 그곳에서 선유(仙遊)하다가 황제가 부르자 용으로 다리를 놓아 낙양에 돌아온다. 그후 치원은 청사자를 타고 고국에 돌아와 백발이 된 아내를 소녀로 만들고 가족과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이른바 '영웅의 일생' 이라고 하는 줄거리를 지니고 있는 영웅소설에 속하며, 적강(謫降) · 기아(棄兒) · 글재주 다툼 · 알아맞히기 · 기계(奇計) 등 전래의 다양한 화소(話素)들이 복합되어 있다. 설화화된 역사적 인물 최치원이 작가의 탁월한 상상력에 의하여 소설의 주인공으로 형상화된 것인데, 역사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주목된다. 이 작품에는 금대지의 최치원 어머니 납치, 늙은 할미 [老姑] 와 용의 아들인 이목과의 만남, 그들의 최치원에 대한 뒷바라지, 최치원과 선녀와의 노 ○ 등 민담적 요소와 전설적 요소, 그리고 신화적인 요소가 꽤 많이 수용되어 있다. 이 소설은 당나라에 대한 최치원의 저항 · 공격 · 승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북방민족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작품의 일면이요, 일부일 뿐, 전면 혹은 전부는 아니다. 이 작품에는 외관상 혹은 형식상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면에서는 임금보다는 신하가, 관리보다는 백성이, 그리고 주인보다는 종이 더 우월한 존재로,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보다는 그 아들이나 딸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로, 그리고 중국의 선비보다는 신라의 선비가 더 우월한 존재로 그려져 있어서 흥미롭다. < 최고운전 > 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과의 형식적 관계와 내용적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실상임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와 당위가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즉, 한결같이 명분 · 체면 · 나이 · 권위 · 신분 · 형식 등을 내세워 서사적 자아를 억압하는 세계의 부당한 횡포를 비판하고 고발함으로써 당대 중세적 질서의 위기를 문제삼고 있는 소설이다.

(자료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만개



적벽가(赤壁歌) - 군사들이 술 마시고 자신들의 신세 한탄하는 장면

아니리

군사들이 승기(勝氣)내어 주육을 장식하고,

중머리 장단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鬪)하다 다투는 놈 반취(半醉)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 끝에다가 턱 꺾인 놈, 처처(處處) 많은 군병 중에 병노직장위불행(兵勞則將爲不幸)이라. 장하(帳下)의 한 군사 전립(戰笠) 벗어 또루루 말아 베고 누워 붓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니,

아니리

한 군사 내달으며,

"아나 이에 승상(丞相)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쟁을 나오시어 승부를 미결(未決)하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이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느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 연(然)하여 왈,

"네 설움 제쳐 놓고 내 설움 들어 보아라."

진양조 장단

고당상학발양친(高堂上鶴髮兩親) 배별(拜別)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혜(父兮)여 생아(生我)하 시고 모혜(母兮)여 육아(育我)하시니, 욕보지은덕(欲報之恩德)인데 호천 망극(昊天罔極)이로구나. 화목하던 전대권당(全大眷黨) 규중의 홍안 처자(紅顏妻子) 천리 전장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이 올까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에 해는 기울어지니 출문망(出門望)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데 의려지망(依閭之望) 몇번이나 되며 서중의 홍안 거래(鴻雁來) 편지를 누 전하며 상사곡(相思曲) 단장해(斷腸解)는 주야 수심에 맺혔구나. 조총(鳥銃) 환도(環刀)를 둘러메고 육전 수전을 섞어 할 제 생사(生死)가 조석(朝夕)이로구나. 만일 객사(客死)를 하게 되면 게 뉘라서 암사를 하며 골폭사장(骨曝沙場)에 흩어져서 오연(烏鳶)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후여쳐 날려 줄이 뉘 있드란 말이나. 일일사친(日日思親) 십이시(十二時)로구나.

아니리

이렇듯이 설이 우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너 설움이 충효지심 기특하다. 또 한 군사 나서며,

중머리 장단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라 너 내 이 설움을 들어 봐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들어 근 오십이 장근토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월 부부 한탄.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드릴 제 명산 대찰(名山大刹) 성황신당(城皇神堂) 고묘 총사(古廟叢祠) 석불 보살미륵 노구맛이 집짓기와 칠성 불공 나한 불공(羅漢佛供) 백일산제(百日山祭) 신중맛이 가 사 시주(架娑施主) 연등시주(燃燈施主) 다리 권선(勸善) 길닥기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조조왕(成造 王) 당산(堂山) 천룡(天龍) 중천 군웅(衆天軍雄) 지신제(地神祭)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신든 남기가 꺾어지랴. 그 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하고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하고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 십삭이 절절한 연후에 하루는 해복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昏迷) 중 탄생하니 말이라도 반가울 때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 전혀 없이 삼칠일(三七日)이 지나고 오륙 삭이 넘어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모양 방긋방긋 웃는 모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쥐엄잘강 섬마 동동 내 아들 웃고름에 돈을 채여 감을 사 껍질 베껴 손에 주며 주야사랑 애정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이한 난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가자 나오너라 외는 소리 아니올 수 없던구나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재배 하직한 후 간간 한 어린 자식 유정한 가족 얼굴 누워 등치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後嗣)를 전해 주오. 생이별 하직하고 전장예를 나왔으나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림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웅아 업어 볼거나. 아이고 내 일이야.

아니리

이렇듯이 설이 우니 여러 군사 꾸짖어 왈, 어라 이 놈 자식 두고 생각하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장에 너 죽어도 후사는 전하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로다.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중머리 장단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고 일가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孑孓單身) 이내 몸이 이성지합(二姓之合)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해야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身安定) 떠날 뜻이 바이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는 위국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가자 웨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립(戰笠)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흥안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놓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랴 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 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울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전장 불식이라.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守直)을 하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난 고국을 갈지 무주공산 해골이 될지 생사가 조석이라. 어서 수이 고향을 가서 그림던 마누라 손길을 부여잡고 만단정회 풀어볼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박봉술 창(唱)

군사들이 싸움에 이기겠다는 기개를 떨쳐 술과 고기를 다투어 먹을 때, 노랫부르며 춤추는 놈, 서럽게 우는 놈, 이야기하며 웃는 놈 노름하다가 싸우는 놈, 반쯤 취한 상태에서 욕하는 놈, 잠이 부족해 서서 자다가 창 끝에 턱이 꿰인 놈, 곳곳에 많은 군사 가운데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불행이 닥치는 법이라. 장막 아래서 한 군사가 모자를 벗어 또루루 말아 베고 누워서 견잡을 수 없는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서럽게 우니, (병사들의 다양한 모습)

한군사가 내달으며 "아나 이애, 지금 승상은 대군을 거느리고 천 리 밖 싸움터에 나오셔서 아직 승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천하의 큰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놈 너는 왜 요망스럽게 울고 있느냐? 울지 말고 이리 와서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가 잠시 울음을 그치고 말하기를, "네 설움은 일단 제쳐놓고 내 설움을 들어 보아라." (울고 있는 병사를 나무라며 술을 권함)

"고당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이별한 지가 벌써 몇 날이나 되며,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끝이 없네그려. 화목하던 일가 친척과 집안의 젊은 아내 어린 자식이 천리 밖 싸움터에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 일이나 기별이 올까 하며 기다리다가, 서산에 해가 기울어지니 문밖에서 기다린 것이 그 몇 번이나 될 것이며 바람 불고 곳은 비 내리는 데 때문에 기대어 기다린 것이 그 몇 번이나 될 것인가. 한나라 소무는 기러기 발에 편지를 묶어 보냈지만 나는 누구 편에 편지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임을 그리는 단장의 마음으로 항상 수심에 잠겨 지내고 있다네. 칼과 활을 둘러메고 육지와 물 위에서 적과 싸워야 할 테이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아닌가. 만일 객사를 하게 되면 누가 내 시체를 묻어 줄 것이며, 벌판에서 참혹하게 죽은 내 몸이 까마귀와 매의 밥이 된다고 한들 누가 손뼉을 쳐 후여 하고 날려 주리 하루에도 열두 번씩이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네그려." 이렇게 말하면서 서럽게 우니, 여러 군사들이 말하기를 "너의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 이때 또 한 군사가 나서며 (고향의 부모를 그리는 사연)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 보라. 나는 본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를 들었으나 근 오십이 가깝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우리 부부가 늘 한탄하며 지내다가, 우리 마누라가 자식을 얻기위해 온갖 치성을 다 드리는데, 이름난 산의 큰 절, 성황 신당, 오래된 사당, 돌부처, 보살 미륵 등에 제사 지내는 음식 마련하기와 사당 짓기며, 칠원성군과 나한에게 불공 드리기, 백일동안 산신제 지내기, 여승에게 가사와 연등 시주하기, 다리놓는데 회사하기와 길닦기 그리고 집에 있는 날은 성조신과 조왕신, 당산, 장독대의 신, 여러 하늘의 신들. 지신 등에게 지극한 정성을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겠으며 심은 나무가 꺾여지랴. 그달부터 태기가 있으니 부정한 자리에 앉지 않고, 바르게 썰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으며,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나쁜 일을 보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을 하였다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정신이 없는 중에 드디어 해산을 하고 보니, 딸이라도 반가울 판에 아들을 낳았다네그려. 그 애를 어찌나 귀히 여겼던지 땅에 누일 새가 없이 항상 손에 안고 키우는데, 에 이레가 지나고 오륙 개월이 넘어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모양, 방긋방긋 웃는 모양, 도리도리, 쥐엄잘강, 섬마, 똥똥 재롱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을 보며 내 아들 웃고름에 돈을 채여 주고, 감을 사서 껌질 벗겨 손에 쥐여 주니, 밤낮으로 사랑스러운 것이 자식밖에 또 어디 있던가. 그런데 뜻밖에도 "위나라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우러 가자. 나오너라." 외치는 소리에 안 나올 수가 없더구만, 사당에 나아가 통곡하며 두 번 절하여 하직한 후, 연약한 어린 자식과 아내의 등을 두드리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대를 잇도록 해 주오." 생이별하고 싸움터에 나왔으나, 내가 언제 돌아가 그림던 자식을 안아 볼 수 있을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말하며 서럽게 우니 여러 군사들이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에라 이놈아, 자식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즐장부나 하는 짓이다. 싸움터에서 네가 죽어도 네 대는 잇게 생겼으니 네 설움은 가소롭다." 그러자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고향에 두고온 자식을 그리는 사연)

"나의 설움을 들어 보라.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일가 친척도 전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게 자랐는데, 그런 내가 예쁘고 안전한 아내를 얻었으니 종가로서의 큰 일을 감당하고, 평생 몸을 의탁하여 편히 지내고 싶어서, 고향 떠날 생각이 전혀 없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울 뜻이 있는 위나라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우러 가자." 외치는 소리가 나를 끌어 내니 어디 오지 않을 수가 있던가. 군복 입고 병거지 쓰고 창을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그것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 달려 들어 나를 안고 엮어지며, "날 죽이고 가면 몰라도 살려 두고는 못가리라. 이팔 청춘 젊은 나를 혼자만 떼어 놓고 어떻게 싸움터에 가려 하오." 울부짖으니 그 때 내 마음이 어떡했겠나. "허허 마누라 울지 마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싸움터에 가 보지 못하면 대장부의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울지 말라 울지 마오."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네그려. 잡았던 손을 후리쳐 떨쳐 버리고 이 싸움터에 나왔지만 세월이 흘러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구먼. 살아갈 방도를 찾고 싶지만 사방에서 지키고 있으니, 함정에 빠진 범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꼴이 되고 말았네, 언제라도 고향에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황량한 산에 구르는 해골이 될지, 생사가 아침 저녁에 달려 있네그려. 어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마누라 손을 잡고 쌓인 회포를 풀어 봤으면,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고향의 아내를 그리는 사연)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
- 연대 : 미상
- 갈래 : 판소리 사설
- 문체 : 가사체, 구어체
- 제재 :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
- 성격 : 해학적,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 구성 : 크게 보아 삼고초려, 강능 피난, 박망파 싸움, 장판교 싸움, 군사 설움 타령, 적벽강 싸움, 화용도로 구성되는데, 바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표현 : 율문체, 구어체와 한문체의 혼용
- 주제 : 적벽 대전과 이 전쟁을 주도해 나간 영웅 이야기. 주체적 세력인 민중의 의식 성장, 인 용된 장면의 주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조조의 패전.
- 기타 : 가사체와 구어체 중심으로, 한문어구가 많이 쓰임
 - ①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영웅보다는 평민을 내세워 전쟁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 ③ 외래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줄거리 :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적벽 대전에서 크게 패한 조조가 화용도로 도망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500도부수를 거느린 관운장을 만나 구차스럽게 잔명(殘命)을 빌어 목숨을 건져 화용도를 빠져나가는 장면까지이다.
- 등장인물 :
 - 조조 : 작은 것에도 쉽게 놀라며, 겁이 많고 엄살이 심한 인물이다. 자신의 약점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안목이 부족하다.
 - 정욱 : 방자형 인물로 익살스럽다. 상전인 조조를 조롱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적벽가에서는 조조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창조적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피가 많은 인물로 등장하지만 '적벽가'에서는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 적벽가의 인물 : 적벽가에서는 삼국지연의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기존의 인물을 변화시키고 있다. 삼국지연의는 영웅들의 쟁패인 만큼 보통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벽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는 이름없는 병사들을 다수 등장시켜 그들의 사연을 토로하게 한다. 또 조조는 매우 획극적인 인물로 만들고 그 모사인 정욱을 춘향가의 '방자'와 같은 인물로 변용시키고 있다. 이것은 판소리가 영웅서사시가 아니라 범인(凡人)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삼국지연의와 판소리 적벽가의 비교

	갈래	내용	주인공	인물형상	작가의식	조조의 모습	미의식
삼국지연의	소설	영웅의 활약	장수(영웅)	유형화	영웅주의	영웅화	비장미, 송고미
적벽가	판소리 사설	전쟁중의 민중의 모습	군사(민중)	개성화	민중의식	풍자 (희화화)	골계미

삼국지연의	적벽가
웅장한 전쟁 장면과 무수한 영웅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다. 하층 군사들은 소외된 채 전쟁의 희생물 로밖에 되지 않는다.	최하층 군사들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의 존재를 쓰고 있으며, 그들이 전쟁에서 겪은 고난과 역할, 전쟁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있다.

●적벽가와 화용도

신재효의 작품인 '적벽가'는 이전의 완판본인 '화용도'와 매우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우선 '화용도'가 사건이 주가 되고 인물이 종이 되는 반면 '적벽가'는 인물이 주 사건이 종이 되는 경향을 이룬다. 그로 인해 적벽가는 사건을 적게 다루면서도 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표현과 행동 묘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화용도'에서는 평면적인 사건만을 길게 나열할 뿐 인물의 심리 묘사가 등한시 되고 있다. 이 점이 적벽가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

● 특징 : 이 작품은 '삼국지연의'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영웅적이었던 인물인 조조를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희화화하고 적벽대전에 패하여 비굴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으며 무명의 여러 군사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해학적인 희극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내용 연구

[아니리 : 판소리에서 연기자가 창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극적인 줄거리를 엮어 나가는 사설]

군사들이 승기(勝氣)[이기려는 기개]내어 주욱을 장식[다투어 먹음]하고,

[중머리 장단 : 보통 빠른 장단이므로 사설의 극적 상황이 서정적인 장면이나 서술하는 대목에 많이 쓰인다.]

노래 불러 춤추는 놈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鬪錢)하다 다투는 놈 반취(半醉)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 창 끝에다가 턱 꺾인 놈, 처처(處處) 많은 군병 중에 병노직장위불행(兵勞則將爲不幸 :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앞으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뜻)이라. 장하(帳下 : 장막 아래)의 한 군사 전립(戰笠 : 군인이 쓰는 병거지) 벗어 또루루 말아 베고 누워 붓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니, - 병사들의 다양한 모습

[아니리]

한 군사 내달으며,

“아나 이에 승상(丞相 : 중국의 옛 벼슬 이름, 여기에서는 조조를 뜻함.)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천리 전쟁을 나오시어 승부를 미결(未決 : 아직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함)하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데, 이놈 요망스럽게 왜 울음을 우느냐 우지 말고 이리 오느라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 연(然)하여 왈,

“네 설움 제쳐 놓고 내 설움 들어 보아라.” - 울고 있는 병사를 나무라며 술을 권함

[진양조 장단 : '세마치' 장단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느린 장단으로 극적 상황이나 한가한 서정적인 장면에 많이 쓰인다]

고당상학발양친(高堂上鶴髮兩親 : 머리가 희어져서 늙은 부모가 거처하는 곳.) 배별(拜別 : 배웅하여 이별함.)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혜(父兮)여 생아(生我)하시고[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모혜(母兮)여 육아(育我)하시니[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 시경의 소아편에 나오는 말], 육보지은덕(欲報之恩德 :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인데 호천 망극(昊天罔極 : 끝이 없이 넓고 큼.)이로구나. 화목하던 전대권당(全大眷黨 : 일가 친척.) 규중[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의 홍안 처자(紅顏妻子 : 나이가 어린 처) 천리 전장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내일이나 기별이 올까나 기다리고 바라다가, 서산에 해는 기울어지니 출문망(出門望 : 부모가 문 밖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 춘추 시대 위나라 사람인 왕손가가, 섬기던 민왕이 사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임금이 간 곳을 몰라 그냥 집으로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나는 네가 아침에 나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대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리고'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밖에 나가 기다리는데' 너는 임금이 간 곳을 모르는데도 집으로 돌아오느냐?"하고 꾸짖은 데서 비롯된 말이다.)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비 죽죽 오는데 의려지망(依閨之望 : 집 밖에서 기대어 기다림.) 몇 번이나 되며 서중의 흉안 거래(鴻雁去來 : 하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자기 나라로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만에 돌아온 것에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전할 방도가 없음을 한탄하기 위해 끌어들인 것이다) 편지를 뉘 전하며 상사곡(相思曲 : 악부신가의 서른여섯 곡중 하나) 단장해(斷腸解 :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리움.)는 주야 수심에 멎혔구나[오매불망 : 자나깨나 잊지 않음]. 조총(鳥銃 : 임진왜란 때 왜군이 쓰던 총. 적벽 대전 당시에는 없던 무기로 판소리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 주는 말.) 환도(環刀)를 둘러메고 육전 수전을 섞어 할 제 생사(生死)가 조석(朝夕)이로구나. 만일 객사(客死 : 객지에서 죽음)를 하게 되면 게 뉘라서 암사[장사를 지냄.]를 하며 골목사장(骨曝沙場 : 모래밭에 참혹하게 죽음)에 흩어져서 오연(烏鳶 : 가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들 뉘라 손뼉을 두다리며 후여쳐 날려 줄이 뉘 있드란 말이나. 일일사친(日思親 : 매일매일 아버이를 생각함) 십이시(十二時)로구나.[하루에도 열두 번이나 부모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리]

이렇듯이 설이 우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너 설음이 충효지심 기특하다.

(중략)

또 한 군사 나서며,

[중머리 장단]

여봐라 군사들아 이내 설움을 들어라 너 내 이 설움을 들어 보라. 나는 남의 오대 독신으로 어려서 장가들어 근 오십이 장근토록[가까이 되도록.]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월 부부 한탄하다.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온갖 공을 다 드릴 제 명산 대찰(名山大刹) 성황신당(城隍神堂) 고묘 총사(古廟叢祠 : 오래된 사당과 여러 신을 모신 사당) 석불 보살미륵 노구맞이[제사를 지내기 위한 밥차림] 집짓기와 칠성 불공 나한 불공(羅漢佛供) 백일산제(百日山祭) 신중맞이 가사 시주(架娑施主) 연등시주(燃燈施主) 다리 권선(勸善)[다리를 만드는데에 시주함.] 길닥기며 집에 들어 있는 날은 성조조왕(成造王 : 선조신과 조왕신) 당산(堂山) 천룡(天龍 : 장독대의 신) 중천 군웅(衆天軍雄) 지신제(地神祭)를 지극 정성 드리니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신든 남기가 꺾어지랴. 그 달부터 태기(胎氣)가 있어 석부정부좌(席不正不坐)하고 할부정불식(割不正不食)하고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 : 귀로는 부정한 소리를 듣지 않고)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 : 눈으로는 나쁜 일을 보지 않고) 십삭[열달]이 절절찬 연후에 하루는 행복기미[해산할 기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혼미(昏迷 : 의식이 흐림) 중 탄생하니 말이라도 반가울 때 아들을 낳았구나. 열 손에다 떠받들어 땅에 누일 날 전혀 없이 삼칠일(三七日)이 지나고 오륙 삭이 넘어 발바닥에 살이 올라 터덕터덕 노는 모양 방긋방긋 웃는 모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취암잘강 섬마 등등 내 아들 웃고름에 돈을 채여 감을 사 껌질 베껴 손에 주며 주야사랑 애정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뜻밖에 이한 난리 위국 땅 백성들이 적벽으로 싸움가자 나오너라 외는 소리 아니올 수 없던구나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재배 하직한 후 간간한[연약한] 어린 자식 유정한[다정한] 가족 얼굴 누워 등치며 부디 이 자식을 잘 길러 나의 후사(後嗣 : 자손이 뒤를 잇는 일)를 전해 주오. 생이별 하직하고 전장예를 나왔으나 언제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림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웅아 엮어 볼거냐. 아이고 내 일이야.

[아니리]

이렇듯이 설이 우니 여러 군사 꾸짖어 왈, 어라 이 놈 자식 두고 생각하는 정 졸장부의 말이다. 전장에 너 죽어도 후사는 전하겠으니 네 설움은 가소로다. 또 한 군사가 나서면서,

[중머리 장단]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고[중의적 표현] 일가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孑孓單身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이내 몸이 이성지함(二姓之合 : 두 성씨가 만나 혼인함)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형실도 조출하야[단정하여]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身安定 : 몸을 의탁하고 편히 지냄) 떠날 뜻이 바이[전혀]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서로 충포를 들이대며 싸우는 전투] 외는 위국땅 백성들이 적벽으로 싸움가자 웨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립(戰笠)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엮더지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팔 흥안 젊은 년을 나 혼자만 떼어놓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 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 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울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여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전장 불식이라[날이 거듭되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잡았던 손길을 - 불식이라 : 잡았던 손길을 떨치고 전장에 나왔으나 날이 계속되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한다.]. 살아가기 꾀를 낸들 동서남북으로 수직(守直 : 지키니)을 하니 함정에 든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살아가기 - 고기로구나 : 살아 돌아갈 일을 도모하여도 사방에서 지키고 있어 꼼짝도 못함을 함정에 든 범과 그물에 걸린 고기로 비유하고 있다.]. 어느 때난 고국을 갈지 무주공산 해골이 될지 생사가 조석이라. 어서 수이 고향을 가서 그림던 마누라 손길을 부여잡고 만단정회[여러 가지의 시름과 그리움] 풀어 볼꺼냐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 아니리 : 판소리에서 연기자가 창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극적인 줄거리를 엮어 나가는 사설
- 진양조 장단 : '세마치' 장단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느린 장단으로 극적 상황이나 한가한 서정적인 장면에 많이 쓰인다.
- 중머리 장단 : 보통 빠른 장단이므로 사설의 극적 상황이 서정적인 장면이나 서술하는 대목에 많이 쓰인다.
- 병노직장위불행 :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 앞으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뜻
- 승상(丞相) : 중국의 옛 벼슬 이름. 여기에서는 조조를 뜻함.
- 고당상학발양친(高堂上鶴髮兩親) : 머리가 희어져서 늙은 부모가 거처하는 곳.
- 배별(拜別) : 배웅하여 이별함.
- 부혜여 생아(生我)하시고 :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 모혜여 육아하시니 :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 육보지은덕(欲報之恩德) :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
- 호천 망극(昊天罔極) : 끝이 없이 넓고 큼.
- 전대권당(全大眷黨) : 일가 친척.
- 홍안처자(紅顏妻子) : 나이가 어린 처.
- 출문망(出門望) : 부모가 문 밖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 춘추 시대 위나라 사람인 왕손가가, 섬기던 민왕이 사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으나 임금이 간 곳을 몰라 그냥 집으로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나는 네가 아침에 나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대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리고'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밖에 나가 기다리는데' 너는 임금이 간 곳을 모르는 데도 집으로 돌아오느냐?"하고 꾸짖은 데서 비롯된 말이다.
- 의려지망(依閭之望) : 집 밖에서 기대어 기다림.
- 홍안 거래(鴻雁去來) : 하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북쪽 바닷가로 귀양을 갔는데, 사연을 적은 비단을 기러기 발에 매어 자기 나라로 날려 보내 제 처지를 알려서 19년만에 돌아온 것에서 나온 말.
- 상사곡(相思曲) : 악부신가의 서른여섯 곡중 하나.
- 단장해(斷腸解) :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리움.
- 조총(鳥銃) : 임진왜란 때 왜군이 쓰던 총. 적벽 대전 당시에는 없던 무기로 판소리의 구비문학 적 성격을 보여 주는 말.
- 암사 : 장사를 지냄.
- 골폭사장(骨曝沙場) : 모래밭에 참혹하게 죽음.
- 오연(烏鳶) : 가마귀아 술개
- 일일사친(日日思親) : 매일매일 아버이를 생각함.
- 장근토록 : 가까이 되도록.
- 고묘 총사 : 오래된 사당과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노구맛이 : 제사를 지내기 위한 밥차림.
- 다리권선 : 다리를 만드는데에 시주함.
- 성조조왕 : 선조신과 조양신
- 천룡(天龍) : 장독대의 신
- 해복기미 : 해산할 기미
- 간간한 : 연약한
- 유정한 : 다정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후사 : 자손이 뒤를 잇는 일
- 탁신안정 : 몸을 의탁하고 편히 지냄
- 불화병 : 서로 총포를 들이대며 싸우는 전투
- 일부지전장 불식 : 날이 거듭되어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 허니 : 지키니.
- 만단정화 : 여러 가지의 시름과 그리움
- 잡았던 손길을 - 불식이라 : 잡았던 손길을 떨치고 전장에 나왔으나 날이 계속되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안타까워 한다.
- 살아가기 - 고기로구나 : 살아 돌아갈 일을 도모하여도 사방에서 지키고 있어 꿈쩍도 못함을 함정에 든 범과 그물에 걸린 고기로 비유하고 있다.

--- 작품 해설 ---

'적벽가'중 유명한 군사 설움 대목이다. 적벽가의 원전(原典)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는 없는 것으로 판소리 창자(唱者)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넣은 것이다.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吳)나라와 대치하여 일전(一戰)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 이른바 적벽 대전(赤壁大戰)의 전야(前夜)에 조조의 군사들이 제각기 설움을 늘어놓는다. 이들의 설움은 고향의 부모?처자를 이별하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의 애뜻한 사연이어서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설움이다. 더욱이 이들은 다음 날이면 제갈공명의 동남풍을 이용한 주유의 화공(火攻)에 죽거나 부상당할 운명이어서 그 슬픔은 더욱 고조된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소설-심청전

요점 정리

- 작가 : 미상
- 연대 : 미상
- 종류 : 고대소설, 도덕소설, 판소리계 소설
- 성격 : 교훈적, 비현실적, 우연적, 환상적
- 문체 : 가사체, 운문체
- 구성 : 단순 구성

- ① 발단(發端) : 심청의 출생과 성장 과정.
- ② 전개(展開) : 심청이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하는 고생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몸을 팔게 됨
- ③ 위기(危機) :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짐.
- ④ 절정(絶頂) : 다시 살아나 왕후가 됨.
- ⑤ 결말(結末) : 아버지를 만나고, 심 봉사는 눈을 뜨게 됨.

- 주제 : ①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② 인과응보(因果應報), 권선징악
- 형성 : 설화('효녀 지은')→ 판소리 사설(수궁가, 심청가)→ 고대 소설(심청전) → 신소설(강상련(江上蓮))
- 배경 사상 :

유교의 효사상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인당수 제물로 팔려감
도교의 신선 사상	천상의 선녀였던 심청이 인간 사회로 적강함, 물에 빠진 심청을 용왕이 구출하여 인간 세계로 나아가게 함.
불교의 인과응보	효성이 지극하여 후에 복을 받음
민간 신앙	심 봉사가 제의적 행위를 통해 눈을 뜰 수 있다고 믿음, 인간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냄.

- 특징 :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 작품의 심청의 희생과 환생 및 심 봉사의 개인이라는 전개를 통해 효의 관념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우리 고전 소설의 백미로 평가받음.
- 기타 : 인신공회설화(人身供懷說話), 효자불공구친설화(孝子佛供救親說話), 맹인득안설화(盲人得眼說話)를 근원 설화로 보며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孝女知恩)' 일명 '연권녀(連權女) 설화', '삼국유사'의 '빈녀양모(貧女良母)와 '거타지 설화', 전남 성덕산 관음사 연기문(觀音寺緣起文)에 나오는 홍장(洪莊)처녀 이야기 등을 문헌상의 근원설화로 본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첨삭(添削)된 적층 문학(積層文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출전 : 완판본 "심청전"

내용 연구

심청이 아버지께 여쭙기를,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실어다 주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 봉사가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야?”
 심청 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아버지를 속일까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되[서술자의 개입 - 편집자적 논평],
 “장 승상 댁 노부인께서 한 달 전에 저를 수양[양녀]딸로 삼으려 하였는데,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공양미 삼백 석을 장만할 길이 없기로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쭙온즉, 백미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팔렸나이다.”
 하니, 심 봉사가 물색(物色 : 형편이나 까닭)도 모르면서 이 말만 반겨 듣고,
 “그러하면 거룩하다. 그 부인은 한 나라 재상(宰相 : 왕을 도와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이품 이상의 벼슬의 총칭. 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을 많이 받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이름을 날렸나 보구나.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린단 말이 듣기에 괴이하다마는 장 승상 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날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허,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 **심 봉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장 승상 댁에 수양딸로 간다고 거짓말을 함**

밤은 깊어 삼경[**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 속담 알아두기 - 삼경에 만난 액이라 : 뜻밖에 맞이하는 액(厄)이라는 뜻.**]인데 은하수가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을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 소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가슴 속에서 솟아난다. 아버지가 꺾까 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보며,

“날 볼 날이 몇 밤인가? 내가 한번 죽어지면 누굴 믿고 살으실까? 애답도다, 우리 아버지. 내가 철을 알고 나서 밥 빌기를 놓으시더니, 내일부터라도 동네 거지 되겠으니 눈치인들 오죽하며 멸시인들 오죽할까. 무슨 험한 팔자로서 초칠일 안에 어머니 죽고 아버지조차 이별하니, 이런 일도 또 있을까?**[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저문 날에 구름 일 때 소동천의 모자 이별, 수유포 꽃 놀이에 근심하던 용산의 형제 이별, 타향살이 설워하던 위성의 친구 이별, 전쟁터에 임을 보낸 오희 월녀 부부 이별, 이런 이별 많건마는 살아 당한 이별이야 소식 들을 날이 있고 만날 날이 있건마는, 우리 부녀 이별이야 어느 날에 소식 알며 어느 때에 또 만날까?**[심청의 심리 - 절망감]** 돌아가신 어머니는 황천(黃泉)으로 가 계시고, 나는 이제 죽게 되면 수궁으로 갈 것이니, 수궁에서 황천 가기 몇만 리 몇천 리나 되는고? 모녀 상면(上面)하려 한들 어머니가 나를 어찌 알며, 내가 어찌 어머니를 알리. 만일 묻고 물어 찾아가서 모녀 상면하는 날에 응당 아버지 소식을 물을 것이니, 무슨 말씀으로 대답하리**[불교의 윤회사상]**. 오늘 밤 새벽 때를 함지(咸池 :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에다 머물게 하고, 내일 아침 뜬 해를 부상지**[옛 중국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한 상상(想像)의 신성한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다는 곳]**에다 맬 양이면 가련하신 우리 아버지 좀더 모셔 보련마는, 날이 가고 달이 가는 것을 뒤라서 막을소냐. 애고 애고, 설운지고.” -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하고 슬퍼함**

이렇듯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 소저를 가져 할 때, 무릉촌 장 승상 댁 부인이 그제야 이 말**[심청이 뱃사람들에게 팔려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 소저를 부른다.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네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앓는구나. 백미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네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나와 의논했다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으리라. 백미 삼백 석을 이제라도 내어 줄 것이니, 뱃사람들에게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의 소식을 듣고 백미 삼백 석을 내어 주려 함.**

하시니, 심 소저가 여쭙오되,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오리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드릴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장 승상이 주려고 한 백미를 말함]**을 바라며, 백미 삼백 석을 도로 내어 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삽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금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 하는 짓이라.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려니와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낫을 들어 무슨 말을 하오리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結草報恩 :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하오리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구나.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하릴없이 더는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하시거늘, 심 소저가 울며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前生)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리까? 글 한 수를 지어 정(情)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이리다.”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 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제,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簇子 : **글씨나 그림 등을 꾸며서 벽에 걸게 만든 두루마리**)로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에 하였오되,

‘사람의 죽고 사는 게 한 꿈 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풀 뜬 강남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심청의 죽음을 의미함].**’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해와 감상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국문 목판본 · 필사본 · 활자본. 활자본 < 강상련 江上蓮 > (1912)은 이해조 (李海朝)가 신소설로 개작한 것이다. 수십 종의 이본이 있는데, 이들 중 성격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경판본 (京板本)계열과 완판본 (完板本)계열이다.

경판본은 판소리와 관계가 없이 설화가 소설화된 작품이며, 완판본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작품이다. 경판본으로는 한남서림(翰南書林)본, 대영박물관 소장본, 송동(宋洞)본, 안성본 등이 있고 완판본은 6종이 있는데 이들은 내용은 물론 판형 · 장 · 행 · 자수(字數) · 자위(字位)까지 동일하나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들 판본의 선후관계는 한남서림본 → 송동본 → 안성본 → 완판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활자본인 이해조의 < 강상련 > 은 완판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첨삭을 가하여 신소설로 개작한 것이다.

다른 활자본의 모본이 되어 그후 1915년 광동서국(光東書局), 1921년 대창서원(大昌書院) 등에서 < 강상련 > 에 약간의 첨삭을 가하여 출판하였다. 이본들 중 공통 줄거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경판본계열이고, 완판본계열로 가면 더 많은 내용이 첨가된다. 경판 24장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

명나라 성화연간에 남군팡의 명유(名儒) 심현이 부인 정씨와 살았다. 혈육이 없어 걱정하였는데 신기한 꿈을 꾸고 딸 심청을 낳는다. 청이 3세가 되는 해에 정씨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심현도 질병에 걸려 안질을 앓아 맹인이 된다.

맹인 심현의 사랑을 받고 자란 심청은 7, 8세부터 효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13세 된 심청이 장자집의 방아를 짚어주고 늦어지자 심공이 혼자 나가다가 구렁에 빠진다. 이때 명월산 운심동 개법당의 화주승이 그를 구해주고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장래에 부녀 영화를 보리라 한다. 이 말을 들은 심공은 전후사를 생각하지 않고 신심을 발하여 시주를 서약한다. 남몰래 고민하는 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심청은 천지신명께 지성으로 빈다.

그날 밤 꿈에 나타난 노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청은 날이 밝기를 기다린다. 과연 남경상고가 유리국 인단소에 산 사람으로 제사하려고 티없는 처녀를 사러 다닌다. 심청은 수중고혼(水中孤魂 :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이 되기로 결심하고 기꺼이 몸을 팔아 백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친다.

행선날에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리고 떠나려 하자 심공은 통곡하며 만류한다. 이 광경을 본 상고들은 수일을 연기하여주고 백미 50석을 더 주고 떠난다.

인단소에 빠진 심청은 동해용왕의 시녀들에게 구조되어 용궁으로 인도된다. 심청은 희생약을 먹고 깨어나 자신이 전생에 초간왕의 귀녀 규성(동해용녀)이었고, 아버지는 노군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 그동안 모든 괴로움이 석가세존의 시험이었음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세존의 덕으로 부녀가 유리국에 나아가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되리라는 것도 듣게 된다. 큰 꽃송이 속에 들어 인단소에 떠 있던 심청은 남경상고들에 의하여 유리국 왕궁으로 가게 된다. 꽃 속에서 나온 심청은 마침내 왕후가 되어 자비와 선정을 베풀도록 왕을 돕고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맹인잔치를 열게 한다.

맹인잔치 마지막날 말석에 앉았던 심공은 죽었던 딸을 만나고 그 딸이 왕후가 되었다는 말에 눈을 뜬다. 심공은 좌승상 임한의 딸을 맞아 재혼하니 신부의 현숙함과 심공의 희열이 비할 데 없었다.

[경판본과 완판본의 비교]

경판본에서는 출천대효(出天大孝) 심청과 그의 아버지 심학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심청은 오직 눈먼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다가 인단소에 투신한다.

투신 이후에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일념만을 보인다. 심봉사 역시 딸만을 위하여 살 뿐이며, 심청의 투신 이후에도 심청만을 생각하며 초라하게 살아간다.

경판본의 작자는 작품 전체에 지극한 효성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전력하고 있으며, 심청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경판본은 유교적 엄숙성과 숙명론적 운명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편 완판본은 경판본보다 훨씬 더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을 담고 있다. 완판본에는 무릉촌 장승상 부인, 뺨덕어미, 귀덕어미, 무릉촌 태수, 방아찰는 아낙네들, 황봉사, 안씨 맹인 등의 인물들이 더 등장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여 심봉사를 희화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장승상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부인은 심청에게 양녀 되기를 제안하고 또 심청의 죽음을 통한 효의 실현에 반대한다. 즉, 장승 상 부인은 심청이 추구하는 유교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적 해결방법을 내놓는 인물로서 기능한다.

뽕덕어미는 심청과는 정반대로 현실적이고 물질지향적인 인물로서 심봉사를 현실적이고 비속한 인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 심청은 경판본이나 완판본이나 성격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나, 심봉사는 두 본에서 성격이 아주 다른 인물로 나타난다.

경판본의 심봉사는 한결같이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인물인 데 반하여, 완판본의 심봉사는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완판본의 심봉사는 “ 누세 잠영지족으로 문명이 자자 ” 한 양반집 후예였으나 화주승에게 공양미를 시주하겠다고 할 때는 “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말 하겠소. 눈 뜰라다가 안진백이 되게요, 사람만 업수이 여기난고 염려말고 적으시오. ” 하고 말하는 위인이 다.

그는 또 천하의 잡녀(雜女)인 뽕덕어미와 놀아나다 “ 여러 해 주린 판이라 그 중의 실낙은 있어 아모란 줄을 모르고 가산이 점점 퇴패 ” 하는 치졸한 인물이다.

심청의 투신 이후의 심봉사에게는 투신 이전에 지냈던 위엄은 사라지고, 태수 앞에서 허풍과 억지를 부리는 못난이며, 방아찰는 여인네와 음담(淫談)을 즐기는 비속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인하여 완판본은 유교적 엄숙성이나 숙명론적 운명관에 지배되지 않는다.

완판본은 유교적 효를 지켜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한편으로 당대 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완판본에는 관념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가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경판본과 완판본의 구성 양식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내용에 따라 단순, 소박하고 차분하게 짜여진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풍성한 내용에 따라 복잡, 장황하고 들떠 있는 양식이다. 문체에 있어서는, 경판본의 것이 과거의 전아한 멋을 지닌 간결, 소박한 산문체인 데 비하여, 완판본의 것은 풍부한 형용사나 감탄사는 물론, 삽입가요 · 잔사설 · 고사성어 · 한시 등을 끌어들이 부연하고 윤색된 울문체이다.

[심청전의 주제]

〈 심청전 〉 의 주제는 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효가 유교적 효인가 불교적 효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한편, 효보다는 심청의 자기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 살신성효(殺身成孝)를 통한 무상의 행복에의 추구 ’ , ‘ 아버지의 신체적 불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딸의 대속적 자기희생(代贖的自己犧牲)의 양양 ’ 을 주제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교적 측면에서 효보다는 더 근원적인 희생적 참회, 비원에 의한 무상(無上)의 제도(濟度), 즉 절대적 불공에 따른 ‘ 왕생극락(往生極樂) ’ 이 주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 심청전 〉 을 성년식 소설로 보고, 심청이 무지(無知) · 무명 (無明)으로부터 깨어나 인식과 각성에 이름으로써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제 논의는 주로 경판 24장본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인 완판본의 주제는 두개로 이야기된다.

즉, ‘ 영웅의 일생 ’ 이라는 전승적 유형을 충실히 따르는 부분에서는 유교이념을 긍정하는 보수적 관념론의 입장이 제시되고, 판소리로 불리면서 새로이 첨가된 부분에서는 유교이념을 부정하는 진보적 현실주의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주제가 상호 갈등하면서 공존해 있는 것이 완판본 〈 심청전 〉 의 한계이자 특성인 것으로 지적된다.

[심청전의 배경 사상]

〈 심청전 〉 의 배경사상으로는 불교와 도교사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를 배경사상으로 보는 이들은 불교의 인과사상과 지은보은사상(知恩報恩思想)을 든다. 이에 대하여 설화적 구성에 있어서는 불교적 요소가 보이나 그 창작의식에 있어서는 철저히 반불교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양미 300석은 어떠한 효험도 나타내주지 않았고, 몽운사의 화주승은 흑세무민의 비방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작품의 전반은 유교의 효와 불교의 영험사상이 혼합되어 인과사상으로 귀결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심청전 〉은 향유층의 세계관과 서술시각에 따라 심청과 심봉사의 비극적 처지를 부각시키는 경향, 심청의 효행에 대한 환상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경향, 상대적으로 골계미와 낭만성을 강화시켜 나아간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 심청전 〉은 개인 창작적 주제의식에서부터 판소리 향유층의 확대과정에 따른 다층적 미학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심화 자료

● '심청전(沈淸傳)'의 주제

심청의 행동을 중심으로 보면, 우선 이 작품의 주제는 '효(孝)'이다. 이 효는 유교적 덕목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심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 효인가 라는 반문(反問)도 제기된다. 자식의 희생으로 눈을 뜬다는 것이 심 봉사로서는 더 큰 아픔이자 슬픔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고 난 뒤 심봉사가 뺨덕 어미와 별이는 행각은 도덕적 덕목과는 거리가 먼 비속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심청은 물에 빠졌다가 거둬나기 때문에 그 제의적(祭衣的) 의미 역시 중요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의 주제는 논란거리인 만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그 현대적 의미도 거듭 평가되고 있다.

● '심청전(沈淸傳)'의 희극성

'심청전'에서 희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심 봉사와 뺨덕 어미의 행위와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심 봉사는 딸을 사지(死地)에 보내 놓고는 돈으로 인해 공연히 마음이 헤퍼지는 범속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전화하고 만다. 심청이 보인 비극적 행위에 비하면 심 봉사의 행위는 희극적인데, 사실은 이것이 화폐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당대 서민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화폐 경제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웃음'으로 극복해 보려는 당대 민중의 진솔한 자기 표현이기도 하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잘 드러나는 '웃음'의 의미는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더욱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이다

● 판소리 '심청가'

판소리는 구비 서사이고,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정착되어 소설로 읽히는 것을 말한다. 조선 고종 때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 중의 하나이다. 전래 설화에서 판소리로 가창되던 것으로 고대 소설로 정착되기 이전의 구전 문학이다.

● '심청전'의 문체

이 소설의 문체는 3(4)·4의 가사체이다. '심청전'은 전통적인 운율을 지닌 운문체로서 국악 창극의 대본이 되었으며, 문장에 있어 첫머리부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까지는 문장이 매우 아름다워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겠으나 옹공에 들어간 뒤로 왕후가 되기까지는 구상이 저속하고 문장이 치졸하여 용두사미(龍頭蛇尾)의 아쉬움이 없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이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애독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천인(賤人)이 귀인(貴人)이 되고, 평민이 왕후가 되었다는 여성들의 가장 큰 이상(理想)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 여성의 동경과 야망을 심청이를 통하여 실현시킨 것이다.

● 심청전의 기원

1971년 '월간문학'에 발표한 김상일의 평론으로 먼저 심청을 기호학적으로 해부.'홍수, 맑다'라는 개념을 소개한 뒤, 그 문체를 분석한다. 그 결과 물이라는 이미저리를 물리학적으로 접근시켜, '심청전'의 구조가 자연의 순환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부계의 기원을 정리하되 식물계라는 것이다. 또 '심청전'에 등장하는 신들이 우주적 모성을 가리킨다는 것이며, 끝으로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을 원용, '심청전'의 시스템과 위계를 정리했다.

[滿開] 고전소설-조웅전

●요점 정리

- 작가 : 미상
- 연대 : 미상(18~19세기일 것으로 추정)
- 형식 : 고소설, 국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軍談小說)
- 성격 : 영웅적, 낭만적
- 구성

전반부	주인공 조웅의 고행담과 결연담 - 이두병의 모해를 피하기 위해 조웅이 겪게 되는 고난과 장소저와 만나 혼인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룸
후반부	영웅적인 무용담 -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태자를 등극시키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룸

- 주제 : 진중보국(盡忠報國 :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은혜를 갚음)과 자유연애
- 특징 :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통일을 이루었으며, '유충렬전(劉忠烈傳)'과 구성에 비슷한 점이 있으나 사건이 더욱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는 혼전 정사는 춘향전의 이몽룡과 성춘향이를 연상케 하고, 한시(漢詩)가 빈번하게 인용되는 것도 이 소설의 한 가지 특징이다.
대체로 명산 대전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아들을 얻게 되는 기자(祈子) 치성 이야기가 없고, 주인공이 천상의 고귀한 신분을 가졌으나 특별한 인연으로 지상에 하강한다는 식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또, 장 소저와 혼전에 동참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 갈등 :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	이두병의 참소로 인해 조웅의 아버지 조정인이 자살함 이두병이 조웅마저 모해하려 하자 조웅이 피난함	아버지 조정의 죽음에 따른 숙명적인 것
조웅과 번왕의 대립	위국의 왕을 도와 서번을 격파함 서번을 격파하는 중에 쫓겨난 태자가 위험에 처하자 태자를 구출함	부친이 위왕과 우호 관계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	위국으로 간 조웅은 다시 군대를 모아 이두병의 군대를 물리침 태자를 다시 황제로 모시고 왕실을 회복함	

• 인물들의 관계

월경도사, 철관도사	조력	조웅	대립	이두병
월경도사는 술법과 지혜를, 철관도사는 병법과 무술을 지도함		이두병에게 아버지를 잃음 태자와 친구처럼 지냄 두 도사에게 술법과 무예를 배움		조웅의 부친을 참소하여 자살하게 함. 태자를 폐하고 황제가 됨 조웅을 제거하려함
		장소저	대립	자사
		조웅과 혼인을 약속함		장소저를 후처로 삼으려 함

- 줄거리 : 배경(背景)은 중국 송(宋)나라로, 주인공 조웅과 문제(文帝)의 태자가 간신 이두병(李斗柄)의 발호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후일을 기약하고 작별한다. 방랑하던 조웅이 장소저(張小姐)를 만나 장래를 약속한 뒤, 위기에 빠진 태자를 구출하고 수십만 대군으로 간신 이두병을 무찔러 송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 문제(文帝) 때 공신(功臣)이자 좌승상일 조정인은 간신(姦臣)인 우승상 이두병의 참소(讒訴)를 입고 음독 자살(自殺)한다. 천자는 조 승상의 죽음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조 승상의 아들 조웅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태자와 함께 있게 하고, 태자는 조웅을 형제(兄弟)처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두병은 천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웅을 후한이 두려워 죽이려고 한다. 하루는 조웅이 거리에 나가서 이승상에 대한 욕을 거리에 써 붙이고 돌아오는데, 그 날 밤 조웅의 어머니가, 이 승상이 조웅을 죽이려고 한다는 몽조(夢兆)를 얻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조정(朝廷)에서는 문제(文帝)가 세상(世上)을 떠나고 태자가 등극(登極)한다. 이에 간신 이두병이 권세를 마음껏 부리다가 마침내 어린 황제(皇帝)를 외딴 섬으로 축출(逐出)하고 스스로 제위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올라 자칭 천자(天子)라 하니, 만조 백관이 복종(服從)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웅 모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다가, 부친(父親)의 초상을 그려 준 월결 대사를 만나 산사로 들어가 의탁(依託)하게 된다. 어느덧 15세가 된 조웅은 모친(母親)과 대사에게 출세(出世)할 결심을 말하고 도승(道僧)을 찾아가는데, 낙산 도사로부터 3척 신검을 얻고, 찰관 도사를 만나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게 된다. 조웅이 하루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도중 위국공 장 진사의 집에 우연히 들러 장 진사의 딸 장 소저와 남몰래 백년가약을 맺는다. 조웅을 보내고 장 소저는 연모 끝에 병이 들어 죽는다. 조웅은 도사로부터 장소저가 병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도사가 주는 선약(仙藥)을 가지고 가서 소저를 소생(蘇生)시킨다.

이에 장 진사는 자기 딸과의 결혼(結婚)을 승낙(承諾)한다. 조웅은 산사(山寺)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사의 분부를 받들어 변방의 오랑캐들과 역적 이두병을 격멸하고 송나라 황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선다. 도중에서, 서번이 침입(侵入)하였을 때 출전(出戰)하였다가 전사한 황군의 영혼으로부터 갑주와 보검을 얻는다. 이 때,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므로, 위국으로 달려가서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는다. 조웅은 위왕과 이별하고 태자를 구출하기 위해 남해 절도로 간다. 한편 강호 자사가 상처하고 후실을 구하던 중, 장소저가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매파를 보내어 청혼(請婚)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강제로 취하고자 한다. 장소저가 이를 피하여 산양사에 있는 강선 암으로 가서 조웅의 모친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 조웅이 남해로 가던 도중 강호 자사를 베고, 강선암으로 가서 모친(母親)과 장소저를 만나 보고는 즉시 떠난다. 태자가 있는 곳에 도달하여 마침 이두병이 사자를 보내어 태자를 죽이려는 것을 물리치고 태자를 구출(救出)한다.

서번왕이 조웅을 죽일 흥계를 꾸미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웅이 태자(太子)를 모시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도리어 조웅에게 곤욕을 당한다. 조웅은 다시 서번왕의 항복을 받고 중국으로 와서 영웅·명장을 규합하여 이두병이 임명한 지방 관리들을 차례차례로 처치하면서 위국으로 들어간다. 조웅은 위왕의 청에 의하여 위왕의 장녀(長女)를 태자의 비로 삼고, 차녀(次女)는 자신의 부인으로 삼은 뒤 강선암으로 가서 모친과 소저를 찾는다. 그 뒤 위왕과 연합하여 수십 만 대군으로 황성을 쳐서 이두병을 베고, 태자(太子)를 등극시킨다. 이에 황실(皇室)이 회복(回復)되니 조웅의 명성(名聲)은 천하(天下)에 널리 떨치게 되고, 조웅을 제후(諸侯)로 봉한다.

내용 연구

정묘년 삼월 삼일에 황제께서 붕어(崩御)하시니[**임금이 세상을 떠남 / 이두병이 발호하여 역모를 꾀하는 계기가 됨**] 태자의 애통하심과 만민의 곡성이 천지에 사무치고 왕부인 모자는 더욱 망국하더라[**망국지통(罔極之痛) : 한이 없는 슬픔으로 임금이나 아버지의 상사에 쓰는 말**]. 어느 사이에 국법과 권세가 두병의 말대로 돌아가니 백성이 망국조(亡國調)를 일삼고 산중으로 피란하더라. 이때에 조신(朝臣)이 극례[**지극한 예법**]를 갖추어 사월 사일에 황제를 서릉(西陵)에 안장(安葬)하였다. - **황제가 죽음**

하루는 조신이 노소없이 시종대(侍從臺)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역모(逆謀)에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황제의 자리를 노리니**] 조정 백관 중에 그 말을 좃지 아니 할 사람이 없었다[**지록위마(指鹿爲馬) : 위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가리키는 말**]. 시월 십삼일은 문제(文帝)의 탄일이라. 모든 관원이 종일토록 국사를 의논할 때 이두병이 물어 말하기를,

“이제 동궁의 나이는 팔 세라. 국사는 매우 중대한데, 팔 세 동궁의 즉위는 일이 매우 위태한지라. 법령이 점점 쇠하고 사직이 위태할 지경이면 그대들은 어찌 하려 하느뇨?”

여러 신하들이 일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조정은 십대(十代)의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찌 팔 세 동궁에게 제위(帝位)를 전하리오. 또한 황제 붕어하실 때 ‘승상과 정사를 의논하라’ 하신 유언이 있었지만 나라에는 두 왕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하늘이 없으니 어찌 협정왕(協政王)[**신하와 정사를 의논하여 나라일을 돌보는 왕(권력이 미약한 왕)**]을 두리이까?”

여러 신하들의 말이 모두 한 입에서 나온 듯하더라.

“이제 국사를 폐한 지가 여러 날이라. 엎드려 빌건대 승상은 전일의 과업을 전수하여 옥새를 받으시고 제위를 이으셔서, 조야(朝野) 신민(臣民)의 실망지탄(失望之嘆)이 없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대소 관원이 일시에 당 아래 땅에 엎드려 사배(四拜)하니 그 위엄이 서릿발 같은지라. 궐내가 떠들썩하여 창황(蒼黃)[**어찌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함. 창졸(倉卒)**] 분주하고 장안이 진동하여 자중지란(自中之亂)[**자기네 패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질**]이 일어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니 마치 병란을 당한 것과 같았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各國列邑)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外客館)으로 내치니, 시중(侍中) 빈환(嬪宦)[**여관과 환관**]과 내외궁(內外宮)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에 왕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失色)하여, - **동궁을 폐하고 이두병이 황제가 됨**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축수하여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정상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 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하소서. 꿈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왕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저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웅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이때 이두병이 큰 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개원(改元)[**연호를 고침, / 왕조 · 임금이 바뀔**]하여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조신(朝臣)이 다시 간하여 태산계량도에 정배(定配)[**배소를 정하여 죄인을 유배시킴**] 안치(安置)[**안전하게 잘 둠**]하여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정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 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대하여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탕천(憤氣天)[**분한 기운이 하늘을 찌를 듯이 북받쳐 오름**]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 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관동(冠童)[**남자 어른과 남자 아이**]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파군망(國破君亡)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나,
 삼강이 불퇴(不頹)하니 오류를 고칠소나.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충신원루(忠臣怨淚) 아니시면 소인(驛人)의 하소연이로다.
 슬프다 창생(蒼生)들아, 오호(五湖)에 편주(扁舟)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에 대한 분노와 한탄이 담긴 시로 민심의 뜻을 전달함**]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구비구비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웅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나서 사생(死生)을 결단하고 싶으나 강약(強弱)이 같지 아니할 뿐더러[**조웅이 나이가 어려 힘이 약해 이두병을 물리칠 수 없다는 의미**],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筆囊)[**붓을 넣어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특히 두드러지게 글자를 크게 씬**]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삼구(數三句)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 **이두병의 행동에 대해 조웅 모자가 분노와 슬픔을 느낌**

이날 왕부인이 잠자리에서 한 꿈을 얻었는데,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부인은 무슨 잠을 그리 깊이 자는가? 날이 밝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묻기를,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급히 떠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남가지몽(南柯之夢)]
 이라. - 승상이 꿈에 나타나 도망가기를 당부함

이해와 감상

영웅 소설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널리 읽혀졌던 작품이다. 전반부는 주인공의 고행담과 결연담(結緣談)이며, 후반부는 영웅적 무용담(武勇談)으로,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나 전체적인 통일성은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영웅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도 주인공의 영웅적인 활동을 도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두 명의 부인을 거느리도록 꾸며 놓았는데 이는 동양적인 중세 남성들의 이상적인 애정관을 표현하려고 한 데에서 모든 영웅 소설이 동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충렬전'과 유사한 구성이나 사건이 좀더 현실적이며, 한시(漢詩)의 삽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국문 필사본. 군담소설(軍談小說)류 중 가장 널리 읽혔던 작품으로 많은 이본들이 전하고 있다. 간혹 '조원수전'으로 표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필사본 160여 종을 비롯하여 판각본으로 경판 · 완판 · 안성판으로 간행된 바 있으며, 활자본은 약 20여 종이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본들은 대체로 단편의 경판계(약 20장, 혹은 30장)와 장편의 완판계(전 3책, 각 책 약 30장)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양종의 내용을 상세히 대비하여 보면, 이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전체적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 조웅과 번왕의 대립, 조웅과 이두병의 대립순으로 전개되어 간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두병의 참소를 당하여 음독자살하자, 외아들 조웅도 이두병의 모략을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도망간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 모자는 다행히 월경도사를 만나 강선암으로 들어가 지내게 된다.

그 뒤 도사를 찾아가 병법과 무술을 전수받은 조웅은 강선암으로 돌아가던 도중 장진사 댁에서 유숙하다가 우연히 장소저와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이 때 서번이 침입하여 조웅이 나아가 이를 물리친다.

한편, 스스로 천자라고 한 이두병이 조웅을 잡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으나 도리어 조웅에게 연패한 끝에 사로잡히고 만다. 천자는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조웅을 제후로 봉한다.

이 작품은 '영웅의 일생'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주인공의 탄생에 있어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정성이나 태몽, 혹은 천상인의 하강과 같은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목소리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전체분량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군담도 구체적 · 사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 · 설명적이고, 도술로 바람과 비를 일으키거나 호랑이와 표범으로 변하는 등의 도술전도 제거되어 있다.

다른 군담소설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천상계 인물의 후신으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가는 데 비하여,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힘보다는 초인의 도움으로 운명을 개척해 간다.

이 작품의 애정담은 특히 전통적 유교윤리와는 어긋나는, 부모의 허락 없는 혼전성사(婚前性事)를 그리고 있어 이채롭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7언의 삽입가요는 모두 10여 개나 되는데, 그 중에는 88구나 되는 장편도 있다.

작자는 조웅을 철저한 천명사상(天命思想)으로 무장시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잘 그리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장서각도서관에 있으며, 그 밖에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구 김동욱 소장본)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 趙雄傳(曹喜雄, 螢雪出版社,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심화 자료

•조웅전 판본들

이 작품은 필사본과 목판본이 있으며, 목판본도 경판, 완판, 안성판으로 간행되었고, 활자본은 10여 종이 알려져 있다. 경판계는 단편으로 약 20~30장, 완판계는 각 30장 안팎의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웅의 아버지 이름이 완판계는 '도정인(조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경판계는 '도정(조정)'으로 된 점과, 내용의 자세하고 간략함이 다를 뿐, 근본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송나라 문제 때 승상 조정(인)이 이두병의 참소를 입고 음독 자살하니, 외아들 조웅은 이두병의 모해를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도망한다. 온갖 고생을 하며 유랑하던 조웅 모자는 다행히 월경 도사를 만나 강선암으로 들어가 의탁하게 된다. 그 뒤 도사를 찾아가 병법과 무술을 전수 받은 조웅은, 강선암으로 돌아가던 도중 장 진사 댁에서 유숙하다가 우연히 장 소저와 만나 혼인을 약속한다. 이 때 서번(西蕃)이 침입하매 조웅이 나아가 이를 물리친다. 한편, 천자를 자칭한 이두병이 조웅을 잡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으나 도리어 조웅에게 연패한 끝에 사로잡히고 만다. 천자는 이두병 일파를 처단한 뒤 조웅을 제후로 봉한다. **문학교과서에 실린 것은 이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다.**

•군담 소설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흥미의 중심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취하였는가에 따라 창작군담소설·역사군담소설·번역군담소설로 나뉜다. 창작군담소설은 작중인물이나 사건이 허구인 작품으로, 〈소대성전〉·〈장풍운전〉·〈장백전〉·〈황운전〉·〈유충렬전〉·〈조웅전〉·〈이대봉전〉·〈현수문전〉·〈남정팔난기〉·〈정수정전〉·〈홍계월전〉·〈김진옥전〉·〈곽해룡전〉·〈유문성전〉·〈권익중전〉 등 수십 종이 있는데 작자와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다. 대체로 한글로 쓰여졌고 필사본·방각본·구활자본의 세 가지 형태로 유통되었다.

대개 작품의 배경은 중국이고 외적의 침입과 간신의 반란을 평정하는 가공적 전쟁이 등장하며, 주인공은 명문대가에서 기자치성을 드려 출생하며 어려서 많은 고난을 겪다가 도사를 만나 도술과 무예를 배우고, 국가 위기에 등장하여 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수호하는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여 그 공로로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군담소설이 출현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나, 1794년에 쓰여진 야마다(山田士雲)의 〈상서기문 象符記聞〉에 〈소대성전〉·〈장풍운전〉 등의 작품명이 등장하고 1736년 중국에서 간행된 〈설인귀정동전전 薛仁貴征東全傳〉의 영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18세기 중엽 이후에 창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창작 시기는 작품에 따라 다르며 비교적 초기에 창작된 작품은 〈소대성전〉·〈장풍운전〉 등이고, 다음으로 〈조웅전〉·〈유충렬전〉 등이 나타났으며, 그 후 군담소설이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자 소설의 상업적 출판이 성행하면서 20세기 초까지 많은 작품이 지어진 것으로 본다.

창작군담소설은 충신과 간신의 대결로 정쟁에서 몰락했던 가문이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으로 국가에 큰공을 세우면서 부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도술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기술되고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유교윤리가 강조되면서도 이면에는 충(忠)이나 열(烈)에 대한 전통윤리로부터의 이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평민층이 향유하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정수정전〉·〈홍계월전〉 등의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군담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담소설이 여성층에게까지 애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군담소설로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임진록〉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임경업전〉·〈박씨전〉이 있다. 〈임진록〉은 임진왜란의 체험을 통해 형성된 설화가 후대에 결집되어 이루어진 소설로서,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사명당(四溟堂, 惟政)·김덕령(金德齡)·곽재우(郭再祐) 등 난중에 활약한 역사적 인물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다. 작품의 전체적 전개는 역사적 추이를 따르고 있으나 의병장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비현실적 도술에 의한 전쟁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 당시 활약한 임경업 장군의 전기를 소설화한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과는 달리 임경업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작품이며, 〈박씨전〉은 추녀였던 이시백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의 아내 박씨의 이인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역사의 실상과는 달리 임경업은 호왕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명장으로서 호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무능하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간신배에게 희생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박씨는 호란 당시 도술로써 적장 용혈대를 혼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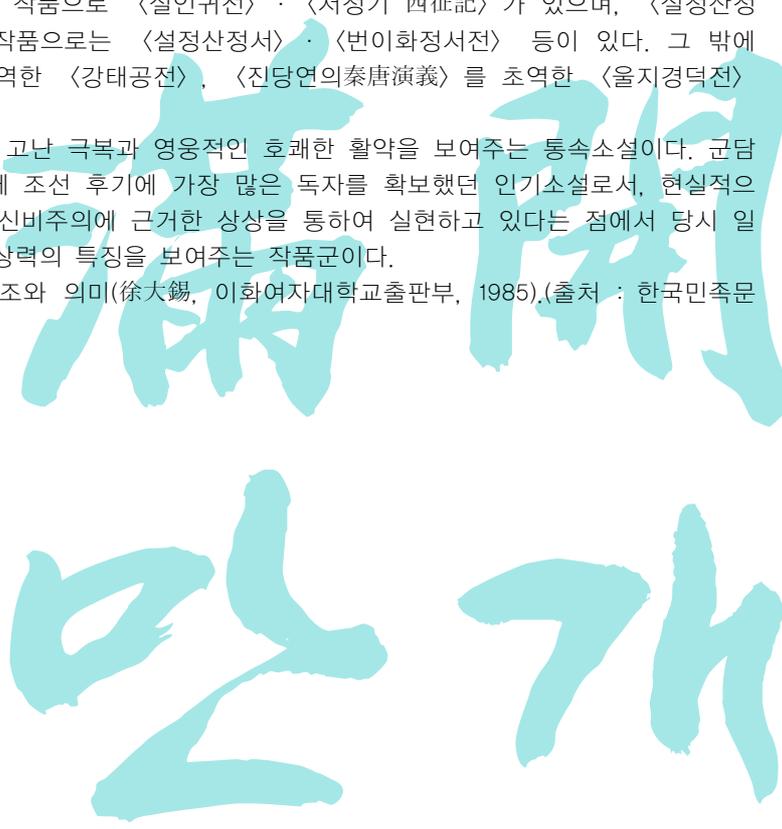
역사군담소설은 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적 능력을 과시하여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려는 의식과, 외침을 당하여 무능을 드러낸 집권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군담소설은 중국소설 〈삼국지연의〉 등이 널리 애독되고 창작군담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자 중국의 연의소설 중 특히 군담이 흥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을 초역하여 독립 작품으로 간행한 것이다. 〈삼국지연의〉에서 일부를 초역하여 독립 작품으로 간행한 작품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작품에는 〈삼국대전〉·〈적벽대전〉·〈조자룡전〉·〈화룡도실기〉·〈관운장전〉 등이 있다.

〈초한연의 楚漢演義〉를 축역한 작품으로는 〈초한전〉·〈장자방실기〉 등이 있고, 〈설인귀 정동 薛仁貴征東〉을 축역한 작품으로 〈설인귀전〉·〈서정기 西征記〉가 있으며, 〈설정산정서 薛丁山征西〉를 축역한 작품으로는 〈설정산정서〉·〈번이화정서전〉 등이 있다. 그 밖에 〈봉신연의 封神演義〉를 축역한 〈강태공전〉, 〈진당연의 秦唐演義〉를 초역한 〈울지경덕전〉 등이 있다.

군담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의 고난 극복과 영웅적인 호쾌한 활약을 보여주는 통속소설이다. 군담소설은 판소리계 소설과 함께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인기소설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염원을 도선적 신비주의에 근거한 상상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반 대중의 흥미의 성향과 상상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참고문헌》 군담소설의 구조와 의미(徐大錫,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滿開] 고전소설-박씨전

요점 정리

- 지은이 : 미상
- 연대 : 미상(18세기 이후)
- 갈래 : 역사소설, 군담소설, 여걸 소설, 영웅 소설, 도술 소설
- 성격 : 역사적, 비현실적, 전기적(grotesque)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문체 : 운문체, 역어체
- 배경 : 시대적 배경은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 직후, 공간적 배경은 조선 한양 대궐문 밖 안국방
- 구성 :

전반부(능력 발휘의 준비 단계)		후반부(능력 발휘의 실천 단계)	
가정내의 갈등 - 추한 용모로 인한 갈등을 탁월한 능력과 재치, 그리고 허물을 벗음으로 해결		사회(국가)갈등 - 자신의 도술적 재능으로 승리	
도입부(출생~결혼)	전개부(피화당 건립 ~ 병자호란)	종결부(죽음과 자손의 번영)	
기	승	전	결

기	이시백의 출생과 박씨와의 결혼(처음부터 주인공이 아닌 이시백의 출생을 다룬 것이 특징)
승	피화당의 건립과 박씨의 비범한 재주(조복 완성, 말을 키워 재물을 늘림, 남편을 장원 시킴)
전	박씨의 허물을 벗음과 병자호란에서의 영웅적 활동 1. 박씨가 도술을 써서 울대를 물리침 2. 박씨가 용울대의 항복을 받고 왕비를 구출함 3. 박씨가 용울대를 꾸짖고 용골대의 머리로 치욕을 당한 분을 풀고자 함 4. 잡혀가는 사람들의 탄식과 박씨의 위로
결	박씨의 죽음(선계로 되돌아감)과 자손의 번영

- 표현 : 변신 모티프
- 제재 : 병자호란
- 주제 :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은 민중들의 현실적인 패배와 고통을 상상 속에서 복수하고자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표현하였다. 아울러 여성을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봉건적 가족제도하에 억압당한 여성들의 해방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 의의 :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자, 연대 미상의 군담 소설로,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시련 과정을 보여준 소설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이시백의 아내 박씨는 영웅적 기상과 재주로 호왕과 적장을 농락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다.
- 등장 인물의 성격 :
 - 박씨 부인 : 이시백(李時白)의 아내. 천하의 박색이었으나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행동하는 능동적 성품을 지닌 여인(→자유롭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위안). 영웅적 기상과 재주로 호왕(胡王)과 적장을 농락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 애국적인 여인
 - 이시백 : 작품의 초반에 소개된 것과는 다르게 여자의 현숙한 덕보다는 미색을 추구하는 평범한 인물로 들어남
- 기타
 - ①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 ② 전쟁의 패배를 허구적 승리로 바꾸어 정신적인 승리의식으로 패배감을 극복하려 하였다.
 - ③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다.
- 줄거리 : 조선 인조 때 서울 안국방에서 태어난 이시백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문무를 겸하여 그 이름이 온 나라에 떨쳤다. 아버지 이 상공의 주객으로 지내던 박 처사는 자신의 둘째 딸 배필이 병조 판서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임을 알고 청혼한다. 이시백은 첫날 밤 부인이 천하의 박색임을 알고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부인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을 짓

고 시비 계화와 지내며 신이한 기적을 보이지만, 시백은 거뜨도 보지도 않는다. 박씨의 신이한 기적으로 남편을 장원급제시킨다. 박씨는 시기가 되어 3년만에 액운을 벗고 천하 절색 절대가인이 되자 거뜨떠 보지도 않던 시백은 크게 기뻐하여 박 씨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 이 때 중국의 호왕은 용골대 형제에게 수만의 병사를 주어 조선을 침략하게 한다. 천기를 보고 이를 안 박씨는 시백을 통하여 왕에게 호병이 침공하였으니 방비를 하도록 청하였으나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침내 호병의 침공으로 사직이 위태로워지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지만 결국 항서를 보낸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으나 오직 박씨의 피화당에 모인 부녀자들만은 무사하였다. 이를 안 적장 용골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그의 형 용골대도 크게 혼을 내 준다. 그러나, 박씨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오랑캐의 침략을 막아 내지만 나라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질을 보낸 것으로 전쟁은 끝난다. 왕은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서는 박씨를 총렬 부인에 봉한다. 박씨와 이시백은 국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다 선계로 돌아간다.

- (1) 한양의 이득춘이 늦게 낳은 아들 시백은 총명하고 비범하였다.
- (2) 금강산의 도사 박 처사가 자신의 딸과 시백의 혼인을 청하자, 득춘이 허락한다.
- (3) 시백은 신부의 얼굴이 추물임에 실망하여 부인을 돌보지 않는다.
- (4)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避禍堂)을 짓고, 홀로 지낸다.
- (5) 박씨는 부덕(婦德)과 신묘한 도술의 힘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남편을 장원 급제 하게 한다.
- (6) 어느 날 박 처사가 와서, 액운이 끝났다고 딸의 허물을 벗겨 주니 절세 미인으로 변한다.
- (7) 시백을 비롯한 가족들이 박씨를 사랑하게 된다.
- (8) 시백은 병조 판서가 되어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임경업과 함께 가달의 난을 평정하고 귀국한다.
- (9) 호왕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첩자를 보내지만, 박씨가 이 첩자를 쫓아 버린다.
- (10) 박씨가 시백을 통하여 호왕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했으나, 김자점의 반대로 거절된다.
- (11) 호국이 침입하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다가 항복하고 많은 사람이 화를 당한다.
- (12) 적장 용골대의 아우가 피화당에 침입했다가 박씨에게 죽고, 복수하러 온 용골대도 박씨 도술에 혼이 난다.
- (13) 용골대가 인질들을 데리고 회군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대패한다.
- (14) 왕은 지난날을 후회하고 박씨를 절충 부인에 봉한다.

●작품 개관 : 이작품은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이었던 이시백과 그의 아내 박 씨라는 가공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은 서사문학이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수성이 매우 강한 작품으로, 우리나라를 주무대로 사건이 전개되면서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을 등장시킨 점과 남존여비 시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점 등을 통해 작자의 주제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출전 : 덕흥서림판 구할자본

내용 연구

[여기서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박 씨가 영웅적 행동과 도술로 북방의 오랑캐들을 농락하는 장면이다]

제 9회

호병이 몰밀듯 성중에 들어오고 용골대[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장수] 피화당을 엄습하다가 크게 놀람을 받다

차설[그리하여, 고전소설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글머리에 쓰는 접속어의 일종], 기흥대 본국에 돌아가 호제께 돌아왔음을 주달하니, 호제[오랑캐의 황제, 청나라 황제를 가리킴] 문왈, "이번에 조선에 나아가 어찌하고 돌아왔는가?"

흥대 주왈,

"소녀가 이번에 봉명하옵고[명령을 받들어서] 대사[큰일]를 경영하와 만리 타국에 갔삽더니, 성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공은 고사하옵고 만고에 무쌍하온 박 씨를 만나 목숨을 보전치 못하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 원혼이 되을 것을 소녀가 누누이 애걸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 씨는 소녀를 용서하여 보내오며 이르되, 폐하에게 옥이 돌아오고 도리어 범람[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크게 나뉘]한 뜻을 두었으니, 또한 금수[짐승]로 지목하여 언어가 정직하며 깊이 책하더이다."

하고 지낸 전후사[앞뒤의 일]를 주하니, 호제 대로 알.

"네가 부질없이 나가 성공은 고사하고 묘계만 탄로하고 왔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랴."

하고, 또 귀비를 청하여 가로되,

"이제 기흥대가 조선에 나가서 신인과 명장을 죽이지 못하고 집에 옥만 밧게[미치게, 당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며, 조선을 도모[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함]치 못하게 되었으니 분심[분한 마음]을 어디 가 풀리오."

한대 귀비 또 주왈,

" 한 묘책이 있사오니, 청컨대 행하여 보옵소서."

호제 알,

"무슨 묘계 있느냐?"

귀비 주왈

"조선에 비록 신인과 명장이 있사오나 간신이 있사와 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게요. 명장을 쓸 줄 모르오니 폐하가 군사를 이루어 조선을 치되, 남으로 육로에 나아가 치지 말고, 동으로 백두산을 넘어 조선 함경도로 장안 동문으로조차 들어가면 미처 방비할 수 없어 도모하기 쉬우리이다."

호제 듣고 대열하여[크게 기뻐하여] 곧 한유와 용울대를 명하여

"군사 십만을 조발하여[군사를 불러모아] 귀비의 지휘대로 행군하여, 동으로 백두산을 넘어 바로 조선 북로로 내려 장안 동문으로조차 들어가 여차여차하라."

귀비 또 가로되,

"그대는 행군하여 조선에 들어가거든 바로 날랜 군사를 의주와 경성 왕래하는 중로에 매복케 하여 소식을 통치 못하게 하고, 장안에 들어가거든 우의정 집 후원을 범치 말라. 그 후원에 피화당이 있고 후원 초당의 전후 좌우에 신기한 나무가 무성하였을 것이니, 만일 그 집 후원을 범하면 성공은 고사하고 신명을 보전치 못하여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리니 각별 명심하라."

양장이 청령[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하고 십만 대병을 거느려 동으로 행군하여 동해로 건너 바로 장안으로 향할새, 백두산을 넘어 함경도 북로로 내려오며 봉화를 끊고 물밀듯 들어오니, 경성 수천 리에 알 자가 없더라.

차시, 총렬부인이 피화당에 있더니, 문득 천기를 보고 대경하여[비범한 능력을 지닌 박씨 부인이 운세를 점친 후 적이 침입하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급히 상공을 청하여 왈,

"북방 도적이 침범하여 조선지경에 들어오니, 의주부윤 임경업을 급히 불러 군사를 합병하여 동으로 오는 도적을 방비하소서." 승상이 대경 왈,

"나의 소견에는 아국에 도적이 들어온다 하여도 북적이 들진대 의주로조차 번성할지라. 의주부윤을 불러오면 북을 비웠다가 호적이 북도를 탈취하면 가장 위태할지라. 부인이 무슨 연고로 염려치 아니하고 동을 막으라 하느냐?"

부인 왈,

"호적이 분디 간사한 꾀 많은지라. 북으로 나오면 임 장군을 두리워[두려워하여] 의주는 감히 범치 못하고 백두산을 넘어 북으로조차 동대문을 깨치고 들어와 장안을 엄살[엄습하여 죽임]할 것이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 첩의 말을 헛되이 아시지 마시고 급히 상께 주달[임금께 아뢰]하여 방비하옵소서."

승상이 청파[끝까지 들음. 듣기를 마침]에 크게 깨달아 급히 탐전에 들어가 부인의 하던 말대로 세세히 주달하니, 상이 들으시고 크게 놀라시며 만조를 모아 의논할새 좌의정 원두표 주왈,

"북적이 꾀 많사오니, 부윤 임경업을 명초하여[임금이 신하를 불러] 동으로 오는 도적을 방비함이 옳을까 하나이다."

말이 맞지[마치지, 끝나지] 못하여 좌하에 일인이 출반주왈,

"좌의정이 아뢰는 말씀이 극히 불가하여이다. 북적이 경업에게 패를 입었사오니 무슨 힘으로 아국을 엿보으며, 기병한다 하여도 반드시 의주로 들어하리니 가장 위태하올지라. 국가 흥망이 조석에 있삽거늘, 요망한 계집의 말을 들어 망령되이 동을 막으라 하오니, 어찌 요량과 지혜 있다 하오리까. 이는 나라를 해코자 함이니 살피옵소서[박씨 부인의 우려를 거짓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려는 '간신' - 앞의 귀비가 지목한 사람 - 이 한 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상이 가라사대,
 “박 씨 신명이 과인한지라. 짐이 징협[앞에서 보인 징조가 들어맞은, 징조를 경험한]한 일이
 으니 어찌 요망하다 하리오. 그 말을 좇아 동을 막음이 가하도다.”하니, 기인이 대 주왈,
 “지금 시화연풍[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들고]하고 국태민안[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가
 평안함] 하와 백성이 격양가[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를 부르거늘, 이 같은 태평성대
 에 요망한 계집이 말을 발설하와 아국을 경동케 하며 민심을 요란케 하옵으니, 전하께서 여차한
 요망한 말씀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국정을 살피지 아니하옵시니, 원컨대 이 사람에게 먼저
 국법을 시행하여 민심을 진정케 하옵소서.”
 하며 왕명을 밀막으니[핑계를 대어 거절하니], 모두 보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의정 김자
 점이라. 소인을 친애하고 군자를 멀리하여 국정을 제 마음대로 하는지라. 이 같은 소인이 나라를
 망하려 하니, 만조제신이 그 권세를 두려하여 말을 못하는지라. 공이 항거치 못하여 분심을 이기
 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부인더러 연중 사연을 세세히 설화하니, 부인이 듣고 앙천탄왈,
 “슬프다. 국운이 불행하여 이 같은 소인을 인재라 하여 조정에 두었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미구[오래지 않아]에 도적이 장안을 침범할 것이니, 신자가 되어 나라 망
 함을 차마 어찌 보리오. 상공은 비간의 충성을 효칙하사 사직[나라 또는 조정]을 안보하옵소서.”
 하고 대성통공하니, 공이 청파에 강개지심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궤내로 들
 어가니 이때는 병자 납월 회일[음력 선달 그믐]이라. 호적이 동대문을 깨치고 물밀듯 들어오니
 함성이 천지 진동하는지라. 백성의 참혹한 경상[모습]은 일필난기[한 붓으로 이루 기록할 수 없
 음. 간단히 적기 어려움]라. 적장이 군사를 호령하여 사면에서 엄살하니, 주검이 태산 같고 피
 흘려 내가 되었다라.[과장법]
 상이 이때를 당하여 황황망극[마음이 급하여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줄을 모름]하사 어찌 하실
 줄을 모르고 제신을 모아 의논하사 왈,
 “이제 도적이 성내에 가득하여 백성을 살해하니 사직의 위태함이 조석에 있는지라. 장차 어찌
 하리오?”
 하시며 앙천 탄식[하늘을 우러러 보고 탄식하니]하시니 우의정 이시백이 주왈,
 “이제 사세[일의 형세] 급하오니 남한산성으로 파천[임금이 도성을 떠나 딴 곳으로 피란함]하
 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이 여기서 즉시 옥교[임금이 타던 가마의 한 가지 '위를 꾸미지 않았음'.보련]를 타시
 고 남문으로 나오사 남한산성으로 행하시니, 전면에 일지 군사가 내달아 좌우총돌[이리저리 찌
 르고 치고 받고 함]하니 상이 대경하사 왈,
 “차적을 누가 물리치리오?” 하시니,
 우의정이 말을 내몰아 왈,
 “신이 차적을 물리치리이다.”
 하고 정장출마하여 일함[칼·창 등으로 싸울 때, 칼과 칼, 또는 창과 창이 서로 한 번 마주침]에
 물리치고 어가[임금이 타는 수레]를 모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시니라.
 차시, 호장 한유와 용골대가 십만 정병을 거느려 이르러 바로 장안을 취하여 들어와 궤내로
 들어가니 궤내가 비였는지라. 남한산성으로 피하신 줄 알고, 아우 용골대에게 장안을 지키어 물
 색을 수습하라 하고 군사 천여 인을 남겨 두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으로 가 성을 에워싸고 총
 격하는지라. 여러날 군신이 성중에 싸이어 위태함이 조석[아침과 저녁, 짧은 순간]에 있더라.
 차시, 총렬 부인 박 씨가 일가 친척을 피화당으로 모아 있게 하매, 병란을 당하여 피난하던 부
 인들이 용골대가 장안의 물색을 수탐[수사하고 탐지함]한단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부인이
 그 거동을 보고 모든 부인을 위로 왈,
 “이제 도적이 처처에 있사오니 부질없이 요동치 마옵소서.”
 하니 모든 부인들이 반신반의[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함]하여 있더니, 차시 호장 용골대 군사
 백여기를 거느리고 장안 사면으로 다니며 탐지하더니, 한 집을 당하여 바라보니 정결한 초당이
 있고 전후 좌우에 수목이 무수한 가운데 무수한 여자들이 있거늘, 용골대 좌우를 살펴보니 나무
 마다 용과 범이 되어 서로 수미[처음과 끝]를 응하며, 가지마다 새와 배암이 되어 변화가 무궁
 하여 살기 총전한지라. 용골대, 부인의 청명하던 날에 문득 흑운이 일어나며 뇌정벽력[천동 번
 개]이 천지 진동하더니, 무성한 수목이 변하여 무수한 갑병이 되어 점점 에워싸고 가지와 잎은
 창검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지라. 용골대 그제야 우의정 이시백의 집인 줄 알고 대
 경하여 도망코자 하였는데, 문득 피화당이 변하여 첩첩 산중이 되었다라.
 차청 하회 급급 석람하라[다음 회를 빨리 살펴보라](종략)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제 11회 용율대 대군과 함께 모든 부인을 노략하여 본국으로 가다

차설(且說 :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쓰는 말) 울대 군중(軍中)에 영(令)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고 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며 화광이 충천(衝天 :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는 것)하니, 부인이 계화를 명하여 부적(符籙)을 던지고, 좌수에 홍화선(紅花扇)을 들고, 우수에 백화선(白花扇)을 들고, 오색(五色)실을 매어 화염(火焰) 중에 던지니 문득 피화(避禍)당으로 부터 대풍이 일어나며 도리어 호진(胡陳) 증으로 불길기 돌치며 호병(胡兵)이 화광(火光) 중에 들어 천지를 분변(分辨)하지 못하며 불에 타죽는 자가 부지기수(不知其數)라. - **박씨 부인과 울대의 싸움**

울대 대경(大驚)하여 급히 퇴진(退陣)하며 양천(仰天)탄식(歎息)하여 가로되, "기병(起兵)하여 조선에 나온 후 병불혈인(兵不血人)하고 **[병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피를 흘릴 만한 싸움도 하지 않고 쉽게 이기고]** 방포일성(放砲一聲)[포나 총을 한번 쏘는 소리]에 조선을 도모(圖謀)하고 이 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 **[박씨에게 죽임을 당한 용골대]**을 죽이고 **[역사적 사실과는 다름]**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귀비(貴妃)를 뵈오리오." **[울대가 박씨 부인에게 패하고 탄식하는 부분으로 독자에게 통쾌함을 느끼게 함]**

통쾌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제장(諸將)이 호언(好言)으로 관위(寬慰)하며 **[위로하며]** 의론(義)을 말,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 복수(報復) **[양갓음]** 할 수는 없사오니 퇴군(退軍)하느니만 못하다." 하고, 왕비와 세자-대군과 장안(長安) 물색(物色) **[평범한 보통 사람]**을 거두어 행군하니, 백성의 울음 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

차시, 박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적진을 대하여 크게 웨어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놈아.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왕은 우리를 모르고 너 같은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과 하는 짓이 아직 어림을 일컫는 말]**를 보내어 조선을 침노하니 국운이 불행하여 패망(敗亡)은 당하였거니와 무슨 연고로 아국 인물을 거두어 가려 하느냐. 만일 왕비를 뵈서 갈 뜻을 두면 너희 등을 함몰(陷沒 : 재난을 당하여 멸망함, 몰사) 할 것이니 신명(神明) **[몸과 목숨]**을 돌아보라." 하거늘, 호장이 차언(此言)을 듣고 소(笑) 왈,

"너의 말이 가장 녹록(碌碌)하다 **[변변하지 않다. 보잘것없다. 하잘것없다. (주로 뒤에 부정어와 함께 쓰여) 만만하고 호락호락하다.]**. 우리 이미 조선 왕의 향서(降書)를 받았으니 **[병자호란의 패배로 청나라에 항복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데러가기와 아니 데러가기는 우리 장중(掌中) **[손바닥안]**에 달렸으니 그런 말은 구차(苟且) **[군색스럽고 구구함]**이 말라." 하며 능욕이 무수하거늘 계화가 일러 왈, "너희 등이 일향(一向) **[언제나 한결같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나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언파(言罷 : 말을 끝냄)에 무슨 진언(眞言 : 주문)을 외오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닦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설풍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호진장졸이며 말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촌보(寸步 : 몇 발짝 안 되는 걸음)를 운동치 못할지라 **[계화가 주문을 외워 오랑캐를 크게 혼내는 장면이다. 고전 소설의 특징인 전기적 요소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은 남존여비 시대에 신선의 딸인 박씨, 계화, 만리를 본다는 마씨 등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눈부신 활약상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설정이 드문 것이어서 오늘날까지도 박씨전은 그 빛을 잃지 않고 높이 평가받고 있다.]**. 호장이 그제야 깨달아 가로되,

"당초에 귀비 분부하시되 '조선에 신인(神人)이 있을 것이니 부디 우의정 이시백 **[실존 인물임]**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시거늘, 우리 일찍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일시지분(一時之憤) **[한순간의 분노]**을 생각하여 귀비의 부탁을 다 잊고 이 곳에 와서 도리어 양화(殃禍) **[지은 죄의 값음으로 받는 온갖 재앙]**를 받아 십만 대병을 다 죽일 뿐이라. 골대도 무죄히 죽고 무슨 명목으로 귀비를 뵈오리오. 우리 여차(如此)한 일을 당하였으니 부인에게 비느니만 같지 못하다."

하고, 호장 등이 갑주(甲冑)를 벗어 안장에 걸고 손을 묶어 팔문진(八門陳) 앞에 나아가 복지(伏地)청죄(請罪) **[땅에 엎드려 사죄함]**하여 가로되,

"소장(小將)이 천하에 횡행(橫行)하고 조선까지 나왔으되 무릎을 한 번 꺾 바 없더니 부인 장하(帳下) **[장막아래]**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박씨 등의 초월적 능력을 보고 호장이 항복함]**

하며 머리 조아려 애걸하고 또 빌어 가로되,

"왕비는 아니 뵈셔 가리이다. 소장 등으로 길을 열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무수히 애걸하거늘 부인이 그제야 주렴(珠簾)을 걷고 나오며 대질(大叱) 왈,

"너희 등을 씨도 없이 함몰하자 하였더니 **[능력이 있음에도 세자와 대군의 구출을 포기하는 것은 인과적 필연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듯함]**, 내 인명을 살해(殺害)함을 좋아 아니하기로 십분 용서하나니 네 말대로 왕비는 뵈셔 가지 말며 너희 등이 부득이 세자-대군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을 뒤흔다 하니 그도 또한 천의(天意)를 따라 거역(拒逆)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하여 뒤흔다 가라[병자호란 당시 청군에게 소현세자·봉림대군·3학사 등이 끌려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표현이다. 호란의 정신적 극복을 위해 쓰여졌기는 하나 호왕의 공주와 용골대를 살려 보낸다거나 세자와 대군까지 구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작품의 한계이다. 운명론에 바탕을 둔 민간사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앉아서 아는 일이 있으니 불연즉['그렇지 않으면'의 뜻의 접속 부사.] 내 신장(神將 : 귀신 가운데 무력을 맡은 장수신)과 갑병(甲兵 : 갑옷을 입은 병사들)을 모아 너희 등을 다 죽이고 나도 북경(北京)에 들어가 국왕을 사로 잡아 설분(雪憤 : 분풀이)하고 무죄한 백성을 남기지 아니리니 내 말을 거역지 말고 명심하라."

한대, 울대 다시 애걸 왈,

"소장의 아우의 머리를 내어 주시면 부인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대소 왈,

"옛날 조양자[중국 춘추 전국 시대 인물]는 지백[춘추 시대 풀나라 사람으로 조양왕을 치다가 패하여 죽음을 당했음]의 머리를 옷칠하여 술잔을 만들어 이전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옛날 일을 생각하여 골대 머리를 옷칠하여 남한산성에 패한 분[청나라의 황제에게 항복한 일]을 만분일이나 풀리라. 너의 정성은 지극하나 각기 그 임금 섬기기는 일반[마찬가지라는 뜻]이라. 아무리 애걸하여도 그는 못하리라." - 박씨 부인이 울대를 굴복시키고 꾸짖음

울대 차언을 듣고 분심(忿心 : 벌컥 성을 낸 마음. 분한 마음)이 충천하나 골대의 머리만 보고 대곡(大哭)할 따름이요 할 일 없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니 부인이 다시 일러 왈, "행군하되 의주(義州)로 행하여 임 장군을 보고 가라."

울대 그 비계(秘計)[비밀한 계책]를 모르고 내념(內念)에 헤오되[속으로 생각하되],

"우리가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으니[우리가 청나라에 항복했던 병자호란 당시 본래의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한 말] 서로 만남이 좋다."

하고, 다시 하직하고 세자·대군과 장안(長安)물색(物色)[서울에 있는 쓸만한 물건이나 보통 사람.]을 데리고 의주로 갈 때 잡혀가는 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왈,

"박부인은 무슨 복으로 환(患)을 면하고 고국에 안한(安閑)[평안하고 한가로움]이 있고,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 타국에 잡혀 가는고. 이제 가면 하일(何日) 하시(何時)에 고국 산천을 다시 볼꼬."

하며, 통곡유체[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슬피 우는]하는 자가 무수하더라. 부인이 계화로 하여 금 외쳐 가로되,

"인간 고락은 사람의 상사(常事)라. 너무 슬퍼 말고 들어가면 삼 년 지간에 세자·대군과 모든 부인을 뒤흔다 올 사람이 있으니 부디 안심하여 무사 득달(得達)[아무 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라]하라."

위로하더라. (하략) <덕흥서림판 구할자본> - 박씨 부인의 계책과 잡혀가는 이들에 대한 위로



[滿開] 고전소설-임경업전



- 연대 : 미상
- 작자 : 미상
- 형식 : 고전 소설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민족적, 비판적
- 사상 : 척외사상(斥外思想), 특히 배청사상(排淸思想)
- 주제 :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나라의 위기를 당하여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에 대한 분노를 소설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 의의 : 조선 후기 영웅 소설의 대표작
- 구성 :

발단	<p>임경업은 비범한 인물로 무과에 급제한다.</p> <p>사신 이시백의 무관으로 명나라에 가게 된다.</p> <p>가달의 침입을 받은 호국이 명에 구원병을 청하자 임경업이 명군을 이끌고 출전한다.</p> <p>그는 용맹을 떨치어 호국을 구하고 귀국한다.</p>
전개	<p>호국이 힘을 길러 조선을 침략하려 하자, 조정에서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보내 방어하게 한다.</p> <p>호국군은 임경업이 두려워 의주를 피하고, 바다로 침입해 조선왕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p> <p>임경업은 회군하는 호국군을 섬멸하려 했으나, 인질로 잡혀가는 왕자들 때문에 포기하였다.</p> <p>호왕이 임경업을 제거하려고, 그에게 명나라를 치도록 요구한다.</p> <p>임경업은 우방인 명나라를 칠 수 없어 명과 연락하여 거짓 항복을 받고 귀국한다.</p>
절정	<p>임경업의 내통 사실을 한 호왕이 그를 잡아 들인다.</p> <p>임경업은 명나라로 도망하여 명군과 함께 호국을 치러다가 승려 독보의 배반으로 호국에 잡힌다.</p> <p>호왕은 임경업의 당당한 태도에 감복하여 그를 인질로 잡았던 왕자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려 보낸다.</p> <p>김자점은 역모에 방해가 될까봐 그를 살해한다.</p>
결말	<p>임금은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김자점을 문초하여 죽인 다음,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p> <p>그 자손들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낙향하였다.</p>

•줄거리 : 충청도 충주 달천촌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백마강 만호가 되고, 천마산성 중군이 되어 산성을 축조한 뒤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이때 마침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다. 명나라에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조선의 임경업이 청병대장이 되어 출전하여 호국을 구원한다. 귀국 후에 호국이 강성하여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부윤으로 삼아 호국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도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하는 적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호국군에게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면서 임장군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김자점의 주청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하였는데, 임경업은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항서를 올리게 하고 귀국한다. 이 사실을 안 호왕은 다시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지만, 임장군은 호국의 간계를 미리 알고 호송하던 호병을 죽이고 중이 되어 명나라로 도망한다. 임장군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승 독보의 배신으로 호국에게 잡혀 호국에 이르게 된다. 호왕은 오히려 임장군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세자 일행과 임장군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임장군의 귀환소식을 들은 김자점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왕을 알현하고 나오는 임장군을 암살한다. 왕은 꿈속에서 임장군의 현신을 보고 김자점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을 잡아 처형하고 임장군의 충의를 포상한다.

◆ 이해와 감상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책. 국문목판본 · 활자본. 조선 인조 때의 명장 임경업의 일생을 작품화한 한글소설로서 ‘님장군전’ · ‘림경업전’ 등의 이칭이 있다. 전하는 판본으로는 목판본 3종과 활자본이 있다. 목판본 모두 경판본 〈님장군전〉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27장본, 일본 도요문고(東洋文庫)에 소장된 21장본,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나손문고(舊 金東旭 소장본)에 소장된 16장본이 있고, 활자본은 세창서관에서 간행된 〈임경업전〉이 있다. 목판본과 활자본은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활자본은 뒤에 이루어진 임경업의 연보를 참조하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임경업전〉은 정조의 명령에 따라 임경업에 관한 유문(遺文) · 비문 · 행장 · 연보 · 사당봉안제문(祠堂奉安祭文) · 현령록(顯靈錄) 등의 실기(實記)를 모아 1791년에 간행된 ≪임충민공실기≫를 참고하고, 민간에서 구전되는 설화를 토대로 하여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작품연대 또한 확실하지 않다. 경판본 〈님장군전〉 끝에 김자점(金自點)을 처치하고 임경업의 집에 정문을 세우며, 장군의 고향인 달천에 서원을 세우고 장군의 화상을 모셔 제사지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및 역모의 누명을 쓰고 죽은 임경업이 1697년(숙종 23)에 신원복관되고, 1726년(영조 2)에 달천(達川)에 총령사가 건축된 사실을 아울러 참조할 때, 이 작품의 형성은 1726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 충주 달천촌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백마강 만호가 되고, 천마산성 중군이 되어 산성을 축조한 뒤 사신 이시백(李時白)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이때 마침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다. 명나라에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조선의 임경업이 청병대장이 되어 출전하여 마침내 가달을 물리치고 호국을 구원한다.

귀국 후에 호국이 점차 강성해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니,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부윤으로 삼아 호국의 침입을 막도록 한다.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도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하는 적을 공격하여 섬멸하려 하였으나, 호국군에게 인질로 잡혀가던 세자와 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준다.

임장군에게 원한을 산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며 임장군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김자점의 주청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하였는데, 임경업은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항서를 올리게 하고 귀국한다. 이 사실을 안 호왕은 다시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한다. 호국의 간계를 간파한 임장군은 호국으로 가는 도중 호송하던 호병을 죽이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 명나라로 도망한다.

임장군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승 독보의 배신으로 호군에게 잡혀 호국으로 끌려가게 된다. 호왕은 임장군에게 항복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임장군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세자 일행과 임장군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임장군의 귀환소식을 들은 김자점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왕을 알현하고 나오는 임장군을 암살한다. 어느날 왕의 꿈속에 임장군이 나타난 이후, 김자점을 잡아 처형하고 임장군의 충의를 포상한다.

이러한 소설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병자호란은 정해진 국가의 운수로서 결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라는 의식과, 조정에 김자점과 같은 간신이 있어서 임경업과 같은 유능한 인물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란과 같은 국치를 당하였다는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비운에 쓰러진 명장의 일생을 영웅화한 작품으로 역사소설에 속한다. 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에 대한 분노를 민족적 · 민중적 차원에서 소설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역사적 사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기실은 외적의 침입으로 수난을 겪은 조선조의 국민들이 모두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국난중에 영웅의 활약을 갈망하고 있음에 부응하여 〈임진록〉 · 〈박씨전〉 · 〈최고운전〉 등과 함께 창작된 허구적 작품이다. 조선 후기 민족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林慶業傳研究(徐大錫, 韓國學論叢, 197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임경업은 25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간다. 이 때 마침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다. 명나라는 마땅한 장수가 없어서 조선의 임경업이 청병대장이 되어 출전하여 호국을 구원한다. 귀국 후에 호국이 강성하여져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니,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국은 의주를 피해서 함경도로 돌아 도성을 공격하여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한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고 조선에 청병을 하면서 임경업 장군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조선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호국에 파견하였는데, 임경업은 옛날 의리를 생각해서 명나라와 내통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고 귀국한다. 임경업 장군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정벌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호군에게 잡혀 호국에 이르게 된다. 호왕은 오히려 임경업 장군의 위엄과 충의에 감복하여 세자 일행과 임경업 장군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다. 귀환한 임경업 장군은 김자점에 의해 역모에 방해될까 하여 암살을 당한다. 왕은 꿈속에서 임경업 장군의 현신을 보고 김자점을 잡아 처형하고 임경업 장군의 충의를 포상한다.

조선 충주 달천에서 태어난 임경업은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과 노는 데 전쟁 놀이를 즐겼고, 스물 다섯에 무과를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갔다. 그는 병사를 잘 통솔하고 산성을 완축하여 군정을 잘 다스려 병사들과 임금으로부터 한가지로 신망을 받았다. 또, 호국이 북쪽 오랑캐 가달의 침략을 받고 중국에 도움을 청해 왔을 때, 명나라에 사신을 와 있으면서 명나라에 적당한 명장이 없는 고로 임경업이 청병대장이 되어 나아가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가달군을 섬멸하고 용맹을 증원에 떨치기도 하였다. 그 후에 호국이 교만해져서 명나라를 침공하고 이어 우리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자,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는 동시에 부원수 겸 방위사로 임명하여 호국의 침공을 막아내려 했다. 그러나 호왕은 임경업의 신출귀몰한 전술을 잘 알고 의주성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우회하여 일거에 서울로 쳐들어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왕에게 항복을 받기에 이른다. 의주에서 호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임경업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여 국가의 불행을 통곡하다가 마침 호나라 장수 용골대가 두 세자를 인질로 데리고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원수를 갚으리라 작심하고 맞아 싸워 이긴다. 이에 용골대가 진군을 하지 못하고 왕에게 장계를 올려 임경업에게 길을 열어 주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자,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임경업 장군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칙서를 보내어 길을 열어 주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싸움에서 진 나라의 참상과 이를 가슴을 쥐어뜯으며 지켜보아야 하는 임경업 장군의 인간적인 고뇌를 잘 읽을 수 있다. 한편, 반드시 원수를 갚고 볼모로 잡혀간 대군을 구출하겠다는 일념으로 임경업은 황자명과 더불어 호적을 치자고 하고 이후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호국에서는 도리어 이를 핑계로 임경업을 데려다가 죽일 공리를 한다. 이를 간파한 임경업은 호나라 사신을 따라 가는 길에서 마천령에서 도망쳐 소인산으로 들어가 스님으로 변장한다. 무예를 닦은 후에 천조에 들어가 남경 땅에 이르러 황자명을 만나 복호를 치기로 함께 결의하고 싸우다가 배반자가 있어 호왕에게 잡혔으나 기개를 발휘하여 세자와 대군을 모두 구출하여 조선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마침내 조선에 돌아온 임경업은 영의정 김자점의 모함과 질시를 받아 간신의 손에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되고 만다.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비운에 쓰러진 명장의 일생을 영웅화한 작품으로 역사 소설에 속한다. 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에 대한 분노를 민족적 · 민중적 차원에서 소설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역사적 사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기실은 외적의 침입으로 수난을 겪은 조선조의 국민들이 모두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국난 중에 영웅의 활약을 갈망하고 있음에 부응하여 창작된 허구적 작품이다. 조선 후기 민족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18세기 초 조선에서는 참담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이 두 난에서 위대한 전공을 세운 명장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쟁 소설(군담 소설)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은 인조 14년에 청에 의해 서울이 함락을 당하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무릎을 꿇은 이른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전쟁 소설이다. 정확한 창작 연대와 작가를 알 수는 없지만, 서민 계층의 작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비교적 개인적 전기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과 별로 다름이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다른 군담 소설처럼 허구성을 가미하여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의 즐거리를 억지 않고 오직 객관적이

고 정사(正史)의 태도로 역사적 사실 그대로 주인공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당대의 사회역사 현실을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옮기는 데 성공한 이 소설에서 우리는 위국 충절에 불타는 장군을 배반하고 질투하는 간신들의 교활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음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당시의 위정자들은 조금도 반성하거나 뉘우침이 없고 오히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정치적인 분열을 거듭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깊다. 전란 뒤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적 파탄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대부 양반들이 이러한 난국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모술수와 자신의 영달에만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간신배들과,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양반들의 처신에 염증을 느낀 지사(志士)들이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작품을 통해 들어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작품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정신적 보복을 주제로 삼았다. 이만큼 중국 명나라 중심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임경업전은 이 시기에 나온 다른 소설 가운데 특히 '박씨전'과 공통점이 많다. '박씨전'은 주인공이 가공의 '박씨 부인'이란 점만 다를 뿐, 다 같이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중심에 놓고 있다. 등장인물도 이시백, 임경업, 용골대 따위의 실존 인물을 함께 쓰고 있다. 또한 임경업이 이시백의 천거를 받았다는 점, 임경업이 명 천자의 명을 받고 가달군을 크게 격파한 이야기들에서 구성이 닮아 있다.

滿開 의 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고전소설-서동치전

●요점 정리

- 지은이 : 작자 미상
- 갈래 : 고전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의인 소설
- 성격 : 우화적, 교훈적, 풍자적, 경세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배경 : 중국 당나라 때, 중국 웅주 땅 구궁산 토굴
- 구성 :

발단 : 중국 웅주땅 구궁산 토굴 속에 서대주(鼠大州)라는 짐승이 살고 있었다. 당태종이 금용성을 치려할 때, 서대주는 종족을 거느리고 금용성 창고에 양식으로 쌓아둔 쌀을 없애 버리는 큰 공을 세운다. 이 일로 서대주에게는 세민황제로부터 벼슬을 제수받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쥐들을 초대한다. - 서대주는 금용성 창고의 양미를 없애는 공을 세운 후 벼슬을 제수 받고 잔치를 연다.

전개 : 이때 하도산에 다람쥐라는 짐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간악하고 집안 형편이 가난한 데도 나태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다. 다람쥐는 서대주가 잔치를 베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다. 다람쥐는 잔치가 끝난 뒤 서대주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생률(生粟 : 날밤)과 백자(栢子 : 잣)를 얻어가지고 돌아온다. 다람쥐 부부는 그것으로 봄을 무사히 지냈으나 겨울이 돌아오니 다시 굶는 신세가 된다. 다람쥐는 다시 서대주에게 가서 구걸하나, 그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한다. - 잔치를 찾아온 다람쥐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서대주의 도움을 받는다.

위기 : 이에 다람쥐는 원한을 품고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고 곤륜산의 백호산군(白虎山君)에게 거짓으로 소송장을 올린다. 계집다람쥐는 소송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힘껏 충고하다가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는 분한 나머지 집을 나가고 만다. - 서대주는 계속되는 다람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이에 다람쥐는 원한을 품는다.

절정 : 백호산군은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고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하였음을 알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위정자들이 정사를 게을리한 까닭이며, 다람쥐도 피해자라고 항변한다. - 계집 다람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람쥐는 서대주를 백호산군에게 거짓 고발한다.

결말 : 크게 깨달은 백호 산군은 허위고발한 다람쥐를 유배보내고 서대주는 방면하여 내보낸다. 마음이 착한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같이 내보내줄 것을 간청한다. 산군은 서대주의 인후한 심덕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내보낸다. 이에 다람쥐는 자기의 배은망덕한 처사를 반성하고 서대주에게 사과한다.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황금을 주어 돌려보낸다. -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대주는 다람쥐를 용서하고, 다람쥐도 자신의 배은망덕(背恩忘德)함을 반성한다.

- 제재 : 은혜를 모르는 다람쥐와 무고하게 송사 사건에 휘말린 서대주
- 주제 : 조선 후기 계층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사필귀정(事必歸正), 권선징악(勸善懲惡), 배은망덕의 처사를 비판하고 아량있는 태도를 권장함, 가부장적 권위와 당대의 정치 현실이 지닌 모순 비판[여필종부(女必從夫)와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봉건적 사고 방식과 도덕관에 대한 비판으로 전통적인 윤리관을 타파하고자 하는 지은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인물 :

다람쥐 : 가부장적 권위 의식에 젖어 있는 인물로 성품이 간악하여 가세가 가난한데도 열심히 일할 생각은 없는 나태한 인물로 올바른 충고를 하는 계집 다람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봉건적 사고 방식과 권위 의식에 젖어 있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 계층을 대변한다.

계집 다람쥐 : 사리 분별을 할 줄을 알고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에 항거하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인물로 남존 여비 사상이 투철했던 당시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근대적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서대주(부자쥐) : 간악한 다람쥐를 용서해 주는 관용이 있는 인물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 종족을 위할 줄 아는 긍정적인 인물이다.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뇌물도 서슴지 않고 주는 서대주는 다양한 현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부당한 결과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또한 빈곤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사회적 윤리에도 충실한 삶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봉건적 인습에 구속됨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추구하는 근대 지향적 인물 유형으로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력을 지닌 계층을 대변한다.

- 의의 : 설화를 소재로 함
- 특징 : 동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했고, 권선징악의 주제를 형상화했으며, 여성들의 자기 주장과 권리 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냄
- 줄거리 : 조선 후기 한글 우화 소설로 쥐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서대주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다람쥐를 백호산군이 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람쥐와 같은 인간들을 경계하고 징계하여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게으름뱅이 다람쥐가 부자인 쥐에게 구걸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관가에 무고하였으나, 오히려 쥐의 결백이 밝혀짐으로써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징계한 작품이다.

내용 연구

이러구러 일월은 물같이 흐르고 광음은 재빨라 붙잡을 수 없어 봄 여름 다 지나고 가을에 거둔 양식이 이삼 두에 지나지 못하매 초겨울에 이미 다 먹어 버리고 엄동[몹시 추운 겨울]이 또다시 돌아오니 종세(終歲 : 한 해를 마침) 불과 일순에 신정(新正)은 십여 일이 남은지라. 다람쥐의 대소가는 모두 한 끼의 죽이 어렵고 부엌에는 한 줌의 나무가 없었는지라[가진 재산이 적으며 앞일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 :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음)의 자세가 부족함]. 손을 비비며 위태하 앉았다가 계집 다람쥐더러 일러 가로되,

“내 본시 세상 물정 어두운 선비 되어 위로 조상의 가업이 없고 아래로 친척의 생업이 없어 섬섬약질(纖纖弱質 : 가냘프고 연약한 체질)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서 빛을 저 구구한 잔명을 보 존하나 마음은 항상 안빈낙도(安貧樂道 : 구차한 중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道)를 즐기)를 일삼 더니 정초는 멀지 않고 설달 그름이 격일[하루씩 거름, 하루를 거름]한데 조상 신령 한 그릇 떡국을 흠향(歆饗 :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음)할 길 없는지라[몰락했지만 양반이라는 허위 의식에 젖어 있음]. 스스로 탄식하니 어찌하리오.”

계집 다람쥐[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근대적 인물] 가로되,

“낭군의 말을 들으니 일의 형세가 그러함이 당연하나, 대장부 세상에 나매 예의 염치를 알지 못하면[계집다람쥐가 서대주를 찾아가려는 남편을 말린 이유] 이는 무용필부(無用匹夫 : 쓸모 없는 보통 남자)라. 낭군이 또 팔괘동에 뜻을 두나 당초에도 염치를 불구함이 장부의 도리 아니어 늘 다시 가서 두 번 말함은 차마 남자 소위 아니라. 사생이 명이 있거늘 어찌 구차히 살기를 도모하여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리오. 내 비록 여자나 낭군을 위하여 차마 권하리니 낭군은 만 번 생각하소서.” [계집 다람쥐의 성격은 예의 염치를 중시하고, 과감히 자신의 뜻을 밝힘]

다람쥐[몰락한 양반을 상징] 묵묵히 말이 없더니 양구[시간이 꽤 오래 됨]에 왈,

“내 어찌 염치를 모르리오마는 궁하면 못할 일이 없음이라. 염치를 돌아볼진대 처자를 보전치 못할지라. 이따로 나아가 동정을 보고자 함이요, 사세를 보아 주선하리니 그대는 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계집 다람쥐의 만류에도 양식을 구걸하러 가는 다람쥐]

“소생이 접때 영감의 은혜를 입어 소생의 수다 잔약한[튼튼하지 못하고 아주 약하다] 명이 봄 여름을 무고히 지낸지라.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요 나를 살린 사람은 대인[서대주]이오니 소생의 부처 대양 서로 대하여 화산의 풀을 맺으며[결초보은(結草報恩) :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수호의 구슬을 머금어 대인의 은혜 갚기를 원하는 바일러니, 자연 생계로 말미암아 장구지계(長久之計 : 어떤 일이 오래 계속되기를 꾀하는 계획, 장구지책)는 없고 고식지계(姑息之計 : 당장에 편한 것만 택하는 계획 / 임기응변, 하석상대, 임시변통) 뿐이라[서대주의 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함]. 초가을에 약간 거둔 양미 이삼 두(斗)를 초봄에 없이하고 산간에 흐르는 열매나 거두고자 하나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 천산에 나는 새가 끊어지고 만경에 인적이 멀한지라[유충원의 강설에서 따온 듯]. 처처에 쌓인 눈에 돌아다니기 어려운 중 이 같은 종세(終歲 : 한 해를 마침)를 당하여 앞집은 술 빛고 뒷집은 떡을 쳐서 송구영신[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에 조상 신령을 향화(香火 : 제사, 향불)코자 함이어늘 소생의 집에 이르러서는 집이 가난하고 몸이 잔약하여 정초 제석(除夕)에 선조 향화를 받들 길이 없는지라, 엎드려 바라나니 기왕에 구할하신 바는 잊지 않을 것이어니와 다시 큰 덕을 내리오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박주일배(薄酒一杯 : 맛 없는 술이라도 한 잔)라도 차례를 받들어 불효를 면케 하올진대 분골쇄신(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하더라도 소생이 사생간(死生間)에 보은하오리니 원컨대 대인은 재삼 생각하심을 바라나이다.”

서대주 입 속으로 웅얼거리어 깊이 생각한 지 오랜 뒤에 알,

“그대는 내 말을 들으라. 본디 우리 서씨 누천[여러 천, 썩 많은 수] 세에 가까운 일가와 원근 제족이 경향 각처에 흩어져 있어 부유한 자도 있으며 빈곤한 자도 있으며 구년 신정과 경사에 서로 축하하고 상사에 서로 조문하며 빈곤한 벗과 친척에 소요되는 재산이 매년 매월에 만여금이 지나가고 집안에 거느리는 식구들과 상하 노복이며 조상 신령의 사시 향화를 의논할진대 용도를 다 말로 하지 못할러라. 이리하므로 그대의 청하는 바를 들어주지 못하니 불여불문이요, 불여불청[묻지 않음만 못하고, 청하지 않음만 못하다.]이라. 모름지기 나의 부족이라 혐의치 말고 일 후 다시 상중함을 헤아리라[후일을 기약하며 다람쥐를 위로함].”

다람쥐는 본디 성품이 표독하고 마음이 불순한지라[다람쥐의 간악함이 직접적으로 제시됨 / 특정한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서술자의 해설에서 드러남] 서대주의 허락지 않음을 보고 독한 얼 굴 생김새에 노기를 돌돌하여 몸을 떨치고 일어나 가로되,

이 때 다람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집에 돌아오니 계집 다람쥐 나와 맞아 가로되,

“낭군이 이번 갔다가 노기를 띠어 돌아오니 알지 못할세라. 노중에 호협 방탕자[거리의 폭력배]를 만나 혹 봉변[뜻밖에 변을 당함, 또는 그 변]이라도 당하셨나이까.”

다람쥐 가로되,

“그런 일은 없으나 그대 말을 듣지 않고 다만 신정날 아침에 밥을 짓지 못함을 면할까 하고 가서 서대주 보고 슬픈 소리와 애련한 말로 생각하기를 바라노라 한즉 서대주 답이 가난하고 어려운 친척들을 구제하기에 급하여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 하고 빈 말로 불안한 말만 하는 중언어 불순하고 여간 재물이 있어 집이 부유하다 자시하고[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믿고] 대접이 경박하니[경솔하고 소홀하니], 설사 본대 저축함이 없을진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괴이할 것 없으나 대대로 전하는 기물(물건)이 많을 뿐 아니라 요사이 천차께서 내리신 밤나무가 사만여 주(株 : 그루)라 나를 생각하여 도와 주려는 마음이 있대도 수백 석 줄 것 아니요, 많으면 일이 석이요 적으면 일이 두 줄 것이어늘 내가 이같이 무로히[쓸데 없이] 돌아옴을 과념[마음에 두고 잊지 아니함]치 아니하리니 어찌 통분치 않으리오.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죽고자 해도 땅이 없음이라. 내 마땅히 산군(山君)에게 송사하여 이놈을 잡아다가 재물을 허비토록 엄중한 형벌로써 몸을 괴롭게 하여 나의 분을 풀리라[배은망덕한 다람쥐의 면모].” - 산군에게 송사하여 서대주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함.

<중략>

계집 다람쥐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낭군의 말이 그르도다. 천하 만물이 세상에 나매 신의를 으뜸으로 삼나니, 서대주는 본래 우리와 더불어 향렬이 남과 다름이 없고[생김새의 유사성으로 인간의 향렬에 적용했으나 궁극적 의미는 서로 친척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남과 같다는)], 하물며 내외를 상통함도 없으되 다만 일면 교분[친구 사이의 정]을 생각하고 다소간 양미[서대주가 주었던 쌀]를 쾌히 허급하여 청하는 바를 좇았으니, 서대주가 낭군 대접함이 옛날 주공이 일반(一飯)의 삼토포(三吐哺)하고 일목(一沐)에 삼악발(三握髮)보다 더하거나[옛날 주공이~삼악발보다 더하거나 : 성왕이 백금을 노나라에 봉하자, 주공이 노나라 사람에게 교만하게 굴지 말라며 훈계하기를 “나는 문왕의 아들이요 무왕의 아우이며 성왕의 숙부인데, 또한 천하에 재상 노릇을 하면서도 천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한 번 목욕하는 동안에 세 번 머리를 움켜쥐고 한 번 밥 먹는 동안에 세 번 내뺨으면서, 오히려 천하의 선비를 잃을까 우려했었다.” 고 한 데에서 나온 구문임. - 토포악발(吐哺握髮 : 민심을 수렴하고 정무를 보살피기에 잠시도 편안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중국의 주공이 식사 때나 목욕할 때 내객이 있으면 먹던 것을 뱉고, 감고 있던 머리를 거머쥐고 영접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늘 한 번도 치하[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함이 없다가 무슨 면목으로 또 구활함을 청하매[목숨을 구걸하매] 허락치 아니하였다고 오히려 노하는 것[관청에 허위 송사하려는 이유]이 신의가 없는 일이어늘, 하물며 포악한 마음을 발하여 은혜 값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관청에 송사[訟事] 소송[訴訟]으로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던 일]를 이르고자 하니, 이는 이른바 적반하장(賊反荷杖)[적반하장 : 도둑이 도리어 막대를 들고 대들]이요 은반위구(恩反爲仇 : 은혜가 오히려 원수가 됨 = 은반위수)라. 낭군이 만일 송사코자 할진대 서대주의 벌장(罰狀 : 잘못을 적어 관에 바치는 고소장.)을 무엇으로 말하고자 하느뇨[서대주는 잘못이 없다는 말로 서대주가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남군을 극진히 대접하였음을 강조하는 말]. 옛말에 일렀으되 지은(知恩)이면 보은(報恩)이요 지지(知之)면 불태(不怠)라 [지은(至恩)이면 보은(報恩)이요 지지(知之)면 불태(不怠)라 : 은혜를 알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그것을 안다면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하니, 원컨대 남군은 옛 성인의 책을 널리 보았을 테니 소학[기본적인 예와 도리를 가르치는 책]을 익히 알리라. 다시 생각하고 깊이 헤아려 은혜를 갚기를 힘쓰고 거칠은 말을 하는 마음을 버릴지라. 서대주는 본디 관후장자(寬厚長者 : 관후(寬厚)하고 점잖은 사람)라 반드시 후일에 남군을 위하여 사례를 할 날이 있으리니 비록 천한 여자의 말[여필종부의 사상이 담겨 있음]이나 깊이 살피어서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람쥐 듣기를 마치고 크게 노하여 가로되,

“이 같은 천한 계집이 호위인사(好爲人師 :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함. 함부로 나서서 가르치려 함)로 나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계집은 마땅히 장부가 욕을 입음을 분히 여김이 옳거늘 오히려 서대주를 관후장자라 일컫고 날더러 포악하다 꾸짖으니 이 내 형세 곤궁함을 보고 배반할 마음을 두어 서대주를 얻고자 함이라. 예로부터 부창부수(夫唱婦隨 :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이에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리임)는 남녀의 정이고 여필종부(女必從夫 :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름)는 부부의 의이여늘 부귀를 따라 떠난 마음을 돌진대, 갈려면 빨리 가고 머뭇거리지 말라.” [계집다람쥐를 모욕을 줌,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드러남]

계집 다람쥐 발탁 화를 내어 눈을 부릅뜨며 귀를 발룩이고 꾸짖어 가로되,

“그대로 더불어 남녀 간의 연분을 맺어[부부의 인연] 아들 두고 딸을 낳으며 남취여가(男娶女嫁 :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하여 고초를 달게 알고 그대를 좇는 바는 부귀를 뜯구름같이 알고 빈천을 낙으로 알아 상강(湘江)의 이비(二妃 :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 함께 순임금에게 시집가고 순임금이 죽은 뒤 상강에 빠져 죽음.)를 본받아 여상(呂尙)이 마씨(馬氏)를 꾸짖는 바이어늘, 더러운 말로써 나를 욕하니 이는 한때의 끼니를 아끼려고 처자를 내치고자 함이라. 고인이 일렀으되 조강지처(糟糠之妻)는 불하당(不下堂)이요, 빈천지교(貧賤之交)는 불가망(不可忘)이라 하였나니[조강지처(糟糠之妻)는 불하당이요, 빈천지교(貧賤之交)는 불가망(不可忘) : 구차하고 천할 때 고생을 같이한 아내는 내칠 수 없으며, 가난할 때의 사귄 사람은 잊을 수 없음], 오늘날 가난하고 못살 때의 쓰고 단 것을 함께 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이같이 욕보이니, 두 귀를 씻고자 하나 영천수(潁川水)가 멀어 한이로다[두 귀를~멀어 한이로다 : 요임금이 기산의 아래에서 은거하던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이를 더러이 여기고 영천강가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오늘 수양산을 찾아가서 백이 숙제(伯夷叔齊)[백(伯)과 숙(叔)은 형제의 서열을 나타낸다. 사마천(司馬遷)에 의하면 고죽군(孤竹君 : 고죽은 지금의 허베이 성[河北省] 루룽 현(盧龍縣)의 아들이라고 한다. 고죽군은 막내아들인 숙제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했다. 그가 죽은 뒤 숙제는 이것이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여 말형인 백이에게 양보했지만 백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나라를 떠나 서백(西伯) 문왕(文王)의 명성을 듣고 주나라로 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문왕이 죽고 아들인 무왕(武王)이 문왕의 위패(位牌)를 수레에 싣고 은의 주왕(紂王)을 정벌하려 가려는 참이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효이며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것은 불인(不仁)이다"라고 하며 말렸지만 무왕은 듣지 않고 출정해 은을 멸망시키고 주의 지배를 확립했다. 두 사람은 주의 녹(祿)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首陽山 : 지금의 산시 성[山西省] 용지 현(永濟縣)에 숨어살며 고사리를 캐먹고 지내다 굶어죽었다.] 채미(採薇)타가 굶어 죽은 일을 좇으리니 그대는 홀로 자위하라.” [‘다람쥐’와 ‘계집 다람쥐’는 대화의 전개 양상이 갈등의 고조]

말을 마치며 짐을 꾸려서 훌쩍 문 밖으로 나가더니 자취가 보이지 않는지라[여필종부의 봉건적, 전통적 윤리관을 타파하려는 작가의 의식이 엿보임, 여권의식], 다람쥐 더욱 분노하여 가로되,

“소장지변(蕭牆之變)은 유아이사(由我而死)라[소장지변은 유아이사라 : 소장은 군신(君臣)이 모여 회견하는 곳에 쌓은 담을 말하고, 소장지변은 그곳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유아이사는 ‘나로 말미암아 죽다’ 라는 뜻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다람쥐가 송사를 해서 변고를 일으키면 서대주가 자신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시 서대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 내 당당히 서대주를 설욕하고 말리라.” [관에서 백성이 제출한 고소장에 쓰는 판결이나 지령]

인하여 입장 소지(訴紙 : 고소장)를 지어 가지고 바로 곤륜산 동중에 이르러 백호궁(白虎宮 : 호랑이의 궁. 호랑이가 동물의 왕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랑이의 궁을 찾아감)의 형방을 찾아 들어가서 다람쥐 억울한 마음을 울림을 고하니, 이 때 백호산군(白虎山君)이 태산오악(泰山五嶽 : 태

산에 있는 유명한 다섯 골짜기)을 순행하다가 곤륜산으로 돌아와 각처 짐승의 선악을 문죄코자 하더니 홀연 형부 아전이 들어와 고하되,

“하도산(河圖山) 낙서동(洛書洞) 등지에 거하는 다람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궁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거늘 백호산군이 형부관에 명하여 다람쥐를 불러들이라 하는지라. 다람쥐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며 형줄을 따라 백호궁 앞뜰에 이르니, 전후좌우에 위엄이 범상치 않은지라. 감히 우려려 쳐다보지도 못하고 숨을 나직이 하여 복지대령(伏地待令 : 땅에 엎디어 명령만 기다림)하였더니, 이윽고 전상(殿上 : 전각이나 궁전의 위)에서 형부 관헌이 나와 소지를 빨리 올리라 하니, 다람쥐 품 속에서 일장 소지를 내어 받들어 올리는데 백호산군이 그 소지를 받아 본즉 사연에 가로되,

“하도산 낙서동에 거하는 다람쥐는 다음의 일의 이모저모를 고하나이다. 신은 본디 낙서동에서 나서 자라 천성이 어리석고 마음이 졸직(拙直 : 순박하고 강직함)하온 바 항상 굴문을 나오는 바 없고, 밖으로는 강 건너 친척 없으며 오척에 동자 없고[오척에 동자 없고 : 앞에 친척이라는 말이 나오자 오척동자(일반적으로 키가 작다는 의미로 쓰임)라는 말을 풀어서 쓴 말이다. 일종의 언어 유희이다.] 척신(홀몸)이 고고[외롭고 가난하다]하여 다만 미천한 계집과 약한 자식으로 더불어 낮이면 초산에서 나무를 베며 산야에서 밭을 갈고, 밤이면 탁군에 자리를 치며 패택에 신을 삼고, 춘하에 사엽하며 추동에 독서하여 동서를 분간치 못하고, 만수 천산 깊은 곳에 꽃을 보면 봄철을 짐작하고 잎을 보면 여름을 깨닫고 낙엽으로 가을을 양도하며 서리와 눈이 내리면 겨울임을 알아 문호에 명철보신(明哲保身 : 사리에 밝고 분별력이 있어 몸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함)으로 일삼고 청운[푸른 빛깔의 구름, 높은 지위나 벼슬을 가리키는 말]에 공명을 기약지 아니하여 부귀를 뜻하지 아니하고 천수만목(千樹萬木 : 각양각색의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삼고 하루하루 재산을 계산하옵더니, 뜻밖에 지난 달 보름밤에 구궁산 팔괘동에 거하는 서대주 놈이 노복쥐 수십 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신의 집에불문곡직(不問曲直 : 옳고 그름을 따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하고 돌입[어떤 곳이나 상태에 기세 있게 뛰어드는 것]하여 천봉 만학에 흐르는 날밤과 높은 봉우리와 험준한 골짜기에 떨어진 잣을 천신만고하여 주우며 거두어, 비바람 치고 눈 오는 추운 겨울 날에 깊은 엄동을 보전코자 저축하온 양미 수십여 석을 탈취하여 가며 오히려 신을 무수히 난타하온즉, 신의 슬픈 정세는 땅 없는 외로운 망랑(端紀 : 도깨비)이라. 막막한 세상에 호소할 곳 없으므로 극히 원통하와 한 조각 원정을 지어 가지고 엎디어 백호산군 밝은 다스림 아래에 올리옵나니 신의 참상을 살피신 후에 능력을 발하사 이 같은 서대주 놈을 성화차래(星火捉來 : 급히 잡아들임)하여 엄형으로 중히 다스려 잔악한 신의 약탈된 양미(糧米)를 찾아 주옵소서. 혈혈단신으로 의지할 곳 없는 잔명이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옵심을 천만 빌어 산군주 처분만 바라나이다. (무진 정월일에 고장을 올림)”

하였거늘 백호산군이 읽기를 마치고 제사(題辭 : 관부(官府)에서 백성이 제출한 공소장에 쓰는 판결이나 지령)를 불러 알,

“대개 만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을 사용하는 것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바르고 그릇됨을 아는 데는 양쪽의 말을 듣는 것만 같음이 없나니, 한편의 말만 듣고 좋고 나쁨을 경솔하게 판결치 못하리라. 소진(蘇秦)[소진과 장의는 모두 전국 시대에 활약하던 달변의 정치가. 전국 시대 말에 진나라가 나머지 다섯 나라와 대치하고 있을 때 소진은 나머지 다섯 나라가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견제할 것을 주장하며 각국을 설득함. 그러나 진나라의 장의는 소진의 합종설을 뒤집어 나머지 오국의 단결을 깨뜨리고 각각 진나라와 연계하도록 일을 꾸밈.]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張儀)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러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욕으로 내리고 서대주를 즉각 잡아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한 번 제사하매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줄로 하여금 서대주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알,

“내가 들으니 서대주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가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였는데,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설분[분함을 씻고.]하고 또 소송당한 놈이 피차 예물을 바치는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 백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내며 예기(銳氣 : 성질이 굳세어 굽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감)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높여 부르며 가로되,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서대주 고소를 당하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 :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주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주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주가 호흡이 급해지고 한출침배(汗出沾背 :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땀이 배어 등을 적심)하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황황망조(惶惶罔措 : 마음이 급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함)하거늘 서대주 알,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취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주 나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주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별감은 그 사이 무양하셨느뇨[잘 지냈습니까?]. 나는 총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경치가 빼어난 곳에 산군을 모시고 있어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어두움과 밝음과 같이 분명히 다름]. 마음은 항상 생각이 있으나 승안접사(承顏接事 : 웃어른을 만나 뵈는 일)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의외로 청안(淸顔)을 대하니 패자에차는 천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한 잔의 거친 술]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찌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박한지라, 서대주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주더러 알,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주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성화 착래하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長子)쥐 알,

“오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 :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행동함)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주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뇌물을 받으려면 톡톡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알,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완유(玩遊 : 놀며 희롱함)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중략>

백호산군이 서대주의 소지를 본 후 말이 없더니, 이윽고 제사를 부르매 그 제사[관에서 백성이 제출한 고소장에 쓰는 판결이나 지령]에 가로되,

“예로부터 일렀으되 아랫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이 없는 것이어늘, 당돌히 위를 범하여 나의 덕화 없음을 꾸짖으니 죄는 마땅히 만 번이라도 죽일 만하다. 그러나 임금이 어질어야 신하가 곧다 하였나니, 위(魏)나라 임좌는 그 임금 촉천무후의 그림을 말하였고 하나라 신하 주운은 그 임금 한제의 그림을 말하였더니, 너는 이제 나의 덕이 없음을 말하니 너[서대주]는 진실로 임좌와 주운이 되고 나는 진실로 무후와 한제 되리니, 너같이 곧은 자 어찌 다람쥐의 양식을 도적하리오. 어불성설(語不成說 :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반대는 만불성설)이니 다람쥐는 엄형으로 다스려 귀양 보내고 서대주는 즉시 풀어 주어라.”

제사 이미 내리니 서대주 일어나 다시 끓어 가로되,

“산군의 밝으신 정사를 입어 풀어 주심을 입사오니 황송 무지[황송하여 몸 돌 바를 모름]하온지라 다시 무엇을 고하리오마는, 신의 미천한 마음을 감히 산군께 우러러 알리옵나니, 다람쥐의 죄상을 의논하올진대 간교하온 말로써 욕심을 내고 기군망상(欺君罔上 : 임금을 속임)하온 일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으며 죽어도 죄가 남겠으나, 헤아리건대 다람쥐는 일개 작은 짐승으로 배고픔이 몸에 이르고 빈곤이 처자에 미치매, 살고자 하오나 살기를 구하지 못하고 죽고자 하나 또한 구하기 어려우매 진퇴유곡(進退維谷)하던 항우(項羽)의 군사라, 다만 죽기를 달게 여기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고로 방자히 산군께 위엄을 범하였나 보옵니다. 오히려 생각하올진대 가련한 바이어늘, 다람쥐로 하여금 중형으로 다스릴진대 이는 죽은 자를 다시 때리는 일이요, 오히려 노승발검(怒繩拔劍 : 파리에 화내어 칼을 빼는 뜻이니, 곧 사소한 일에 화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산군은 위엄을 거두고 다람쥐로 하여금 쇠잔한 명을 살려 주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고 은택을 내리는 덕을 끼치사 일체 풀어 주시면 호천지덕(昊天之德 : 하늘과 같은 덕.)을 지하에 돌아간들 어찌 잊으리까. 살피고 살피심을 바라옵고 바라나이다.”

산군이 듣기를 다하매 길이 탄식하여 가로되,

“기특하도다, 네 말이여. 다람쥐가 큰 부처님의 선함을 누르고자 하니 한갓 불로 하여금 달빛을 가리고자 함이라. 서대주의 선한 말을 좇아 다람쥐를 풀어 주니 돌아가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으라.”

하고 인하여 방송하니, 다람쥐가 백 번 절하며 사은하고 만 번 치사한 후 물러가니라. 백호산군과 녹판관, 저판관이여 모든 하리 등이 서대주의 인후함을 못내 칭송하더라.

이해와 감상

작자 ·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 1권 1책. 국문 활자본. ‘서용전 (鼠勇傳)’ · ‘서옹전 (鼠翁傳)’ · ‘다람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쥐들의 소송사건을 소재로 한 의인소설로 풍자소설의 유형을 띤 작품이다. 소재가 유사한 <서옥기 鼠獄記> · <서대주전 鼠大州傳> 등의 한문본과는 전혀 별개의 작품이다.

중국 송주방 구궁산 토굴 속에 서대주(鼠大州)라는 짐승이 살고 있었다. 당태종이 금용성을 치려할 때, 서대주는 종족을 거느리고 금용성 창고에 양식으로 쌓아둔 쌀을 없애 버리는 큰 공을 세운다. 이 일로 서대주에게는 세민황제로부터 벼슬을 제수받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 쥐들을 초대한다.

이때 하도산에 다람쥐라는 짐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성품이 간악하고 집안 형편이 가난한 데도 나태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다. 다람쥐는 서대주가 잔치를 베풀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다. 다람쥐는 잔치가 끝난 뒤 서대주에게 자기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여 생률(生粟 : 낱밤)과 백자(栝子 : 잣)를 얻어가지고 돌아온다. 다람쥐 부부는 그것으로 봄을 무사히 지냈으나 겨울이 돌아오니 다시 굶는 신세가 된다. 다람쥐는 다시 서대주에게 가서 구걸하나, 그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한다.

이에 다람쥐는 원한을 품고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고 곤륜산의 백호산군(白虎山君)에게 거짓으로 소송장을 올린다. 계집다람쥐는 소송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힘껏 충고하다가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는 분한 나머지 집을 나가고 만다.

백호산군은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고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에 산군은 허위고발한 다람쥐를 유배 보내고 서대주는 내보낸다. 마음이 착한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같이 내보내줄 것을 간청한다. 산군은 서대주의 인후한 심덕에 감동하여 다람쥐를 내보낸다. 이에 다람쥐는 자기의 배은망덕한 처사를 반성하고 서대주에게 사과한다.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황금을 주어 돌려보낸다.

<서동지전>은 다람쥐가 서대주에게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하게 서대주를 백호산군에게 허위로 소송하였으나, 현명한 판관이 잘잘못을 가려 간악한 다람쥐에게 벌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인간사회에도 간악한 다람쥐와 같은 배은망덕한 인간이 있음을 경계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의 교훈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품 내면에는 봉건적인 정치 · 윤리 · 경제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근대지향적 주제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오소리와 너구리 등에 의해 표현되는 현실비판은 당대의 정치적 현실이 지닌 모순에 대한 풍자이다.

또한, 다람쥐와 아내의 다툼은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했던 당시 윤리관으로 볼 때, 올바른 충고를 들어주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항거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계집다람쥐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오는 내용도 당시의 윤리관이나 인습으로 보아서 과감한 저항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창부수와 여필종부라는 봉건적인 사고방식과 도덕관에 대한 비판으로 전통적인 윤리관을 타파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滿開] 고전소설-이춘풍전

📌요점 정리

- 연대 : 미상
- 작자 : 미상
- 형식 :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 해학적, 교훈적, 풍자적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표현 : 판소리 사설의 문체
- 주제 : 기생에게 매혹된 남성 풍자와 허위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과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진취적 여성의 활약으로 방탕한 남성을 개과천선하게 하고 몰락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인간형의 추구.

•구성 :

발단 - 이춘풍은 본시 거부(巨富)의 아들로 호강을 누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주색잡기(酒色雜技)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게 되지만 처의 노력으로 가산을 회복함

전개 -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춘풍은 기생 추월의 계획적인 유혹에 빠져 돈을 다 털리고 급기야는 그녀의 집 하인이 된다.

위기 - 춘풍의 처가 추월에게서 춘풍의 돈을 찾아 줌

절정 - 춘풍이 돌아와 의기양양해 하자 그의 처가 비장(裨將)복장으로 나타나 춘풍을 비판함

결말 - 춘풍의 처가 정체를 밝히니, 춘풍이 부끄러워 하며 지난날을 반성함.

•인물 :

이춘풍 - 서울 거부(巨富)의 아들로 위선과 허세에 가득 찬 가부장적 남성의 전형적인 인물

춘풍의 처 -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남편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그의 허위를 꾸짖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임

추월 -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 내려 하는 자본주의적인 여인상임

•특징 : 두 인물(춘풍과 춘풍의 처)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물질 중심적인 새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던 시대상을 반영함. 문체 면에서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있으며, 귀족 계층의 전아한 언어와 평민층의 발랄한 속어나 재담, 육담이 섞여 있다.

•줄거리 :숙종 때 서울에 사는 이춘풍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놀러다니며 가산을 탕진한다. 나중에는 아내가 품을 팔아 모은 돈까지 다 없애고 빚까지 진다.

박득만이라는 상인이 돈을 써서 벼슬을 사려고 한다는 소식을 얻어 듣고서 최참판에게 다리를 놓겠다고 찾아갔으나 용돈도 못 얻고 술대접만 받고 돌아온다.

춘풍은 돈이 떨어지자 기생 월향에게까지 천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 김씨가 굶주려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있다. 춘풍은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반성하고는 아내에게 서약까지 한다.

이에 김씨는 기뻐하며 주린 배를 안고 열심히 품팔이를 하여 돈을 모은다. 춘풍은 다시 교만하여져서 호조(戶曹)에서 돈 2,000냥을 빌리고 아내가 모은 500냥까지 합해서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간다.

평양명기 추월에게 미혹되어 장사는 하지 않고 돈을 탕진하다가, 이윽고 박대와 수모를 받으며 추월의 집에서 하인노릇을 한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김씨는 마침 이웃에 사는 참판이 평양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청을 드러 비장(裨將)이 되어 남복을 하고 평양에 간다.[고전 소설에서 '남장 여인'의 의미는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습적·제도적으로 억압을 받던 당시의 상황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성의 본질적 능력이 결코 남성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추월의 집을 찾아가 추월의 간교한 행색과 남편의 거지같은 모습을 확인하고, 추월을 엄히 문책, 5,000냥을 남편에게 주게 하고 춘풍 역시 태장(笞杖)을 쳐서 죄를 다스린다.

춘풍은 의기양양하여 집으로 왔으나 아내가 비장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꾸짖자 다시 망신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당한다. 춘풍은 비장이 아내인 것을 알고 개과천선하여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에 힘써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을 이룬다.

내용 연구

앞부분의 줄거리 : 이춘풍은 본래 부자였으나 그의 부모가 죽은 후 주색잡기로 재산을 탕진한다. 이춘풍의 처가 5년간 갖은 고생을 하여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어지자 이춘풍은 호조에서 돈을 빌려 장사를 하겠다며 평양으로 떠난다. 하지만 기생 추월을 만나 돈을 다 빼앗기고 추월의 하인이 된다.

(전략)

“어디로 갈라시오. 노자가 부족하면 한 때나 보태지요.”

돈 한 돈 내어 주며 바베 나가라 재촉하니, 춘풍의 거동 보소. 분한 마음 폭발하여 추월더러 하는 말이,

“우리 둘이 갓 만나서 원앙금침[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를 의미하며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과 베개라는 말] 마주 누워[서로 농염한 사이였음], 불원상리(不願相離)[서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굳은 언약[금석지약 : 금석처럼 굳고 변함없는 언약, 금석맹약] 태산같이 언약하여, 대동강이 마르도록 떠나가지 말자더니, 이렇듯 깊은 맹세 농담인가 진정한가. 이제 이 말 웬말인가.”

추월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말 좀 들어 보소. 청루[창기가 있는 집] 물정 몰랐던가. 장 난부[하급] 이 낭청[관직명]도 동가식 서가숙(東家食西家宿)[떠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얻어먹고 지냄. 또는 그런 사람.]하고, 노류장화(路柳牆花)[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이룸.]는 인개가절(人皆可折)[모든 사람이 다 꺾을 수 있음]이라 평양 기생 추월 성식[성질과 심성] 몰랐던가. 자네가 가져온 돈냥 혼자 먹었던가.”

이같이 구박하여 등 밀치며 어서 바베 가라 하니, 춘풍이 분한 중에 탄식하며 전면 기둥 비켜서서 이리저리 생각하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 추월이 춘풍에게서 돈을 빼앗고 괘시함

집으로 가자 하니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이요, 처자도 부끄럽고, 또한 막중 호조 돈 이천냥을 내어다가 한 푼 없이 돌아가면, 금부옥(禁府獄)에 가두고 주장대로 지르면 속절없이 죽겠으니 서울로도 못 가겠고, 동서 구걸하자니 그도 또한 못하겠고, 불원천리 가자 하되 노자 한 푼 없으니 그도 또한 못하겠다. 이를 장차 어찌하리. 이럴 줄을 몰랐던가. 후회막급 창연하다[몹시 서운하고 섭섭하다]. (중략)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갓 망건 의복 치레하여 운안준마(銀鞍駿馬)[호사스럽게 꾸민 좋은 말]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 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평양 비장으로 와서 추월로부터 춘풍의 돈을 돌려받게 한 사실을 감추고 있음],

“어이 그리 더디었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춘풍이 반기면서,

“그 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듯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술과 안주]을 소담히[아담하게]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춘풍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남. 편집자적 논평]. 없던 교태(驕態)[교만한 태도]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되,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맛이 없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로 매일 장취[늘 술에 취하여]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을 그릇에 던져 박고 고기도 씹어 뱉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제일 가는 미인]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냈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호조 돈이나 다 갚고 약간 전량[돈과 곡식]을 수쇄[다 거두어들여]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현금 대신 쓰는 어음, 수표 증서]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첩, 추월집]과 한가지[함께]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볼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 하고, 오동수복(烏銅壽福)[백통으로 만든 그릇에 검붉은 구리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壽’ 나 ‘福’ 을 박은 것] 화간죽(花竿竹)[꽃무늬를 새긴 담뱃대]을 한 발이나 빼쳐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아, 왔느냐?” [춘풍을 혼내주기 위해 춘풍의 처가 나가서 비장 복장을 하고 나타남]

춘풍이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매우 놀라서]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땅에 엎드려]하여 여쭙오되,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내일]에 댁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오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외다.”

“내 마침 이리 지나가다가 너 왔단 말 듣고 네 집에 잠깐 들렀노라.”

방 안에 들어가니,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찌 들어갈까?[춘풍이 지체 높은 비장 앞에서 찢절매고 있음] 문밖에 섰노라니,

“춘풍아, 들어와서 말이나 하여라.”

“나오리 좌정하신[자리에 앉으신] 데를 감히 들어가오리까?”

“잔말 말고 들어오라.”

춘풍이 마지 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나오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냥을 일조[하루아침]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같사이다.”

“그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비장이 왈,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주안상, 술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꾸짖어 말하되,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내외를 시키느냐? 네 계집 불러 술 준비 못 시킬까?”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서술자의 개입 : 서술자가 인물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를 말함] - 춘풍의 처가 비장 복장으로 갈아입고 춘풍 앞에 섬

들며나며 찾아도 막무가내라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영도 참혹하고 걸인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蓬頭亂髮) : 머리털이 쑥대강이처럼 마구 흐트러짐. 또는 그런 머리털.] 현 누더기 감발버선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어찌 막을손가.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말하되,

“남산 밑 박 승지 댁에 갔다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이나 하게 갈분이나 한 그릇 하여 오너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간 줄 알리요.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말하기를,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차왈피왈하니[이런저런 핑계를 댈],

“너는 벌써 잊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체증한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내려가 죽우는 꼴은 차마 볼 수 없더라[서술자의 개입]. - 춘풍의 평양에서의 행적을 폭로하는 춘풍의 처

[滿開] 고전극-하회 별신굿 탈놀이

요점 정리

- 갈래 : 전통 가면극의 대본, 탈춤(민속극) 대본
- 작가 : 미상(경북 안동 하회 마을)
- 연대 : 조선 후기
- 성격 : 비판적, 풍자적, 희화적, 해학적, 오락적, 유희적
- 제재 : 서민과 양반의 생활
- 구성 : 전체 12과장중 5과장 '양반과 선비의 세도 자랑'으로 구성됨
- 주제 :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 폭로,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비판과 서민 생활의 애환
- 출전 : [유한상 채록본]
- 특징 : 내용이 원초적이고, 소박하며, 언어 유희에 의한 표현, 대표적인 농촌형 탈춤임
- 전체 줄거리 :

첫째 마당은 '각시의 무동 마당'이다. 각시 광대는 무동을 타고 팽과리를 들고 구경꾼들 앞을 돌면서 걸립(乞粒)을 한다. 이 걸립은 놀이 중에 수시로 행해지며, 이렇게 모은 돈과 곡식은 이 행사에 쓰고, 남으면 다음 행사를 위하여 보관한다.

둘째 마당은 '주지놀이'로서 주지는 곧 사자를 뜻하며, 액풀이마당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식무(儀式舞)이다.

셋째 마당은 '백정(白丁) 마당'으로 백정이 춤을 추다가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써 만든 소를 죽여 우낭(牛囊)을 꺼내 구경꾼들에게 판다. 이것도 걸립의 일종으로, 이 돈도 별신굿 행사에 쓴다.

넷째 마당은 '할미 마당'으로 쪽박을 차고 흰 수건을 쓴 할미 광대가 등장하여, 베를 짜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베틀가'에 얹어 부르고, 춤추다가 걸립한다. 계속되는 이 걸립 마당들은 이 놀이의 주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마당은 '파계승 마당'으로, 부네(妓女 혹은 小室)가 오금춤을 추며 나와 치마를 들고 오줌을 누다. 이 때 종이 나와 이 광경을 엿보다 흥분하여 부네를 끼고 도망간다. 이 마당은 대사 없이 진행된다.

여섯째 마당은 '양반과 선비 마당'으로 양반의 하인인 초랭이가 나오고, 선비는 소첩인 부네와 함께 나온다. 초랭이가 양반과 선비를 서로 인사시키고 자기가 양반 대신 선비의 인사를 받는다. 초랭이는 계속 양반을 골려준다. 양반과 선비는 학식을 자랑하며 노는데, 별채(別差) 역인 이매가 나와 환자(還子) 바치라고 외치자 모두 놀라 도망간다. 관리가 착취하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다.

이로써 1차적인 탈놀이가 마치지만 장소를 옮겨 동네 입구에서 혼례 마당과 신방 마당을 치루는 것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만의 특색이다. 멍석 위에 장구 2개, 그 위에 고깔을 하나씩 놓아 혼례상을 마련하고, 양반 광대가 혼례식을 진행하며, 각시 광대와 남은 광대 하나가 탈을 쓰고 신부, 신랑역을 맡아 혼례 마당을 치른다. 이어 같은 멍석 위에서 신랑, 신부의 첫날밤 행위를 모의적으로 행함으로써 신방마당을 치른다. 이 혼례 마당과 신방 마당은 처녀신인 서낭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인데, 풍요를 비는 의식이기도 하다.

내용 연구

제 5 과장 양반 선비 세도 자랑

초랭이 아? 각시하고 중놈하고 어디 갔노? 아 — 저리로 도망가는구나. (각시와 종이 달아난 쪽으로 바쁜 제자리 걸음으로 뛰다가) 아이고! 요게 뭐로? 아 — 각시 신이구나. (각시가 흘리고 간 꽃신을 품에 안고 혼자 좋아서 몸을 비틀다가 넘어진다.) 아이고 궁둥이야. (일어나 찢룩찢룩거리며 관중들에게 신을 줄 듯 줄 듯 하면서 춤을 춘다.) 보소! 이거 이쁘지? 안 돼! 보소! 이거 이쁘지? 이거 좋까? 안 돼! (갑자기 무언가를 생각해 낸 듯이) 아 참! 우리 양반을 불러와야지. (조착조착 뛰어가면서) 양반요! 양반요, 빨리 오소 빨리.

양 반 어흠. (거드름을 피우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양 반 (귀찮다는 듯이) 이놈! 이놈이 왜 이리 수답노(수다인고?)?(부채로 초랭이의 엉거지를 툭 친다.)

초랭이 (무안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양반요! 각시하고 중하고 춤추다가 도망갔어요.

양 반 똥이라고? 허허 망측한 세상이로다. (주위를 빙빙 돌며 세상을 개탄하듯 부채질을 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선 비 [이매 (선비의 하인 역. 바보탈 이라고도 함.)를 앞세우고 나온다.]

초랭이 이매야, 이노마야.

이 매 (비실비실 바보스런 걸음걸이로 초랭이 쪽으로 걸어오며) 왜 이노마야.

초랭이 (귓속말로)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가 도망갔대이.

이 매 허허, 우습다, 우스워. (비실비실 선비에게 가서) 선비 어른요, 아까 중하고 각시하고 춤추다가 도망갔다 그래요.

선 비 (신경질적으로) 뭣이라고. 에이 고약한지고. (담뱃대 재를 땅바닥에 탁탁 던다.)

초랭이 (이매에게 가서 꽃신을 가지고 이매와 주고받다가 껴안으며 수작한다.)

양 반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스러운 듯 부채를 집어 번거지를 때리며) 이 놈! 거기서 그러지 말고 부네(아름다운 여인. 다른 가면극의 '소무' 에 해당함.) 나 불러오너라.

초랭이 (바쁜 제자리 걸음으로 뛰어나가 부네를 데리고 나온다.)

부 네 (요사스럽게 춤을 추며 몸을 비비 꼬아대면서 나온다.)

초랭이 (부네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냄새를 맡는다.)

부 네 (초랭이를 때리려고 하지만 손이 뒤로 가다가 그만둔다.)

초랭이 (조착조착 뛰어와서) 양반요, 부네 왔니다.

양 반 (부채질을 하다가) 어디 어디?

부 네 양반 내 여기 왔잖나.

양 반 부네야. 국추단풍(菊秋丹楓)에 기체후만강(氣體候萬康)하시며 보통덥이 감환(感患 : '감기' 의 존댓말.)이 들어 자동양반 문안드리오.

부 네 그 문안 감사하오나 감자(미상. 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한 쌍은 왜 왔소?

양 반 허허허, 그 곳이 하도 험악하와 보호자로 왔나이다. 수목은 울창하고 양대꽃이 만발하니 들어가기만 하면 백혈(白血)을 토하고 죽어 가기에 보호자로 왔나이다.

부 네 하도 감사하와 버선 한 켤레 아뢰나이다.

양 반 허허, 애, 부네야. (양반, 부네 어울려 춤춘다.)

선 비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하여) 에끼! 고약한지고. 에헴 에헴.

부 네 (양반과 춤추다가 선비의 기침 소리를 듣고 선비에게 간다.) 선비 어른 내 여기 왔잖나?

선 비 오냐 오냐, 부네야. (부네를 안 듯이 춤춘다.)

양 반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춤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런 망할 년의 요부(妖婦)가? 어흠 어흠.

부 네 (양반의 기침 소리에 다시 양반에게 간다.) 양반 내 여기 있잖나.

양 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오냐 오냐.

부 네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선비를 본다.)

선 비 (부네와 눈길이 마주치자) 아니. 저런 요망(요사스럽고 망령된 것)한 계집년 봤나? 에헴 에헴.

부 네 (다시 선비에게 간다.)

양 반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놈의 선비가? 옳거니 여보게 선비, 이리 좀 오게. 저길 보면 좋은 구경이 있네. (선비에게 마을 쪽을 가리키고 나서 부네에게 간다.)

선 비 (양반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돌아서서 놀라며) 아니 저놈의 양반이? (양반에게 간다.) 여보게 양반, 이리 오게. 저기에서 각시(새색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뺀 조그맣게 만든 여자 인형)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선비나 양반이나 위선적인 모습들만 취하고 있을 뿐, 속으로는 여색을 밝히고 있음을 비꼬고 있는 내용이다.)

부 네 (선비와 양반을 바라보며) 호호호, 내 때문에 저래 싸우는구나.

양 반 (선비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아니? 저놈의 선비가? 나를 속여? 여보게 선비,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는가?

선 비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양 반 아니, 그럼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초랭이·이매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흥내낸다.)

양 반 암 낮고 말고.

선 비 뭣이 나아, 말해 봐.

양 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 비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양 반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 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 반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 : 조선 초기의 문하부의 정1품으로 으뜸 벼슬)이거던.
 선 비 아 —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 : ‘문하시중’ 보다 높고 크다는 뜻으로 한 말이 나, 전혀 말이 되지 않음)인데…….(탈춤 대사의 특징인 언어 유희에 의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문하시중임을 내세워 거들먹거리는 양반과 이에 자신의 아버지는 문상시대라고 응수하는 선비는 신분의 제대로 된 명칭이 무엇인지 서로 알지 못한다. 이것을 통해 당시 지배 계층들이 헛지식만을 탐구한 한계와 그들의 위선, 허위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양 반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 비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侍大)가 크단 말일세.
 양 반 그것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선 비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 반 그러면 무엇이 또 있단 말인가?
 선 비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 반 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선 비 도대체 팔서육경은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또 뭐야?
 초랭이 (방정맞게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며) 헤헤헤, 나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불경의 일종인 팔양경(八陽經).],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길경이, 한약재로 쓰이는 풀.), 처녀 월경, 머슴의 쇠경(새경. 머슴에게 주는 한 해의 품삯). <이 부분에 나타난 양반과 선비의 풍자를 살펴 보면 하회 탈춤에는 양반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양반과 선비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양반은 지체가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비는 학식이 많다는 것을 내세운다. 자신이 사대부의 자손이고 할아버지가 문하시중이었다고 떠벌리는 양반 앞에서 선비는 자신이 팔대부의 자손이고 문상시대의 아들이라고 받아친다. 그러고는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고 문상시대는 문하시중보다 높고 크다고 강변한다. 반면에 양반은 사서삼경을 읽었다고 스스로는 선비에게 팔서육경을 읽었노라고 응수한다. 서로 한 번씩 장군명군을 주고받는 그들의 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소설가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에서 황진사라는 인물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이 매 그거 다 맞아.
 양 반 (흐뭇한 표정으로) 이것들도 아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몰라?
 선 비 (혀를 차면서) 우리 싸워야 피장파장이니 그러지 말고 부네나 불러 노세.(초랭이가 무식함을 드러내면서 육경을 언어 유희로 나열하지만, 양반과 선비 또한 무식하여 초랭이의 말이 엉터리임을 지적하지 못하고 곧이곧대로 믿음으로써 그들의 학식의 허구성이 파헤쳐지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초랭이와 그것에 맞장구치는 이매 앞에서 양반과 선비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양 반 암, 좋지. 애, 부네야 우 —욱.
 부 네 (양반과 선비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양을 지켜보다가 호들갑스런 춤을 추며 나온다.) 양반, 선비, 부네 어울려 춤을 춘다(춤을 추면서 양반, 선비와 수작하는 것으로 보아 부네는 여염집 여자가 아닌 자유로운 신분을 지닌 여성으로 추측된다). 양반이 부네와 춤을 추면 선비가 양반을 밀치고 부네를 껴안듯이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서 춤을 추고, 양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할 미 (양반, 선비, 부네가 춤추고 노는 게 흥에 겨워 나온다. 양반과 선비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부네와 선비가 어울려서 춤추는 사이에 양반과 짝이 되어 춤춘다.)(여기서 할미의 역할은 양반과 선비의 욕심과 속됨을 조롱하고 있다.)
 양 반 (흥에 겨운 어깨춤으로 빙빙 돌다가 부네가 없고, 할미를 보자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의 늙은 할망구가? 예끼, 이 할미야! (할미를 밀어 버린다.)
 할 미 (뒤로 나가자빠질 뻔하다가 화가 나서) 이놈, 양반아! 너도 나처럼 늙어 봐. (선비에게 간다. 부네가 옆에서 춤추는 줄 알고, 선비는 팔을 들어 도포 자락을 늘이고 춤을 춘다.)
 선 비 (양반과 마찬가지로) 아니, 이 요망한 할망구가? 예끼, 이 할망구야. (할미를 밀어제치고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부네에게 간다. 양반과 부네 사이에 끼여들어 부네와 마주보며 끌어안듯이 춤을 춘다.)
 할 미 예끼 이놈, 너도 똑같은 놈이구만. 에이고 나가야지.
 초랭이(한국의 가면극에서 양반의 하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로 초랑이, 초란이, 초라니라고도 함.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등장하는 초랭이는 붉은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양 어깨와 허리에 청홍 띠를 두름) (콩콩 바쁜 걸음으로 뛰어나오다가 할미를 본다.) 할매요! 어디 가노? 내하고 춤추고 노시더.
 할 미 그래, 그래, 초랭이가 제일이지?
 (양반, 선비, 초랭이, 이매 춤을 추고 있다.)
 백 정 (심술궂은 걸음걸이로 배꼽이 보이고,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고, 뒤에 허리 받침의 오른 손에는 소불알을 들었다.) 헤헤헤, 꿀들 참 좋다. (춤추는 광대들을 바라보다가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면서) 섯님! 알 사이소!
 양 반 (깜짝 놀라며) 이놈! 한참 신나게 노는데 알아라니?
 백 정 알도 모르니꺼?
 초랭이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나오면서) 달걀, 눈알, 새알, 대감 통불알.
 백 정 (호탕하게 웃으며) 맞았다 맞아. 불알이야 불알. (소불알을 흔들흔들거린다.)
 선 비 이놈! 불알이라니?
 백 정 소불알도 모르니꺼?
 양 반 이놈! 쌍스럽게 소불알은 어쩐 소리냐. 안 살 테니 썩 물러가거라.
 백 정 소불알을 먹으면 양기[陽氣 : 남자 몸 안의 정기(精氣), 곧 정력(精力)]에 역시기 좋다는데…….
 선 비 뭣이 양기에 좋다? 그럼 내가 사지.
 양 반 (부네와 수작을 하다가 황급히 나서며) 야가 나한테 먼저 사라고 했으니, 이것은 내 불알이야. (백정이 쥔 소불알을 잡는다.)
 선 비 (백정이 쥔 소불알을 잡으며) 아니, 이것은 결코 내 불알이야. (양반과 선비는 서로 소불알을 잡고 당긴다.)
 백 정 아이구, 내 불알 터집니다.
 할 미 (양반, 선비, 백정이 서로 잡아당기다가 떨어뜨린 소불알을 쥐고) 찌찌찌, 소불알 하나를 가지고 양반은 지 불알이라 하고, 선비도 지 불알이라 하고, 백정도 지 불알이라 하니 도대체 이 불알은 뉘 불알인고? 육십 평생을 살아도 소불알 가지고 싸우는 꿀들은 침 봤다 침 봤어. 에이고 몹쓸 인간들이라니. (양반과 선비는 부끄러운 행동으로 나가고, 그 뒤를 따라 광대들 모두 나간다.)

이후의 줄거리 제6과장에서는 백정이 도끼와 칼을 들고 나와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춤을 추며 양반을 비웃는다. 이어서 할미가 앉아 베를 짜면서 노래하는 제7과장과 광대 전원이 모여서 춤추는데 별채가 나와서 환재를 요구하는 제8과장이 이어진다. 이후 총각과 각시는 혼례를 올리고(제9, 10과장), 별신 행사의 최종일인 음력 정월 15일, 마을 앞길에서 제물을 차려 놓고 모든 귀신들이 하회 동네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굿을 올리며(제11과장), 야삼경에 일년 간의 동네 무사식재(無事息災)를 기도하고, 다음에 국신당(國神堂), 삼신당(三神堂)에 차례로 제를 올려 별신 행사를 마친다(제12과장).

◆ 이해와 감상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에 전승되는 탈놀이로 중요 무형 문화재 제6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놀이는 우리 나라 가면극의 주류인 산대도감(山臺都監) 계통극과는 달리 동제에 행해지던 서낭제(城隍祭) 탈놀이이다. 하회리와 병산리에서 탈놀이가 행해졌다고 하나, 1928년경에 중단되고 가면 12종 13개만이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온다.

이 놀이는 10년에 한 번씩 혹은 신탁(神託)에 따라 임시로 거행되는 별신(別神)굿으로써, 먼저 선달 보름날 산주(山主)가 마을 뒷산 서낭당에 올라 신의 뜻을 묻고 굿을 준비한다. 하회의 서낭신(城隍神)은 '무진생 서낭님'으로 17세 처녀인 의성 김씨라고 하고, 혹은 15세에 과부가 된 동네 삼신의 며느리신이라고도 한다.

[하회 별신굿]은 제1과장 주지춤, 제2과장 백정 놀이, 제3과장 할미 놀이, 제4과장 파계승 놀이, 제5과장 양반, 선비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탈놀이의 내용은 지배 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여기에 중의 파계를 통해 당시 불교의 타락상을 드러냄으로써 피지배 계층인 상민들 간의 갈등적 관계와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하회 마을의 평민들은 별신굿 탈놀이를 통하여 그때 그때의 세상살이를 풍자하고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거리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없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다. 제시된 5과장의 양반과 선비가 가문과 벼슬, 학식을 다투는 장면에서 양반의 허위 의식과 무식함이 폭로되며, 초랭이가 양반이 말한 '육경'에 대해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 안경, 약방의 질경, 처녀 월경, 머슴 새경이라고 말하며 양반이 이에 동조하는 장면에서는 양반에 대한 풍자가 심화된다. 더욱이 백정이 '양기'에 좋다며 파는 '소불알'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실랑이하는 장면에서 양반에 대한 풍자는 극에 달한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아 이처럼 양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희화화하는 내용의 탈놀이가 하회라는 양반마을에서, 그것도 양반들의 묵인 하에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으며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이것은 평민들이 탈놀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해소하고, 또 양반들은 평민들의 비판과 풍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상하간의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극&수필-유실물

[지문 연구]

※ 이근삼, <유실물>

- 해제 : 이 작품은 물질적 욕망에 얽매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의 정신적 불구 현상을 우의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자기 상실과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된 현대인의 삶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 인간적 가치를 잊고 사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
- 내용 구조도 :

꽃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파 : 물질만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게 함. ◦ 상무 : 일에만 빠져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게 함.
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파 :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잃고 싶은 것. ◦ 비서 :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필요 없는 것.

滿開
의개



[滿開] 극&수필-파수꾼

◆요점 정리

- 작자 : 이강백(李康白)
- 형식 : 희곡
- 성격 : 교훈적, 상징적, 우화적, 현실 풍자적[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논리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우화적으로 보여줌]
- 제재 : 파수꾼의 위선
- 구성

발단	편지를 받고 촌장은 소년 파수꾼을 찾아옴. (만남)
전개	소년 파수꾼이 말한 이리 떼가 없음을 촌장은 인정함. (소년 파수꾼의 승리)
위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하루 연기해서 알리기로 함. (촌장의 설득)
하강	그러기 위해서 소년 파수꾼이 오늘 거짓말을 해야함. (소년 파수꾼의 타협)
대단원	소년 파수꾼이 거짓말을 한 뒤 그는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 (촌장의 승리)

- 주제 : 진실을 향한 열망, 진실이 통용되기 어려운 비극적 사회
- 인물 : 촌장 :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 왜곡도 서슴지 않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함
파수꾼가, 나 : 독재 권력의 지배질서를 합리화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하수인, 또는 권력의 나팔수라 할 수 있음.
파수꾼 다 : 처음에는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진실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함.
마을 사람들 : 독재 권력과 하수인에게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매한 민중을 상징

• 줄거리
이리 떼의 습격을 미리 알리기 위해 세 명의 파수꾼이 망루에서 들판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파수꾼들을 이상스럽게 생각한다. 소년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마을의 촌장이 나타나 소년을 설득한다. 촌장은 사실은 이리 떼가 없지만, 이리 떼가 나타난다는 거짓 정보도 때로는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소년에게 말한다. 소년은 거듭 따지지만 촌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점차 소년조차 거짓말에 동조하게 한다. 소년은 다시금 제자리에서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인 양철북을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

- 특징 : '양치기 소년과 이리'라는 우화 형식을 빌려 당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고 권력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한 작품이다.
- 연극사적 의미 : 이 작품은 권위주의에 의해 통치되던 197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당대 권력의 위선적인 실체를 건드려 보고자한 매우 의욕적인 시도를 보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화적인 시도는 팽팽한 갈등을 전제로 하는 극 양식의 원리에서 보면 그 갈등의 축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객들은 우화라는 상징적 장치를 통해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화적인 장치 가지는 연극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극을 통한 발견 : 극은 인간의 삶을 무대라는 객관화된 공간 위에서 연출해 관객에게 보여 주는 양식이다. 극의 이러한 보여주기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거나,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작품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극중 사실의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발견으로까지 이어진다. 관객들은 작품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과연 올바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서 촌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스스로 거짓보고에 앞장서는 소년 파수꾼을 보면서 연민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 출전 : <현대문학>(1973)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내용 연구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배우 한 사람이 '해설자'와 '촌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1인 2역으로 볼 수 있다. / 위선적인 모습과 다른 촌장의 외모, 표리부동]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덩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촌장 자신도 어렸을 적에는 이리떼의 존재를 부정했음을 암시한다.]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 곳엘 찾아온 거예요. [편지의 실제 내용은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촌장은 교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 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촌장은 소년 파수꾼을 찾아오면서 아직 진실을 알지 못하는 파수꾼 '나'를 따돌리고자 했다. 그러한 계산으로 다른 곳에 잠깐 가 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찰레 넝쿨 밑이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 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운반인은 망루에 있는 파수꾼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대주는 인물이다. 그가 소년 파수꾼으로부터 촌장에게 전해줄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고는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는 말이다. 그 편지는 소년 파수꾼이 발견한 흰구름을 이리 떼라고 속여왔다는 내용이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난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구 그런단다.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 뿐[진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짐을 강조]'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망루를 부순다고 - 외쳐지고 있어 : 이 대사는 '마을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주어의 생략은 관객들에게 망루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여, 극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진실과 정의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암시].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거짓말]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안전]가 가득하단다.[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대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진실은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촌장이 진실을 숨겨 왔음이 본인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덩이를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독자반응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독선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판단할 수 있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상, 군사 독재 정권이 사용하던 수법이었음]'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진실을 속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사람들은 이리 - 만든 거야 : 마을 사람들이 이리떼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단결한 결과 마을의 질서는 유지되었다. 촌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리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경계심이 오히려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이 오히려 마을의 단결을 도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역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목에는 가상의 적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여 독재 체제를 유지해 온 권력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의 왜곡을 서슴지 않는 지배 세력의 허구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총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 없는 멧들을 보살피고 양철북[가공의 적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기 위한 수단]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저 총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 촌장의 대사에서 희생의 고귀함을 통해 거짓놀이의 유용성을 내세운다. 진짜와 가짜의 대립 속에서 진짜가 통용되기 어려운 사회이다. 가짜를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노인 파수꾼과 같은 인물의 희생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어 왔음을 내비친다. / 살신성인]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1970년대 박정희 군사 정권을 풍자].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굳은 의지]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놓구,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겉으로 볼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말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서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태를 진정시키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 결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이후의 대화와 행동으로 보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아, 이젠 됐어요! [상대의 약속에 지난 걱정을 떨치고 마음을 놓고 있다.]

[촌장] (흔젓말처럼) ---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났름 나왔다가 들어간다).[온화한 얼굴에서 - 나왔다가 들어간다 : 촌장이 겉으로는 온화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소년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선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동작 지시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구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구요? [두려움]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 내릴 거다.[촌장은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는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말함으로써, 소년 파수꾼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진실이 알려지게 되면 발생할 상황을,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함. 촌장은 자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끔찍하게 타살되는 것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꼭 필요한가 하는 식으로 소년을 달란다.] - 진실을 음폐하기 위해 소년을 회유

[다] 아니예요, 그건!

[촌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대유법, 원관념은 죽음**]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가 진실을 당장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깨는 살인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다'로 하여금 더 이상 '다'의 뜻을 고집할 수 없게 하는 말이다.**]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예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촌장의 우선**])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오늘은 나에게 - 외칠 테니 : 촌장은 완강하게 버티는 소년 파수꾼의 생각에 대해 정면적으로 대답하지는 않는다. 먼저 오늘만은 양보하고 자신의 말대로 하자는 권유를 하기도 하며, 촌장은 '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촌장은 그 다음에 서서히 소년을 굴복시키는 용의 주도함을 보인다.**]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 **촌장에게 서서히 설득당하는 소년**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친근 애정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남에게 물품을 줌**]하구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다]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번씩은 앓는 병 : 노인 파수꾼은 이불을 덮지 않아서 걸린 감기 몸살 같은 열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촌장이 말하는 병은 젊은이들이 가지는 권력과 통치 질서에 대한 비판과 진실에 대한 희구를 뜻한다.**]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 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권력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우매한 모습]**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불안감이 증폭됨.]**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니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이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구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구.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촌장은 보복으로 파수꾼 '다' 를 평생 망루에서 살게 한다. 이 부분은 촌장의 본색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파수꾼 '다' 에게 보였던 다정한 태도에서 돌변하여, 권력자의 냉정한 태도를 취하며 어조 역시 애원조에서 단호함으로 바뀌고 있다. 파수꾼 '다' 는 이미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한 공범으로서의 약점이 있으므로, 교활한 촌장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다 …… 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음향 효과를 통해 진실이 왜곡된 현실의 분위기를 암시하며, 동시에 '다' 의 심리를 암시한다.]**
 촌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촌장이 인간의 원초적인 고향이자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시키기 위해 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자가 민중을 현혹시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이.
 촌장 ……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촌장 미안하다.
 사이.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나 가시려구요, 촌장님?
 촌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뎃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 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무지하면서도 용감함을 추구하는 성격임을 보여 준다.]**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파수꾼 '다' 는 결국 촌장에게 회유를 당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비겁함과 몽매함은 관객들로 하여금 연민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극&수필-대장금

◆ 작품의 개관설명 ◆

- ▶ 갈래 : 드라마 대본
- ▶ 성격 : 역사적, 교훈적, 서사적
- ▶ 배경 : 조선 중종 시대, 왕실 수라간
- ▶ 주제 : 장금의 시련과 그것의 극복을 통한 성공

- ▶ 특징 : ①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여성 간의 사제 관계와 동료애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을 작가가 허구적 상상력으로 재창조하였다.
- ④ 선악의 대립 속에서 주인공과 적대적 관계인 인물들과의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궁중 내 하급 구성원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드라마 '대장금'은 한류를 일으킨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다. 본문에 제시된 드라마 대본에서는 중국 사신을 맞아 몸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금의 활약이 돋보인다. 장금이 어떤 생각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금의 모습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교훈과 감동을 준다. 이 작품이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착한 사람의 성공은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 요소이다. 반면 조선의 음식 문화와 궁중 생활은 우리 문화를 잘 보여 주는 특수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작품 줄거리

의금부 금관과 쫓겨난 수라간 궁녀 사이에 태어난 장금은 갑자사화로 부모를 잃고 수라간 최고상궁이 되어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10살에 입궁한다. 한 상궁 밑에서 실력을 쌓아 가던 장금은 금영과 최 상궁의 음모에 빠져 누명을 쓴 채 제주도로 유배당한다. 유배지로 가던 중 한 상궁은 죽음을 맞이하고 제주도에 도착한 장금은 의녀가 되어 한 상궁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로 결심한다. 의녀가 된 장금은 다시 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수라간 최고 상궁이 된 최 상궁은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두려워 장금을 모함하지만 실패한다. 마침내 장금은 수라간 최고상궁을 거쳐 임금의 주치의가 되지만 장금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종종은 민정호와 함께 명나라로 떠나라고 권유하지만 장금은 민정호와 함께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사는 길을 택한다.

● '대장금' 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장금(長今)'이라는 이름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중종실록'에 열 번가량 나오는데, 장금이라는 의녀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는 장금의 본명이나 출신 등의 자세한 기록이 전해져 있지 않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금이라는 인물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작가가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 여성 영웅 소설과 ‘대장금’ 의 차이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	대장금
① 자신이 여성임을 들키지 않으려 주로 남장함 ② 과거를 응시하여 급제하거나, 장수가 되어 무공을 쌓음, 남성들의 출세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 ③ 선천적으로 비범한 능력을 타고남	① 남장을 하지 않음 ② 요리로써 신임을 얻음, 수라간에서 쫓겨난 후에는 의술을 배워 임금의 주치의가 됨, 요리나 의술은 당대에 귀하지 않게 여긴 분야라는 점에서 독특함 ③ 스스로의 재능을 갈고 닦음

● 정통사극과 퓨전 사극

- 정통 사극 : 궁중을 주 무대로 함 / 장엄한 음악, 음향, 중후한 목소리의 내레이션을 사용 / 다수의 남성 시청자 확보
 - 퓨전 사극 : 일반 민중의 삶을 소재로 함 / 현대적 언어와 음악을 사용 / 시청자의 폭이 넓어짐
- ⇒ 퓨전 사극으로서의 ‘대장금’ 은 하층 여성을 중심인물로 궁중의 왕과 왕비, 대신들을 주변 인물로 설정,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헤쳐가며 성공하는 과정에 주목

◆ 지문 해설 ◆

임금의 진지를 짓던 주방

[앞부분 줄거리] 수라간 최고상궁이 병세가 심해져 자리를 내놓게 된다. 제조상궁은 그 자리에 최 상궁을 올리고자 하지만 최 상궁은 아직 최고상궁에 오를 나이가 아니다. 그 대신 제조상궁은 10년간 장고(醬庫)를 지키던 정 상궁을 허수아비로 최고상궁 자리에 올리려고 한다.

▶ 장(醬)을 보관하던 공간

S# 41 제조상궁 집무실

제조상궁이 앉아 있는데 정 상궁 들어온다.

▶ 조선 시대에, 내전(內殿)의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여 맡아보던 상궁. 상궁 가운데 지체가 가장 높다.

정 상궁 부르셨습니까.

제조상궁 앉게. / 정 상궁 (앉는다.)

제조상궁 자네가 수라간 최고상궁을 맡아야겠네.

정 상궁 / 제조상궁

정 상궁 소인..... 그간 장고만 지키던 사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제조상궁 대전 수라간 일은 최 상궁이 많이 도와줄 거고 소주방 전체의 일은 나와 상의해서 하면 되는 게사. ▶ 임금이 거쳐하는 궁전 조선 시대에 둔, 궁중의 육체소 가운데 하나. 대궐 안의 음식을 만들던 곳이다.

정 상궁 / 제조상궁

정 상궁 진정..... 저밖에는 없습니까?

제조상궁 자네밖엔 없어. 자네가 아버님의 성품을 닮아 유유자적..... 묻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품인 것은 아나 이번엔 어쩔 수가 없네!

정 상궁 (호탕하게) 그럼 맡아야지요. 대신..... 최 상궁과 제조상궁마마님만 믿겠습니다.

제조상궁 그래! 그러라는데두! / 정 상궁

S# 56 최 상궁 처소

최 상궁과 금영 꽃꽂이 앉아 아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Insert, 회상)

Effect. 음향 효과 ▶ 장금 때문에 금영이 망신을 당하게 된 일

정 상궁 (E.)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 장금의 답변이 기록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물음

장금 (E.) 예? 저는, (기죽어 가며)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음

(중얼중얼) 어찌 흥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흥시 맛이 나서…… 흥시라 생각한
 ▶ 본능적으로 알아낸 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것인데…….

정 상궁 (E.)…… (크게 웃으며) 호오! 타고난 미각이 따로 있었구나…… 그렇지…… 흥시가
 ▶ 절대 미각

들어 있어…… 흥시 맛이 난 걸 생각으로 알아내라 한 내가 어리석다…… (하고 웃으면)

▶ 미각으로 알아낸 맛의 근거를 구구절절 설명해 보라고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금영.

▶ 자존심이 상해 울고 있는 금영

그 옆엔 최 상궁이 앉아 있다. 그 위로

정 상궁 (E.) 더 나아가서는 이 최고상궁의 자리도 실력이 제일 좋은 사람에게 물릴 것이니, 그
 리 알고들 더욱 정진하거라.

▶ 정 상궁은 최고 상궁이 오로지 개인의 실력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르르 떠는 최 상궁.

최 상궁 (훈жат말로) 지까지 게 감히, 5대를 내려온 우리 집안을 능멸해! 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지! (하고는 금영을 본다.) ▶ 최고 상궁을 해 온 집안에서 계속 최고 상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영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최 상궁 눈물을 그치거라! 최고상궁마마께서 물러나신 이 마당에 우리 집안은 이제 나와 내가
 지켜야 한다. 알았느냐? ▶ 여전 최고 상궁 마마가 최상궁의 집안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금영 …….

최 상궁 실력으로든, 힘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우리가 놀려야 해. 알았느냐? / 금영 예.

▶ 최 상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전의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 장차 장금과 최 상궁이 대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S# 58

산 일각, 낮. / 나물을 뜯는 장금의 이 모습 저 모습.

수라간 일각, 낮. / 뜯은 나물을 생으로 먹고, 삶아 먹어 보고, 말려 먹어 보고, 튀겨 먹어 보
 ▶ 다양한 방법으로 나물을 요리하여 맛을 보는 장금

고, 볶아 먹어 보는 모습. 또 그것을 적는 모습. 그 위로,

▶ 꼼꼼한 성격과 음식에 대한 열의를 알 수 있음

한 상궁 (E.) 미나리의 독특한 향은 식욕을 증진시키며 건위(健胃)를 한다. 또한 해독을 해 주어
 건위 : 위(胃)를 튼튼하게 함

복요리를 할 때 미나리를 넣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건 파드득 나물이다. 이는 독특한 향이 있
 어 소금을 줄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소갈(消渴) 환자에게 아주 좋다. 이것이
 애기똥풀이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간혹 산나물에 끼어 들어올 때가 있으니
 잘 보아 두어라. 다음에는 짠맛을 내는 것을 모두 찾아 오너라.

<중략>

▶ 나물의 특성과 건강을 연결하여 설명함 - 후에 장금이 의녀가 되어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과 연결됨

수라간 다른 곳, 밤.

금영이 큰 가마솥에 뼈와 고기를 넣고 끓이고 있다. 금영이 무슨 약재를 넣고 있다.

최 상궁 (E.) 이는 우리 집안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이 약재를 넣으면 잡맛이 없어
 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을 넣으면 고소한 맛이 한층 더하니라.

▶ 우유, 소의 젖

S# 59 대궐 일각(낮)

한낮에 장금이 궁 일각을 바쁘게 달려가는데, 그 모습 위로

한 상궁 (E.) 이번엔 음식에 넣는 물에 대해서 알아 오너라. (화내며) 어찌 음식에 넣는 물이 맹
 ▶ 정당한 이유를 리우주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

한 상궁 (E.) 쌀뜨물도 있고 찹쌀가루 물도 있고 뜨거운 물, 찬물, 광천수! 수도 없이 많으니라!
 (사이) 이번엔 불에 대해서 알아 오너라.

풀 솥으로 어디론가 누군가가 뛰고 있다. 가까이 보니 성인이 된 장금으로 얼굴이며 옷에는

▶ Full Shot. 배경과 등장인물 모두가 보일 정도로 멀리 잡는 화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솟 검댕이 잔뜩 묻어 있다. 그렇게 뛰다가 상궁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암전히 걷는 척을 하고, 상궁들을 지나치면 다시 신이 나서 뛰는 장금.

滿開
만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滿開] 극&수필-차마설



차마설(借馬說)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余(여)는 家貧無馬(가빈무마)하여 或借以乘之(혹차이승지)한데 得驚且 者(득노차유자)면 事雖急(사수급)이라도 不敢加策(불감가책)하고 兢兢然(공공연)하여 若將蹶(약장궤질)하다가 值溝塹(치구참)이면 則下(즉하)라. 故鮮有悔(고선유회)하나 得蹄高耳銳駿且 者(득제고이에준차사자)면 陽陽然(양양연)하여 肆志着鞭(자지작편)하여 縱(종피)면 平時稔谷(평시능곡)하니 甚可快也(심가쾌야)라. 然(연)이나 或未免危墮之患(혹미면위추지환)이라. 噫(희)라, 人情之移易(인정지이역)이 一至此邪(일지차사)야. 借物以備一朝之用(차물이비일조지용)이 尙猶如此(상유여차)어든 況其真有者乎(황기진유차호)야. 然(연)이나 人之所有(인지소유)가 孰爲不借者(숙위불차자)리오, 君(군)은 借力於民(차력여민이준부)하고 臣(신)은 借勢於君(차세어군)하여 而寵貴(이총귀)라. 子之於父(자지어부)하고 婦之於夫(부지어부)하며 婢僕之於主(비복지어주)라 其所借亦深且多(기소차역심차다)하여 率以爲己有(솔이위기유)하고 而終莫之省(이종막지성)하니 豈非惑也(기비혹야)리오. 苟或須臾之頃(구혹수유지경)이라도 還其所借(환기소차)면 則萬邦之君(만방지군)이라도 爲獨夫(위독부)요 百乘之家(백승지가)라도 爲孤臣(위고신)이리니 況微者邪(황미자사)야. 孟子曰(맹자왈), 久假而不歸(구가이불귀)하면 惡知其非有也(오지기비유야)인저. 余(여)가 於此有感焉(어차유감연)이라 作借馬說(작차마설)하여 以廣其意云(이광기의운)이라.

가정집 (稼亭集)

●요점 정리

- 작자 : 이곡(李穀) 김규성(金奎聲) 옮김
- 연대: 고려시대
- 형식: 수필, 설
- 성격: 교훈적, 철학적, 체험적, 우의적
- 문체: 역어체, 만연체
- 제재: 차마 즉 말을 빌린 경험
- 주제: 모든 소유는 빌린 것에 불과하니 사람은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소유에 근거한 인간 심리의 허망함,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구성 : 2 단구성(사실(경험)의 제시와 의견의 개진) = 주관적인 사실(경험) - 보편적인 의견

1 문단 (1-12행)	말을 타고 가면서 지은이가 느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주 화제로 삼고 있다. (소유물에 대한 견해를 얻음)	
	기(起) (1-9행)	글 전체의 도입부
사실	승(承) (10-12행)	기(起)에서 얻은 내용의 전개 - 자신의 소유물로 바꿔 해석.
2 문단 (13-끝)	1 문단에서 얻은 견해에 근거하여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권력을 빌렸다는 생각과 겸허한 자세가 없는 당대인들을 비판.	
	전(轉) (13-23행)	소유와 관계된 인간 세상의 본질
의견	결(結) (24행)	마무리 및 강조 - 겸허한 자세

- 특징 : 사실 - 의견의 2단 구성 방식을 취하고,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논거로 사용하고, 유추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함
- 의의 : 말을 타고 느낀 바를 토대로 삼아, 권력과 소유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서술하고 있는 교훈적 수필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이나 좋고 나쁨에 좌우되어, 높은 벼슬에 있으면 그것을 마구 휘두르게 되고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의기소침하게 되나, 사실은 진정한 소유란 없으므로 너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출전: 가정집

◆ 내용 연구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말을 빌려 타게 된 계기] 혹은 빌려서 타는데, 여윌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말이 기운이 없어 못마땅함],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말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적으므로]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 외물에 따른 심리 변화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유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변화가 심함] - 자기 소유일 때의 심리 변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주제문)].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은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 : 백 대의 수레, 높은 지위를 비유)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소유의 허망함을 깨달을 것이다.]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다른 사람에게도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싶다]. - 말을 빌려 탄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소유에 대한 깨달음 제시함 - 잘못된 소유 관념에 대한 반성

◆ 이해와 감상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로 본다면 이 글은 도입부에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어 친숙함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만, '서두-중간-결말'의 3단 구성과 비교해 볼 때, 이 글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다르다. 사실로부터 의견(깨우침)에 이르는 과정이 3단 논법과 같은 논리적 전개 과정을 취하지 않고 직관적 통찰에 의해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 3단 구성의 논리적인 구성에 비해 논리적인 구성은 뒤떨어진다. 이것은 논리적 설득보다는 사물에 대한 깨우침을 전하는 데 적절하며, 체계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내용보다는 제한된 내용이라는 하나 본질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데 적절하다.

이 글의 내용은 말을 빌려 탄 경험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글쓴이가 체험과 상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은 바는 '소유'의 문제이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누구에게서인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글쓰이는 이러한 우매함을 경계하고 있는 글로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쓴 글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읽고 우리는 인생에 있어 삶의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 볼 수 있다. 사실 '소유욕'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글이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자크 라캉은 욕망이론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인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쓰여진 시대와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인간의 '소유욕'에 대한 다각적인 견해를 접할 때 우리는 또한 삶의 조그마한 빛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심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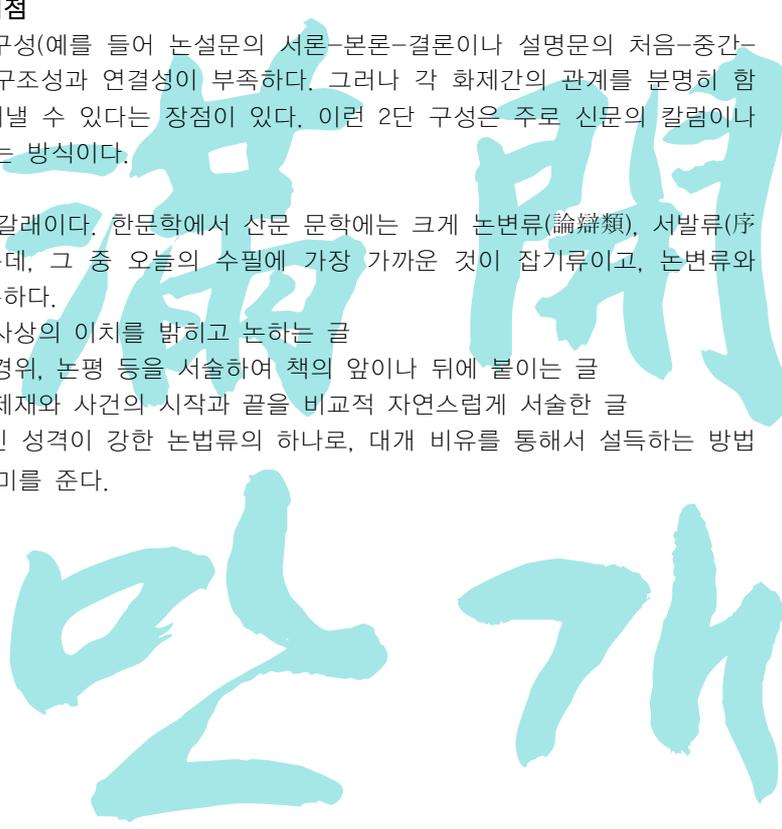
◆ 2단 구성과 3단 구성의 차이점

2단계 구성은 비록 3단계 구성(예를 들어 논설문의 서론-본론-결론이나 설명문의 처음-중간-끝 등)에 비해서 그 논리적 구조성과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각 화제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제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2단 구성은 주로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 등의 글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 설(說)의 양식상 특징

설(說)은 한문 양식상의 한 갈래이다. 한문학에서 산문 문학에는 크게 논변류(論辯類), 서발류(序跋類), 잡기류(雜記類)가 있는데, 그 중 오늘의 수필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잡기류이고, 논변류와 서발류도 수필적 성격이 다분하다.

- ① 논변류(論辯類) : 사물과 사상의 이치를 밝히고 논하는 글
 - ② 서발류(序跋類) : 저술의 경위, 논평 등을 서술하여 책의 앞이나 뒤에 붙이는 글
 - ③ 잡기류(雜記類) : 광범한 제재와 사건의 시작과 끝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서술한 글
- 이 중에서 설(說)은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논법류의 하나로, 대개 비유를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을 쓰므로 설화(說話)적인 흥미를 준다.





병어리 물건 이야기(啞器說)

안정복

정사년(1737) 가을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시간적,공간적 배경 구체적으로 제시-사실성 부여) 시장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평평하며 속은 텅 비었는데, 이마에는 일자(一字) 모양으로 가늘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병어리의 외형 묘사) ▶ 과거보러 갔다가 시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발견함

내가 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게 무엇인가?"(하계체)
 "병어리입니다."(합쇼체)
 내가 그 말을 알 수가 없어서 또 물었다.
 "이게 무엇인가?"
 "병어리입니다."
 나는 그가 농하는(농담하는, 놀리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다시 물었다.
 "내가 이 물건이 무엇이나고 물었는데, 병어리라고만 대답을 하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소인은 감히 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이름이 병어리이기 때문에 병어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물건의 이름이 병어리인 까닭)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물건은 입이(이마에 있는 일자 모양의 가는 구멍을 가리킴) 있으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병어리'라고 붙였습니다.(사람들이 이 물건을 병어리라고 부르는 이유) 민가(民家-일반 백성이 사는 집)의 어린 계집아이들이 이것을 사다가 동전이 생기면 그 속에 넣는데, 가득 차면 이것을 부수어 동전을 꺼냅니다. 아마 동전을 헤프게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민가에서의 병어리의 용도, 병어리라는 물건이 요즘의 저금통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무릇 입을 가지고도 말을 못하는 것이 어찌 이 물건 뿐이겠는가? 병, 동이, 단지, 항아리도 입이 있지만 이런 그릇들이 말을 못한다 하여 '병어리'라고 부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글쓴이의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

▶ '병어리'에 대한 호기심과 명칭의 유래에 대한 의문

그 때 곁에 있던 여관 주인(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인물)이 이 말을 듣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모르십니까? 이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조물주가(우주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물주는, 사람에게 말소리와 웃는 얼굴은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동요를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꾸며 각종 그릇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해서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조물주의 의도='병어리'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물건이 나온 지 10년이(병어리의 출현 시기) 못되었는데, 그것이 가진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병어리 같음을 비웃는 것이며,(병어리의 의미①) 하나는 사람이 병어리 같아야 함을 경계(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타일러 조심하게 함)한 것입니다.(병어리의 의미②) 무엇을 비웃는다는 것인가 하면, 말을 해야 마땅한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는 곧 병어리와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경계한다는 것인가 하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혀 아래 도끼 들었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마라.) 이 병어리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글의 주제-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가려서 행하는 용기와 지혜)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병어리'의 두 가지 의미

대개 신하의 마음가짐(신하의 자세-도리, 본분)은, 우리 임금에 이미 성군이요 여기지 않고 혹시라도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여 힘을 다해 곧은 말하는(직언(直言)을 하는 것) 것을 꺼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곧장 간쟁(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간절히 말하는 것)하고 다스림에 잘못이 있으면 논하기를 주저하지(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금은 성군이 될 수가 있고 신하는 그 직분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상(자기 나라의 살아 있는 임금을 높이어 일컫던 말, 여기서는 영조 임금을 가리킴)께서는 요(堯)임금처럼 어질고 순(舜)임금(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의 전형)처럼 공순하며(공순하고 온순하며) 문왕(文王)처럼 공경스럽고 무왕(武王)처럼 의로워서 이렇다 할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하의 의리로 볼 때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질더라도 그 어진 것을 무궁하도록(오래 유지되도록) 하고 공순하더라도 그 공순함을 무궁하도록 하며, 그 공경과 의로움도 모두 그렇게(무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을 위하는 지성스럽고 가룩한 뜻입니다.>(지속적인 직언의 필요성을 완곡히 표현-주마가편(走馬加鞭))

▶ 임금에 대한 신하의 올바른 도리

그런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은 이미 성군이 되었고 우리 나라는 이미 잘 다스려졌다'고 하여 한 달이 되어도 한 사람도 임금의 덕에 대해 논하는 자가 없고, 한 해가 되어도 한 사람도 나라의 정치에 대해 논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당대 현실 정치의 문제점) 어찌 병어리와 다르겠습니까? 이것을 이른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 조정 신하들의 잘못된 태도1-병어리의 의미

말이란 우호(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대조법)를 맺게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올바른 말하기의 중요성) 자제들과 말할 때에는 효를 이야기하고, 신하들과 말할 때에는 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국정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거나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조정의 잘잘못을 말하며, 심한 자는 공론(고적 이익-나라 전체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는 당파(사적 이익-당파의 이익)를 위해 죽거나 눈을 부릅뜨고 논란을 하다가 끝내는 임금을 배반하는 죄에 빠지면서, 자신이 세상의 화 때문에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당파에 휩쓸려 싸움을 일삼는 조정 신하들에 대한 비판) 이것을(말을 하지 않아야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것) 이른바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 조정 신하들의 잘못된 태도2-병어리의 의미

이제 만일 그 '비웃음'을 알아서 반성한다면(말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짐) 장차 조정의 명신(뛰어난 신하)이 될 것이며, 그 '경계함을 알아서 본받는다면(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지혜를 가짐) 반드시 처세에 능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 신하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

나는 그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겨 그 물건의 이름을 물었으나, 주인은 입을 가리키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의도를(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임) 알아차리고 물러 나와 이것을 기록하였다. (이심전심(以心傳心), 심심상인(心心相印), 불립문자(不立文字), 염화미소(拈華微笑), 교외별전(敎外別傳))

▶ 이 글을 쓴 동기-여관 주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기록함

[핵심정리]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종류 : 야담, 설, 수필
 성격 : 교훈적, 풍자적, 시사적, 서사적
 소재 : 병어리통
 주제 : 병어리통을 통해 깨달은 처세의 교훈(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삶의 지혜)

- 특징 : ①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일상적인 경험에서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③ 대상이 되는 사물의 명칭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④ 병어리통이라는 평범한 사물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⑤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해제 : 이 글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바른 말을 하며 살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쓰기가 병어리통에서 발견한 지혜는 바로 말하기에 대한 교훈이다. 즉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은 꼭 하자'는 것이다. 작은 사물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설(說)

- ①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이치에 따라 해석하고 시비를 밝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한문 문체의 일종으로, 수필적 성격이 강하다.
- ②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논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 ③ '사실의 제시(개인적 체험)+의견의 진술(보편적인 삶의 교훈)'이라는 2단 구성법을 주로 취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 ④ 이규보의 경설, 슬견설 등이 유명하다.

핵심 정리

- * 갈래: 민요, 서정 민요, 부요(婦謠)
- * 형식: 4음보 가사체, 대화체, aaba형의 민요적 표현
- * 성격: 여성적, 서민적
- * 구성: 기, 서, 결
- * 주제: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
- * 성격: 부요(婦謠: 당대 여성들의 보편적 삶의 체험, 혹은 정서의 표현)
- * 율격: 4음보 율격. 안정되고 균형 잡힌 호흡
- * 표현: 대화 형식, 반복, 대구, 대조, 열거 등의 다양한 표현법, 해학적이며 풍자적임
- * 출전: 충남 예산 지방 노래 채록
- * 의의: ▶ 전형적인 부요의 하나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이 절실하게 표현됨.
 ▶ 다양한 언어 표현이 주제와 잘 어울린다.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意幽堂關北遊覽日記)

● **요점 정리**

- 작가 : 의유당 김씨
- 연대 : 조선 영조
- 갈래 : 고전 수필, 기행문
- 성격 : 묘사적, 사실적, 주관적
- 문체 : 묘사, 서사, 대화를 이용한 구체적, 묘사적, 사실적 문체, 산문체
- 구성 :

기 : 귀경대에 올라 추위를 참으며 일출을 기다림

승 : 동틀 무렵의 장관과 일출 여부에 대한 논쟁

전 : 일출의 장관(회오리밤 - 쟁반 - 수레바퀴)

결 : 일출을 본 후의 주관적인 감상

- 주제 : 귀경대에서 본 일출의 장관
- 표현 : 여성적인 섬세한 필치가 돋보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한글의 산문의 모범이 되고, 양반부인 계층의 품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의의 : 여성의 섬세한 관찰과 필치가 돋보이는 기행 수필로, 우리 나라 고전 수필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
- 출전 : 의유당 관북 유람 일기(意幽堂關北遊覽日記)

● **내용 연구**

(전략)

행여 일출(日出)을 못 볼까 노심초사(勞心焦思)[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하여, 새도록 자지 못하고, 가끔 영재[하인]를 불러 사공(沙工)다려[사공에게] 물으라 하니,

"내일은 일출을 꽤히 보시리라[추चे는 작가] 한다[사공]."

하되, 마음에 미쁘지[미덥지] 아니하여 초조(焦燥)하더니[일출을 보지 못할까 마음을 놓지 못하는 작가의 마음이 사공에게 상황을 묻는 행동으로 나타남], 먼 데 님이 울며 연(連)하여 자초니 [계속하여 날이 새기를 재촉하니], 기생(妓生)과 비복(婢僕)을 혼동하여[꾸짖어] 어서 일어나라 하니, 밖에 급창(及唱)이 와,

"감청 감관(官廳監官)[옛날 관청에서 음식을 맡아 보던 사람]이 다 아직 너모[너무] 일찍 하니 못 떠나시리라 한다."

하되 곧이 아니 듣고, 발발이[매우 강하게] 재촉하여, 떡국을 쑤었으되 아니 먹고, 바빠 귀경대(龜景臺)에 오르니 달빛이 사면에 조요(照耀)하니[환하게 비치어 빛나니], 바다가 어제 밤도곤[밤보다] 희기 더하고, 광풍(狂風)이 대작(大作)[심한 바람이 크게 일어나]하여 사람의 뼈를 사뭇고 [사무치고], 물결치는 소리 산악(山嶽)이 움직이며, 별빛이 말곳말곳하여[말뚱말뚱하여] 동편에 차례로 있어 새기는 멀었고, 자는 아해를 급히 깨와 왔기 치워 날치며[날뚱뚱] 기생(妓生)과 비복(婢僕)이 다 이를 두드려 떠니[밤바다의 고요한 모습과 추위를 참으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군[남편]이 소래하여 혼동[꾸짖어] 왈,

"상(常) 없이[분별없이] 일찌기 와 아해와 실내(室內)[남의 아내를 일컫는 말, 여기서는 자기 아내(작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한 말] 다 큰 병이 나게 하였다."

하고 소래하여 걱정하니, 내 마음이 불안하여 한 소래를 못 하고, 감히 치워하는 눈치를 못 하고 죽은 듯이 앉았으되, 날이 썰 가망(可望)이 없으니 연하여 영재를 불러,

"동이 트느냐?"

물으니, 아직 멀기로 연하여 대답하고[아직 멀기로 연하여 대답하고 : 날이 새기는 아직 멀었다는 말로써 계속 대답하고, 간접 인용의 표현], 물 치는 소리 천지(天地) 진동(震動)하여 한풍(寒風)[겨울에 부는 차가운 바람. '찬바람'으로 순화] 끼치기[밀려 들기] 더욱 심하고, 좌우 시인(左右侍人)[주위에 모시고 시중 드는 사람]이 고개를 기울여 입을 가슴에 박고 치워하더니[추워하더니], 마이[매우] 이윽한 후, 동편의 성수(星宿) [별이] 드물며, 월색(月色)이 차차 열워지며[엷어지며], 홍색(紅色)이 분명하니[동편의 성수 | 드물며 ~ 홍색이 분명하니 : 동쪽의 별자리가 보이지 않고 달빛도 엷어진 것으로, 붉게 물든 바다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광경을 묘사], 소래하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시원함을 부르고 가마 밖에 나서니, 좌우 비복(左右婢僕)과 기생(妓生)들이 응위(擁衛)[좌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함.]하여 보기를 죄더니[마음을 졸이더니],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뻗었으니, 진홍 대단(眞紅大緞)[질붉은 비단] 여러 필(疋)[일정한 길이로 피륙을 하나치로 셀 때 쓰는 단위]을 물 우희 펼친 듯, 만경창파(萬頃蒼波 |)[만경창파로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참고로 '만경창파에 배 밀 뚫기'는 심통 사나운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시(一時)에 붉어 하늘에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래 더욱 장(壯)하며, 홍전(紅氈)[붉은 색깔의 모직물] 같은 물빛이 황홀(恍惚)하여 수색(水色)이 조요(照耀)하니, 차마 끄떡하더라.[놀랍고 대단하더라][홍전 같은 물빛이 ~ 차마 끄떡하더라 : 붉게 물든 바다의 황홀함이 놀랍고 대단하더라, 동이 트는 장관을 묘사함]

붉은빛이 더욱 붉으니, 마조[마주] 선 사람의 낮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이져 치치니, 밤에 물 치는 굽이는 옥같이 희더니, 즉금(卽今) 물굽이는 붉기 홍옥(紅玉) 같아야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壯觀)[굉장하고 볼만한 경치]을 이를 것이 없더라.[밤에 물치는 굽이는 ~ 이를 것이 없더라 : 밤의 물결은 옥 같이 희더니 동트는 지금은 옥같은 붉은 빛이 하늘까지 닿은 것을 직유와 대조를 통해 동트기 전의 대단한 경치를 표현]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환하게 비치어 빛나되] 해 아니 나니,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 소래하여 애달와[애가 탈 정도로 마음이 아파] 가로되,

"이제는 해 다 돌아 저 속에 들었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푸르려 구름이 되리라." [붉은 기운이 모두 푸르게 되어 구름만 남아, 해는 이미 솟아 구름 속에 들어 있으니 해돋이 보기는 틀렸음을 묘사한 부분임]

혼공하니[매우 떠들썩하게 지껓이니][저 붉은 기운이 다 푸르려 ~ 혼공하니 : 붉은 기운이 모두 푸르게 되어 구름만 남아 해는 이미 솟아 구름 속에 들어 있으니 해돋이 보기는 틀렸다고 떠들썩하게 지껓이니], 낙막(落寞)하여[마음이 쓸쓸하여, 작가의 심정이 들어 있음] 그저 돌아 가려 하니, 사군[사또인 자기 남편]과 숙씨(叔氏)[시아주버니, 남편의 형제]서,

"그렇지 아냐, 이제 보리라."

하시되[사군과 ~ 하시되 : 사군과 숙씨는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인과 사공도 이에 동조함], 이랑이, 차섬이[기생] 냉소(冷笑)하여 이르되,

"소인(小人) 등이 이번뿐 아냐, 자로[자주] 보았사오니, 어찌 모르리이까. 마누하님[마나님. 귀부인의 존칭], 큰 병환(病患) 나실 것이니, 어서 가압사이다.[가십시다]"

하거늘, 가마 속에 들어앉으니[이랑이 차섬이 냉소하여 ~ 들어 앉으니 : 이랑이와 차섬이는 자기들은 이번뿐 아니고 자주 보아 아는데 일출을 볼 수 없다며 돌아가자 하여 내가 가마에 들어 앉으니. 여기서는 하인들의 심리적 고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은이의 체념도 보이고, 작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계층적 언어를 사용], 봉의 어미[하인] 약써 가로되,

"하인(下人)들이 다 하되[말하는데], 이제 해 일으려[솟으려, 돋으려, 뜨려고 하는데] 하는데 어찌 가시리요. 기생 아해들은 철 모르고 즈레[지레 짐작으로] 이렇[이렇게] 구는다[구는가]."

이랑이 박장(拍掌)[손뼉을 칩] 알,

"그것들은 바히[전혀, 아주] 모르고 한 말이니 곧이 듣지 말라."

하거늘, 돌아 사공(沙工)다려[에게] 물으라 하니,[지은이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요소로 중간에 하인을 끼어 의사 소통을 함]

"사공서 오늘 일출이 유명(有名)하리란다." [일출을 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가 다시 가마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되는 말]

하거늘, 내 도로 나서니[지은이의 기대], 차섬이, 보배는 내 가마에 드는 상[드는 모양] 보고 묻저 가고, 계집 종 셋이 묻저 갔더라.

홍색(紅色)이 거룩하여[아름답고 훌륭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래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라." [기다리던 일출이 드디어 시작하는 것을 알고 좋아서 외치는 말. 특징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불특정인에게 하는 말임]

외거늘[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붉게 물든 바다를 빗땀]을 헤아고[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奇異)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붉은 기운]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어둠과 밝음의 색채 대비를 통해 일출 직전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는 장면]. 차차 나오더니, 그 우호로[위로] 적은 화오리밤[등근 외톨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朗)하기[환하게 트이여 밝기는, 투명하기는]는 호박[예전에 송진들이 땅속에 묻혀 이루어진 광물]도곤[보다] 더 곱더라.

滿開(만개) : 붉어 황박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그 붉은 우흐로[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白紙) 반 장(半張) 넓이 만치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赤色)이 온 바다에 끼치며[덮치는 듯이 확 밀려 오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새며[흔적이 차차 없어지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로 하며, 항[항아리]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左右)로 뛰놀며, 황홀(恍惚)히 번득여 양목(兩目)이 어ضل하며[어질어질 하며], 붉은 기운이 명량(明朗)하여 첫 홍색을 헤아고, 천중(天中)[하늘 가운데]에 쟁반 같은 것이 수렛바퀴 같아야 물속으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 독 같은 기운이 스러지고, 처음 붉어 걸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혀처로[소의 혀처럼, '처로'는 비교격 조사로 직유법] 드리워[아래로 처지게 하여] 물 속에 풍덩 빠지는 듯싶으더라.[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 풍덩 빠지는 듯 싶으더라 : 오래 기다린 후 해가 수평선에 떠오르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하여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해가 떠오르기 전의 붉은 빛의 배경과 솟아오른 해의 모습을 직유법을 써서 묘사하고 있다. 해의 모습은 '회오리밤 →쟁반→수렛바퀴→해'로 점층적이고 직유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일출 배경은 붉은 기운을 '손바닥넓이→백지 반 장 넓이→ 소의 혀처럼 보임'으로 묘사하여 여성다운 섬세함이 돋보인다.] 일색(日色)이 조요(照耀)하며 물결에 붉은 기운이 차차 가새며[엷어지며, 가시어 없어지며], 일광(日光)이 청량(淸朗)하니, 만고천하(萬古天下)에 그런 장관은 대두(對頭)[맞대어 견줄]할 데 없을 듯하더라[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일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더라'는 문어체의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짐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지은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기에 주관적 표현이라고 볼]. 짐작에 처음 백지 반 장만치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 장차 나려고 우리어[내비치어] 그리 붉고, 그 회오리밤 같은 것은 진짓[진짜의, 참된] 일색을 빠져[빠어, 뺏아] 내니 우리온[내비친] 기운이 차차 가새며, 독 같고 항 같은 것은 일색이 모달이[몹시, 매우] 고온 고로, 보는 사람의 안력(眼力)이 황홀(恍惚)하여 도모지 헛기운[환상]인 듯싶은지라[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해돋이 장면의 묘사

배경	손 바닥 넓이의 붉은 기운	백지 반 장 넓이의 붉은 기운	소혀처로 모임
주체(해)	회오리밤	쟁반	수렛바퀴
환상과 황홀	항, 독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의유당 김씨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해 가는 남편을 따라가 그 곳의 명승 고적을 살피고 느낀 바를 적은 기행 수필로, 귀경대에서 일출을 구경하기까지의 여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조선조 여인의 글로 매우 개성적이고도 우수한 작품으로 소재들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관찰하는 격조 높은 안목과 탁월한 표현력을 구비하고 있어서 작가의 문학적 역량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동명일기>에서는 동명의 해돋이와 달맞이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남편을 졸라서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나 왕래하는 사이에 보고 겪은 일들과 해돋이의 장관을 그린 것이다. 우리말의 멋스러운 사용으로 표현의 운치를 드높인 것이나, 일출광경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색채가 매 순간마다 치밀하고 예리한 관찰에 의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점은 여류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 할 만하다. 특히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일출의 장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일출을 기다리는 과정이, 후반부에서는 해돋이 광경을 여성 특유의 세밀한 관찰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치밀한 필치가 드러나 있고, 참신하고 순연한 우리말의 구사로 개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滿開] 극&수필-치조론

지조론(志操論)

—변절자(變節者)를 위하여—



◆요점 정리

- 작자 : 조지훈(趙芝薰)
- 형식 : 중수필. 교훈적 수필
- 성격 : 논리적, 사회적, 공적(公的), 경세적(警世的), 교훈적, 설득적
- 문체 : 한문투의 강건체, 의고체
- 제재 : 지조(志操 :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깨끗한 의지, 또는 그런 기개.)
- 구성 :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
- 주제 : 지조 있는 삶의 자세 강조.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지조 강조, 변절(變節)에 대한 경계와 지조의 중요성
- 표현 : 다양한 일화를 제시하여 지조와 변절의 의미를 이해시킴. 정치인의 옳지 못한 행태를 준열하게 비판함. 변절을 고정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한 범절이나 후에 자신의 행적을 반성한 경우는 그 변절이 용서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을 취함, 비교와 대조 등의 표현 기교와 적절한 인용 및 예시 사용했고, 단정적인 어투와 힘이 넘치는 문체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함
- 출전 : <새벽>(1960).

◆내용 연구

지조[志操 : 곧은 뜻과 절조(節操)]란 것은 순일(純一 : 깨끗하고 한결같은, 순진하고 오로지 하나임)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립(確執 :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지켜 나감)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지조란 것은 ~ 투쟁이기까지 하다 : 지조의 의미를 열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문장임]. 지조가 교양인의 위익(威儀 : 위엄이 있는 엄숙한 차림새)을 위하여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지조가 교양인의 ~ 강도를 살피려 한다 : 지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으로, 지조는 그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名利 : 명예와 이익)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일조(一朝 : 하루 아침)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의 무절제(다스려 제한이 없음)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였는가.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지조 있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곤고(困苦 : 곤란하고 고통스러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심하고 그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者)이기 때문에 지조 없는 지도자, 배신하는 변절자들을 개탄(慨歎 : 몹시 격정스럽게 탄식함)하고 연민(憐憫/憐愍) :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하며 그와 같은 변절의 위기의 직전에 있는 인사들에게 경성(警醒 : 타일러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이와 같이 생각하는 -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이 글을 쓰는 이유, 즉 정치가들이 지조를 지키며 올바른 정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대비를 통해 지조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식견(識見 : 학식과 견문, 사물을 분별하여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은 기술자와 장사꾼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지사(志士)와 정치가가 완전히 같은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것은 아니다. 독립 운동을 할 때의 혁명가와 정치인은 모두 다 지사였고 또 지사라야 했지만, 정당 운동의 단계의 들어간 오늘의 정치가들에게 선비의 삼엄(무서우리만큼 질서가 바르고 엄숙함)한 지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 줄은 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정당 운동을 통한 정치도 국리 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서 정상(政商 : 정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인 이상 백성을 버리고 백성이 지지하는 공동 전선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구복(口腹 : 입과 배, 여기서는 탐욕(貪慾), 욕심의 뜻)과 명리(名利)를 위한 부동(浮動 : 여기저기 떠서 움직임)은 무지조(無志操)로 규탄되어 마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이 난국을 수습할 지도자의 자격으로 대망하는 정치가는 권모 술수(權謀術數 : 권모와 술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인정이나 도덕도 없이 권세와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에 능한 직업 정치인(職業政治人)보다 지사적(志士的) 품격(品格 : 사람된 자품)의 정치 지도자를 더 대망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총정(衷情 :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된 정)인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더구나 오늘 우리가 ~ 사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이 글이 쓰여진 시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난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리 사욕을 탐하는 정치가들로 인해 혼란한 상황임을, 그러기에 더욱 지조가 열망되는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 . 열결 공정(廉潔公正 : 청렴하고 결백하며 공평하고正大함) 청백 강의(清白剛毅 : 청렴하고 결백하며 강직하고 씩씩함)한 지사 정치(志士政治)만이 이 국운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 모든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지조의 깊이를 요청하고 변절의 악풍을 타매(唾罵 : 침을 뱉고 욕을 마구 퍼부음)하는 것은 백성의 눈물겨운 호소이기도 하다.

지조와 정조는 다 같이 절개에 속한다. 지조는 정신적인 것이고, 정조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지조의 변절도 육체 생활의 이욕(利慾 : 私利를 탐하는 마음)에 매수된 것이요, (알고 보면 지조의 ~ 매수된 것이요 : 지조를 버리는 바탕에는 육체적으로 편안하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음이요)정조의 부정도 정신의 쾌락에 대한 방종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정치인의 무절제를 장사꾼적인 이욕의 계교와 음부적(淫婦的 : 음탕한 여인과 같은) 환락의 탐혹(耽惑 : 마음이 빠져 미혹됨)이 합쳐서 놀아난 것이라면 과연 극언이 될 것인가.(오늘의 정치인의 ~ 과연 극언이 될 것인가 : 당시 정치인들의 형태에 대한 글쓴이의 지극한 불신이 드러나고 있다).

하기는, 지조와 정조를 논한다는 것부터가 오늘에 와선 이미 시대 착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긴 그렇다. 왜 그러나 하면, 지조와 정조를 지킨다는 것은 부자연한 일이요, 시세를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부나 홀아비(홀아비)가 개가(改嫁 : 시집갔던 여자가 다시 딴 남자에게 시집감)하고 재취하는 것은 생리적으로나 가정 생활로나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가와 재취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승인하면서도 어떤 과부나 환부(鰥夫)가 사랑하는 옛 짝을 위하여 개가나 속현(續絃 : 아내를 여윈 뒤 아내를 다시 맞음)의 길을 버리고 일생을 마치는 그 절제에 대하여 찬탄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대서만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인간의 본능고(本能苦 : 본능적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를 이성과 의지로써 초극(超克 : 난관을 극복함)한 그 정신이 높이를 보기 때문이다. 정조의 고귀성이 여기에 있다. 지조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양심과 주체는 일찌감치 집어던지고 시세(時勢)에 따라 아무 권력에나 바꾸어 붙어서 구복(口腹)의 걱정이나 덜고 명리(名利)의 세도에 참여하여 꺼덕대는 것이 자연한 일이지, 못나게 쪼를 부린다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것처럼 부자연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 얼핏 들어 우선 말은 되는 것 같다.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다가 가을 바람만 불면 단팥죽 장사로 간판을 남 먼저 바꾸는 것을 누가 욕하겠는가. 장사꾼, 기술자, 사무원의 생활 방도는 이 길이 오히려 정도(正道)이기도 하다. 오늘의 변절자도 자기를 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처한다면 별 문제다. 그러나 더러운 변절의 정당화를 위한 엄청난 공언을 늘어놓은 것은 분반(噴飯 :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음)할 일이다.(그러나 더러운 ~ 할 일이다 : 변절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자신의 변절을 정당화시키고자 여러 말을 늘어 놓는 행위는 더욱 부끄러운 행위이고 가소로운 일이다.)백성들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먼 줄 알아서는 안 된다. 백주 대로에 돌아앉아 불기 짝을 끼고 대변을 보는 격이라면 점잖지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인가.(백주 대로에 ~ 표현이라 할 것인가: 변절자들의 자기 변명 행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뜻으로 변절자가 아무리 자기의 변절을 정당화하여도 백성들은 그가 저지른 일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변명은 자기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일 뿐이다.)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困辱 : 심한 모욕)을 무릅 쓸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각오가 없으면 선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 안 된다. 정신의 자존(自尊 : 자기의 존재, 자기의 힘으로 생존함) 자시(自恃 : 무슨 일이 그러려니 하고 저 혼자 속으로 믿고 곁에 드러냄)를 위해서 자학(自虐 : 스스로 자기를 학대함)과도 같은 생활을 견디는 힘이 없이는 지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조의 매운 향기를 지닌 분들은 심한 고집과 기벽(奇癖 : 이상야릇한 버릇, 남과 다른 특이한 버릇)까지도 지녔던 것이다(그러므로 지조의 ~ 지녔던 것이다 : 지조를 지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강한 정신력을 지녔다는 뜻으로, 그만큼 지조를 지킨다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의지로는 힘든 일임을 말하고 있다). 신단재(申丹劑) 선생은 망명 생활 중 추운 겨울에 세수를 하는데 곳곳이 앉아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다 얼굴을 씻기 때문에 찬물이 모두 소매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어떤 제자가 그 까닭을 물으매, 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머리 숙일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무서운 지조를 지킨 분의 한 분인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지조 때문에 낳은 많은 기벽의 일화(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익과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다. 한 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채근담[萊根譚 : 전집(前集) 222조는 주로 벼슬한 다음, 사람들과 사귀고 직무를 처리하며 임기응변하는 사관보신(仕官保身)의 길을 말하며, 후집(後集) 134조는 주로 은퇴 후에 산림에 한거(閑居)하는 즐거움을 말하였다. 함께 356조는 모두 단문이지만, 대구(對句)를 많이 쓴 간결한 미문이다. 사상적으로는 유교가 중심이며, 불교와 도교도 가미되었다. 이 책은 요컨대 동양적 인간학을 말한 것이며, 제목인 '채근'은 송(宋)나라 왕신민(汪信民)의 소학(小學) 〈인상능교채근즉백사가성(人常能咬菜根卽百事可成)〉에서 따온 것이다. 제사(題詞)에도 이 저자가 청렴한 생활을 하면서 인격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인생의 온갖 고생을 맞본 체험에서 우려난 주옥 같은 지언(至言)이라고 적혀 있다]의 한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것이다. 끝까지 참고 견딜 힘도 없으면서 뜻있는 백성을 속여 야당(野黨)의 투사를 가장함으로써 권력의 미끼를 기다리다가 후딱 넘어가는 교지(狡智 : 간사한 재주와 지혜)를 버리라는 말이다. 욕인(辱人 : 남을 욕함)으로 출세의 바탕을 삼고 항거로써 최대의 아픔을 일삼는 본색을 탄로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충언의 근원을 캐면 그 바닥에는 변절하지 말라, 지조의 힘을 기르란 뜻이 깃들여 있다.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곧 자기가 심신으로 이미 신념하고 표방했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세워 놓은 주체의 자세를 뒤집는 것은 모두 다 넓은 의미의 변절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욕하는 변절은 개과 천선(改過遷善 :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의 변절이 아니고 좋고 바른 데서 나쁜 방향으로 바꾸는 변절을 변절이라 한다.

일제(日帝) 때 경찰에 관계하다 독립 운동으로 바뀐 이가 있거니와 그런 분을 변절이라고 욕하진 않았다. 그러나 독립 운동을 하다가 친일파(親日派)로 전향한 이는 변절자로 욕하였다. 권력에 붙어 벼슬하다가 야당이 된 이도 있다. 지조에 있어 완전히 깨끗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들에게도 변절자의 비난은 돌아가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 혐의(狹義)의 변절자, 비난 불신의 대상이 되는 변절자는 야당전선(野黨戰線)에서 이탈하여 권력에 몸을 파는 변절자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역력히 기억할 수 있다.

자기 신념으로 일관한 사람은 변절자가 아니다[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신념을 버리는 것이 변절이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변절이라고 할 수 없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치욕에 김상헌(金尙憲)이 찢은 항서(降書)를 도로 주워 모은 주화파(主和派) 최명길은 당시 민족 정기(民族正氣)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으나, 심양(瀋陽)의 감옥에 김상헌과 같이 갇히어 오해를 풀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얘기다.

최명길은 변절의 사(士)가 아니요 남다른 신념이 한층 강했던 이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누가 박중양(朴重陽), 문명기(文明琦) 등 허다한 친일파를 변절자라고 욕했는가. 그 사람들은 변절의 비난을 받기 이하의 더러운 친일파로 타기(唾棄)되기는 하였지만 변절자는 아니다.[그 이유는 절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일을 위하여 몸소 치욕을 무릅쓴 업적이 있을 때는 변절자로 욕하지 않는다. 앞에선 최명길도 그런 범주에 들거니와, 일제(日帝) 말기 말살되는 국어(國語)의 명맥(命脈)을 붙들고 살렸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민족 해방의 날을 위한 유일의 준비가 되었던 〈맞춤법 통일안〉, 〈표준말 모음〉, 〈큰사전〉을 편찬한 〈조선어 학회〉가 국민 총력 연맹 조선어 학회지부(國民總力聯盟朝鮮語學會支部)의 간판을 붙인 것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아무런 하는 일도 없었다면, 그 간판은 죽히 변절의 비난을 받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좌옹(佐翁), 고우(古友), 육당(六堂), 춘원(春園) 등 잊을 수 없는 업적을 지닌 이들의 일제 말의 대일 협력(對日協力)의 이름은 그 변신(變身)을 통한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나마 변절의 누명을 씻을 수 없었다[좌옹(佐翁),~ 씻을 수 없었다. : '국민 총력 연맹 조선어 학회 지부'라는 어용 단체로 전략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어 학회'는 한글을 지킨다는 민족적인 일을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비난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민족을 위한 아무런 업적이 없이 변신(變身)만을 한 이들은 변절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그분들의 이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은 우리의 기억이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이분들은 <반민 특위(反民特委)>에 불리었고, 거기서 그들의 허물을 벗겨 주지 않았던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명만 쓸 바에야 무위(無爲 :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한 채로 민족 정기의 사표(師表 : 학식·덕행이 높아 모범이 될 만한 사람)가 됨만 같지 못한 것이다.

변절자에게는 저마다 그럴듯한 구실이 있다. 첫째, 좀 크다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백이(伯夷)·숙제(叔齊)는 나도 될 수 있다. 나만이 깨끗이 굶어 죽으면 민족은 어찌느냐가 그것이다. 범의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는다는 투의 이론이요, 그 다음에 바깥에선 아무 일도 안 되니 들어가 싸운다는 것이요, 가장 하치(품질이 낮은 것)가, 예라 권력에 붙어 이권이나 얻고 가족이나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굶어 죽기가 쉽거나 들어가 싸운다거나 바람이 났거나 간에 그 구실을 뒷받침할 만한 일을 획책(劃策 : 계획을 세움)도 한 번 못해 봤다면 그건 변절의 낙인밖에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어떤 선비도 변절하여 권력에 영합해서 들어갔다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쓰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온 예를 역사상에서 보지 못했다. 연산주(燕山主)의 황음(荒淫 : 함부로 음탕한 짓을 함)에 어떤 고관의 부인이 궁중에 불리어 갈 때 온몸을 명주로 동여매고 들어가면서, 만일 육을 보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 놓고 밀실에 들어가서는 그 황홀한 장치와 향기에 취하여 제 손으로 명주를 풀고 눕더라는 야담이 있다. 어떤 강간(強姦)도 나중에는 화간(和姦 :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합의하여 육체적으로 관계함)이 된다는 이치와 같지 않는가.

만근(輓近 : 몇 해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근래) 30년래에 우리 나라는 변절자가 많은 나라였다. 일제 말의 친일 전향, 해방 후의 남로당 탈당, 또 최근의 민주당의 탈당, 이것은 20이 넘은, 사상적으로 철이 난 사람들의 주착없는 변절임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궤(同軌 : 같은 궤도, 같은 선상에 있음)다. 감당도 못할 일을, 제 자신도 율(律 : 다스리지)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민족이니 사회니 하고 나섰더라는 말인가. 지성인의 변절(절개를 저버림, 종래의 주의나 주장을 바꿈)은 그것이 개과 천선(改過遷善 :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됨)이든 무엇이든 인간적으로 일단 모욕을 자취(自取 : 제 스스로 만들어서 됨)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지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은 다음의 한 구절이다. '기녀(妓女)라도 그늘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냄새가 거리낌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 : 현철하고 정조가 곧은 아내)라도 머리털 선 다음에 정조(貞操 : 여자의 깨끗한 절조)를 잃고 보면 반생의 깨끗한 고절(苦節 : 곤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변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 가는 절개)이 아랑곳 없으리라.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려면 다만 그 후반을 보라.' 하였으니 참으로 명언이다.

차들에 바람이 들면 백 리를 날아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거니와, 늦바람이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차들에 바람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 오달진 사람일수록 한번 타락하면 검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 아직 지조를 깨뜨린 적이 없는 이는 만년(晩年)을 더욱 힘 쓸 것이니 사람이란 늙으면 더러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직 철이 안 든 탓으로 바람이 났던 이들은 스스로의 후반을 위하여 번연(飜然 : 모르던 것을 갑자기 환하게 깨닫게 됨)히 깨우치라. 한일 합방(韓日合邦) 때 자결(自決)한 지사 시인(志士詩人 : 지사인 시인) 황매천(黃梅泉)은 정탈(定奪 : 임금의 재결, 울고 그름을 가리어 결정함)이 매운 분으로 매천 필하 무 완인(梅泉筆下無完人 : 매천의 붓 아래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평생 의를 위해 지조를 지킨 황매천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난 표현으로, 그의 필봉 또한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이어서 당시의 인물들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했음을 알 수 있다.)이란 평을 듣거니와 그 <매천 야록(梅泉野錄)>에 보면, 민충정공(閔忠正公), 이용익(李容翊) 두 분의 초년 행적(初年行績 : 어렸을 때에 겪어 남긴 여러 일들)을 혈똥은 곳이 있다. 오늘에 누가 민충정공, 이용익 선생을 욕하는 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들의 초년을 모른다. 역사에 남은 것은 그분들의 후반이요, 따라서 그분들의 생명은 마지막에 길이 남게 된 것이다.

도도(滔滔)히(물이 그들먹하게 퍼져 흐르는 모양. 나오는 말이 물 흐르듯 거침이 없게, 벽찬 감정이나 주흥 따위를 막을 길 없게) 밀려 오는 망국(亡國)의 탁류(濁流)이 금력과 권력, 사악 앞에 목숨으로써 방파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지조의 함성을 높이 외치라. 그 지성 앞에는 사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나운 물결도 물러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천하의 대세가 바른 것을 향하여 다가오는 때에 변절이란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인가. 이완용(李完用)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를 위한 36년의 선견지명(先見之明 :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은 가졌었다[반어적 표현으로 이완용의 처신보다도 미련한 변절자들에 대한 비판].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력에 뒤늦게 팔리는 행색(行色 :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은 딱하기 짝없다[이완용은 나를 ~ 딱하기 짝이 없다 : 일본이 36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완용은 36년 동안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정권은 오래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빌붙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하고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배고프고 욕된 것(육체적인 것)을 조금 더 참으라. 그보다 더한 욕(정신적인 것)이 변절 뒤에 기다리고 있다.(사람들이 변절을 하는 이유는 본능적, 육체적 평안을 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쾌락을 위해 지조를 버린다면 그 이후 타인들의 비난이 오래도록 이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육체적, 경제적 욕됨보다 정신적인 욕됨이 더 치욕적임을 뜻한다.)

'소인기(少忍飢 : 배고픔을 좀 참으라)하라[한 순간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지조를 팔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지조를 팔아서 안 된다는 말.]' 이 말에는 뼈아픈 고사(故事)가 있다. 광해군(光海君)의 난정(亂政 : 어지러운 정치) 때 깨끗한 선비들은 나가서 벼슬하지 않았다.

어떤 선비들이 모여 바둑과 청담(淸談 : 명리를 떠난 청아한 이야기, 속세의 현실과 관계 없는 이상적 이야기)으로 소일(消日)하는데, 그 집 주인은 적빈(赤貧 : 몹시 가난함)이 여세(如洗 : 씻어낸 것처럼)라[적빈이 여세라 : '물로 씻어낸 듯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함'을 비유한 말로 가난하기가 마치 물로 씻은 듯 심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음, 삼순구식(三旬九食 :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 책력을 보아 가며 좋은 날만을 택하여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가난하여 끼니를 자주 거른다는 말.], 그 부인이 남편의 친구들을 위하여 점심에는 수제비국이라도 끓여 드리려 하니 뭇나무가 없었다. 껌을 뜯어 도마 위에 놓고 식칼로 쪼개다가 잘못되어 젖을 찌고 말았다.

바둑 두던 선비들은 갑자기 안에서 나는 비명을 들었다. 주인이 들어갔다와서 사실 얘기를 하고 추연(然 :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게, 정색을 하여 엄정한 빛이 있게, 슬픈 표정)히 하는 말이, 가난이 죄라고 탄식하였다.

그 탄식을 듣고 선비 하나가 일어나서며, 가난이 원순 줄 이제 처음 알았느냐고 야유(상대를 비난하고)하고 간 뒤로 그 선비는 다시 그 집에 오지 않았다. 몇 해 뒤에 그 주인은 첫 뜻(지조)을 바꾸어 나가 벼슬하다가 반정[反正 :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대신 세우는 일, 여기서는 조선조 16대 인조(仁祖)가 서인(西人)의 힘을 입어 광해군(光海君)을 폐하고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여 선조(宣祖)의 대통(大統)을 이은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년)을 뜻함]때 몰리어 죽게 되었다.

수레에 실려서 형장(刑場)으로 가는데 길가 숲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수레를 잠시 멈추게 한 다음 가지고 온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을 내놓고 같이 나누며 영결(永訣 :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영원한 이별)하였다.

그 때 친구의 말이, 자네가 새삼스레 가난을 탄식할 때 나는 자네가 마음이 변할 줄 이미 알고 발을 꿇었다(교제를 꿇었다)고 했다[선견지명(先見之明) :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고기밥 맛에 끌리어 절개(첫뜻)를 팔고 이 끌이 되었으니 죽으면 고기 맛(부귀영화)을 못 잊어서 어찌겠느냐는 야유가 숨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찾는 것은 우정이었다.

죄인은 수레에 다시 타고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탄식하였다. '소인기 소인기(少忍飢 少忍飢)하라[한 순간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지조를 팔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원래 뜻은 배고픔을 좀 참으라는 말인데 배고픔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변절자에게도 양심은 있다(변절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소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변절자 최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구구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변명을 삼가라는 뜻으로 변절에 대해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 야당에서 권력으로 팔린 뒤 거드럭거리다 이내 실세(失勢 : 세력을 잃음)한 사람도 있고 갓 들어가서 애교를 떠는 축도 있다. 그들은 대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표면으로 성명은 버젓하나 뜻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얼굴에는 수치(수치의) 감정이 역연하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란 것이다. 구복(口腹)과 명리[김상헌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에서의 '구름'과 같은 의미]를 위한 변절은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좋다. 자기 변명은 도리어 자기를 꺾는 것이기

滿開(만개) : 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때문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핑계는 있다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왜 아기를 배게 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창피하지 않은가.

양가(良家 : 양민의 집)의 부녀가 놀아나고 학자 문인까지 지조를 헌신짝같이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으니 변절하는 정치가들은 우리쪽이야 괜찮다고 자위할지 모르다[양가의 부녀가 - 자위할지 모르다. : 현 세태의 보편적 분위기를 일러 주고 있다. 지조를 지키기 어려운 세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지조는 어느 때나 선비의, 교양인의, 지도자의 생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조를 잃고 변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자임(自任 : 스스로 무슨 일을 임무로 함.)하는 바를 포기하는 것이다.

滿開 만개

滿開(만개) : 꽃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 이해와 감상

이 글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재현하고 있다. 글쓴이는 다듬잇돌과 다듬이 방망이에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을 떠올리고 있으며, 다듬잇돌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추상어나 개념어보다는 구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함축적인 의미가 강한 고유어를 써서 서정적인 느낌과 전통적 색채를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요점 정리

◆갈래 및 성격 : 경수필, -회고적 · 서정적 · 낭만적-

◆특성

* 현재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비교함.

*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진정성을 느끼게 함.

* 구체어, 고유어로 함축적 의미를 드러냄.

◆주제 : 다듬이에 대한 추억과 옛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출전 : <한국인의 향수>(1996)

● 생각해 보기

◆ 정진권이 제시한 수필 문학의 특징

1. 언어는 함축적이고 독자의 정서에 호소해야 한다.
2. 수필가는 사실을 모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수필 문학도 예술인 한, 독자에게 예술적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수필도 문학이므로 언어의 정교한 구조물이어야 한다.

◆ 수필이 독자에게 주는 것

수필은 때때로 지식을 전달한다.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만일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미칠 수가 없다. 수필이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서적 만족이다. 그것은 감동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다. 더러 독자는 이런 만족을 맛보기 위하여 수필을 읽는 것이다.

● 작품 읽기

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한 일이 있다. 그대 나는 다듬잇돌을 들여다 실으면서 잠시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나는 어려서 다듬이질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풀 먹인 흰 빨래가 꼬뽀해지면, 다듬잇돌에 맞게 네모로 접어놓고 방망이질을 했다. 빨래가 너무 마르면 입으로 물을 뿜어서 다시 꼬뽀하게 한 뒤에 다듬이질을 했다. 나는 이따금 바가지로 찬물 심부름도 했다. 다듬이질은 혼자서도 하고 둘이 마주앉아 하기도 했다. 혼자 하는 소리는 좀 둔탁한 느낌이었지만, 맞다듬이질을 할 때의 그 소리는 경쾌하고도 청량한 것이었다.

취영청 달이 밝은 가을밤에 혼자 뒷간에 앉아 있자면, 마을은 온통 그 경쾌하고 청량한 다듬이 소리투성이였다. 소년은 그 다듬이 소리에 취했다가 달 한 번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생 각난 듯이 아랫배에다 힘을 주었다.(글쓴이가 다듬이 소리를 들으며 뒷간에서 달을 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서정적인 분위기가 청량한 소리와 어우러지고 있다.) 그러다가 뒷간을 나와 보면, 환히 불 밝은 아랫방 문에 맞다듬이질하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때 사립문 뒤에 세워 놓은 수숫대의 마른 잎사귀가 우수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어디선가 킁킁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다듬이질을 하다가 밤이 이슬해지면, 감 껍질 말린 것을 내다 놓고 주근주근 먹었다. 도토리묵이나 메밀묵으로 밤참을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면 소년은 배 아픈 핑계로 흥시나 곶감을 즐 랐었다. 흥시나 곶감을 먹으면 설사도 그친다고 했다.

다듬잇돌은 여름에도 차가웠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어느 날, 나는 그 서늘한 다듬잇돌을 베고 누운 일이 있다. 그때 어머니가 이걸 보시고는 깜짝 놀라 일으켜 앉히셨다.

"다듬잇돌을 베고 누우면 입이 돌아간다. 알았니?"

滿開(만개) : 글이 활짝 피다.

<http://blog.daum.net/hachunman>

그 후 나는 한 번도 그걸 벤 일이 없다. 찬 것을 베고 누우면 안면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말은 내가 다 커서 들은 것이다.(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마치 현재 일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이 글쓴이의 어린 시절과 현재를 중첩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듬잇돌을 보면, 그때 어머니가 놀라시던 그 모습도 문득 떠오를 때가 있다.

다듬이 방망이를 보아도,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산골로 피란을 갔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호열자가 돌아서 온 동네에 울음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다. 그때 세 살이던 내 아우도 그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하루 스물네 시간씩 한 주일을 견디셨다. 온몸에 마마 같은 것이 마치 팔을 삶아 뿌린 듯이 돌아서 방바닥에 누일 수가 없었다. 얼굴도 눈코를 분간할 수 없고, 입 안도 다 터져서 쌀 한 톨 넣을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국수를 만들었다. 우선 밀가루를 개고, 그것을 다듬이 방망이로 얇게 밀어서 가늘게 썰어다가 끓이는 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한 가닥씩 아우의 입에 넣어 주셨다.(글쓴이와 어머니는 병 때문에 입안이 상해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우에게 다듬이 방망이로 국수를 만들어 먹고 있다. 여기서 국수와 다듬이 방망이는 아우에 대한 두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자다가 문득 깨서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그 애를 안고 말없이 들여다보고 계셨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 가장 간절한 기원이 담긴 그런 눈이었다. 아, 우리 어머니의 그 애절한 기구(祈求)가 하늘에 사무쳤음인가, 내 아우는 마침내 살아났다. 그 애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그 눈을 생각했다. 그 애의 콧잔등에는 지금도 마마 자국이 몇 개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애는 그 자국에 어린 슬픈 사연을 모를 것이다. 아니,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인들 무엇을 안다 하랴.(성인이 된 아우를 보면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걱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자식이 평가하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다듬잇돌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물에 빨아서 다리지도 않고 입는 옷의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내 아내는 그것으로 복어나 두들길 뿐이다.

만개